

# 일본군‘위안부’ 연구 성과와 과제 국제학술회의

일시: **2016.12.16(금)** 13:00~18:30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 국제학술회의 일정표 ]

- 환영사 : 김호섭 (金浩燮,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13:00~13:10

### 제1부 : 일본군'위안부' 연구 성과와 과제 13:10~15:00

- 미국 : 알렉시스더든 (Alexis Dudden, 코네티컷대)
- 중국 : 쑤즈량 (蘇智良, 상하이사범대학)
- 대만 : 주더란 (朱德蘭, 중앙연구원 인문사회과학연구센터)
- 한국 : 서현주 (徐賢珠, 동북아역사재단)

### 제2부 : 일본군'위안부' 자료 발굴 현황과 과제 15:20~16:40

- 일본 자료 : 고바야시 히사토모 (小林久公,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자료팀)
- 중국 자료 : 조옥결 (趙玉潔, 지린성당안관)
- 미국, 유럽 자료 : 강성현 (康誠賢,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 한국 자료 : 한혜인 (韓惠仁,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 제3부 : 종합토론 17:00~18:30

- 사회 : 하종문 (河棕文, 한신대)
- 토론 : 이나영 (李娜榮, 중앙대), 김창록 (金昌祿, 경북대), 강정숙 (姜貞淑, 성균관대), 박정애 (朴貞愛, 동국대), 풍효충 (馮曉忠, 지린성당안관), 최종길 (崔鐘吉, 고려대), 남상구 (南相九, 동북아역사재단)

# [ 국제학술회의 목차 ]

---

## 제1부: 일본군'위안부' 연구 성과와 과제

발표1 : 알렉시스 더든 (Alexis Dudden, 코네티컷대)

사실이라는 믿음 : 역사와 책임 \_\_\_\_\_ 11

Being Believed : History and Responsibility \_\_\_\_\_ 16

발표2 : 쑤즈량 (蘇智良, 상하이사범대학)

중국의 일본군'위안부' 연구 \_\_\_\_\_ 31

中国における日本軍「慰安婦」研究 \_\_\_\_\_ 38

中国的日军“慰安妇”研究 \_\_\_\_\_ 45

Chinese Research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_\_\_\_\_ 51

발표3 : 주더란 (朱德蘭, 대만 중앙연구원 인문사회과학연구센터) \_\_\_\_\_ 61

일본군국주의의 군수품 - 대만 '위안부' 연구 관점 \_\_\_\_\_ 89

日本軍国主義の軍需品—台湾における「慰安婦」研究の視点 \_\_\_\_\_ 116

日本軍國主義的軍需品—臺灣 '慰安婦' 研究 觀點

Munitions of Japanese Militarism A Research Perspective on Taiwanese  
'Comfort Women' \_\_\_\_\_ 141

발표4 : 서현주 (徐賢珠, 동북아역사재단)

최근의 한국 내 위안부문제 연구 현황과 과제 - 역사 분야를 중심으로 \_\_\_\_\_ 173

最近における韓国内の慰安婦問題研究の現況と課題—歴史分野を中心に \_\_\_\_\_ 181

最近韩国慰安妇问题研究情况与课题 - 以历史领域为中性 \_\_\_\_\_ 191

---

---

## 제2부: 일본군'위안부' 자료 발굴 현황과 과제

발표1 : 고바야시 히사토모 (小林久公,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자료팀)	
일본정부가 보유 중인 '위안부' 관련 문서의 경계선에 대하여	203
日本政府が保有している「慰安婦」関係文書の境界線について	208
日本政府“慰安婦”相关档案之界线	214
About the Boundaries of 'Comfort Women'-related Documents Held by the Japanese Government	219
발표2 : 조옥결 (趙玉潔, 지린성당안관)	
한일화해 배경의 중국 '위안부' 자료 발굴 및 연구	229
日韓和解の背景となる中国における「慰安婦」史料の発掘と研究	247
日韩和解背景下中国“慰安妇”史料的发掘与研究	265
Korea-Japan Reconciliation and Chinese Research into 'Comfort Women' Issue and Evidence Collection Efforts	280
발표3 : 강성현 (康誠賢,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일본군'위안부' 미국 자료 발굴 현황과 과제	307
日本軍「慰安婦」米国資料の発掘の現況と課題	327
日军“慰安妇”美国资料发掘情况与课题	345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Current Status of the Discovery of U.S. Data and Challenges	364
발표4 : 한혜인 (韓惠仁,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한국에서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발굴 및 그 활용	371
韩国日军“慰安妇”相关资料的发掘与利用 - 对证言需要进行史料验证	384

## 제3부: 종합토론

토론 : 풍효충 (馮曉忠, 지린성당안관)	
지린(吉林) 성 문서보관소 소장 관동헌병대 문서 발굴	401
吉林省档案馆馆藏关东宪兵队档案挖掘	413

---



일본군'위안부' 연구 성과와 과제 국제학술회의

---

## 제1부

# 〈일본군'위안부' 연구 성과와 과제〉

---

- 발표1 : 사실이라는 믿음: 역사와 책임  
알렉시스더든 (Alexis Dudden, 코네티컷대)
- 발표2 : 중국의 일본군'위안부' 연구  
쑤즈량 (蘇智良, 상하이사범대학)
- 발표3 : 일본군국주의의 군수품 대만 '위안부' 연구 관점  
주더란 (朱德蘭, 중앙연구원 인문사회과학연구센터)
- 발표4 : 최근의 한국 내 위안부문제 연구 현황과 과제  
서현주 (徐賢珠, 동북아역사재단)



발표 1

---

일본군'위안부' 연구 성과와 과제 국제학술회의

# 사실이라는 믿음: 역사와 책임

알렉시스더든 (Alexis Dudden, 코네티컷대)

---



# 사실이라는 믿음: 역사와 책임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젝트에 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정말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그 동안 전쟁 당시 일본의 성 노예 제도가 야기한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들이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업적입니다. 또한 이 업적은 ‘할머니’들께 온당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사가로서, 휴머니스트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제가 가장 감사한 분들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일본 본토에서까지, 과거 일본 제국 영토 전역에 걸쳐, ‘할머니’들의 개별적인, 그리고 또 집단적인 용기와, 자신의 삶의 진실을 주장하려는 불굴의 의지가 후대에 그들을 알렸습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는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배우고,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역사, 특히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역사를 접근함에 있어 공감이라는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은 사실입니다. 모든 생존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서로 다른 순간들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억합니다. 이 것이 삶이 살아지는 방식이자 역사가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에 제출된 기록들은 할머니들의 증언을 더 자세히 서술하고 확증하며, 들으려 하는 자들에게 전쟁 당시 일본의 성 노예 제도에 간헐했던 사람들이 겪은 공포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던 순간부터 설명했듯이, 그들은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싶어합니다. 유네스코에 제출된 기록들은 미래에 이런 범죄를 방지하는 것을 돕는 서재를 형성합니다. 이 같은 구조적 폭력은 오직 그 내부적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만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개별적이지도 집단적인 역사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Mother Jones’로 알려진 아일랜드계 미국인 노동 운동가 Mary Harris Jones의 유명한 격언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산 자를 위해서 지옥처럼 싸워라.”

우리는 전쟁 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의 참사가 지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할머니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이야기의 진실을 입증하는 유네스코에 제출된 기록들로부터 계속 배워나가야 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일본에서 일본어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일본 국가 지원 하에 군대에 파견된 성노예 제도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학 교과서가 있었지만 당시 저의 훌륭한 언어 선생님께서는 교과서가 일본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종종 “어떤 일본인도 그런 말은 쓰지 않아!”하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1991년 가을 학기, 선생님께서는 우연하게도 신문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번역한 기사들 중에는 그 해 8월 김 학선 할머니의 용감한 선언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특히 한국이나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었고,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단어들을 찾는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저는 1991년 당시 일본의 성 노예 제도 피해자들에 대한 기사가 일본 대중에게 품위를 가지고 보도되었던 것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들은 생존자들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료들이 그 여성들의 증언이 진실임을 인정하기까지는 몇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에서야 속죄를 위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 일본의 대중들은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바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가 지나며 할머니들을 거짓말쟁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웃사이더였던 세계 할머니들을 거짓말쟁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한국 여성들만을 공격하고, 비슷한 증언을 한 필리핀, 대만, 그리고 일본의 여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로부터 저는 증언들의 진실과는 별개로 특정한 증언들의 신빙성을 저해하려는 노력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의 맥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할머니들의 집단적 증언이 지금과, 또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과거 일본제국 전역에 걸친 기록을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것이 왜 의미를 가지는지, 그 핵심을 설명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사적 맥락의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역사를 맞닥뜨릴 때, 그 아웃사이더를 역사적

맥락 안으로 이끄는 것은 생존자들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할머니들의 공식 발표가 있을 때마다 이런 현상을 반복적으로 목격합니다. 청중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든 아니든, 할머니들의 기억이 가지는 감정적 힘은 매우 명확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유네스코 기록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모은 물건들에는 여행 허가증, 장비 신청서, 주둔지 건축 프로젝트와 같은 공적 문서들처럼 국가 기관의 개입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마주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영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할머니들이 살아남아야 했던 참혹한 경험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일본과 다른 지역에서 오래 전 발표된 증언들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 증언들은 이 성 노예 제도의 역사가 일본 제국에 얼마나 만연했으며 이 것이 인류의 소유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 제출 성명이 명시하듯, “이번 등재의 목표는 일본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성 노예의 비극적 진실과 인권 침해를 인권단체들과 함께 생존자 스스로가 극복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을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언은 20년 전 발표된 것입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이 생존자는 열 네 살 때 부모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2005년에 죽었지만, 그 전에 그녀가 있었던 스키장의 주둔지에서 일들을 포함한 기록을 녹음했습니다:

군인들이 전투에서 돌아오면 많게는 20명씩 아침부터 내 방에 찾아왔다. 이게 내가 20대에 자궁 절제술을 받을 수 밖에 없던 이유다. 그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던 어린 소녀들을 데려왔는데 성기가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찢어지고 감염됐다. 그 곳엔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약과 머큐로크롬 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아팠고, 상처에는 패혈증이 생겼지만 치료는 없었다.

군인들은 중국인들에게 참호에 베틀을 깔게 한 다음에 소녀들을 데려 왔다. 침구 같은 것은 없었고 밑에는 흙뿐이었다. 당시에는 전기가 없고 기름램프뿐인데 그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 애들은 어둠 속에서 “엄마 아파요 엄마 배고파요” 하고 울었다. 우리는 우리가 남긴 음식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그 참호 안에는 아프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많았다. 몇몇은 결핵을 앓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날 참호 안으로 끌고 갈까봐 무서웠고 들어가기 싫었다. 램프가 있었다면 갈 수도 있었는데, 누가 죽으면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다. 그러다 참호 속 누가 독에 걸렸고 군인들은 그 참호를 물어버렸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참호를 팠다.

두 번째로 읽을 증언은 대만에서 태어난 여성의 증언으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나서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 그녀는 50년동안 함께한 남편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에 따르면:

하루는 일본 경찰이 전화를 해 일자리가 있으니 나더러 오라고 했다. 그들은 내가 군인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옷을 수선할거라 했다. 가기 싫었지만 경찰은 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 국가총동원법(National Mobilization Law)에 의해 모든 남녀가 다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일을 하러 갔다. 많은 군인들을 봤고, 나 같은 여자도 있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군인들에게 줄 아침식사를 준비했다. 우리는 그들의 옷을 빨고 수선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는 방으로 불러갔다... 그건 끔찍한 일(job)이었다. 나는 울기만 했다. 낮에는 옷을 꿰매고 빨래를 했다. 그건 쉬웠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죽었다. 나는 죽어가고 있었다. 내가 죽은 것 같다고 느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길을 몰랐다. 문에는 군인들이 서 있었다. 도망을 치면 총에 맞았다. 나는 너무 어렸고 아무 것도 몰랐다. 내가 임신한 줄도 몰랐다. 먹은 걸 자꾸 토하게 되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여자가 내가 임신했다고 말해줬다. 두 달 뒤 나는 유산을 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눈물이 난다.

세 번째 증언은 필리핀에서 온 것입니다:

나는 주둔지로 만들어진 병원에서 지내도록 강요됐다. 이 삼일 후 나는 주둔지에 있던 여섯 명의 여자를 만났다. 일본 군인들은 강제적으로 나를 데려다 자기 동료들과 성관계를 맺게 했다. 어떨 땐 12명의 군인들이 자기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한 다음 나를 좀 쉬게 하더니 다시 12명과 관계를 가지게 했다.

설 시간 없이 없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나를 범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지쳐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다 끝나서야 우리에게 쉬는 걸 허락했다. 아마 그 곳에 우리가 일곱명이나 있어서 인당 상대하는 군인의 수가 적었던 걸지도 몰랐다. 나는 그 곳에 세 달 있다가 이곳 앙헬레스의 쌀 공장에 오게 됐다. 우리는 밤에 수송되었다. 쌀 공장에 도착하니 또 같은 일이 벌어졌다. 어떨 때는 아침에, 어떨 때는 오후에... 20번도 더 되었다. 때로 우리는 일본인 구역이나 집으로 끌려갔다. 난 파민투안 저택을 기억한다. 거기에 몇 번이나 불러갔었다. 거절하면 죽임을 당했다. 아침에는 경비가 있었다. 주둔지 안은 돌아다녀도 되지만 나갈 수 없었다. 같이 있던 여자들과 대화도 할 수 없었다. 두 명은 중국인인 것 같았고 나머지는 나처럼 팜팡가 출신인 것 같았다. 그렇지만 서로 대화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증언들에서 알 수 있듯, 각각의 생존자가 기억하고자 하는 방식에 따라 각각의 증언에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각각의 증언이 서로 뚜렷하게 공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바로 할 수 있었지만, 다른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삶을

끝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단언하고자 하는 문서화 과정은 과거 일본 제국 영토 전역에서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삶의 진실을 이야기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생존자들은 일본 정부가 그들의 집단적 역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휴머니스트로서 우리는 할머니들의 역사를 알려야 하는 개인적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생존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국가 조직과 국가 지원의 참여가 있었어야만 가능한 수준의 폭력—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의 국가적 부인(denial)이 있어야지만 부정할 수 있는 수준의 폭력—을 경험한 다른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할머니’들은 오늘날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증언을 공식적으로 진실이라 인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엄을 되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 동안 여기 서울의 거리에서, 그리고 제 나라의 거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며, 저는 엘레노어 루즈벨트가 인용하기 좋아했던 중국 속담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 발표를 그 속담과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언젠가 중국 ‘할머니’께서 제게 이 말을 중국어로 하는 법을 가르쳐주시길 기원하면서 말입니다.

“어둠을 타하기 보다는 촛불을 켜는 것이 낫다.”

우리는 앞으로도 촛불을 켜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촛불을 들고 어둠 속에서 소리도 질러야 하겠지요.

감사합니다.

# 事実だと信ずる心：歴史と責任

Alexis Dudden (University of Connecticut)

本日はこの場にお招き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ユネスコ「世界の記憶」プロジェクトへの記録の提出は、まさに必須です。これは、今、そしてこれからも、戦時の日本の性奴隷制度が引き起こした悲惨な犯罪の被害者がこれまで世界に知らせようとしてきた真実を示すことのできる成果です。また、この成果は「ハルモニ」たちに正当な焦点が当てられています。歴史家として、ヒューマニストとして、母親として、そして教師として、私が最も感謝している方々です。

ソウルだけでなく、日本本土にまでも、過去の大日本帝国の領土全域にわたる「ハルモニ」たちの個別の、また集団的な勇気と、自分の人生の真実を主張しようとする不屈の意志が、彼女たちの存在を後代に知らせました。彼女たちから我々は、彼女たちの経験した痛みを学び、彼女たちは我々に、彼女たちの歴史、特に彼女たちが生き抜いてきた歴史に接近する際に共感を持つことの重要性を教えてくださいました。

「ハルモニ」の証言は事実です。すべての生存者は自らの人生において互いに異なる瞬間を互いに異なる形で記憶しています。これが人生を生きるということであり、歴史の仕組みであるためです。ユネスコに提出された記録は、ハルモニたちの証言をより詳細に記述したものであり、また、彼女たちの証言を裏付けるものであり、耳を傾けようとする者に、戦時の日本の性奴隷制度に動員された人々が経験した恐怖に対するより深い理解を与えてくれます。

これらの女性が自らの話を公に共有し始めたときから説明していたように、彼女たちは自分が経験した悲惨な出来事を世界に知らせることで、このようなことが繰り返されることを防ぎたいと考えています。ユネスコに提出された記録は、未来において同様な犯罪の再発防止に役立つ書庫を形成します。このような構造的暴力は、その内部的な仕組みを理

解することによってのみ、再発を防ぐ方法を学ぶことができます。

ハルモニたちの個別的かつ集団的な歴史に対する記録を提出することは「マザー・ジョーンズ」として知られているアイルランド系アメリカ人の労働活動家、メアリー・ハリス・ジョーンズの有名な格言を改めて思い起こさせます。：「死んだ者のために祈り、生きている者のために地獄のように戦え」

我々は、戦時に組織的かつ構造的な暴力の惨事が続くことを知っています。だからこそ我々は、ハルモニたちの話と、彼女たちの話が真実であることを立証するユネスコに提出された記録から引き続き学んでいく必要があります。

私は、大学生の時に日本で日本語を学んでいた時に、日本の国家支援の下に軍隊に派遣された性奴隷制度の歴史について初めて知りました。語学の教科書がありましたが、当時の私の素晴らしい日本語の先生は、教科書が日本語をきちんと教えていないと考えていました。先生はたびたび「日本人はだれもそのような言葉は使わない！」とも仰っていました。1991年の秋学期、先生は偶然にも新聞記事を通じて学生たちに読み書きを教えていました。学生たちが読んで翻訳した記事の中には、その年の8月になされた金学順ハルモニの勇気ある宣言についての記事もありました。学生たち、特に韓国や日本、フィリピン、インドネシア、シンガポール以外の出身者にとっては、その内容は全く新しいものであり、内容を理解するために辞書を引くの多くの時間を費やしました。

私は、1991年当時、日本の性奴隷制度の被害者に対する記事が日本国民に敬意を持って報道されたことを決して忘れません。別の言い方をすれば、彼らは生存者の言葉を信じていました。日本政府の官僚が彼女たちの証言が真実であることを認めるまでには、数ヶ月以上の時間がか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一歴史的記録によれば、日本政府は1993年の河野談話に至ってようやく贖罪のための試みを始めています一、日本の大衆は生存者の話をそのまま信じていました。

ところが、1990年代が過ぎてから、ハルモニたちを嘘つき呼ばわりする者が徐々に出てきました。部外者であった私にとって、ハルモニたちを嘘つき呼ばわりする者は、ほとんどが韓国人女性のみを攻撃し、同様な証言を行ったフィリピン、台湾、そして日本の女性に対しては何の反応も示していないように見えました。ここから、私は各証言の真実とは別個に、特定の証言の信憑性を阻害しようとする働きかけが存在するののかについて疑問を持つようになりました。そして、これを理解するために歴史的脈絡を研究しはじめました。

私は、今日お話しする内容においてこの部分を強調したいと思います。この部分は、ハ

ルモニたちの集団的証言が、今、そして未来のためにどれだけ重要であるか、また、過去の大日本帝国全域にわたる記録をユネスコに提出することがなぜ意味を持つのか、その核心を説明してくれるためです。

ある歴史的脈絡の外部にいる者がある歴史に遭遇したとき、その部外者を歴史的脈絡の中に導くのは生存者の証言です。我々はハルモニたちの公式発表があるたびに、このような現象を繰り返し目撃しています。初めて聞いた話であるかそうでないかにかかわらず、ハルモニたちの記憶が持つ感情的な力は非常に明確であり、多くの聴衆がこの歴史についてもっと知りたいと考えるようになります。ここで、ユネスコ「世界の記憶」プロジェクトの重要性を想起することができます。

未来の世代のために集めたものの中には、渡航許可証、装備申込書、駐屯地建築プロジェクトといった公文書のように、国家機関の介入を証明する明確な証拠があります。

このような事実を拒もうとしている人々は、何から目を背けようと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我々が完全に理解することは永遠にできないでしょうが、おそらくハルモニたちが生き残るしかなかった悲惨な経験と関係があるはずです。ここで、お許しいただければ、私は日本とその他の地域でずいぶん前に発表された証言を引用したいと思います。これらの証言は、この性奴隷制度の歴史が大日本帝国にどれだけ蔓延していたのか、そして、これが人類の財産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世界の記憶」登録に向けて提出した声明が明示しているように、「今般の登録の目標は、日本を非難するものではなく、戦時中の性奴隷の悲劇的な真実と人権侵害を、人権団体らと共に、生存者自身が克服したことを示す記録を保全しようとするもの」です。

最初の証言は、20年前に発表されたものです。韓国人の父親と日本人の母親を持つこの生存者は、十四歳の時に両親と離れ離れになりました。彼女は2005年に亡くなりましたが、亡くなる前に彼女がいた石家荘市駐屯地での出来事を含む記録を録音しました。

軍人らが戦闘から戻ってくると、多いときは20人ずつ朝から私の部屋にやってきた。これが、私が20代で子宮の摘出手術を受けるしかなかった理由だ。彼らは、まだ学校に通っていた幼い少女らを連れてきたが、性器がまだ発達しておらず、裂けて感染した。そこには、性病を予防するための薬と赤チンしかなかった。子供たちは痛み、傷には敗血症ができたが、治療はなされなかった。

軍人らは、中国人らに塹壕に藁を敷かせた後、少女らをそこに入れた。寝具のようなものはなく、下は土だけだった。当時は電気がなく、石油ランプだけだったが、それさえも

与えられなかった。少女たちは暗闇の中で「お母さん、痛いよ。お母さん、お腹が空いたよ」と泣いていた。私たちは自分たちの残り物だけでもあげたかったが、その塹壕の中には病気で精神的障害のある者が多かった。何人かは結核を患っていた。私は、彼らが私を塹壕の中に引き込むのではないかと恐れたし、中に入りたくなかった。ランプがあれば、行くこともできたが。誰かが死ぬと、子供たちは恐怖で泣き始めた。そのうち、塹壕内の誰かが毒に侵され、軍人らはその塹壕を埋めてしまった。そして、その横に新しい塹壕を掘った。

二つ目に紹介するのは、台湾で生まれた女性の証言で、多くの人々が証言してから、ようやく勇気を出すことができた女性の話です。それまで彼女は、50年間を共にした夫も含め、誰にも自分の話をできずにいました。彼女の記憶によれば、

ある日、日本の警察が電話をかけてきて、働き口があるから私に来るように言った。彼らは、私に軍人らの食事を準備し、服の修繕をする仕事だと言った。行きたくなかったが、警察は国が戦争をしているため、国家総動員法 (National Mobilization Law) により、すべての男女が参加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った。そのため、私は仕事をしに行った。多くの軍人らを見たし、私のような女もいた。私たちは朝起きて顔を洗い、軍人らの朝食を準備した。私たちは彼らの服を洗い、修繕した。そして、夜になると、私たちは部屋に呼ばれた…。それは悲惨な仕事 (job) だった。私は泣いてばかりいた。昼は服を縫い、洗濯をした。それは簡単だった。だが、夜になると私は死んだ。私は死ぬのだと思った。自分が死んだように感じた。逃げたかったが、道が分からなかった。門には軍人らが立っていた。逃げようとすれば、銃で撃たれた。私はとても幼かったし、何も分からなかった。自分が妊娠したことも知らなかった。食べたものをしきりに吐くようになった。それを見て、一緒にいた女が私が妊娠していると教えてくれた。二ヵ月後、私は流産した。今、思い返しても涙が出る。

三つ目の証言は、フィリピンからのものです。

私は駐屯地として作られた病院で過ごすように強要された。この三日後、私は駐屯地にいた六人の女と出会った。日本の軍人らは、強制的に私を連れて行き、自分の同僚らと性交渉を持たせた。あるときは12人の軍人が性交渉をさせた後、私をしばらく休ませると、また12人と関係を持たせた。

休む時間はなかった。彼らは絶え間なく私を犯した。そのため、私たちは疲弊し切っていた。彼らは、自分たちがすべて終わったときにのみ、私たちを休ませた。おそらく、そこには私たちが7人もおり、一人当たりが相手をする軍人の数は少な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私はそこに三ヶ月いたあと、ここアンヘレスの精米工場に来ることになった。私たちは夜に運ばれた。精米工場にやってくると、また同じことが起こった。ある時は朝に、ある時は午後に…。20回以上にもなった。時には、私たちは日本人区域や家に連れて行かれた。私はパミントウアンの邸宅を憶えている。そこに何度も呼ばれた。断れば殺された。朝には警備がいた。駐屯地の中は歩き回っても良いが、出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一緒にいた女たちと会話することさえできなかった。二人は中国人のようであったし、残りは私のようにパンパンガ出身のようであった。だが、互いに話しを交わすことは禁止された。

これらの証言から分かるように、それぞれの生存者がどのように記憶しておこうとするかによって、それぞれの証言には差が存在しています。しかし、はっきりとしているのは、それぞれの証言が互いに明らかに共鳴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女性たちは、互いに異なる人生を送ることになりました。場合によっては、彼女たちは愛する人に自分の話をすぐにもすることもできましたが、誰にも話すことなく生を終えたケースもありました。

今日この場に我々が集まって確認しようとしている文書化の過程は、過去の大日本帝国の領土全域における「ハルモニ」たちが、我々に教訓を与えるために自分の人生の真実を話したという点を明確にさせます。

この段階で、我々は、彼女たちが自らの話を通じて我々にどうして欲しいと考えているのかという問い掛け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その答えは簡単です。生存者は日本政府が彼女たちの集団的歴史に対する国家の責任を認めることを望んでいます。ヒューマニストとして、我々はハルモニたちの歴史を発信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個人的責任を持っていますが、同時に、生存者が望んでいるのはそれ以上のものです。国家組織と国家支援の参加があつてこそ可能な水準の暴力—そして、最も高い水準での国家的否認 (denial) があつてこそ否定し得る水準の暴力—を経験した他の集団と同様に、「ハルモニ」たちは現在の日本政府を代表する者たちが彼女たちの証言を公式的に真実であると認めることで、自らの威厳を取り戻すことを望んでいます。

明らかに、我々には、まだなすべきことが残っています。

これまで、ここソウルの街で、そして私の国の街で起こった出来事を見ていて、私はエレノア・ルーズベルトが好んで引用した中国の諺を何度も思い出しました。そして、私の発表をその諺とともに終えたいと思います。いつか中国の「ハルモニ」がこの言葉を中国語でなんと言うのか教えてくださいを期待しています。

「暗闇を不安に思うより、一本のろうそくに火を灯しなさい」

我々はこれからもろうそくに火を灯し続けるでしょう。おそらく、ろうそくを持って暗闇の中で声を張り上げる必要もあるでしょう。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 Being Believed: History and Responsibility

Alexis Dudden (University of Connecticut)

I would like to thank the organizers of today's symposium, particularly Shin Heisoo, Han Hyein, Yang Hyun Ah, and many others for making this event happen. Thank you so much for including me today to witness what is taking place.

The submission of documents to UNESCO's Memory of the World Project is truly vital. This is an accomplishment that for now and for the future will continue to demonstrate the truth of what victims of the terrible crime of Japan's wartime system of sexual slavery have long implored the world to hear. This accomplishment, moreover, centers focus where it should be on: on the *halmoni* —the people to whom as a historian, a humanist, a mother, and a teacher I am mostgrateful.

Here in Seoul and throughout the areas of the former Japanese empire, including within Japan itself,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courage of the *halmoni* and their determination to claim the truth of their lives define them for posterity. We learn from them about the suffering they survived, and they teach us the significance of empathy when approaching their history, especially their living history.

The *halmoni*'s stories are real. Each survivor remembers different moments of her life in different ways because this is the way that lives are lived and how history works. The documents that have been submitted to UNESCO amplify and corroborate the *halmoni*'s testimonies and provide all who listen with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terror that all who were trapped in wartime Japan's system of sexual slavery share.

As the women themselves have explained from the earliest moments of publicly sharing their

stories, they want the world to know about the horror that happened to them in order to prevent such horror from recurring. The documents submitted to UNESCO create a library for the future with which to help in this process, and only through understanding the inner workings of such systemic violence does it become possible to learn how to stop it from taking place again.

In many ways, the submission of documents relating to the *halmoni*'s collective and individual history makes urgent the famous, now century old axiom of the Irish-American labor organizer Mary Harris Jones (known by her nickname then and in history as “Mother Jones”): “Pray for the dead and fight like hell for the living.”

We know that the horror of targeted, organized sexual violence persists during war, which is why we must continue to learn from the stories that the *halmoni* share with us, and from the documents submitted to UNESCO that confirm the truth of what they say.

I first learned about the history of Japan's state-sponsored system of militarized sexual slavery as a university student in Japan studying Japanese. There was a textbook for the course, but my excellent language teacher did not think that the textbook taught the language very well. He would say, “No Japanese person talks like that!” By chance the year was 1991, and during the autumn semester my teacher relied on newspaper articles to teach us how to read and how to speak. Among the many articles we read and translated were the first stories about *halmoni* Kim Hak-sun who made her brave, public declaration in August that year. For many of us — especially for those of us not from Korea or Japan or the Philippines or Indonesia or Singapore — the content of these stories was entirely new, and we spent many hours looking up many words to understand what was being said.

From the start I will always remember that at that moment in 1991 the stories of the victims of Japan's state sponsored system of militarized sexual slavery were reported for the Japanese public with dignity and respect: in simplest terms, they acknowledged the survivors' credibility. Put differently, although it would take several months until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cknowledged the truth of what the women claimed — which, for the historical record the Japanese government began to do with its first attempt at atonement in the 1993 Kono Statement — in public in Japan for many the stories began to be believed right away.

Only gradually as the 1990s unfolded did some people in Japan publicly begin to call the *halmoni* liars. Noticeable to me as an outsider, the people who called the *halmoni* liars seemed to do this almost entirely to the Korean women and far less so to the Filipinas or Taiwanese or Japanese *halmoni* who described similar histories. This made me question whether something different was taking place — not so much were the stories true, but rather was there an effort to discredit some stories in particular? — and it made me begin to study the context of this history.

I would like to emphasize this point because it gets at the heart of why the *halmoni*'s stories collectively matter so much now and for the future and why today's commemoration of the submission of documents to UNESCO from throughout the entire area of the former Japanese empire is so significant.

When someone “outside” this history encounters it, it is the victims' testimony that draws them “inside.” We see this time and time again when the *halmoni* give public presentation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 listener is new to hearing these stories, the emotive power of the *halmoni*'s recollections is clear, which makes many want to know more and which is where the significance of the UNESCO archival project fits in.

Among the materials collected for the future are official documents, including travel permits, equipment requisitions, and station construction projects among other things which give tangible proof to the involvement of state agents, regardless of those who would try to deny these facts.

And what is it that deniers cannot confront? We cannot ever really know, but maybe it has to do with the horror of what the *halmoni* survived. On this note, if you will allow me just a moment here, I would like to quote from several women's testimonies that have long been published — published within Japan and elsewhere— and which demonstrate how this history pervaded the Japanese empire and is the property of humanity. As the submission statement makes clear: “The purpose of this nomination is not to blame Japan but to preserve these documents to show how the tragic historical facts of sexual slavery during wartime and the associated human rights violations were overcome by the victims themselves, together with the human rights community.”

This first testimony was made 20 years ago. The survivor, whose father was Korean and mother Japanese, was 14 when taken from her parents. She died in 2005, but beforehand she recorded her story to include details from the station where she was held in Shijiazhuang:

When the soldiers came back from the battlefields, as many as 20 men would come to my room from early morning. That's why I had to have a hysterectomy (in my twenties). They rounded up little girls still in school. Their genitals were still underdeveloped, so they became torn and infected. There was no medicine except something to prevent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Mercurochrome. They got sick, their sores became septic, but there was no treatment. The soldiers made Chinese laborers lay straw in the trenches and the girls were put in there. There was no bedding... underneath was earth. There was no electricity at that time, only oil lamps, but they weren't even given a lamp. They cried in the dark "Mommy, it hurts! Mommy, I'm hungry!" We wanted to go and give them our leftover food, but there were a lot of sick and disturbed people in the trenches. Some of them had tuberculosis. I was scared they might pull me in to the trenches, and I didn't want to go there. I could have gone if I had a lamp. When someone died the girls got scared and began to cry. Then everyone in the trenches was poisoned and they closed up the trench. They dug another trench next to it.

The second testimony I will read is from a woman born in Taiwan who summoned the courage to tell her story only after many others came forward to tell theirs. Until that moment, she had not been able to share her pain with anyone, including her husband of 50 years. Among her recollections:

One day, the Japanese police called and told me to come because they had a job for me. They said that I would be preparing meals and mending torn clothes for the soldiers. I did not want to go, but the police said that all men and women must come because the country was at war then and that everybody must follow the General National Mobilization Law. So I went to work. I saw many Japanese soldiers. There were some other women like me, too. We got up in the morning, washed our faces and cooked breakfast to feed the soldiers. We washed their clothes and mended torn clothes. Then, at night, we were called and confined to a room. ...it was a terrible job. I was only

weeping. In the daytime I sewed clothes and did the soldiers' laundry.

It was easy. But at night I died. I was dying. I felt as if I was dead. I wished to flee away, but I did not know the way. Soldiers were standing at the gates. If you fled, you would be shot. I was too young. I did not know anything. I could not realize that I was pregnant. I began to throw up what I had eaten. Then a woman, who was with me, said that I was pregnant. In two months I had a miscarriage. Even now when I think about it, tears come to my eyes.

And the third is from the Philippines:

I was forced to stay at the hospital, which they made as a garrison. I met six women in the garrison after two or three days there. The Japanese soldiers were forcing me to have sex with several of their colleagues. Sometimes 12 soldiers would force me to have sex with them and then they would allow me to rest for a while, then about 12 soldiers would have sex with me again.

There was no rest, they had sex with me every minute. That's why we were very tired. They would allow you to rest only when all of them have already finished. Maybe, because we were seven women in the garrison, there were a fewer number of soldiers for each one of us. I stayed for three months in that place after which I was brought to a rice mill also here in Angeles. It was nighttime when we were fetched to be transferred. When I arrived in the rice mill, the same experience happened to us. Sometimes in the morning and sometimes in the evening... not only 20 times. At times, we would be brought to some quarters or houses of the Japanese. I remembered the Pamintuan Historical House. We were brought there several times. You cannot say no as they will definitely kill you. During the mornings, you have a guard. You are free to roam around the garrison, but you cannot get out. I could not even talk to my fellow women two of whom I believed were Chinese. The others I thought were also from Pampanga. But then, we were not allowed to talk to each other.

As we can hear from these testimonies, there are differences to each story in how each survivor wants to remember details. What is clear, however, is how much each story resonates with one

another. The women would go on to have different lives; in some instances, they could tell loved ones right away; in others they would die with the story inside them.

The documentation process that we are here today to affirm makes clear that the *halmoni* — the *halmoni* from throughout the former Japanese empire — have told the truth of their lives so that we can learn from them.

At this stage then the question becomes a matter of what they want us to do with their stories?

It is simple: the survivors want the Japanese government to acknowledge state responsibility for their collective history. As humanists we acknowledge our individual responsibilities to make the *halmoni*'s history known, yet what survivors want is more. Like other groups that suffered violence on a scale that can be accomplished onl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state organizations and statesponsorship — and equally can be denied on such a scale only through the denials of the state at the highest level — the *halmoni* want those who uphold the name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day to dignify them by officially acknowledging their stories as the truth.

Clearly, we still have work to do.

In the meantime, with everything going on on the streets near here and far away in the country where I am from, I have been thinking a lot about the Chinese proverb that Eleanor Roosevelt was so fond of quoting, and I will end my remarks here with it, hoping someday maybe that a Chinese *halmoni* will teach me how to say it in Chinese:

“It is better to light a single candle than to curse the darkness.”

We will continue, then, to light candles. I think we probably have to shout in the darkness, too, while holding them.

Thank you so much.



발표 2

---

일본군'위안부' 연구 성과와 과제 국제학술회의

# 중국의 일본군'위안부' 연구

쑤즈량 (蘇智良, 상하이사범대학)

---



# 중국의 일본군‘위안부’ 연구

쑤즈량 (蘇智良, 상하이사범대학)

1991년 한국 김학순(金學順) 노인이 나서서 일본군 성노예 제도 범죄를 증언하고 나선 이후 이미 25년이 흘렀다. 그 동안 아시아 각지의 ‘위안부’ 문제 조사와 연구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중국은 전시 일본군이 설치한 위안소가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한국보다 다소 늦게 조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매우 큰 성과가 있었다. 본고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 I. 필드조사의 진전과 생존자의 증언

20여 년 동안 중국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베이징(北京), 허베이(河北), 산시(山西), 산둥(山東), 안후이(安徽), 장쑤(江蘇), 상하이(上海),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저장(浙江), 장시(廣西), 윈난(雲南), 하이난(海南) 등지에서 200여 명의 생존자들이 연이어 나서 아픔의 역사를 털어 놓으면서 중국에서 일본군이 자행한 ‘위안부’ 제도의 내막을 밝혔다.

중국에서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행위는 매우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상하이의 주차오메이(朱巧妹), 난징(南京)의 레이구이잉(雷桂英), 우한(武漢)의 위안주린(袁竹林), 후난의 탄위화(譚玉華), 광시(廣西)의 웨이사오란(韋紹蘭) 등이 그 예이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하이난 지역 청마이(澄邁) 현 원루(文儒) 마을에서는 한 농민의 아내가 스푸(石浮) ‘위안소’에 끌려가 밤낮으로 일본 병사의 운간에 시달리다가 결국 매독에 감염되자 관리요원이 귀가하도록 석방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병을 옮기자 부부는 끌어 안고 통곡했고, 결국 소와 돼지 등 재산을 모두 팔아 그 돈으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하여 겨우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다.<sup>1)</sup>

일부 일본 학자들은 산시(山西) 위셴(盂縣) 현의 피해자를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라고 지칭했는데, 이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의 전쟁 범죄의 무게를 가볍게 보는 시각이다. 실제로는 위셴 현만 보더라도 일부 피해자의 피해장소가 위안소였고 일본군의 거점인 경우도 있었다. 소위 ‘위안부’는 곧 일본군 성노예이며, 중국에서 피해자의 피해장소가 일반적으로 위안소와 일본군의 거점, 포루 등 주둔지의 두 가지로 나뉜다.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빼앗긴 피해자들은 피해 장소에 상관없이 모두 일본군의 성노예였다. 산시 지역의 생존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인 완아이화(萬愛花)는 스스로가 일본군의 ‘위안부’가 아니라고 누차 부정했는데, 이러한 애매한 호칭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자원한 것도 상업적인 행위도 아니며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강제로 모욕적으로 일본군 성노예가 되었음을 밝히고자 한 것이었다.

## II. 자료 및 문서의 공개

중국에서 친황다오(秦皇島) 시 문서보관소,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문서보관소, 상하이(上海) 시 문서보관소, 난징(南京) 시 문서보관소, 중앙 문서보관소 등 각급 문서보관소 소장 문서가 속속 공개되었다. 문서 자료의 공개에 따라 1차 문헌을 활용해 ‘위안부’ 제도의 역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 1) 일본군 문서 공개

비록 일본군이 전쟁 막바지에 대량의 문서를 계획적으로 폐기했지만, 일부 일본군 전쟁 범죄를 기록한 역사 문서가 남아 있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지린(吉林) 성(省) 문서보관소 소장 일본군 문서 가운데 관동헌병대(關東憲兵隊), 화북헌병대(華北憲兵隊), 화중헌병대(華中憲兵隊), 화남헌병대(華南憲兵隊), 자바헌병대 등의 관련 문서에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

1) 주용쩌(朱永澤) 구술, 레이딩화(雷丁華) 정리, 푸허지(符和積) 편집, 《군홧발 밑의 피비린내(鐵蹄下的腥風血雨): 하이난 침략 일본군 폭력 실록(日軍侵瓊暴行實錄)》하린, 海南出版社, 1995년.

동남아 자바의 사례만 살펴보면, 일본군이 현지에 ‘장교위안소(將校慰安所)’를 설치했다. 자바헌병대 사령부의 《헌병월보(憲兵月報)》에 위안소 기율을 위반한 장병의 정황이 상당수 실렸다. 예를 들어 1944년 1월 25일 부대가 이동 명령을 받고 부두에서 대기할 당시, 육군 일등병 오키노 고지(沖野孝次)가 제멋대로 위안소를 찾아갔다가 부두로 돌아와보니 부대가 이미 출발했다<sup>2)</sup>. 3월 5일 요크야카르타(Yokyakarta) 철도공장의 일본군 고용인이 술에 취해 ‘위안소’에 난입했다.<sup>3)</sup> 같은 날, 자바 27비행연대의 사병 한 명이 술에 취해 군대 위안소로 가 ‘위안부’를 구타하고 폭력을 가했다.<sup>4)</sup> 비행제5전대 소속 2명의 육군 병사가 11월 12일 외출했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장교위안소와 혼혈주민의 사택에 들어가 3명의 혼혈여성을 20여 차례 구타하고, 그 중 2명의 여성을 강제로 데리고 나왔다.<sup>5)</sup> 수많은 사병의 기율위반 기록을 통해, 동남아 일본군 점령지에서 위안소가 상당히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저장 진화(金華) 시 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일본어로 된 《진화계림회 회칙 및 명부(金華鷄林會會則及名簿)》가 필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계림은 고대 신라의 국호로 일반적으로 한반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계림회는 곧 한국인 동향회이고, 진화계림회는 곧 진화 지역의 한국인 동향회이다. 이 명부가 작성된 시기는 ‘쇼와(昭和) 19년 4월’, 즉 1944년 4월이다. 이 명부를 분석하면 전쟁 말기 진화 지역의 위안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가능하다.

진화 시내의 야탕제(雅堂街) 20호에 하석환(河錫煥)이 쥐수이러우(菊水樓) 위안소를 설치했다. 여기에 17명의 조선 ‘위안부’가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23.4세였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

2) 자바헌병대 본부, 〈현역육군 군인·군속 비행 리스트(現役陸軍軍人、軍屬非行表)(1월)〉, 《爪憲高第六九號別冊》, 昭和十九年(1944년) 3월 5일, 지린성 문서보관소 소장.

3) 자바헌병대 본부, 〈현역육군 군인·군속 비행 리스트(現役陸軍軍人、軍屬非行表)(1월)〉, 《爪憲高第六九號別冊》, 昭和十九年(1944년) 3월 5일, 지린성 문서보관소 소장.

4) 자바헌병대 본부, 〈현역육군 군인·군속 비행 리스트(現役陸軍軍人、軍屬非行表)(1월)〉, 《爪憲高第六九號別冊》, 昭和十九年(1944년) 3월 5일, 지린성 문서보관소 소장.

5) 자바헌병대 본부, 〈현역육군 군인·군속 비행 리스트(現役陸軍軍人、軍屬非行表)(1월)〉, 《爪憲高第六九號別冊》, 昭和十九年(1944년) 1월, 지린성 문서보관소 소장.

성명	연령	본적	주소
대산처자(大山處子)	23	동래(東萊)	야당제(雅堂街) 20호
장확실(張口實)	22		상동
서전금(徐箭金)	26	해주(海州)	상동
강일학(姜一鶴)	26		상동
김택달례(金澤達禮)	20	장흥(長興)	상동
신경달분(新井達粉)	23	영천(永州)	상동
미야모토 긴코(宮本キソ子)	25	창원(昌原)	상동
김진희(金眞姬)	25	창원(昌原)	상동
곽복필(郭福必)	24	대동(大同)	상동
김천복선(金川福善)	24	평택(平澤)	상동
이태선(李太璇)	26	칠곡(漆谷)	상동
강전곡점(岡田曲点)	22	협천(俠川)	상동
최영화(崔永華)	23	구성(龜城)	상동
도인수(都仁湊)	25	산청(山靑)	상동
김순애(金順愛)	23	대구(大邱)	상동
대촌진숙(大村眞順)	24	창원(昌原)	상동
신태임(申太任)	21	진주(晋州)	상동

이 《진화계림회 회칙 및 명부》에서 위안소를 개설한 사람이라고 밝힌 사람이 이 밖에도 여러 명이 있으며, ‘위안부’ 역시 수십 명이 더 있다. 우리는 이 문헌의 해독 작업을 진행 중이다.

## 2) 전범의 진술

중국 중앙 문서보관소는 일본전범 문서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 이들 일본 군관들이 여성 강제 모집에 직접 참여하고 위안소를 설립했다. 일례로, 일본군 제117사단 사단장 스즈키 히라쿠(鈴木啓久) 중장은 1954년 7월 “1941년 10월~1942년 10월, 텐진(天津) 탕산(唐山) 지역에 경제 봉쇄를 실시하고, ……각 주둔지에 위안소를 설립해 60명의 여성을 잡아 위안부로 삼아 강간했다.”<sup>6)</sup>고 진술했다.

6) 위안추바이(袁秋白)&양구이진(楊槐珍) 편역, 《죄악의 자술서(罪惡的自供狀)》, 解放軍出版社, 2001년, 29쪽.

일본군 제39사단 사단장 사사 신노스케(佐佐真之助) 중장은 1954년 8월~1956년 5월 자필 자백서에 1943년 12월 “네덜란드령 동인도 암본(Ambon) 섬”에서 “인도네시아 여성 십여 명을 강제로 동원해 위안소를 세우고, 일본 병사들이 사용하도록 공급했다”고 밝혔다.

1942년 4월~1945년 3월 일본 제59사단 고급참모를 지낸 히로세 사부로(廣瀨三郎)는 위안소 건립에 적극 참여하였다. 1944년 4월 상순 일본 제12군이 ‘허난(河南) 작전’을 개시할 당시, 군사령부의 부관이 히로세 사부로에게 군용 후방 시설 중 ‘군인회관’, ‘스타클럽[星俱樂部]’, ‘앵화반점(櫻花飯店)’ 등 시설의 경영 업무를 접수해 책임지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6월, 제12군 사령부는 다시 히로세 사부로에게 ‘위안부’를 전선으로 보내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히로세 사부로는 또한 과거 30여 명의 조선 ‘위안부’를 허난 정저우(鄭州)의 전선으로 보냈다.<sup>7)</sup>

전범 아키타 마츠키치(秋田松吉)는 “1940년 2월~1941년 5월, 제43대대 제3중대 산둥장추(章丘) 현 난차오판(南曹范) 분견대장 야마네 신지(山根信次) 오장 이하 15명이 난차오판에 주둔할 당시, 자신이 이 부대의 일등병 보초를 맡았다. 야마네 오장이 괴뢰마을사무소를 통해 5명의 중국 여성을 강제 동원해 ‘위안부’로 삼았다. 우리 15명이 이 5명 중국 여성을 1년 5개월 동안 음란하게 더럽혔다.”<sup>8)</sup>고 인정하는 자백을 했다.

수많은 자료가 충분히 증명하듯이, 이들 여성은 일본군 통제 하에 노역을 강요당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들 전범은 중국 정부에 의해 석방돼 귀국한 후 ‘중국귀환자연락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역사를 반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직접 경험한 이들의 회고록, 근대 신문, 서적 등 일본군이 위안소를 세웠다는 기록이 셀 수 없이 많다.

### Ⅲ. 학계의 집중적인 연구와 날로 풍성해지는 성과

십여 년 동안, 중국 각지에서 조사 성과들이 속속 출간되었다. 천주량(陳祖梁)의 《혈무미망(血霧迷茫): 윈난·미얀마 항일과 일본군 죄상 공개(滇緬抗日及日軍罪惡揭秘)》(雲南美術出版社, 2004년)는 윈난 서부 지역의 수십 개 위안소를 조사해 소개하였다. 푸허지(符和

7) 위안추바이(袁秋白)&양구이진(楊槐珍) 편역, 《죄악의 자술서(罪惡的自供狀)》, 解放軍出版社 2001년 판, 142쪽.

8) 《아키타 마츠키치 1954년 자백 진술(秋田松吉1954年呈供自述)》, 中央檔案館 소장.

積)의 《군홧발 밑의 피비린내(鐵蹄下的腥風血雨): 하이난 침략 일본군 폭력 실록(日軍侵瓊暴行實錄)》(본편&속편, 海南出版社, 1995년)은 하이난 섬의 십여 개 위안소와 수많은 피해 사례를 기록했다. 이 밖에 장쌍빙(張雙兵)의 《'위안부' 조사 실록("慰安婦"調查實錄)》(江蘇人民出版社, 2015년)에 헤이룽장 동녕(東寧)의 위안소 조사, 장쭈 진탄(金檀)의 위안소 조사 등이 있다.

상하이사범대학 중국 '위안부' 문제 연구센터도 관련 저서들을 출간해왔다. 초기 저서로는 《위안부 연구(慰安婦研究)》(蘇智良, 上海書店出版社, 1999년), 《일본 '위안부' 제도 비판(日本"慰安婦"制度批判)》(陳麗菲, 中華書局, 2007년), 《상하이 일본군 위안소 실록(上海日軍慰安所實錄)》(蘇智良&陳麗菲&姚霏, 上海三聯書店, 2007년), 《중국침략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侵華日軍"慰安婦"問題研究)》(蘇智良&姚霏&陳麗菲, 中共黨史出版社, 2011년), 《일본군'위안부'와 성폭력(日軍"慰安婦"與性暴力)》(山東畫報出版社, 2015년) 등이 있다. 영문판 "Chinese Comfort Women: Testimonies from Imperial Japan's Sexual Slaves(中國慰安婦: 日本帝國性奴隸的證言)"(丘培培&蘇智良&陳麗菲 공저)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출판사(2013년), 옥스포드대학출판사(2014년), 홍콩대학출판사(2014년) 등의 출판으로 영어권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확보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깊이 있는 인식에 일조하였다.

당시의 아픈 역사를 전시하는 전시관이나 박물관 등도 지식을 알리고 공동의 역사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중국 대륙에는 윈난 룽링(龍陵)의 둥자거우(董家溝) 위안소유적지 전시관, 헤이룽장 쑤우(孫吳) 군인회관 전시관, 난징(南京) 리지샹(利濟巷) 위안소유적지 전시관 및 상하이사범대학 중국 '위안부' 역사 박물관 등이 있다.

#### IV. 향후 '위안부' 문제 연구 및 해결 방안

첫째, '위안부의 목소리'를 세계기록문화유산에 성공적으로 등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그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 국제협력 강화이다. 세계기록문화유산 신청은 일종의 국제협력으로, 우리는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일련의 활동을 벌여왔지만 아직 부족하다. 예를 들어 2차대전 당시 일본이 아시아에서 자행한 성노예 제도에 관한 권위 있는 종합 저작물이 아직 없다.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을 세계 각지로 보급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현재 한국 외에 캐나다, 미국,

호주, 중국에 이러한 동상이 있다. 홍콩도 최근 ‘위안부’상 건립을 고려 중이다.

셋째, 일본에서의 활동 강화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2차 내각 출범 이후 매체와 여론에 대한 통제가 크게 강화되었다. 2014년 8월 아사히 신문이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 증언’ 보도를 강압에 의해 철회하면서, ‘위안부’ 역사 사실을 부정하는 광풍이 일어났다. 이는 일반 ‘위안부’가 일본군 성노예라는 일본국민의 인식에 동요를 일으켰다. 사실 오늘날 아시아 각지의 전시 일본 ‘위안부’ 강제동원 자료는 ‘고노(河野) 담화’가 나온 1990년대 초보다 훨씬 많다. 우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에서 저서와 논문을 출간해 일본 우익의 망언을 반박하고, 일본에서 집회를 열어 더 많은 일본 국민에게 역사의 진상을 알리며, ‘귀향’, ‘22’ 등 관련 영상물[최근 중국에서 총 46회 분량의 ‘위안부’ 드라마 ‘지옥 속의 여인(地獄中的女人)’ 제작 결정]을 방영해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위안부’ 자료 발굴과 연구에 헌신해온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 등 일본 학자와 사회활동가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위안부’-일본군 성노예의 역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우리는 아직 더 노력해야 한다.

# 中国における日本軍「慰安婦」研究

蘇智良（上海師範大学）

1991年に韓国の金学順氏が名乗り出て日本軍性奴隷制犯罪を証言してからすでに25年が過ぎた。この間、アジア各地における「慰安婦」問題に関する調査と研究には画期的な進展があった。中国は戦時に日本軍が設置した慰安所が最も多く集中した地域であり、韓国より一足遅れて調査が始まったにもかかわらず、非常に大きな成果があった。本稿では、これを紹介する。

## I. フィールド調査の進展と生存者の証言

20年余りの間に中国・黒竜江、吉林、北京、河北、山西、山東、安徽、江蘇、上海、湖北、湖南、浙江、広西、雲南、海南などで200名余りの生存者が相次いで名乗り出て痛みの歴史を証言し、中国で日本軍が恣意的に行っていた「慰安婦」制度の内幕が明らかにされた。

中国において女性に対する日本軍の「慰安婦」強制動員行為は非常に普遍的に行われていたが、上海の朱巧妹、南京の雷桂英、武漢の袁竹林、湖南の譚玉華、広西の韋紹蘭などがその例である。数多くの被害者が虐待により亡くなった。海南地域の澄邁県文儒村では、ある農民の妻が石浮「慰安所」に連行され、日本兵に日夜輪姦された挙げ句に梅毒に感染すると、管理要員が帰るように命じ、釈放された。家に戻ると病気は夫にも移り、夫婦は抱き合って慟哭した。そして、牛や豚などの財産をすべて売り払い、その金で病院に行っ

て治療を受け、なんとか一命を取り留めた<sup>1)</sup>。

一部の日本の学者らは、山西省孟県の被害者を日本軍性暴力被害者と呼んだが、これは日本政府と日本軍の戦争犯罪の重さを軽視した視点である。実際には、孟県だけを見ても、一部の被害者が被害にあった場所が慰安所であり、日本軍の拠点の場合もあった。

いわゆる「慰安婦」は、すなわち日本軍の性奴隷であり、中国で被害者が被害にあった場所は、一般的に慰安所と日本軍の拠点、トーチカなどの駐屯地の二つに分けられる。長期間にわたり身体を奪われた被害者は、被害にあった場所に関係なく、すべて日本軍の性奴隷であった。山西地域の生存者のうち代表的な人物である万愛花は、自分が日本軍の「慰安婦」ではないと何度も否定したが、このような曖昧な呼び方を認めないことで自ら志願したのも、商業的な行為でもなく、金銭的な対価も受け取っておらず、むしろ強制的かつ屈辱的に日本軍の性奴隷になったことを示そうとしたものであった。

## II. 資料及び文書の公開

中国において、秦皇島市档案馆、内蒙古自治区档案馆、上海市档案馆、南京市档案馆、中央档案馆などの各档案馆（文書保管所）の所蔵文書が次々と公開された。文書資料の公開により、一次文献を活用して「慰安婦」制度の歴史的事実を証明するための有利な条件が整えられた。

### 1) 日本軍公文書の公開

日本軍が終戦間際に大量の文書を計画的に廃棄してはいるが、日本軍の戦争犯罪を記録した歴史文書が一部残っており、現在まで保存されている。

吉林档案馆が所蔵する日本軍公文書のうち、関東憲兵隊、北支那派遣憲兵隊、中支那派遣憲兵隊、南支那派遣憲兵隊、ジャワ憲兵隊などの関連文書に「慰安婦」に関する内容が多い。

---

1) 朱永澤口述、雷丁華まとめ、符和積編『鉄蹄下的腥風血雨—「日軍海南省暴力実録」下巻』(海南出版社, 1995年)

東南アジア・ジャワ島の事例だけ見てみると、日本軍が現地に「将校慰安所」を設置している。ジャワ憲兵隊司令部の『憲兵月報』に慰安所の規律に違反した将兵の状況が相当数記録されている。例えば、1944年1月25日、部隊が移動命令を受け、埠頭で待機していた当時、陸軍一等兵・沖野孝次が勝手に慰安所に訪れ、埠頭に戻ってみると部隊がすでに出発していた<sup>2)</sup>。3月5日、ジョグジャカルタ（Yogyakarta）の鉄道工場の日本軍雇用人が酒に酔って「慰安所」に乱入した<sup>3)</sup>。同日、ジャワ27飛行連隊の兵士1人が酒に酔って軍隊慰安所に行き、「慰安婦」を殴打し暴行を加えた<sup>4)</sup>。飛行第5戦隊所属の陸軍兵士2人が11月12日に外出し、酔っ払った状態で将校慰安所と混血住民の私宅に入り、混血女性3人を20回余り殴打し、そのうち女性2人を強制的に連れ出した<sup>5)</sup>。数多くの兵士の規律違反記録を通じて、東南アジアの日本軍占領地で慰安所が相当に普遍化していたことが分かる。

最近、浙江省金華市の文書保管所で発見された、日本語で記された『金華鶏林会会則及び名簿』が筆者の興味を引いている。鶏林は古代新羅の国号であり、一般的に朝鮮半島を示す。したがって、鶏林会は韓国人同郷会のことであり、金華鶏林会は金華地域の韓国人同郷会のことである。この名簿が作成された時期は「昭和19年4月」、すなわち1944年4月である。この名簿を分析すれば、戦争末期の金華地域の慰安所に対する新しい認識が可能である。

金華市内の雅堂街20号に河錫煥が菊水楼慰安所を設置した。ここには17人の朝鮮人「慰安婦」がおり、平均年齢は23、4歳であった。名簿は以下の通りである。

氏名	年齢	本籍	住所
大山処子	23	東萊	雅堂街20号
張确实	22		同上
徐箭金	26	海州	同上
姜一鶴	26		同上
金沢達礼	20	長興	同上
新井達粉	23	永州	同上

2) ジャワ憲兵隊本部、「陸軍々人軍属非行表(1月)」、『爪憲高第六九号別冊』,昭和十九年3月5日,吉林省档案館.

3) ジャワ憲兵隊本部、「陸軍々人軍属非行表(1月)」、『爪憲高第六九号別冊』,昭和十九年3月5日,吉林省档案館.

4) ジャワ憲兵隊本部、「陸軍々人軍属非行表(1月)」、『爪憲高第六九号別冊』,昭和十九年3月5日,吉林省档案館.

5) ジャワ憲兵隊本部、「陸軍々人軍属非行表(1月)」、『爪憲高第六九号別冊』,昭和十九年1月,吉林省档案館.

宮本キソ子	25	昌原	同上
金真姫	25	昌原	同上
郭福必	24	大同	同上
金川福善	24	平沢	同上
李太璇	26	漆谷	同上
岡田曲点	22	狭川	同上
崔永華	23	龜城	同上
都仁漱	25	山青	同上
金順愛	23	大邱	同上
大村真順	24	昌原	同上
申太任	21	晋州	同上

この『金華鶏林会会則及び名簿』において慰安所を開設した者として明かしている人物がこれ以外にも複数名おり、「慰安婦」もさらに数十名いる。私たちはこの文献の解読作業を進行中である。

## 2) 戦犯の陳述

中国の中央档案馆は、日本戦犯文書を多数所蔵している。これらの日本軍の将校が女性強制募集に直接かかわって、慰安所を設立した。一例として、日本軍第117師団長・鈴木啓久中将は1954年7月、「1941年10月～1942年10月、天津・唐山地域において経済封鎖を実施し、……各駐屯地に慰安所を設立し、60人の女性を捕らえて慰安婦にし、強姦した。<sup>6)</sup>」と陳述している。

日本軍第39師団長・佐々眞之介中将は、1954年8月から1956年5月にかけての自筆の自白書において、1943年12月に「オランダ領東インドのアンボン (Ambon) 島」で「インドネシア人女性10人余りを強制動員して慰安所を設立し、日本兵らが使うように供給した」と明かしている。

1942年4月～1945年3月に日本第59師団高級参謀をしていた広瀬三郎は、慰安所の設立に

6) 袁秋白・楊槐珍編訳『罪惡的自供状』(解放軍出版社, 2001年)29頁

積極的に参加した。1944年4月上旬、日本第12軍が「河南作戦」を開始した当時、軍司令部の副官が広瀬三郎に、軍の後方施設のうち「軍人会館」、「星倶楽部」、料亭「桜」等の施設の経營業務を接收し、責任を負うようにとの命令を伝達している。6月、第12軍司令部は再び広瀬三郎に、「慰安婦」を戦線に送るようにという命令を伝達している。広瀬三郎はさらに過去、30名余りの朝鮮人「慰安婦」を河南省鄭州の戦線に送っている<sup>7)</sup>。

戦犯・秋田松吉は「1940年2月～1941年5月、第43大隊第3中隊山東省章丘県南曹范分遣隊長の山根信次伍長以下15人が南曹范に駐屯していた当時、自分がこの部隊の一等兵歩哨を担っていた。山根伍長が傀儡村事務所を通じて5人の中国人女性を強制動員し、『慰安婦』にした。私たち15人がこの中国人女性5人を1年5ヶ月間にわたって淫らに汚した。<sup>8)</sup>」と認める自白をしている。

数多くの資料が十分に証明しているように、これらの女性は日本軍の統制下で労役を強いられていた状況であった。さらに、これらの戦犯は中国政府によって釈放され、帰国後「中国帰還者連絡会」を組織し、歴史の反省を続けている。

この他にも直接経験した人々の回顧録、近代の新聞、書籍などに日本軍が慰安所を設立したという記録が数え切れないほど多く残されている。

### Ⅲ. 学界における集中的な研究と日増しに豊富になる成果

十年余りの間に中国各地における調査の成果が次々と出刊された。陳祖梁の『血霧迷茫—雲南・ビルマにおける抗日と日本軍の罪惡の公開（滇緬抗日及日軍罪惡揭秘）』（雲南美術出版社、2004年）は、雲南西部地域における数十ヶ所の慰安所を調査し、紹介している。符和積の『鉄蹄下的腥風血雨—「日軍海南省暴力実録」（日軍侵瓊暴行実録）』（本編・続編、海南出版社、1995年）は、海南島の10ヶ所余りの慰安所と数多くの被害事例を記録している。この他に、張双兵の『「慰安婦」調査実録』（江蘇人民出版社、2015年）に黒竜江省東寧の慰安所の調査、江蘇省金壇の慰安所の調査などがある。

7) 袁秋白・楊槐珍編訳『罪惡的自供状』（解放軍出版社、2001年）142頁

8) 『秋田松吉1954年呈供自述』中央档案馆所蔵。

上海師範大学の中国「慰安婦」問題研究センターも関連著書を出刊してきた。初期の著書には『慰安婦研究』（蘇智良、上海書店出版社、1999年）、『日本「慰安婦」制度の批判（日本「慰安婦」制度批判）』（陳麗菲、中華書局、2007年）、『上海日本軍慰安所実録』（蘇智良・陳麗菲・姚霏、上海三連書店、2007年）、『中国侵略日本軍の「慰安婦」問題研究（侵華日軍「慰安婦」問題研究）』（蘇智良・姚霏・陳麗菲、中共党史出版社、2011年）、『日本軍「慰安婦」と性暴力（日軍「慰安婦」与性暴力）』（山東画報出版社、2015年）などがある。英語版『Chinese Comfort Women: Testimonies from Imperial Japan's Sexual Slaves（中国慰安婦：日本帝国性奴隷的証言）』（丘培培・蘇智良・陳麗菲共著）はカナダ・ブリティッシュコロンビア大学出版社（2013年）、オックスフォード大学出版社（2014年）、香港大学出版社（2014年）などの出版により、英語圏にある程度の影響力を確保し、日本軍「慰安婦」問題に対する読者の認識を深めるのに一助している。

当時の痛みの歴史を展示する展示館や博物館なども知識を発信し、共同の歴史観を形成する重要な場所である。中国大陸には、雲南省龍陵の董家溝慰安所旧跡陳列館、黒竜江省孫呉の軍人会館陳列館、南京利濟巷慰安所旧跡陳列館及び上海師範大学中国「慰安婦」歴史博物館などがある。

#### IV. 今後の「慰安婦」問題の研究及び解決策

一つ目に、「慰安婦の声」をユネスコの世界記憶遺産に登録するために一緒に取り組んでいく。その大切さは多言を要しない。

二つ目に、国際協力の強化である。「世界記憶遺産」の申請は一種の国際協力であり、私たちは日本、韓国、中国などで一連の活動を行ってきたが、まだ十分ではない。例えば、第二次世界大戦当時に日本がアジアで恣意的に行った性奴隷制度に関する権威ある総合著作物がまだない。「慰安婦」平和の少女像を世界各地に普及することも良い方法である。現在、韓国以外にカナダ、アメリカ、オーストラリア、中国にこのような銅像がある。香港でも最近「慰安婦」像の設置が検討されている。

三つ目に、日本での活動強化である。第2次安倍晋三内閣の発足以降、メディアと世論に対する統制が大幅に強化された。2014年8月に朝日新聞が「吉田清治の証言」報道を弾圧により撤回したことを受け、「慰安婦」の歴史的事実を否定する狂風が巻き起こった。これは、一般の「慰安婦」が日本軍の性奴隷であるという日本国民の認識に動揺を引き起こした。実際のところ、今日におけるアジア各地での戦時の日本による「慰安婦」強制動員資料は「河野談話」が出された1990年代初めよりもはるかに多い。私たちは多様なチャンネルを通じて日本で著書と論文を出刊し、日本右翼の妄言に反駁するとともに、日本で集会を開いてより多くの日本国民に歴史の真相を知らせ、『帰郷』、『二十二』などの関連映像コンテンツ（最近、中国で全46話の「慰安婦」ドラマ『地獄の中の女性（地獄中の女人）』の制作が決定した）を放送すべきである。私たちは長期にわたって「慰安婦」資料の発掘と研究に献身してきた吉見義明教授などの日本の学者と社会活動家に心より敬意を表する。

「慰安婦」－日本軍性奴隷の歴史の真相を究明するために、アジアの恒久的な平和のために、私たちはなお一層の努力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中国的日军“慰安妇”研究

蘇智良（上海师范大学）

1991年韩国金学顺老人站出来指认日军性奴隶制度犯罪以来，已过去25年了。亚洲各地的“慰安妇”问题调查与研究，取得了历史性的突破。中国是战时日军设立慰安所最集中的地区，中国的调查稍稍晚于韩国，但也取得了很大的进展。本文将作一介绍。

## 一、田野调查展开，幸存者挺身而出

20多年来，中国有二百多名幸存者先后站出来，他们分布在黑龙江、吉林、北京、河北、山西、山东、安徽、江苏、上海、湖北、湖南、浙江、广西、云南、海南等地。她们讲述苦难的历史，从而揭开日军在中国推行“慰安妇”制度的内幕。

在中国，日军强行掳掠妇女充当“慰安妇”，十分普遍。如上海的朱巧妹、南京的雷桂英、武汉的袁竹林、湖南的谭玉华、广西的韦绍兰等。不少受害者被摧残致死。海南澄迈县文儒乡一位农民的妻子被抓进石浮“慰安所”后，受到日兵日夜轮奸，后来染上梅毒病，才被管理人员释放回家，回家后又传染给丈夫，夫妻两人抱头痛哭，被迫倾家荡产卖掉耕牛和生猪，拿钱请医诊治，才保住了生命。<sup>1)</sup>

日本一些学者将山西孟县的受害者称之为日军性暴力受害者，这客观上减轻了日本政府和日军的战争罪行。实际上即使在孟县，有些受害者的受害地在慰安所，有些则在

---

1) 朱永泽口述 雷丁华整理，符和积主编：《铁蹄下的腥风雷雨——日军侵琼暴行实录》下册，海南出版社1995年版。

日军据点。

所谓的“慰安妇”就是日军性奴隶，在中国，受害者的受害地通常有两种地点，一是慰安所，二是日军据点、炮楼等驻屯地。长期地、失去人身自由的受害者，不管她在何处受害，都是日军性奴隶。山西幸存者中的代表性人物万爱花，她多次否认自己是日军“慰安妇”，实际上，她是不承认这一暧昧的称呼，表明自己既不是自愿的，也不是商业性、得到什么钱财的；她就是被迫的、受辱的日军性奴隶。

## 二、资料、档案公开公布

中国陆续公布了各级档案馆所藏的档案，其中有秦皇岛市档案馆、内蒙古自治区档案馆、上海市档案馆、南京市档案馆、中央档案馆等。档案资料的发布，有利于运用一手的文献来印证“慰安妇”制度的历史事实。

### 1、日军档案公布

尽管日军在战争最后时刻，有计划销毁了大量档案，但还是有部分记载日军战争犯罪的历史档案遗留下来，并保存至今。

吉林省档案馆所藏的日军档案中，有关东宪兵队、华北宪兵队、华中宪兵队、华南宪兵队、爪哇宪兵队等较多的案卷涉及“慰安妇”。

这里仅举东南亚的爪哇为例，日军在当地开设了“将校慰安所”。爪哇宪兵队司令部的《宪兵月报》记载了不少官兵违纪去慰安所的情况。如1944年1月25日，部队奉命转移、在码头待命时，陆军一等兵冲野孝次竟也擅自去慰安所，等他回到码头，部队早已开拔了。3月5日约克加卡尔塔的铁道工厂日军雇员酒后冲入慰安所，殴打“慰安妇”<sup>2)</sup>。同日，爪哇27飞行联队的一名士兵借着酒兴到军队慰安所殴打“慰安妇”，并对其施以暴行<sup>3)</sup>。飞行第五战队的两名陆军士兵，11月12日，外出酩酊大醉，进入

---

2) 爪哇宪兵队本部：《现役陆军军人、军属非行表（一月）》，《爪哇高第六九号别册》，昭和十九年（1944年）三月五日，吉林省档案馆藏。

3) 爪哇宪兵队本部：《现役陆军军人、军属非行表（一月）》，《爪哇高第六九号别册》，昭和十九年（1944年）三月五日，吉林

将校慰安所及混血居民私宅，对3名混血女性殴打20多次，并将其中的两名女士强行带出<sup>4)</sup>。众多的士兵违纪记录也表明，在东南亚的日军占领地，慰安所是相当普遍的。最近，在浙江省金华市档案馆发现了一册日文的《金华鸡林会会则及名簿》引起了笔者的兴趣。鸡林是古代新罗国的国号，泛指朝鲜半岛。所以鸡林会就是朝鲜人同乡会，金华鸡林会也就是金华地区的朝鲜人同乡会。这一名簿写明时间是“昭和十九年四月”，也就是1944年4月。剖析它可以对战争后期金华地区的慰安所有新的认识。在金华市中心的雅堂街20号，有河锡焕开设了菊水楼的慰安所，里面有17名朝鲜“慰安妇”，平均年龄23.4岁，名单如下：

姓名	年龄	籍贯	住址
大山处子	23	东莱	雅堂街20号
张确实	22		同上
徐箭金	26	海州	同上
姜一鹤	26		同上
金泽达礼	20	长兴	同上
新井达粉	23	永州	同上
宫本キソ子	25	昌原	同上
金真姬	25	昌原	同上
郭福必	24	大同	同上
金川福善	24	平泽	同上
李太璇	26	漆谷	同上
冈田曲点	22	侠川	同上
崔永华	23	龟城	同上
都仁漱	25	山青	同上
金顺爱	23	大邱	同上
大村真顺	24	昌原	同上
申太任	21	晋州	同上

这份《金华鸡林会会则及名簿》中，写明开设慰安所的人员还有数人，“慰安妇”也还有数十人。我们正在对这一文献进行解读。

省档案馆藏。

4) 爪哇宪兵队本部：《现役陆军军人、军属非行表》，《爪哇高第六九号别册》，昭和十九年（1944年）三月五日，吉林省档案馆藏。

## 2、战犯口供

中国中央档案馆收藏的日本战犯档案非常丰富。这些日本军官直接参与强征女性，建立慰安所。如，日軍第117師团中将師团长鈴木启久1954年7月口供：“1941年10月至1942年10月间，在天津唐山地区实施了经济封锁，……并在各驻扎地设立慰安所，抓了60名妇女作为慰安婦进行奸淫。”

日軍第39師团中将師团长佐佐真之助1954年8月至1956年5月笔供：1943年12月，在“荷兰领属东印度安汶岛”，“强制的使用印度尼西亚妇女十数名，设立一个慰安所，供给日本兵士之用”。

1942年4月到1945年3月间担任日第59師团高级参谋的广濑三郎，曾积极参与建立慰安所。1944年4月上旬，日第12军发动“河南作战”时，军司令部的副官传达命令，由广濑三郎手负责监督军用后方设施中的“军人会馆”、“星俱乐部”、“樱花饭店”等设施的经营业务。6月，第12军司令部又传来命令，要求广濑三郎把“慰安婦”送到前线去。广濑三郎也曾把30余名朝鲜“慰安婦”送到河南郑州的前线去。

战犯秋田松吉供认：自1940年2月至1941年5月，第43大队第3中队山东省章丘县南曹范分遣队长山根信次伍长一下15名在南曹范盘踞期间，我任该队一等兵步哨。山根伍长通过伪村公所强制带来5名中国妇女作“慰安婦”。我们15人对该5名中国妇女进行了一年零五个月时间的淫污。<sup>5)</sup>

大量资料足以说明，这些妇女在日軍控制下处于被奴役状态。而且，这些战犯被中国政府释放回国后，组成“中国归还者联络会”，继续反省历史。

此外还有亲历者回忆录、近代报刊、书籍等，也记录了大量的日军建立慰安所的信息。

## 三、学者潜心研究，成果日益丰盛

十余年来，中国各地陆续出版了调查成果。陈祖梁的《血雾迷茫——滇缅抗日及日军罪恶揭秘》（云南美术出版社2004年版），对滇西地区的数十个慰安所进行了调查和

---

5) 袁秋白、杨槐珍编译：《罪恶的自供状》，解放军出版社2001年版，第29页。

介绍；符和积主编的《铁蹄下的腥风血雨——日军侵琼暴行实录》（正编、续编，海南出版社1995年版），记录了海南岛数十个慰安所和大量受害个案；张双兵的《“慰安妇”调查实录》（江苏人民出版社2015年版），此外，还有黑龙江东宁的慰安所调查、江苏金坛慰安所调查等。

上海师范大学中国“慰安妇”问题研究中心出版了一批论著。较早的有《慰安妇研究》（苏智良著，上海书店出版社1999年版）、《日本“慰安妇”制度批判》（陈丽菲中华书局2007年版）、《上海日军慰安所实录》（苏智良、陈丽菲、姚霏著，上海三联书店2007年版）、《侵华日军“慰安妇”问题研究》（苏智良、姚霏、陈丽菲编著，中共党史出版社2011年版）、《日军“慰安妇”与性暴力》（山东画报出版社2015年版）等。英文版Chinese Comfort Women: Testimonies from Imperial Japan's Sexual Slaves.《中国慰安妇：日本帝国性奴隶的证言》（丘培培、苏智良、陈丽菲合作）由加拿大英属哥伦比亚大学出版社2013年出版，牛津大学出版社2014年出版，香港大学出版社2014年出版，在英语世界有一定的影响，加深了读者对日军“慰安妇”问题的认识。

通过陈列馆、博物馆等展示这段苦难历史，也是普及知识、形成共同历史观的重要场所。在中国大陆有云南龙陵董家沟慰安所遗址陈列馆、黑龙江孙吴军人会馆陈列馆、南京利济巷慰安所旧址陈列馆和上海师范大学中国“慰安妇”历史博物馆等。

## 四、未来如何推进“慰安妇”问题的研究与解决

第一，共同努力，力争“慰安妇的声音”申请世界记忆遗产名录成功。其重要性不言而喻。

第二，加强国际合作。联合申遗是一种国际合作，我们在韩国、日本、中国等地举行了一系列的活动，但还不够。我们还缺少诸如二战时期日本在亚洲推行性奴隶制度的整体性、权威性的著作。将“慰安妇”和平少女像推广到世界各地，也不失是一种良好的途径。现在除了韩国以外，加拿大、美国、澳大利亚、中国已有不同类型的铜像。香港最近正在考虑建立“慰安妇”像。

第三，加强在日本的工作。安倍晋三第二任内阁以来，大力加强对媒体舆论的管控。

2014年8月《朝日新闻》被迫取消“吉田清治证言”报道，引发了一股否认“慰安妇”历史事实的狂潮，使得一般日本国民动摇了“慰安妇”是日军性奴隶的认识。事实上，今天亚洲各地关于战时日本强征“慰安妇”的资料，远多于“河野谈话”提出的90年代初期。我们应通过各种途径，在日本出版著作和论文，批驳日本右翼的谬论；在日本举行集会，让更多的日本国民知晓历史真相；放映诸如《鬼乡》、《二十二》等相关影像（中国最近将拍摄46集的“慰安妇”电视剧《地狱中的女人》）。我们谨向长期致力于“慰安妇”资料发掘和研究的吉见义明教授等日本学者和社会活动家表示崇高的敬意。

为了究明“慰安妇”一日军性奴隶的历史真相，为了亚洲的持久和平，我们还需要努力。

# Chinese Research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u Zhiliang (蘇智良, Shanghai Normal University)

Twenty-five years have passed since 1991 when Hak-sun Kim (金學順) came forward and testified the Japanese military's crime of running a sex slave system. Since then, we have seen an outstanding progress in examination and research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across Asian countries. As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number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stations during the wartime, China began to examine the issue quite later than Korea. However, Chinese research on comfort women has made huge achievements to date, and this is what I would like to explore in this paper.

## 1. Progress Made in Field Research and Survivors' Testimonies

For some 20 years, more than 200 survivors from Heilongjiang (黑龍江), Jilin (吉林), Beijing (北京), Hebei (河北), Shanxi (山西), Shandong (山東), Anhui (安徽), Jiangsu (江蘇), Shanghai (上海), Hubei (湖北), Hunan (湖南), Zhejiang (浙江), Jiangxi (廣西), Yunnan (雲南), and Hainan (海南) have stepped forward to tell the painful history, exposing facts about the “Comfort Women” system ran by the Japanese military in China.

Japanese troops forcing women to enlist as “Comfort Women” was very common across China. Zhu Qiaomei (朱巧妹) from Shanghai, Lei Guiying (雷桂英) from Nanjing (南京), Yuan Zhulin (袁竹林) from Wuhan (武漢), Tan Yuhua (譚玉華) from Hunan, and Wei Shao Lan (韋紹蘭) from Guangxi (廣西) are some of the victims. A lot of the enlisted women were abused to death. There was a farmer in Wenru (文儒) Township, Chengmai (澄邁) County, Hainan, and his wife was

taken to Shi Fu (石浮) “comfort station”, where she was raped day and night by several Japanese soldiers in succession. When she caught syphilis, the comfort station manager released and allowed her to return home. She came home, but when she transmitted the disease to her husband, the couples hugged each other and wailed. They sold every asset they had, including cows and pigs, and spent the money earned on hospital treatment and could barely save their lives.<sup>1)</sup>

Some Japanese scholars say that the victims of sexual abuse by the Japanese military refer to the victims in Yuxian (盂縣) County, Shanxi (山西). However, these scholars do not see war crimes commit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military serious enough. In fact, in Yuxian County, the comfort station was just one place where the victims were abused; sometimes, abuse occurred at the Japanese troops’ bases.

The so-called “Comfort Women” were actually the Japanese military’s sex slaves. In China, most abuses were committed in two places: comfort stations and military posts (e.g. bases and bastions). Regardless of where abuse took place, all of the victims were the Japanese military’s sex slaves, who had been deprived of their physical freedom for long periods of time. Wan Aihua (萬愛花), a representative survivor from Shanxi, repeatedly said that she was not a “comfort woman” of the Japanese military: by not using the ambiguous word, she was trying to make it clear that what she experienced was not something she had volunteered or any commercial activity with monetary profits, but it was an insulting experience of being forced to become a Japanese troops’ sex slave.

## 2. Data and Documents Made Public

A series of documents have been released by different levels of archives, such as the Qinhuangdao (秦皇島) municipal archives, archives in the autonomous district of Neimenggu (內蒙古), Shanghai (上海) municipal archives, Nanjing (南京) municipal archives, and the central archives. This has made it easier to prove historical facts about the “Comfort Women” system with primary literature.

---

1) orally stated by Zhu Yongze (朱永澤), compiled by Lei Ding Hua (雷丁華), and edited by Fu Heji (符和積). *The Smell of Blood under Military Boots (鐵蹄下的腥風雪雨): Record on Violence by the Japanese Military Who Invaded Hainan (日軍侵瓊暴行實錄)*, the 2nd volume. 海南出版社, 1995.

## 1) Japanese Military's Documents Made Public

At the end of the war, the Japanese military systematically discarded large amounts of documents, but some historical records on the Japanese military's war crimes have remained and been preserved to date.

Among the Japanese military's documents owned by the Jilin (吉林) Province (省) archives, those related to Kwantung Army police troops (關東憲兵隊), Northern China Area Army police troops (華北憲兵隊), Central China Area Army police troops (華中憲兵隊), Southern China Area Army police troops, and Java Army police troops contain a lot of data on "Comfort Women".

In the case of Java in Southeast Asia, the Japanese military built a comfort station for officers (將校慰安所) in the local area. The Java Army military police's Military Police Monthly Report (憲兵月報) includes quite a lot of data on officers' breaches of discipline at the comfort station. For example, on January 25, 1944, when the unit was waiting at the dock after getting an order to move, Private First Class Goji Okino (沖野孝次) in the army went his own way, going to the comfort station. When he returned to the dock, the unit had already left.<sup>2)</sup> On March 5, Yokyakarta railway factory employees hired by the Japanese military got drunk and broke into the comfort station.<sup>3)</sup> On the same day, a soldier from the Java 27 Aviation Regiment who was drunk went to the military comfort station and beat and abused "Comfort Women".<sup>4)</sup> On November 12, two army soldiers from the 5th Aviation Squadron who "were completely drunk went into the officers' comfort station and a mixed-race residents' house, and beat three mixed-race women more than 20 times and then took two of the women out with them."<sup>5)</sup> The records on a large number of soldiers breaching discipline suggest that comfort stations were quite widespread in Southeast Asian territories occupied by the Japanese military.

I have been interested in a document written in Japanese which has recently been found at the Jinhua (金華) municipal archives, and that is Jinhua Gyerim Group Rules and Register

---

2) Java Army police command's Active Duty Army Soldiers and Civilians Flight List (現役陸軍軍人, 軍屬非行表) (January), 爪憲高第六九號別冊, 昭和十九年 (1944) March 5, Jilin Province archives.

3) Java Army police command's Active Duty Army Soldiers and Civilians Flight List (現役陸軍軍人, 軍屬非行表) (January), 爪憲高第六九號別冊, 昭和十九年 (1944) March 5, Jilin Province archives.

4) Java Army police command's Active Duty Army Soldiers and Civilians Flight List (現役陸軍軍人, 軍屬非行表) (January), 爪憲高第六九號別冊, 昭和十九年 (1944) March 5, Jilin Province archives.

5) Java Army police command's Active Duty Army Soldiers and Civilians Flight List (現役陸軍軍人, 軍屬非行表) (January), 爪憲高第六九號別冊, 昭和十九年 (1944) January, Jilin Province archives.

(金華鷄林會會則及名簿). “Gyerim” is a name of the ancient kingdom of Silla, generally referring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at sense, the Gyerim Group can be interpreted as a group of Korean compatriots, and the Jinhua Gyerim Group would be a Korean compatriot group in Jinhua. The register was made in April the 19th period during the Showa (昭和) period, or April 1944. An analysis of this register would bring new perspectives on comfort stations in Jinhua during the last period of the war.

Seokhwan Ha (河錫煥) built Kikusuiro (菊水樓) comfort station at Ya Tang Jie (雅堂街) No. 20 in the downtown Jinhua. At the comfort station, there were 17 Korean “Comfort Women”, whose average age was 23.4. The list of the comfort women is as follows:

Name	Age	Place of Family Register	Address
Daesan cheoja (大山處子)	23	Dongnae (東萊)	Ya Tang Jie (雅堂街) No. 20
Jang Hwakshil (張確實)	22		as above
Seo Jeongeum (徐箭金)	26	Haeju (海州)	as above
Gang Ilhak (姜一鶴)	26		as above
Kim Taekdalye (金澤達禮)	20	Jangheung (長興)	as above
Shin Gyeongdalbun (新井達粉)	23	Yeongcheon (永州)	as above
Miyamoto Ginko (宮本キソ子)	25	Changwon (昌原)	as above
Kim Jinhee (金眞姬)	25	Changwon (昌原)	as above
Kwak Bokpil (郭福必)	24	Daedong(大同)	as above
Kim Cheonbokseon (金川福善)	24	Pyeongtaek (平澤)	as above
Lee Taeseon (李太璇)	26	Chilgok (漆谷)	as above
Kang Jeongokjeom (岡田曲点)	22	Hyeopcheon (俠川)	as above
Choi Yeonghwa (崔永華)	23	Guseong (龜城)	as above
Do Insu (都仁湫)	25	Sancheong (山靑)	as above
Kim Sunae (金順愛)	23	Daegu (大邱)	as above
Daechon Jinsuk (大村眞順)	24	Changwon (昌原)	as above
Shin Taeim (申太任)	21	Jinju (晉州)	as above

According to Jinhua Gyerim Group Rules and Register, there were several more people who engaged in building comfort stations and additional tens of “Comfort Women”. My research team is currently working to interpret this document.

## 2. War Criminals' Statements

The Chinese Central Archives keeps a number of documents on Japanese criminals. These criminals, who were Japanese military officers, were directly involved in forcing women to enlist and building comfort stations. For instance, Lieutenant General Keiku Suzuki (鈴木啓久), the head of the 117th Division, stated in July 1954 that he “implemented an economic blockade in the Tianjin (天津) - Tangshan (唐山) area from October 1941 to October 1942, ..... built a comfort station for each base, and took 60 women as comfort women and raped them.”<sup>6)</sup>

Lieutenant General Nosuke Sasaki (佐佐真之助), the head of the 39th Division, said in his handwritten statement from August 1954 to May 1956 that he “forced a dozen Indonesian women at Ambon, part of the Dutch East Indies, to enlist, built a comfort station, and provided those women for Japanese soldiers to use.”

From April 1942 to March 1945, Saburo Hirose (廣瀨三郎), a senior staff officer at the 59th Division, actively engaged in building a comfort station. In early April 1944, when the 12th Japanese Army started the “Henan (河南) operation”, the adjutant of the army command ordered Hirose to manage the operation of some rear services, such as the “soldiers’ meeting hall”, “Star Club (星俱樂部)”, and “Cherry Blossom Chinese Restaurant (櫻花飯店)”. In June, the 12th Army Command ordered Hirose to send “Comfort Women” to the front line. Previously, Hirose had sent more than 30 Korean “Comfort Women” to the front line in Zhengzhou (鄭州), Henan.<sup>7)</sup>

War criminal Matsukichi Akita (秋田松吉) said that “from February 1940 to May 1941, when 15 people, including Sergeant Shinji Yamane (山根信次), the detached unit head of the 3rd Company of the 43rd Battalion, were stationed in Nancaofan (南曹范), Zhangqiu (章丘) County, Shangdong,” he was “in charge of the unit’s private first class guard, and Sergeant Yamane used a puppet town office to force five Chinese women to enlist as “Comfort Women”. “ He admitted, “we, the 15 people, sullied the five Chinese women in an obscene manner for one year and five months.”<sup>8)</sup>

As proven sufficiently by the large amounts of data, these women were forced to work under the control of the Japanese military. Those war criminals relea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came back to Japan and organized a “Japanese returnee from China group (中歸聯)”, where they have continued

6) compiled by Yuan Qiubai (袁秋白) and Yang Guizhen (楊槐珍). Confession of Sin (罪惡的自供狀), 解放軍出版社, 2001. p. 29.

7) compiled by Yuan Qiubai (袁秋白) and Yang Guizhen (楊槐珍). Confession of Sin (罪惡的自供狀), 解放軍出版社, 2001. p. 142.

8) Matsukich Akita's 1954 Confession Statement (秋田松吉1954年呈供自述). Central Archives (中央檔案館).

to reflect on their past wrongdoing.

In addition, there are huge amounts of records on the Japanese military's establishment of comfort stations, such as the memoirs of people with direct experiences, modern newspapers, and books.

### 3. Intensive Research and Increasingly Substantial Results in Academia

In the past decade or so, a series of research results have been published across China. Chen Zu Liang (陳祖梁)'s 血霧迷茫: Disclosure of Anti-Japanese Protests and the Japanese Military's Crimes in Yunnan and Myanmar (滇緬抗日及日軍罪惡揭秘) (雲南美術出版社, 2004) examines tens of comfort stations which were located in the western part of Yunnan. Fu He Ji (符和積)'s The Smell of Blood under Military Boots (鐵蹄下的腥風血雨): Record on Violence by the Japanese Military Who Invaded Hainan (日軍侵瓊暴行實錄) (the original volume and its sequel. 海南出版社, 1995) provides a record on a dozen comfort stations and a large number of cases of abuse on Hainan Island. Zhang Shuang Bing (張雙兵)'s Record on "Comfort Women" Research ("慰安婦" 調查實錄) (江蘇人民出版社, 2015) includes examinations of comfort stations which were located in Dongning (東寧), Heilongjiang, and Jintan (金壇), Jiangsu.

The Shanghai Normal University Chinese "Comfort Women" Issue Research Center has also released related books. The Center's early publications include Comfort Women Research (慰安婦研究) (蘇智良, 上海書店出版社, 1999), Criticism of the Japanese "Comfort Women" System (日本"慰安婦"制度批判) (陳麗菲, 中華書局, 2007), Record on the Shanghai Japanese Army Comfort Station (上海日軍慰安所實錄) (蘇智良, 陳麗菲, and 姚霏, 上海三聯書店, 2007), Research on the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Military Who Invaded China (侵華日軍"慰安婦"問題研究) (蘇智良&姚霏&陳麗菲, 中共黨史出版社, 2011), and The Japanese Military's "Comfort Women" and Sexual Violence (日軍"慰安婦"與性暴力) (山東畫報出版社, 2015). A book written in English, Chinese Comfort Women: Testimonies from Imperial Japan's Sexual Slaves (中國慰安婦: 日本帝國性奴隸的證言) (co-authored by 丘培培, 蘇智良, and 陳麗菲) was published by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2013),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and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4), which made the book quite influential in English-speaking regions, contributing to the readers' deeper understanding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Exhibition halls and museums displaying materials on the tragic history of “Comfort Women” also have an important role in disseminating facts and forming collective historical perspectives on the comfort women issue. There are some examples in China: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Atrocities Museum in Dongjia-gu (董家溝), Longling (龍陵), Yunnan; the soldiers’ meeting hall exhibition room in Sunwu (孫吳), Heilongjiang; Nanjing (南京) Museum of the Site of Lijixiang (利濟巷) “Comfort Stations”; and the Shanghai Normal University “Comfort Women” history museum.

#### **4. Further Research on “Comfort Women” and What Can be Done to Address the Issue in the Future**

First, joint efforts are required to ensure that "comfort women’s voices" are included in the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cannot be emphasized enough.

Second, stronger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important. The Memory of the World application process is par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 series of efforts have been made in Korea, Japan, China, and other countries to this end, but there is still a lot to be done. For example, there is still no authorized comprehensive work on the Japanese sex slavery system run in Asia during World War II. Distributing the “Comfort Women” statue of peace across the world would also be a great idea. Today, the statues are in Korea, Canada, the U.S., Australia, and China. Hong Kong has recently started considering a plan to establish a “Comfort Women” statue.

Third, more work should be done in Japan. Since the Shinzo Abe (安倍晋三)’s second term started, there have been a lot more crackdowns on the media and public opinions. In August 2014, the Asahi Shimbun was forced to withdraw its article on “Seiji Yoshida (吉田清治)’s testimony”, and the withdrawal inflamed a strong sentiment toward denying historical facts about “Comfort Women”. This led to a chaos in Japanese citizens’ general idea that most “Comfort Women” were the Japanese military’s sex slaves. In fact, we have a lot more data today on Japan’s forced enlistment of “Comfort Women” across Asia during the war than we had in the early 1990s when the “Kono (河野) Statement” was released. We need to use various channels to publish books and papers in Japan to rebut Japanese rightists’ irrational remarks, hold more rallies to let more Japanese citizens know historical facts, and release related films, such as “Spirits’ Homecoming” and “22 (Her Brave

Life)". (In China, a decision has recently been made to produce a 46-episode TV drama on "Comfort Women" titled "Women in Hell (地獄中的女人)".) My research team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to Professor Yoshiaki Yoshimi (吉見義明) and other Japanese scholars as well as social activists for dedicating themselves for many years to the discovery and research on data on "Comfort Women".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to ensure that historical facts about "Comfort Women", or Japanese military's sex slaves, are brought to light and achieve lasting peace in Asia.

발표 3

---

일본군'위안부' 연구 성과와 과제 국제학술회의

# 일본군국주의의 군수품 대만 '위안부' 연구 관점

주더란 (朱德蘭, 중앙연구원 인문사회과학연구센터)

---



# 일본군국주의의 군수품 - 대만 '위안부' 연구 관점

주더란 (대만 중앙연구원 인문사회과학연구센터)

## 개요

1937-1945년 중일 전쟁, 1941-1945년 태평양 전쟁 기간, 일본 정부는 일본군의 '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녀자들을 위안소의 '위안부'로 강제 동원했다. 각 지역의 위안소는 일본 군국주의 팽창과 전쟁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 숫자도 급속도로 늘어났다.

잠정적 자료에 따르면, 대만 국적의 '위안부'는 약 1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 대만 국적 '위안부' 중 일부는 전쟁 중 사망했고 일부는 신분 공개를 꺼렸다. 1992년 타이베이(臺北)시 부녀구원기금회(婦女救援基金會) 인터뷰에 용기를 내어 응한 사람은 91명에 그쳤고, 그 중 실명으로 증언을 해 준 사람은 58명이다. 1998년 대만 국적의 '위안부' 피해자는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 동원이 국가범죄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다. 안타까운 것은 그녀들의 바램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하여 지금은 세 분만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만인 '위안부' 피해자의 길고 긴 소송 과정에서 여성 단체, 인권 단체, 각계 인사들이 위안부피해자를 위해 앞장서서 정의를 외치며 오명을 씻기 위해 애썼지만, 일각에서는 그들이 강제로 '위안부'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자원'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본고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분석하고 과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 대만 사회의 위안부에 대한 인식, 2. 일본 식민지배 기간 대만의 공창(公娼)제도, 3. 풍속업(性風俗業, 매춘을 포함한 향락업)과 인신매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머리말

위안부 문제는 종전 후 일본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전쟁이 남긴 문제이다. 지금까지, 문건의 편찬과 해제, 전쟁 기억, 구술 역사, 영상 기록, 만화, 소설, 문학 보도, 학술 저서 등을 출판물을 통한 관련 연구가 300~400건에 이른다. 그 중 가장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은 대만 관련 작품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의 작품으로 라이칭쑹(賴靑松), 쑤즈창(蕭志強)이 번역한 〈대만론: 새로운 오만한 정신(「臺灣論」: 新傲骨精神)〉(타이베이, 前衛출판, 2001년), ‘주더란(朱德蘭)의 〈대만위안부〉(타이베이: 五南도서, 2009년 초판인쇄, 2010년 초판 제 2쇄, 2015년 제 2판 1쇄) 등이 있다.

고바야시 요시노리(Kobayashi, Yoshinori)는 일본 만화가로 1975년 등단했다. 초기에는 코믹 만화로 유명해졌는데 1990년대부터 정치적인 이슈를 소재로 한 만화를 그리면서 일본 우익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고바야시 요시노리는 자유주의 사관파(自由主義史觀派)로 만화를 통해서 일본 중심론(탈자학사관, 脫自虐史觀)을 선전하고 일본역사교과서 수정 운동을 펼치며 교과서 속 ‘위안부’ 기록을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부류에 속한다.<sup>1)</sup> 고바야시 요시노리는 2000년 도쿄 쇼가쿠칸(小學館)에서 〈새로운 오만한 정신 선언 SPECIAC 대만론(新傲骨精神宣言 SPECIAC 臺灣論)〉를 출판하고 2001년 타이베이에서 증문판 〈대만론: 새로운 오만한 정신〉(이하 ‘대만론’으로 약칭)을 출간했다. 〈대만론〉속 ‘위안부’에 대한 내용은 피해자 경험과 일치하지 않아 대만에서도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 1. 대만사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

〈대만론〉은 고바야시가 수 차례 대만을 방문하여 리덩후이(李登輝), 천수이벤(陳水扁) 및 유명 기업인인 쉬원룽(許文龍), 차이쿤찬(蔡焜燦), 진메이링(金美齡, 재일 대만 교포)과

---

1) 위키피디아 <http://zh.wikipedia.org/> 2008년 8월 30일 열람

만나 나는 대화와 추가로 약간의 역사 자료를 참고해 만화 형식으로 대만의 4백 년간의 역사 변화와 현 상황을 그린 역사만화이다.

### 1) <대만론>이 불러온 파장

<대만론> 102p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바야시가 대만신죽과학 클러스터(臺灣新竹科學園區)로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한 차이쿤찬은 이렇게 말한다.

“위안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 여성 부총통 후보자(왕칭핑(王清峰) 변호사)가 대만 국적 위안부 피해자를 모아 일본으로 가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대만 기업가(쉬원룽) 도 위안부 관련 당사자에게 물어봤었는데 그 결과 ‘강제로 끌려간’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중국에서도 예전에 ‘조선관(朝鮮館)’이라는 향락업소가 여성들을 모았어요! 이러한 일들이 대동아 전쟁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전쟁처럼 어지러운 시기에 여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떠났어요! 전쟁터에서 군대가 위생 관리와 여성들의 수송을 담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sup>2)</sup>

그 다음에, 고바야시는 타이난(臺南)에서 쉬원룽을 만나 대만 위안부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눈다. 그 때 쉬원룽은 이렇게 말한다.

“몇 년 전 위안부 문제 관련 논쟁이 시작된 초창기에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나(쉬원룽)입니다. 나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보고 몇 몇의 위안부를 찾아 당시에 정말 강제로 끌려간 것이냐고 물어보니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강제로 끌고 갈 수 없죠. 일본 본토의 동북의 가난한 농촌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부모가 팔아서 어린 기생이 되었습니다. 대만도 12,13세 어린 소녀들을 부모가 팔았어요. 결국 가난한 시절에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본군은 당시 인권을 중시했습니다. 위안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여성들에게는 출세의 기회인 셈이죠. 모든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길 바랐습니다. ‘강제로 군대를 따라간 것인가요? 기생집으로 팔려간 여자아이들은 돈을 벌어도 다 빼앗기고 소유할 수 없었어요. 아플 때 업주가 돌봐주는 것도 아니니 혼자 버텨내며 일생을 망쳤습니다. 반대로 종군 위안부가 된 여성들은 안정적인 수입에

2) 고바야시 요시노리 著, 라이칭쑹, 우즈창 譯 <대만론>: 새로운 오만한 정신(臺灣論: 新傲骨精神) (타이베이, 前衛출판, 2001년), 102p

돈도 모으고 엄격한 위생 관리를 받았어요. 그들에게 더 이상의 좋을 수 없는 환경이죠. 일반 기생집에서는 콘돔도 제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sup>3)</sup>

이 글에서 ‘일본군은 당시 인권을 중시했습니다. 위안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여성들에게는 출세의 기회인 셈이죠. 모든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길 바랐습니다. ‘강제로 군대를 따라간 것인가요?’ 라고 언급한다. 쉬원룽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17세였고 그가 살던 집 근처에 창기관(娼妓館)이 있었다고 한다. 그가 알기론 당시 일본군은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대리상이나 민간 재단에 위탁해 소녀들을 모집했다. 상인들이 소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금액이 매겨지고 중개 업소나 업자가 소녀의 부모와 만나 조건을 이야기하고 부모가 직접 딸을 기생집에 데리고 왔다. 그 후 소녀들은 그 곳에서 집중관리를 받았고 이곳은 일본군의 유흥 장소가 되었다. 바꿔 말해 일본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했으며 소녀들을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들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일본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sup>4)</sup>

쉬원룽의 생각은 타이베이 부녀구원회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여성 단체, 민간 대표의 비난을 받았다. 한 입법 의원은 서점 앞에서 일본 국기와 〈대만론〉, 쉬원룽과 고바야시의 만화와 사진을 불태웠다. 다른 입법 의원은 〈대만론〉을 사지도 말고 읽지도 말자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쉬원룽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불매 운동을 펼치고 서점이나 출판사가 〈대만론〉의 판매와 출판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sup>5)</sup>

이와 반대로 친일 성향이 강한 민간 단체인 ‘대만남사(臺灣南社)’는 쉬원룽과 고바야시의 발언을 찬성하며 〈대만론〉 구매 운동을 펼쳤다. 〈대만론〉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면서 오히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쉬원룽은 그를 향한 사회 각계의 논쟁이 끊이지 않자 회사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언론을 통해 서면으로 성명을 발표한다.

1. 위안부 문제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당사자에게 다시 한 번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험이 부족하여 식견이 좁고 생각이 짧았던 부분들이

3) 고바야시 요시노리 著, 라이칭쑹, 우즈창 譯 〈대만론〉: 새로운 오만한 정신(「臺灣論」: 新傲骨精神), 203, 204p

4) 주더란. 〈대만위안부〉(타이베이: 오남도서, 2015년 제 2판), 37p

5) 주더란. 〈대만위안부〉, 40p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모독하려는 뜻은 절대 아니므로 각계가 이성적으로 대해주길 바랍니다.

2. 본인은 위안부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자원’이라는 단어를 내뱉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고바야시 선생이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3. 본인이 ‘위안부는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당시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잡아들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말한 것일 뿐입니다. 그 외에도 본인은 일부가 속아서 위안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4. 위안부는 역사의 비극이며, 전쟁과 마찬가지로 반인도적인 행위입니다. 본인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피해 당사자에게도 연민을 느끼며 최대한 피해 당사자들의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여성의 권익을 존중하는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5. 군대 기생(妓女)의 존재는 일본 식민지배 시대든 국민당 정부 시대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인은 위안부와 과거 군대의 기생 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사회에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본인은 이 문제가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대립을 야기하는 것을 막고 위안부 당사자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일을 막을 것입니다.<sup>6)</sup>

취원릉의 5가지 항목의 내용을 담은 성명의 목적은 사회의 논쟁을 끝내는 것이다. 사실 그는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1) 인신매매범이 부녀자들과 소녀를 매춘부로 만든 것은 범죄 행위인데, 식민통치정부는 왜 이를 단속하지 않았는가? (2) 戰時 위안부 시장의 출현과 일본 군국주의는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3) 일본 정부는 여성을 위안소로 이송하여 군수품 취급을 했는데 이렇게 일본군이 여성의

---

6) 주더란, <대만위안부>, 40-41p

‘성과 신체’를 소비하고 여성의 존엄을 모욕한 행위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거래 활동으로 볼 수 있는가?

## 2) 중고등학교 교과서 역사 과정 강요 수정안으로 인한 파장

1949-1987년 장개석(蔣介石), 장경국(蔣經國)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만은 반공(反共)과 대륙의 광복을 위해서 국민당 사상 전수를 교육 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후 교육은 경제 발전, 사회 진보, 민주화 운동의 시작 및 1987년 계엄령 폐지의 영향을 받았고 본토(대만)역사 발전 상황을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편찬된다..

‘중고등학교 교과서 역사 과정 강요(中學教科書歷史課程綱要)’는 전문 학자와 교사들이 일정한 토론 절차를 거쳐 정한 것이다. 과정의 중요한 강목(綱目)이 정해지면 교육부가 확인, 통과를 시키고 이를 공시한다. 공시 후 민간 출판사는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하고 교과서를 편찬한다. 이 교과서는 다시 교육부 조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검증이 통과되면 출판권을 얻게 된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 해당 출판사는 교과서를 출판할 수 있고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택한다.

1996년 대만 총통 직선제 이후를 돌아보면 집권당마다 역사 해석권을 장악하기 위해 국민의 국가정체성을 세우고자 했다. 그리하여 1999년, 2006년, 2009년, 2014년 중고등학교 교과서 역사 과정 강요를 수정했다.

특히 2014년 교육부가 과정 강요(課程綱要)의 수정안을 통과시켰을 때 일부 학자가 새로 수정한 과정 강요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SNS 을 통해 집단 항의 운동을 전개하자 수정안 실시는 잠정 중단되었고 지금까지도 수정안 실시는 잠정 중단 상태이다. 반대파 학자는 수정안이 문제가 너무 많다고 주장한다. ‘위안부’를 예를 들면 반대파는 위안부 내용에 ‘강제(被迫)’ 라는 두 글자를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중립’, ‘다원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며 ‘강제’ 라는 글자를 삽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찬성파는 위안부가 되려고 ‘자원’한 사람이 없다고 반박하며 ‘강제’ 라는 두 글자를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마잉주(馬英九, 2008-2012년 집권) 전 대만 총통은 ‘위안부’에 ‘강제’ 라는 두 글자를 삽입하는 것을 찬성했다. 반대파와 찬성파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자원’이나 ‘강제’ 냐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 필자가 <대만 위안부>를 출간한 이후, 대만의 9개 출판사의 교과서가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했다. 해당 출판사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위안부’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 (1) 라이저한(賴澤涵) 편집장, 전화도서주식유한공사(全華圖書股份有限公司) 출판, 2012년 초판, 2015년 제2판, 155P  
대만 국적 위안부의 동원은 중일 전쟁부터 시작되었고, 특정 종사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속아서 강제로 해외로 이송되어 종군 위안부가 된 여성들이며, 그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 (2) 우쉐밍(吳學明) 편집장, 한림출판사업주식유한공사(翰林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 출판, 2012년 초판, 2015년 제 3판, 147P  
당시 많은 여성들은 일본에 의해서 간호사, 세탁공 등의 이름으로 모집되었다가 속아서 위안부로 동원되었고 이는 당사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주었다.
- (3) 쉘화위안(薛化元), 삼민서국 주식유한공사(三民書局股份有限公司) 출판, 2012년 초판, 2015년 제 3판, 164P  
그 외에, 수많은 대만인이 공항과 방어 공사 건설 등에 동원되었고 심지어 종군 '위안부'로 징집 되기도 했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강제 동원된 것이다.
- (4) 린닝스(林能士) 편집장, 남일서국기업주식유한공사(南一書局企業股份有限公司) 출판, 2012년 초판, 2015년 제3판, 150P  
그 외에도 대만 국적 위안부는 일본군의 이동 경로를 따라 이동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강제 동원되거나 속아서 온 것이다.
- (5) 정정청(鄭政誠), 자오여우즈(趙祐志) 편집장, 강희문화사업주식유한공사(康熹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출판, 2012년 초판, 2015년 제3판, 141P  
그 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속아서 위안부가 되었고 이는 당사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 (6) 다이바우춘(戴寶村) 편집장, 용승문화사업주식유한공사(龍騰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출판, 2012년 초판, 2015년 제3판, 156P  
전쟁 기간, 일본 정부는 정부, 군대, 헌법, 경찰, 업자 등과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한국, 대만, 중국 및 동남아 점령지에 ‘위안소’를 설치했다. 가난한 여성들을 속이고 핍박하여 일본군 ‘위안(慰安)’을 위한 성 관련 서비스를 하도록 했다.

(7) 천평상(陳豐祥) 편집장, 태우출판주식유한공사(泰宇出版股□有限公司) 출판, 2012년 초판, 2015년 제 3판, 154P

그 외에도 수많은 대만 여성들이 강제로 또는 속아서 해외로 끌려가 전쟁터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다.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몸과 마음에 남은 씻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남은 여생도 편안하게 지내지 못했다.

(8) 레이자지(雷家驥), 화흥문화사업유한공사(華興文化事業有限公司) 출판, 2014년 초판, 2015년 제 2판, 128P

일본 정부는 군대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성병을 막기 위해 중국, 식민지인 대만, 한국과 점령지인 필리핀 등지에서 대규모 ‘위안부’(일본군 軍妓)를 징집했다. 대만 총독부는 일본군의 요청에 따라 일자리 제공과 가정형편이 나아진다는 명목을 내걸고 많은 대만 여성들을 속여 위안부로 동원했다.

(9) 옌친형(閻沁恆), 사기문화사업유한공사(史記文化事業有限公司) 출판, 2013년 초판, 2015년 제 2판, 135P

전쟁 기간, 일본은 대만에서 여성을 강제 동원해 軍妓로 삼았다. 가여운 여성들은 전쟁을 겪고 일본군에게 유린당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오랫동안 그림자 같은 삶을 살며 비참하게 살아간다. 1996년, 대만 정부가 일본에 공식적으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일본은 말로만 사죄를 할 뿐 배상 문제에 관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상 9개 출판사가 학자들을 초빙해 집필한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내용이다. 대만 ‘위안부’ 문제의 경우 각 출판사가 ‘대량’, ‘대다수, 대부분’ ‘적지 않은’ 여성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대만 여성들이 속아서 강제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교육부가 주관하는 과정 강요 수정 위원회가 ‘강제’라는 단어를 삽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반대파는 대만 여성이 100%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며 ‘자원’

이라는 글자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반대파와 찬성과 간의 격렬한 논쟁이 시작된다.<sup>7)</sup> ‘강제’와 ‘자원’은 지금까지도 일본 우익 세력이 ‘위안부’ 문제를 언급할 때 나오는 주요 쟁점이다. 戰時의 성폭력 문제는 식민주의, 인종 차별, 성차별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로 ‘강제’와 ‘자원’만 이슈가 되는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 2. 식민지 시기 대만 공창 제도(公娼制度)

1895년, 일본이 대만을 침략한 초기에는 군정(軍政)을 실시하며, 일본 상인, 여성들이 대만으로 건너가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듬해 4월 민정(民政)으로 바뀐 이후 일본인은 자유롭게 대만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돈벌이 냄새를 맡은 화류계 업자들도 들어왔다. 식민지 정부는 정부와 민간이 주색에 빠지고 성병 감염률이 높다는 사실을 걱정하며 관료의 기강을 세우고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일본 본토의 공창 제도를 대만으로 도입한다.<sup>8)</sup>

### 1) 공창(公娼)과 사창(私娼)

일본이 대만을 통치하던 초기, 지방정부는 여러 법규를 통해 풍속업을 단속했다. 1906년 일본은대만에서 통일된 규칙이 실시하고 공창관리법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 매춘업자는 관아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하며, 다음 내용을 작성하고 본청(本廳)이나 지청(支廳)에 직접 와서 허가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1. 공창 사업에 종사하려는 이유
2. 주소, 본적, 거주지, 성명, 출생 년월일
3. 같은 호적 내에 집안 어른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만일 집안 어른(존속)의 허락이 없다면, 호주가 허가해야 하며, 호주가 이 내용을 허락하기 힘든 상황의 경우는

7) 위키피디아, 자유의 백과전서 대만고중역사과강요조정안(臺灣高中歷史課綱要微調案), <http://zh.wikipedia.org/zh-tw>, 2016년 11월11일 열람

8) 스즈키 유코(鈴木裕子), 〈戰爭責任とジェンダー〉, (도쿄, 未來社, 1998년), 23p

- 해당 사실을 반드시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4. 20세 미만인 자는 앞 항의 내용 외에도 생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생부가 없으면 생모의 허락이, 생모가 없으면 조부의 허락이, 조부가 없으면 조모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5. 娼妓業이 실시되는 장소 및 대좌부(貸座敷) 주소와 이름을 기록한다.
  6. 기명(姓名), 취업년한
  7.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 밑에서 영업하는 자는 이 사실을 기록한다.
  8. 娼妓 경험 사실 유무, 만일 창기 경험자라면 업을 시작하고 폐업한 년도, 월, 일 및 주소와 폐업 사유를 기입한다. 앞의 사항을 작성(서류 구비) 후 검진증서 제 3호, 제 4호의 승낙서, 현지 관원이 발급한 본인 호적등본과 호구조사부 복사본, 허가자의 인감증명서 및 娼妓취업 계약서 등본을 제출한다.

제 17조 16세 미만자는 娼妓가 될 수 없다.

제 18조 娼妓 취업 허가증의 효력은 4년으로 제한한다

제 19조 娼妓는 대좌부 이외의 장소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업을 할 수 없다

제 20조 娼妓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검진 및 진료를 받고 검진을 받지 않은 자는 취업을 불허한다.

제 21조 娼妓는 법령, 규정, 관청 명령 및 본청과 지청에 직접 와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청이나 지청에서 허락을 구하지 않은 경우 마음대로 대좌부(妓院) 지정 이외의 지역 올 수 없다.

제 22조 누구든 娼妓의 휴업, 폐업, 통신, 면접(면회) 및 자유를 방해할 수 없다.

제 23조 娼妓 취업 장소 또는 거주지 이전 시, 본청, 지청에 허가증을 발부 받아야 한다.

다른 청의 관할 내에서 허가를 받아 창기업에 종사하는 자는 이 허가 기한 내에 본청 관할을 옮기고 옮긴 후에도 해당 본청 관할 하에서 계속 이 업에 종사를 원할 경우 제 16조 제 2호와 제 5호, 제 6호에 따라 허가증을 첨부하고 본청, 지청에 가서 새로 발급을 받는다. 이 같은 경우 허가 효력은 원청에서 정한 연한 내에 앞의 허가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3일 이내 이전의 원래 관할 청에 상황을 설명한다.

.....

제 30조 조합 단속인(娼妓公會책임자)의 직무

1. 대좌부(기원) 영업자와 창기명부 조사
2. 대좌부 영업 및 창기 취업소 규정 명령을 전달하고 업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린다
3. 娼妓 검진 및 질병 치료 관련 사안
4. 대좌부 영업자 및 娼妓가 규정 명령을 어길 시 경관(警官吏)에게 사항을 신고
5. 조합소관 비용의 수입과 지출 및 결제 보고 관련 사항
6. 앞의 각 호 이외에 특별한 사명  
.....<sup>9)</sup>

여성이 만일 매춘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직접 관청으로 가서 허가를 신청한다. 해당 관료는 (1) 만 16세 이상 (2) 20세 미만은 친부 또는 호주, 집안 어른의 승낙 (3) 공창업자는 기간의 제한을 받음 (4) 건강진단서 없으면 종사할 수 없음 (5) 지정한 지역 이외에서는 일을 할 수 없음 (6) 업주, 창기가 위법 행위가 있을 시 창기공회(娼妓公會)가 경찰에 제보해 조사를 받게 하고 반드시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업무수행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합법적으로 영업한다. (그림 1 참조)

일본 식민지와 일본 본토를 대조해보면 공창관리법은 거의 비슷한데 단지 연령에서 차이가 있는데 일본 본토는 만 18세 (1927년은 21세로 바뀜), 대만은 16세, 조선은 17세, 만주는 17세이다. 일본 제국주의 지배 지역 내 공창 연령의 차이는 풍속업자가 ‘인간시장’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고 민족, 지역에 상관없이 여성 매매 활동을 진행했을 것이다.<sup>10)</sup>

대만에서 영업허가증을 가진 공창의 숫자는 식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1897년 664명으로 모두 일본인이었으며 1925년의 경우 모두 1050명, 그 중 일본인 922명, 대만인 62명, 조선족 66명이었다. 1937년 중일 전쟁 발발 시 공창은 모두 1040명으로 일본인 808명, 대만인 34명, 조선족 198명이다. 1941년 태평양전쟁 당시 공창 숫자는 925명으로 일본인 674명, 대만인 24명, 조선족이 227명이다. (표 1참고)

2008년 9월 6일 오전 10시 22분 경매사이트에서 1920년 12월 중화민국경찰서에서 소장한 증명 문서가 경매에 올라왔다. 이 증명 문서는 일본 여성이 상하이시 정부에 제출한 창기업 종사 허가 신청서로 2008년 9월 13일 22시 22분에 4300엔에 판매되었다. 상하이 娼妓業 문서의 사이즈는 가로 29cm, 세로 21cm으로 신청인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문서

9) 1906년부터, 대만 창기업관리규칙이 통일되었다. 宜蘭廳令 제14호<대좌부 및 창기 단속 규칙(貸座敷及娼妓取締規則)> 번역문을 참조. <宜蘭廳報> 제 252호 (1906년 3월)

10) 후지나가 다케시(藤永壯), <植民地臺灣における朝鮮人接客業と「慰安婦」動員一統計値から見た覚え書き>, <근대사회와 매춘문제>에 수록, 오사카 산업대학 산연총서(産研叢書 16(오사카, 2001년 3월), 84p. 주더란 <일본 통치 시기 대만 화류업 문제(1895-1945)> (日治時期臺灣花柳業問題)<인문학보>에 수록, 제 27기 (2003년 6월), 115,164-170p), 주더란 <대만위안부> 340-341p

의 글자체는 모호하지만 내용에는 신청인의 성명(渡邊XX), 나이 20세, 국적: 일본, 현재 주소: 이춘당(怡春堂), 신청 이유: 가난해서 일해야 한다. 자원. 보증인-陳X芳. 추가: 취업 기간 동안 정부 명령에 복종하며 모든 책임은 보증인이 담보한다 (그림 2 경매 문건 설명 자료 참고)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일본 여성이 ‘자원’ 해서 신청한 문서를 통해 여성이 매춘에 종사하고자 할 때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신청 절차를 밟으면 관할지 기관에서 비준 후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풍속업 관리 기관에서 신청인이 ‘자원’해서 취업을 신청했다고 표기하면, 이 신청서는 정부 측에서 ‘강제동원’으로 매춘을 시켰다는 범죄 문서가 될 수 없다.

## 2) 게이샤(藝妓), 술집 여성, 접대부, 바걸(호스티스), 댄서

근대 일본의 풍속업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요리실(술집에 해당. 종사자는 주로 게이샤), 음식점(술집, 종사자는 작부로 오늘날은 술집여자라고도 부름), 대좌부(기원, 종사자는 창기), 대석(貸席, 집을 임대해서 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는 작부), 카페(지금의 바에 해당, 종사자는 여급으로 여성 접대부 또는 바걸을 의미), 무도장(무도회장, 종사자는 댄서) 등으로 분류된다.<sup>11)</sup> ‘요리실, 음식점, 카페실, 대석 영업 단속 규칙(料理屋、飲食店 飲食店、咖啡屋、席貸營業取締規則)’ 규정에 따라 영업주는 ‘종업 허가증이 없는 여성을 게이샤, 작부 또는 여급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 수장, 경찰서장, 경찰지서장, 동종 업계 공회 등은 각 사회 공공 안전과 풍속을 문란하게 만드는 곳을 발견 시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종사자를 해고하도록 명령한다. ‘게이샤, 작부, 여급 단속 규칙(藝妓、酌婦女給取締規則)’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게이샤, 작부, 여급 영업자로 불리는 자는 반드시 군수나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본적(거주지), 주소, 성명 및 출생연월일
2. 영업장소 혹은 거주지
3. 별명 또는 예명
4. 반드시 종사해야 하는 이유

11) 주더란, <일본 통치 시기 대만 화류업 문제(1895-1945) (日治時期臺灣花柳業問題)>, 106p

5. 고용주와 고용주의 주소, 성명, 직업
6. 영업 계약서 사본
7. 호적등본 또는 호구조사부 전체 사본(대만인에 한해)
8.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정부 의원 또는 공공 의료 기관에서 만든 진단서
9. 이전에 게이샤, 창기, 작부, 여급 또는 댄서였던 자는 영업의 종류, 장소, 폐업 연월일 및 이유를 기록한다.

제2조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게이샤, 작부, 여급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1. 만 12세 미만
2. 영업 기간이 4년이 넘었으나,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거나 학업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고 계약이 8년이 넘지 않은 자는 제한 받지 않는다.
3.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자(契約不當者)로 인식되는 자
4. 게이샤, 창기, 작부 또는 여급 등 영업 허가가 취소된 자, 또는 영업 정지 증거거나 폐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결핵, 홍역, 매독 및 기타 전염성 질병에 걸린 자는 공공위생에 유해한 자로 간주한다.
6. 성생활이 문란하거나 공공 안전과 풍속에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자
7. 기타 종사하는 과정에 공공 안전 및 풍속에 유해하다고 여겨진 자<sup>12)</sup>

일본 게이샤, 술집 여자, 접대부, 바걸, 댄서는 모두 취업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고객을 유혹하거나 붙잡아서는 안 되며 본업 이외의 풍속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근대 동아시아 지역의 개항장은 성산업 시장의 신천지였다. 그 중 ‘성’ 서비스업이 남성들의 환영을 받은 이유는 성을 통해 남성들은 현실생활의 불안과 스트레스, 좌절, 원망, 초조, 감정적 스트레스 등을 벗어날 수 있고 남성들이 자존감, 위엄, 권력을 느낄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 현상은 특히나 전쟁 중인 일본 군인, 군속(군대의 사무를 보는 자) 및 상인들에게서 나타났다.

12) 쇼와 7년 7월 22일 신주쿠령 제 12호 <게이샤작부여급단속규칙(藝妓酌婦女給取締規則)>, <新竹州報> 제 643호, 주터란 <일본 통치 시기 대만 화류업 문제(1895-1945) (日治時期臺灣花柳業問題)>, 118, 120p

### 3. 풍속업 및 인신매매

1910년대 싱가포르를 여행 중이던 이화타 요시오(岩田喜男) ‘인간경매시장’의 실제 상황을 본 후 이렇게 말했다.

대략 다이쇼(大正) 2,3년 (191301914) 경, 싱가포르 부두 창고 앞에서 창기 경매 시장을 보았다. 12, 13, 14, 15 세의 일본 소녀 약 10여 명이 얇은 서양식 옷 같은 가운을 입고 있었다. 얼굴이 예쁜 소녀는 비싼 값에 가장 먼저 팔렸다. 그때 현장의 소녀들은 전혀 영문을 모르는 얼굴이었다. 자신들이 기녀로 팔려간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 것 같다. 중국과 인도 항구에서도 인신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일본 소녀들과 같은 또래의 소녀들이 경매를 통해 팔려나갔다. 판매자는 이렇게 외쳤다. “몸값은 50위안, 50위안, 살 사람 없어요?”<sup>13)</sup>

많은 소녀들이 속아서 해외로 갔다는 것은 인신매매업자들에 의해 상품처럼 판매가 되었음을 말한다. 일본 관료는 이런 매춘 활동에 대해 인력 부족 등의 문제 등으로 몰래 해외로 나가는 여성들을 엄중하게 조사할 수 없었다. 게다가 해외에 있던 독신남들도 이 여성들을 필요로 했고 매춘업의 발전은 식당, 관광, 백화점, 교통 운송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래서 일본인 교포가 거주하는 곳이 번창했기 때문에 일본측은 사실상 단속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인신매매업자들은 여자아이들을 배의 바닥에 숨겨 해외로 밀항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선원과 결탁하고 선박 사무장, 주방장 등과도 결탁했다. 여자아이들은 강제로 기녀가 된 후에 일반 상품처럼 ‘업주’ 사이를 오고 갔다.<sup>14)</sup>

1937-1945년 중일 전쟁, 1941-1945년 태평양 전쟁 기간에, 일본인 상인은 상업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일본 관료, 군인, 군대 관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국책기업’ ‘군수기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일본군 점령지에서 여러 등급의 위안소, 요리점, 커피점, 식당을 열었고 전쟁 기간에 돈을 번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푸젠성(福建省) 샤먼(廈門) 지역의 ‘매내가(梅乃家)’는 일본인이 투자한 고급 요리점으로, 점주는 일본인 게이샤를 고용해 고위급 군인에게 서비스 하도록 했다. ‘파지창(波止場)’은 조선인이 운영하는 일반 요리점으로 일본의 일반 사병들이 오락을 즐기고 매춘을 했던 곳이다. ‘희락(喜樂)’ ‘팔주엄(八洲庵)’은 대만인이 오픈한 모양만 커피숍인 기생집으로 대만, 중국 국적의 여성

13) 오오바 노보루(大場昇), 〈からゆきさんおキクの生涯〉(도쿄: 아카시(明石)서점, 69-70p)

14) 모리 카즈미(森克己), 〈人身売買—海外出稼ぎ女〉(도쿄: 시문도(至文堂), 1959년), 84-94, 101p. 김일면(金一勉),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도쿄: 산이치쇼보(三一書房), 1977년) ©, 30-31p

접대부가 일본 사병과 군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sup>15)</sup>

戰時 일본 정부는 국내 포주들이 군측의 양해를 구했다는 명목으로 도처에서 부녀자를 모집해 중국으로 데리고 와 매춘을 시키는 사태를 걱정하였으며 후방의 민심을 달래고, 불법으로 자행되는 여성 인신 매매 활동을 방지하고자 했다. 그래서 1948년 2월 내무성 경보국(警保局)에서 공문을 보내 각 청의 현장 관료는 규정에 따라 부녀자의 출국 절차를 밟을 것을 전달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의 출국은 지금 일본 본토의 기생, 사실상 매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만 21세 이상이며, 성병이나 다른 전염병성 질병 환자가 아닌 자에 국한한다.  
현재 화중(華中), 화베이(華北)로 가야하는 자는 묵인하며 쇼와 12년(1937) 8월 31일 외무차관이 공문을 발송하고(米三機密合第三七七六号)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2. 신분증명서를 발급 시 반드시 계약 기간 만료가 되거나 계약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신속히 귀국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야 한다.
3. 매춘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부녀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신분증명서를 신청한다.
4. 매춘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부녀자가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반드시 같은 호적 또는 직계 가족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직계 존속의 동의가 없으면 호적상의 집안어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동의를 해 줄 사람이 없다면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5. 매춘을 목적으로 한 부녀자는 출국 시 신분증 발급 시 계약 및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해야 하며, 인신 매매나 유인 및 사기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6.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모집 중개업자나 일반 풍속업 관련하여 출국을 하는 부녀자가 군측의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하거나 군대와 연락했다고 대답하더라도 모두 엄격한 단속을 해야 한다.
7. 前 항에 해당하는 부녀자를 모집할 때 허위 사실을 선전하거나 과장할 경우 해당 중개업자를 엄중하게 단속하고, 그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진행한다. 만일 정식 허가나 해외 공관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없어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모집을 허락하지 않는다.<sup>16)</sup>

(원문은 모두 일어로 번역된 자료임)

15) 주더란, <해외도금: 일본인의 대만 양안에서 전개한 매음업 시장 연구(1895-1945) (海外淘金: 日本人在台海兩岸拓展賣淫市場之研究)> 탕시용(湯熙勇)의 <중국해양발전사논집> 제 10집 (타이베이: 중앙연구원인문사회과학연구센터, 2008년), 452p

16) 쇼와 13년 2월 23일 내무성 경고 제 5호 <支那渡航婦女ノ取扱ニ關スル件>,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중군위안부자료집> 102-104p 수록

일본 정부의 일본군 성문제에 관한 요구로 인해 전염병에 안 걸린 술집 작부는 출국해 매춘하는 것을 묵인했다. 그러나 중개 업자가 부녀자를 모집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매매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군대의 동의를 얻었다고 말하며 사실상 유인 및 속여서 데리고 간 사실이 발생할 경우 군대의 위신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정부 관료는 이를 엄중히 조사하고 단속했다.

출국 매춘부에 대해서는 부모나 호적상의 어른의 동의를 얻을 것을 규정하고, 본인이 직접 관할 지역의 경찰서에 증서를 신청하고 비준을 받은 후 출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의해볼 점은 상술한 정보국은 종업자의 출국 조건을 허락할 때 ‘현재 일본 본토 기생 및 사실상 매춘에 종사하는 자로 만 21세 이상’ 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규정은 무엇인가? 원인을 살펴보니 일본이 국제 연맹에 가입하고 ‘부녀자와 아동 매매 금지 조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조약 위반을 걱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1910년 국제 연맹은 파리에서 ‘여성매매행위금지조약’에 국제조약을 체결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조 누구든 타인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매춘을 목적으로 미성년 부녀를 속이면 본인이 동의를 하더라도 타국에서 범죄 행위로 성립되는 모든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제2조 누구든, 타인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매춘을 목적으로 협박, 사기, 폭행 또는 권력을 이용하거나 다른 강제 수단으로 성인 부녀를 유인, 속인 자는 타국이라도 범죄 행위가 성립되며 이를 처벌해야 한다.<sup>17)</sup>

제1조의 미성년은 만 20세 이하의 여성이다. 다시 말해 본인이 매춘을 동의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매춘 행위는 금지한다. 1921년 국제연맹은 제네바에서 조약을 체결 시 미성년을 21세로 다시 규정했다. 일본이 당초 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8세 미만으로 하는 조건으로 이 조약에 가입한 것이나, 1927년에 이 유보 조건을 철폐하였다.

1938년 일본 정보국 국장은 매춘부의 나이는 21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본의

17) 스즈키 유코(鈴木裕子), <일본군'위안부' 관계자료집성> 하권 (도쿄: 아가시 서점, 2006년), 123-124p

미성년은 만 21세 이하의 여성이며, 국제 사회와 일치한다. 단, 1921년 부녀자 아동 매매를 금지하는 국제 조약의 제 14조는 체결국은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이 규정을 이용해 이 조약이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대만, 조선은 국제 조약의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의 보급지가 되었고 이렇게 부녀와 아동이 국경을 넘어 매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장했다.<sup>18)</sup>

그 외, 일본군은 식민지공창관리법을 위반하고 일본 정부, 대만총독부는 이를 묵인했다. 1940년 군대 문서가 좋은 예이다.

1939년 11월 일본군은 광시성(廣西省) 난닝(南寧) 지역에 진격하면서 동쪽을 침범하였다. 중국 군대는 적수가 되지 못해, 친저우(欽州)와 련장(廉江)은 곧바로 함락되었다. 1940년 5월 일본군은 중국 군대를 견제하기 위해 다시 대규모 병력을 집결해 광둥성 북쪽을 공격했다. 교전 결과 일본군은 식량과 총탄 등의 부족, 광둥 수비군의 용감한 항전 등의 영향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sup>19)</sup>

1940년 6월 일본군이 친저우에서 후퇴하면서 연대장 하야시 요시히데(林義秀) 대령은 부대의 작전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식민지 대만군에게 여성들을 데리고 와 위안 서비스를 할 것을 요청한다. 같은 해 8월 가오슝(高雄) 지사 아카호리 테츠 키지(赤堀 鐵吉) 는 외사부장(外事部長)에게 공문을 보내 해당 안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한다. 공문에는 친저우 일본 점령군에 관한 증명 3부를 첨부했다.

### 제 1호 사본 첨부

증명서            사진  
주소            0000000000  
성명            000 금년 22세

위 사람은 본대 소속 위안소 경영자로, 이번 위안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 대만으로 돌아간다. 위안부는 본대를 위로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도항(渡航)에 대해 편익을 제공하며 이 증명을 발급한다.

쇼와 15 (1940년 6월 27일)

하남 파견군 鹽田兵團林 부대장 하야시 요시히데 林義秀 히야시 부대장 인

18) 요시미 요시아키, <중군위안부> 165-166p

19) 덩선준(丁身尊) 편집장 <광둥민국사(廣東民國史)>, 하권 <광저우: 광둥인민출판사, 2004년>, 974-979, 990p

## 제 2호 사본 첨부

### 도항증명서

본적 타이베이주 타이베이시 〇町〇〇番地  
현거주지 광둥성 친현 치링쉬 평라이 위안소 (廣東省欽縣奇靈圩蓬萊慰安所)  
직업이름 위안소업 〇〇〇 금년 22세  
1. 도항지 대만 가오슝  
2. 목적 위안부를 모집  
3. 기간 쇼와 15(1940)년 6월 27일-쇼와 15년(1940)년 9월 26일  
4. 출발지 신현  
출발시간 쇼와 15년 6월 30일  
5. 기타  
상술한 도항 신청을 증명함  
쇼와 15년 6월 27일 신청인 〇〇〇  
친저우 헌병 분대장 아다치 시게 가츠(足立茂一)

친저우 憲警 제 466호

증명

쇼와 15년(1940)년 6월 27일

친저우 헌병파견 대장 아다치 시게 가츠 欽州憲兵分遣隊長 (신저우 헌병파견대장) 印

## 제 3호 첨부

### 소환 증명 신청서

본적 타이베이시 〇〇〇〇〇〇  
주소 가오슝 시 〇 町 〇 丁目 〇〇〇番地  
직업 藝者  
성명 〇〇〇 다이쇼 11년 (1922) 〇월〇〇일생  
  
본적 타이중 州 〇〇〇〇〇〇  
주소 가오슝 시 〇 町 〇 丁目 〇〇〇番地

직업 작부  
성명 000 다이쇼 14년 (1925) 0월000일생

본적 타이베이 州 000000  
주소 가오슝 시 0 町 0 丁目 000番地

직업 藝者  
성명 000 다이쇼 15년 (1926) 0월0일생

본적 타이베이 州 000000  
주소 가오슝 시 0 町 0 丁目 000番地

직업 작부  
성명 000 다이쇼 13년 (1924) 0월000일생

본적 타이중 州 000000  
주소 가오슝 시 0 町 0 丁目 000番地

직업 작부  
성명 000 다이쇼 13년 (1924) 0월0일생

본적 타이베이시 000000  
주소 가오슝 시 0 町 0 丁目 000番地

직업 작부  
성명 000 다이쇼 14년 (1925) 0월000일생

이상의 인물은 군대위안소로 취업하는 사람으로 증명을 발급하고 신청함  
쇼와 15년 (1940) 6월 28일

신청인 본적 타이베이시 0 町 000番地

현거주지 광둥성 친현 치링쉬

직업 평라이 위안소

성명 000 금년 22세

친저우 헌병 파견대장 아다시 시케가츠

친저우 헌경 468호

증명함

쇼와 15(1940)년 6월 22일

친저우 헌병 파견 대장 아다치 시케가츠(足立茂一) 신저우 헌병파견대장 印

이 안에 대해 일본 외무부는 쇼와 15년(1940)년 5월 대만 총독부의 규정에 따라 중국 대륙으로 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재중국 영사관이 발급하는 ‘중국으로 건너가려는 이유 증명서(渡華事由證明書)’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오슝 지사는 ‘위안소 종사자가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시급하고 위안소와 군대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으며 일본군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편익을 제공한다. 신분, 목적 등이 확실히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업자가 군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만 소지하면 여성을 데리고 중국으로 건너갈 수 있게 허락한다.’라고 보고했다.<sup>20)</sup>

대만 총독부는 풍속업 단속 법규에서 다음의 내용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영업자는 게이샤, 작부는 기숙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공공 안전이나 풍속을 해치는 경우는 영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게이샤, 작부가 만일 공공 안전이나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 그 영업을 정지나 업종 종사 증명서를 말소한다. 게이샤, 작부가 매춘 겸할 것을 원할 시 娼妓業 관리 규정에 따라 취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sup>21)</sup>

이 6명의 여성의 본적지를 보면 4명이 타이베이, 2명이 타이중(臺中)에서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녀들은 가오슝 지역 대만인의 호적에 등록되어 있다. 대만인 업주는 게이샤, 작부라는 이름으로 그녀들을 데리고 출국한 것이다. 6명의 소녀의 나이는 18세 1명, 14세 1명, 15세 2명, 16세 2명이었다.<sup>22)</sup> 대만에서 게이샤, 작부의 서비스 대상은 사투리 문화를 잘 아는 지식인이나 부자였다. 그러나 대만인 게이샤, 작부는 일어나 일본 사교 문화를 잘 모르는 이들로 업주에 의해 위안소로 왔고 춤이나 재주를 보일 필요 없이 일본군이 ‘성’을 처리하는 도구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필자가 처음 이 자료를 읽었을 때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의 <중군위안부자료집>(도쿄:오츠키 서점(大月書店)) 134-137p 와 고히토 건일(後藤 乾一),

20) 요시미 요시아키 <중군위안부자료집> 138p

21) 주더란, <일본 통치 시기 대만 화류업 문제(1895-1945) (日治時期臺灣花柳業問題)>, 118-124p

22) <渡支事由證明書等の取寄不能と認めらるる對岸地域への渡航者の取扱に關する件>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가 공동 집필한 <정부조사 ‘종군위안부’ 관계자료집성(政府調査‘從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 제 1권 (도쿄 龍溪書舎, 1997년) 147-162p 에 동일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요시미 요시아키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X’ 방식으로 일부 내용을 표기하여, 게이샤(藝旦), 작부의 출생년월일 자료(3-1, 3-2 참고)를 기록했다. 1996년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은 ‘위안부’관련 자료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 회원이 조사한 자료는 외무성이 제공한 것으로 일부 내용이 검은색으로 색칠 된 복사본 자료를 사용하였다(그림 4-1, 4-2 참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02년 필자는 소장 기관인 도쿄 외무성 외교사료관(外交史料館)을 방문해 원본을 조사하고자 했다. 필자는 도서관 관계자에게 복사를 하거나 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원본을 볼 수 있기를 요청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상사에게 허가 여부를 물어본 후 이렇게 답변했다. ‘당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도서관은 검은색이 칠해진 복사본만 제공할 수 있을 뿐, 원본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 측에서 열람을 불허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만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소는 왜 대만 소녀들을 ‘아동기생’으로 삼은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까봐 두려워서였을 것이다. 공문에는 소녀들을 위안소로 ‘강제로 연행’이라는 기록은 없다. 그렇다면 그녀들은 ‘자원’해서 군대의 기생이 된 것인가? 소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법률상 자주권이 없다. 부모가 딸을 ‘매매’ 한 것은 위법 행위인데, 결국 업주에게 ‘속은’ 것인가? 아니면 출국하도록 ‘유인’한 것인가?

만일 업주가 사기, 유인, 인신 매매 방식으로 소녀를 모집했다면, 이 수단은 불법 강제 노동에 속하며, 식민 지배 정부는 출국을 금지시키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중국으로 건너가도록 허락했다. 일본 관료(정부)가 업주를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위안부’가 일본군에게는 특수 군수품으로써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군수 물자였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풍속업자, 중개업자, 교통 운송업 등 모든 관계자가 각종 자원을 동원해 ‘성’시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일본군의 군수 물자인 ‘위안부’를 대량 양산한 것이다.

## 4. 결론

20세기 전반기 일본이 대외 침략 전쟁 기간에 광활한 대동아 지역에 위안소를 대거 설치하고 여성을 ‘위안부’로 모집 동원한 행위는 ‘위안부’가 일본군 작전에서 필요한 ‘군수품’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당시 일본 국내 신문은 이렇게 보도한다.

군대는 ‘위안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취급했다. 만일 운송선이 적에 의해 격침을 당하면 ‘군수품 침몰’로 보고했다. ‘위안부’는 전쟁터에서 사라졌고 군인이나 군대 관계자의 신분도 아니며 전사했다고도 보지 않았다. 그저 물품이 유실되었고 버려야 하는 대상이었으며 그 어떤 훈장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sup>23)</sup>

글에서 ‘위안부’는 일본군에 의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필요한 군수품이었다.

‘위안부’시장의 탄생, 주도권, 통제권에는 구조적인 관련성이 있다. 즉, 소비자는 일본군과 일본 군대 관계자(군대에서 사무를 보는 자) 및 어용 상인(御用商人)이었다. ‘위안부’시장의 발전 방향은 일본 정부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 중 최대 수익을 얻은 쪽은 공급측이다. 공급측은 일본군과 일본정부, 식민지정부, 일본 점령지 괴뢰 정부가 선정한다. 특수한 ‘군수품’의 유통망은 제조, 구매, 공급, 운송에서 소비 등 단계에서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공생공영(共生共榮) 관계는 상품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戰時 일본 정부는 국제 연맹의 ‘부녀자 아동 매매 금지’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이 만일 출국을 원하면 ‘일본 본토의 娼妓, 실제 매춘 종사자, 만 21세 이상, 성병과 기타 전염병에 없는 부녀자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일본 국내 공창인 수가 제한적이고 계속 늘어나는 소비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전쟁 총동원의 일환인 풍속업자들로 하여금 국가 이익과 자신의 이익에서 출발해 창기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위안부’로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조직과 결탁해 사기, 유인, 폭력, 협박, 권력 남용, 매매 등의 수법을 모두 동원해 도처에서 가난하고 성경험이 없는 부녀자와 아동을 모집해 ‘위안부’로 동원했다. 이렇게 이런 성 산업 종사자, 위안부업자, 인력중개소가 교묘하게 결탁하였다.

양성 관계에 있어, 일본군은 여성을 ‘성노리개’로 보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성폭력이다.

23) 入江徳郎 編 〈新聞集成昭和史の証言〉, (도쿄 : 本邦書籍株式會社, 1983년), 177p

1937-1945년, 일본군을 중심으로 한 성폭력은 일본군국주의가 타 민족에 자행한 군사 폭력(침략전쟁), 법률 폭력(식민주의), 정치폭력(차별대우), 경제폭력(계급착취), 문화폭력(민족 차별), 사회폭력(성차별)등 모든 폭력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위안부’는 일본군국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 시작되면서 탄생되었다. 잔인한 군사 폭력이 있었기에 대규모 성폭력이 자행되었다.

일본 우익세력은 ‘위안부는 ‘자원’하여 매춘을 했고 일본 정부가 강제로 연행한 기록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sup>24)</sup> 일본 우익 세력은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성의 도구화’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인도주의 관점이 부재하고 인간의 존엄과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무시하는 발언은 일본 정부가 일본 군국주의가 아시아에 남긴 큰 상처를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반성과 사죄를 하고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그것만이 일본이 아시아인과 함께 공동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일 것이다.

---

24) 일본 戰時 성폭력 부인 언론, ‘위안부’ 문제를知るために 설립 자료 참조, 女たちの戦と平和資料館 :<http://wam-peace.org/>(2014년4월 25일 열람). 〈폭론(暴論)〉 참조, 산케이신문에 수록, 도쿄, 2011년12월6일[http://www1.hk.apple.nextmedia.com/realtime/art\\_main.php?iss\\_id=20111206&sec\\_id=10793140&art\\_id=50053008](http://www1.hk.apple.nextmedia.com/realtime/art_main.php?iss_id=20111206&sec_id=10793140&art_id=50053008)(2014년5월1일 열람)

附錄第五號樣式 (用紙美濃紙)

第	住姓後年廢年許年出屋	所見月日業月可日願號	名日業月可日願號	名日業月可日願號	名日業月可日願號
業營	地生出籍本所住		齡年名姓分身		
下層	室數坪數階子				

裏

明治何年何月何日免許  
 稼業期限 自明治何年何月何日  
 至明治何年何月何日 何年何個月  
 何應 (何支廳) 印  
 應印

表

契印

何警第 號

娼妓免許鑑札

娼妓名 (本籍) 寄留地 姓 年 齡

附錄第六號樣式 堅七寸

娼妓番號雇入名簿之適用ス

娼妓名簿

何廳警務課 (何支廳)

娼妓番號簿 八寸五分橫八寸

雇入名簿 八寸五分橫八寸

考備	本出生籍		任所		事務擔當者姓名		本出生籍	
	出	本	出	本	姓	名	出	本
係 關 ノ ト 者								
計		四階	三階	二階				

(그림 1) 일본 식민 시기 대만 공창 허가증과 명부

자료 출처: 宜蘭廳訓令 제12호 「대좌부 및 창기 단속 규칙 시행 절차(貸座敷及娼妓取締規則施行手續)」, 1906년4월1일

(표 1) 대만에서 공창 직업에 종사하는 일본, 대만, 조선족 숫자(1897-1941년)

年別	種族別	臺北州	新竹州	臺中州	臺南州	高雄州	臺東廳	花蓮港廳	澎湖廳	小計	合計
M30 (1897)	內地人	425	--	79	86	--	--	--	74	664	664
	本島人	--	--	--	--	--	--	--	--	--	
M31 (1898)	內地人	547	--	107	169	--	--	--	49	872	912
	本島人	36	--	--	4	--	--	--	--	40	
M32 (1899)	內地人	576	--	130	282	--	--	--	44	1,032	1,083
	本島人	50	--	--	1	--	--	--	--	51	
M38 (1905)	內地人	345	9	82	190	40	--	--	10	676	711
	本島人	26	--	--	9	--	--	--	--	35	
	朝鮮人	--	--	--	--	--	--	--	--	--	
T4 (1915)	內地人	607	21	208	206	--	--	89	87	1,218	1,322
	本島人	6	--	--	98	--	--	--	--	104	
	朝鮮人	--	--	--	--	--	--	--	--	--	
T14 (1925)	內地人	423	--	105	122	232	--	40	--	922	1,050
	本島人	7	--	1	52	--	--	2	--	62	
	朝鮮人	25	--	14	13	14	--	--	--	66	
S5 (1930)	內地人	438	--	99	117	88	--	41	88	871	1,119
	本島人	4	--	--	115	--	--	--	--	119	
	朝鮮人	39	--	17	--	59	--	--	14	129	
S10 (1935)	內地人	407	--	62	44	163	--	11	114	801	1,026
	本島人	--	--	--	42	--	--	2	--	44	
	朝鮮人	65	--	29	47	18	--	22	--	181	
S11 (1936)	內地人	424	--	62	24	180	--	12	134	836	1,063
	本島人	--	--	--	37	--	--	32	--	69	
	朝鮮人	51	--	29	55	22	--	--	1	158	
S12 (1937)	內地人	420	--	58	26	177	--	10	117	808	1,040
	本島人	--	--	--	34	--	--	--	--	34	
	朝鮮人	50	--	29	56	28	--	35	--	198	
S13 (1938)	內地人	440	--	58	21	191	--	10	116	836	1,055
	本島人	--	--	--	30	--	--	34	--	64	
	朝鮮人	40	--	21	59	35	--	--	--	155	
S14 (1939)	內地人	395	--	35	14	191	--	14	47	696	969
	本島人	--	--	--	33	--	--	--	--	33	
	朝鮮人	60	--	28	55	41	--	56	--	240	
S15 (1940)	內地人	392	--	25	16	212	--	69	24	738	1,017
	本島人	--	--	--	30	--	--	--	--	30	
	朝鮮人	71	--	24	61	37	--	56	--	249	
S16 (1941)	內地人	380	--	19	24	225	--	2	24	674	925
	本島人	--	--	1	23	--	--	--	--	24	
	朝鮮人	55	--	15	66	33	--	58	--	227	

비고 : M 은 메이저유신 시대, T는 다이쇼 시대, S는 쇼와 시대를 의미한다. 내지인(內地人)은 일본인, 본도인(本島人)은 대만인이다. 1942년-1945년까지는 통계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 출처 : 대만 총독부 민정부(民政部) 문서과, <대만총독부통계서> 1-3, 9, 19, 29, 34, 39-45권, <警察取締二係(警務) (타이베이 : 대만총독부관방조사과, 1899-1943년) 제작

(그림 2) 사이트 경매 물건 설명- 유녀(창기) 허가 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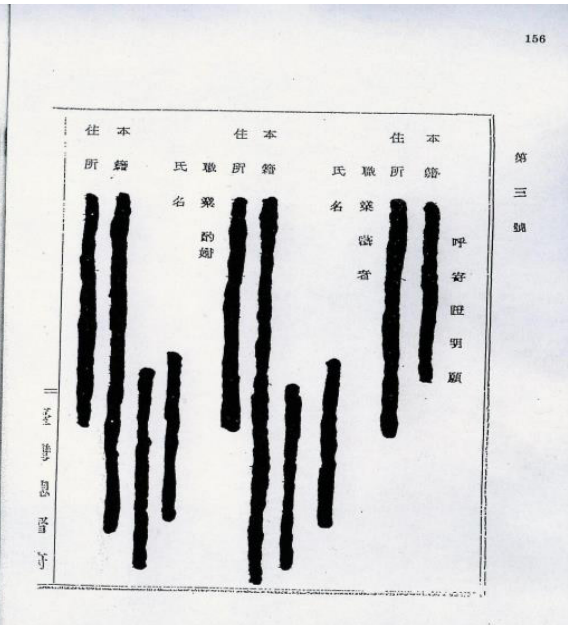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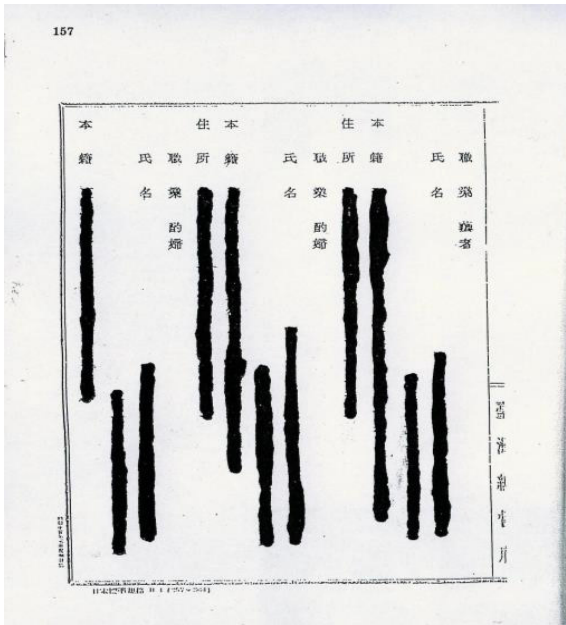
가로 29cm, 세로 21cm  
2008년 9월 13일

<http://page.auctions.yahoo.co.jp/jp/auction/110556664>

4,300 円 出品者 (評価) :	tkon3113 (370)
出品地域 :	千葉県
開始日時 :	9月 6日 10時 22分
終了日時 :	9月 13日 22時 22分
オークションID :	110556664
落札者	torukono45 / 評価 : 534 (評価の詳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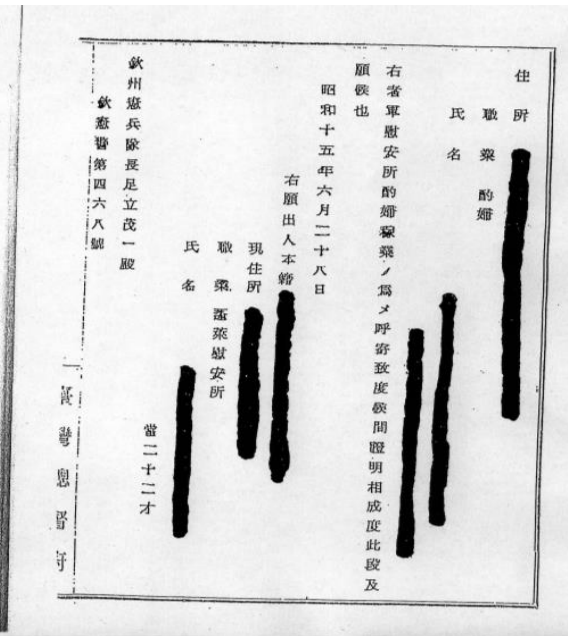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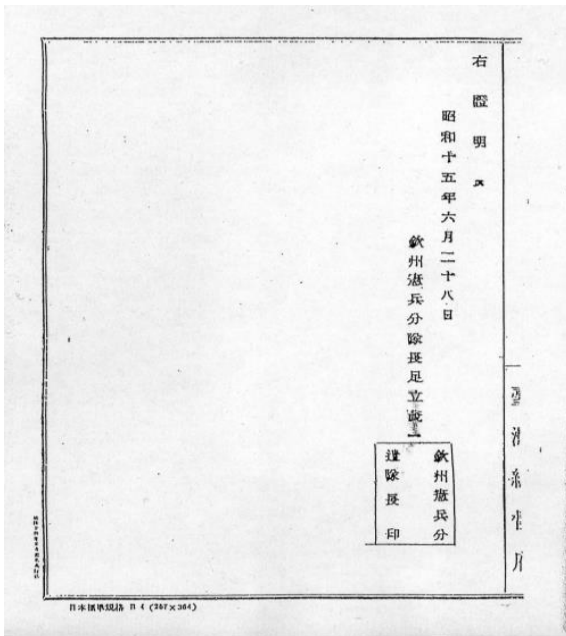
中華民国警察局の物のようで詳しい事は判りませんが戦時中に中国（上海）の遊郭に働きに出向いた日本人女性の保証書と申請書のような感じです、20歳の日本人女性で働くお店が保証し、その働くお店は怡春堂と言う処でしょうか、国籍日本、貧困により自ら願い出た、就業期間中は政府命令には服従、全責任は保証人が請け負う、と言うような内容だと思ひます、貧困により身売りされたのだと思ひますが、その後のこの女性の運命を思うと複雑です、写真は同一人の者か別人か判りません（女性は化粧で変わりますので）あるいは貴重な資料なのかもしれませんが詳しい事は判りませんので見た目でご判断下さい、破損、汚損は有りません、横29cm位、縦21cm位の紙面です、画像をご覧頂きノークレーム・ノーリターンでお願い致します。





(그림 4-1) 업자들이 대만으로 돌아가 대만 국적 위안부를 모집하기 위해 신청한 도항 증명서  
(도쿄외교사료관에서는 원본을 제공하지 않음)

자료 출처 : 고후토 건일(後藤 乾一),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 와타 하루키(和田春樹)가 공동  
집필한 <정부조사 '중군위안부' 관계자료집성>, 제 1권, 156-157p



(그림 4-2) 업자들이 대만으로 돌아가 대만 국적 위안부를 모집하기 위해 신청한 도항 증명서

자료출처 : 그림 4-1과 동일, 158-159p

# 日本軍国主義の軍需品—台湾における 「慰安婦」研究の視点

朱徳蘭（台湾中央研究院人文社会科学研究センター）

## 概要

1937年～1945年の日中戦争、1941年～1945年の太平洋戦争の期間中に、日本政府は日本軍の「性」処理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婦女子たちを慰安所に強制徴集して「慰安婦」として動員した。各地域の慰安所は日本軍国主義が広がり、戦場が拡大するにつれ、その数も急増していた。

非公式資料によると、台湾国籍の「慰安婦」は約1千人に上るものと推定されている。台湾国籍「慰安婦」の一部は戦争中に亡くなり、一部は自分の存在が知られることに躊躇ったため、結果として1992年に台北市婦女救援基金会のインタビューに堂々と応じた人は91人とどまり、そのうち証言をしてくれた人は58人である。1998年には、台湾国籍の「慰安婦」が、日本政府を相手取って訴訟を開始し、日本政府に対して慰安婦強制動員が国家犯罪であることを認め、謝罪と補償をすることを求めた。しかし、彼女たちの念願が叶う前に他界され、今はたった3名のみがご存命であるのが残念である。

台湾「慰安婦」の長い訴訟の過程で、女性団体や人権団体、各界の人々が彼女たちのために先頭に立って正義を訴え、慰安婦という汚名を拭うために努めたが、一部では彼女たちが強制的に「慰安婦」になったわけではなく、「志願」したとする見方もある。

本稿では「慰安婦」問題をめぐる論争を分析し、過去の研究成果をベースに1. 台湾社会における慰安婦に対する認識、2. 日帝植民統治時代における台湾の公娼制度、3. 性風俗業と人身売買について具体的に分析したい。

## 前書き

慰安婦問題は、終戦後の日本社会において最大の論争を呼び起こした、戦争が残した問題である。これまで、文献の整理や解説、戦争記憶、口述の歴史、映像記録、漫画、小説、ルポルタージュ、学術著書など、出版物による関連研究は300-400件に上る。そのうち、台湾に関して最も読者たちの関心を集めた作品は、小林よしのりの著書で、頼青松・蕭志強が訳した『台湾論：新ゴーマニズム宣言スペシャル』（2001年、台北前衛出版）、朱徳蘭の『台湾慰安婦』（2009年初刷印刷、2010年初刷第二刷、2015年第2版一刷、台北五南図書）である。

小林よしのりは、日本の漫画家で1975年に初作を発表した。最初は面白い漫画作品で顔が売れたが、1990年代からは政治問題を題材にした漫画を描き始めたことで、日本右翼読者たちの歓迎を受けることになった。小林よしのりは、自由主義史観派に分類される。彼は漫画を通して日本中心論（脱自虐史観）を宣伝し、日本歴史教科書の修正キャンペーンを繰り広げ、教科書から「慰安婦」記録を削除することを主張する人物である<sup>1)</sup>。2000年に小林よしのりは、『新ゴーマニズム宣言スペシャル・台湾論』（小学館）を出版し、2001年には台北で中国語訳『台湾論：新傲骨精神宣言』（以下「台湾論」という）を出版した。漫画『台湾論』は「慰安婦」に対する説明が被害者の経験と噛み合わず、大きな論争を巻き起こした。

### 1. 台湾社会における慰安婦問題に対する認識

『台湾論』は、小林氏が数回にわたって台湾を訪問して李登輝や陳水扁、実業家の許文龍、蔡焜燦、金美齡（在日台湾人）に会って話し合い、さらに史料を若干参考にしながら、漫画を介して台湾における4百年の歴史変遷と現状を描き出した歴史漫画である。

---

1) “ウィキペディア”, <<http://zh.wikipedia.org/>>2008年8月30日アクセス

## 1) 『台湾論』の反響

『台湾論』の102頁に次のような内容がある。蔡焜燦が場を設けて台湾新竹科学工業園區に向かう途中で、彼は小林にこのように語っている。

『慰安婦問題が水面に浮かび上がった場合、女性の副大統領候補者（王清峰弁護士）が台湾国籍の慰安婦を集めて日本で損害賠償訴訟を進めようとするでしょう！しかし、ある実業家（許文龍）も当事者に聞いてみたところ、「強制連行された」ことは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のです！中国にも従来「朝鮮官」といって女達を集めていました。そのようなことは大東亜戦争の時から始ま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昔から戦争のようなみだれた世相の女達は、お金を稼ぐために遠い所まで移動したりしました！まして戦地で軍に随行して衛生管理をし、軍の物資を輸送するのは当たり前の事です。<sup>2)</sup>』

そして、小林は台南の許文龍に会って台湾慰安婦問題について語り合ったが、許氏はこのように述べた。

『数年前に慰安婦問題をめぐって論争があったときに最初は異見がありました。私（許文龍）はそのような非難がおかしいと思いました。そこで、調査をして何人かの慰安婦に会って、当時に本当に強制連行されたか尋ねると、彼女たちはそうではないと答えましたね。実は強制連行なんて、そんな事はなかったですよ。日本東北地方の貧しい農村でも多くの女性たちが親によって身売りされて、幼い娼妓になりました。台湾でも12～13歳の幼い少女たちを親が売ったんです。結局、貧しい時代にあり得るような問題です。当時、日本軍は人権を重視していました。慰安婦になりたい女性たちにとっては、他人より存在感をアピールできるチャンスになったはずですよ。すべての人が入隊を望んでいました。なのに、本当に「強制的に従軍慰安婦になったのか」なんていえるのでしょうか。遊郭に売られた女の子達は、お金を稼ぐとしてもすべて奪われて所有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病気になったときにも、面倒をみてくれる人もなく、一人で我慢して人生がゴチャゴチャになって

2) 小林よしのり(頼青松・蕭志強訳)『台湾論：新傲骨精神宣言』(台北：前衛出版, 2001年)102頁

しまいました。一方、従軍慰安婦になった女性たちは安定的な収入があつて、お金も貯めて厳格な衛生管理も受けていました。彼らにとってこの上ない環境でした。一般の遊郭ではコンドームさえ提供されていませんでした。3)』

許氏は、この文章で「当時日本軍は人権を重視していました。慰安婦になりたい女性たちにとっては、誰より存在感をアピールできるチャンスになったはずです。すべての人が入隊を望んでいました。なのに、本当に「強制的に従軍慰安婦になったのか」なんていえるのでしょうか。」と言及している。許文龍は第2次世界大戦時代に17歳で、彼の家の近くには遊郭があったという。彼が知る限りでは当時、日本軍には十分な予算があつたし、代理商や民間財団を介して少女たちを求めていた。商人が少女を売買する過程で、合理的な金額が付けられ、周旋業者や店主や少女の親に会って条件について話し合ったり、親が直接自分の娘を遊郭に連れてくると、そこで集中管理を受けた後、日本軍の遊興の対象になった。つまり、日本は合法的な手続を通じて合理的な価格を提供し、少女たちを慰安婦にするために強制動員はしていなかったというのである。それ故に国民はありもしない事で日本を「恨んではならない」と強調する<sup>4)</sup>。

許文龍の見解は、台北市婦女救援基金会をはじめとする多くの女性団体、民間の非難を浴びた。立法委員は書店の前で日本の国旗と『台湾論』、小林の漫画と許文龍の写真を燃やした。さらに、ある立法委員は『台湾論』の不買を主張し、許文龍の会社で製造する製品の不売運動を繰り広げる一方、書店や出版社に対し『台湾論』の販売や出版の中止を訴えた<sup>5)</sup>。

一方、日本寄りに近い民間団体である「台湾南社」は許文龍と小林の見解に賛成し、『台湾論』の購買運動を繰り広げた。『台湾論』はマスコミで特筆大書され、むしろベストセラーに躍り出た。許文龍は自分をめぐる社会の論争が絶えないことをみて、会社への影響を心配してマスコミに書面による声明を発表する。

1. 慰安婦問題が社会の論争を巻き起こし、再三当事者を傷つけてしまったことに対し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私の浅慮の致すところです。しかし絶対に被害当事者たちの名誉を冒瀆するつもりはありませんので、各界には理性的な対応をお願いします。

3) 小林よしのり, 前掲書, 203頁, 204頁

4) 朱徳蘭『台湾慰安婦(第2版)』(台北: 五南圖書, 2015年)37頁

5) 同上, 40頁

2. 私は、慰安婦は「他人より存在感をアピールできるチャンス」という話をしたことがないし、「志願」という言葉を口にしたこともありません。この点につきましては、小林先生がインタビューで公におっしゃいました。
3. 私が「慰安婦は強制連行されたわけではない」と話したのは、当時日本政府が、慰安婦に対して公開的に動員したのではなく、一定の手続きを経ていたということを指摘しただけです。そのほかにも私は一部の人は、騙されて慰安婦になったという事実を否認したこともありません。
4. 慰安婦は歴史の悲劇であり、戦争と同じく反人道的な行為です。私はこれを非常に残念に思います。被害当事者にも憐愍を感じ、被害当事者たちの傷を慰めるために最大限に努力します。そして二度とこのようなことが起こらないように、女性の人権改善に努め、本当に女性の權益が尊重される社会をつくります。
5. 軍隊の売春婦（妓女）の存在は日本統治時代であれ、国民党政府時代であれ、あってはならない事です。歴史の真実をさらに深く理解するために、私は慰安婦や過去軍の売春婦制度について踏み込んだ研究を行い、歴史の真実を社会に発信したいと思います。私は、この問題が政治と社会において深刻な対立を引き起こすことや慰安婦当事者を傷つける事を防ぐことに引き続き取り組んでいきます<sup>6)</sup>。

この声明のうち5項目は、社会の論争を終わらせることにその目的があった。しかし実は彼は被害者に対し如何なる支援もしておらず、反省もしていない。(1) 人身売買犯が婦女子と少女たちを売春婦に売ったのは犯罪行為なのに、殖民統治政府はなぜこれに対する取り締まりをしなかったのか。(2) 戦時における慰安婦市場の誕生と日本軍国主義は関連がないか。(3) 日本政府は女性を慰安所に移送して軍需品取り扱いをしたのに、日本軍がこのように女性の「性と身体」を「消費」し、女性の尊厳を侮辱した行為は「合理的で合法的な」取引活動とみることができるか。

---

6) 同上, 40頁, 41頁

## 2) 中学高等学校の歴史教科書の綱要改訂案による反響

1949年から1987年までに蒋介石と蔣経国は、戒厳令を実施し、台湾は反共及び大陸からの独立のために、国民党思想の継承を教育政策の核心に置いた。その後の教育は、経済発展、社会進歩、民主化運動の始まり及び1987年の戒厳令廃止の影響を受けて、中学・高等学校教科書も台湾の歴史発展状況を重視することになった。

「中学・高等学校の歴史教科書の綱要」は、専門学者や教師らが討論を経て制定したものである。重要な内容が決まると、教育部がそれを確認して合格判断を下し、公示される。公示後には、民間出版社で教科書執筆陣を構成して教科書を編纂する。その後、教育部組職委員会で再び審査を行って、検定に合格すると、著作権を取得して教科書を出版することができるし、学校は自主的に教科書を選択する。

1996年に台湾で初の総統直選が行われた以降を振りかえてみると、執権党はいずれも歴史に対する解釈権を握り、国民の国家アイデンティティを主導するために取り組んでいた。そこで、1999年、2006年、2009年、2014年に中学校の歴史教科書の綱要が修正された。

留意すべきことは、2014年教育部が教科書綱要の修正案を通過させた出来事である。一部の学者が、新たに修正された教科書綱要に不満を抱いて、インターネットやSNSを介して集団抗議運動を展開するや、修正案の実施は暫定的に腰砕けになっている。反対派の学者は、修正案に問題が多すぎると主張する。例えば「慰安婦」問題の場合、反対派は「強制（被脅）」という単語に反対する。彼らは「中立」、「多元的」観点を維持しなければならず、「強制」という単語を入れない方が望ましいと主張している。賛成派は、慰安婦になりたくて「志願」をした人はいないと反駁をし、「強制」という単語を入れるのが正しいと主張する。馬英九(2008年～2012年集権)元総統は「慰安婦」について「強制」という単語を入れることを支持した。反対派と賛成派の意見が食い違うことで、「志願」か「強制」かをめぐって依然として議論が続いている。

2009年に筆者が出版した『台湾慰安婦』以降、台湾では9つの出版社が、教育部の検定をパスした。当該出版社の中学・高等学校の歴史教科書では、「慰安婦」についてこのように記述している。

### (1) 頼沢涵主編、2012年初刷、2015年第2版、全華図書股份有限公司出版、155頁

台湾国籍の慰安婦の動員は日中戦争から始まり、特定の従事者を除いてはほとんどが

騙されたり、強制に海外に移送されて従軍慰安婦になった女性たちであり、彼らの苦しみは筆舌に尽くしがたい。

- (2) 呉学明主編、2012年初刷、2015年第3版、翰林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出版、147頁  
当時多くの女性たちは日本によって看護婦、洗濯工などの名のもとに誘引、騙されて慰安婦として動員された。これは当事者に一生拭えない重い苦痛を与えた。
- (3) 薛化元主編、2012年初刷、2015年第3版、三民書局股份有限公司出版、164頁  
そのほかにも、数多くの台湾人が空港や防御施設の建設などに動員され、ひいては従軍「慰安婦」になったりした。そのうち多くの人々は強制動員されたのである。
- (4) 林能士主編、2012年初刷、2015年第3版、南一書局企業股份有限公司出版、150頁  
そのほかにも台湾国籍の慰安婦は、日本軍の移動経路に沿って移動していたが、そのほとんどの女性たちが強制動員または騙されてきたのである。
- (5) 鄭政誠・趙祐志編著、2012年初刷、2015年第3版、康熹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出版、141頁  
そのほかにも多くの女性たちが騙されて慰安婦になり、当事者に一生拭えない苦痛を与えた。
- (6) 戴宝村主編、2012年初刷、2015年第3版、龍騰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出版、156頁  
戦争期間中に日本政府は官庁、軍隊、憲兵、警察、業者などと結託し、計画的に各種の手段を動員して韓国、台湾、中国及び東南アジアの占領地に「慰安所」を設置して貧しい女性たちを騙し、逼迫して日本軍「慰安」の性的サービスをするようにした。
- (7) 陳豊祥主編、2012年初刷、2015年第3版、泰宇出版股份有限公司出版、154頁  
そのほかにも数多くの台湾女性たちが強制に、または騙されて海外に連行され、戦地の日本軍慰安婦になった。彼女たちは帰国した後にも心身に大きな傷ができ、結局余生も安らかに過ご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
- (8) 雷家驥主編、2014年初刷、2015年第2版、華興文化事業有限公司出版、128頁

日本政府は軍隊の士気を高め、性病を防ぐために中国や植民地である台湾、韓国と占領地であるフィリピン等において大いに「慰安婦」（日本軍軍売春婦）を徴集した。台湾総督府は日本国の要求を満たすために働き口の提供と暮らし向きのためであるという名目で多くの台湾女性たちを騙して慰安婦にした。

(9) 閻沁驥主編、2013年初刷、2015年第2版、史記文化事業有限公司出版、135頁

戦争期間中に、日本は台湾で女性を強制動員して軍隊慰安婦にした。可哀相な女性たちは戦争と日本軍に踏み躪られ、戦争が終わった後も長い間、影のような人生を惨めに生きて行く。1996年、台湾政府が日本に対し公式に賠償を求めたが、未だに日本は口先で謝罪するだけで、賠償問題に関する誠意ある態度は示せず、この問題は依然として解決されていない。

以上、9の出版社が、学者たちを招いて執筆した中学・高等学校の歴史教科書の内容である。台湾「慰安婦」問題に対しては、各出版社が、多くの女性たちの証言を引用して台湾女性たちが騙されて強制に慰安婦になったという事実を記述している。

しかし、2014年に教育部が主管する教科書綱要修正委員会が、「強制」という単語を入れることを決めた後、反対派は台湾女性の場合、全員「強制」によるわけではなかったとし、「志願」という単語も一緒に入れるべきであると主張している。そこで、反対派と賛成派とで激しい論争が始まることになった<sup>7)</sup>。「強制」と「志願」は、今も日本の右翼が「慰安婦」問題を言及する際に必ず登場する主要争点となっている。戦時における性暴力問題は植民主義、人種差別、性差別問題とも関連がある。「強制」と「志願」だけが問題視される、決して簡単な問題ではない。

## 2) 植民統治時代における台湾の公娼制度

1895年に日本が台湾を侵略した後、初期には軍政が敷かれたが、日本人商人、女性たちが台湾に渡ることを禁止していた。翌年の4月に民政に移行した後に、日本人は自由に台湾に渡航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が、その時、商売のにおいを嗅いだ売春業者たち

7) “ウィキペディア”, 「自由的百科全書—台湾高中歴史課綱要微調案」, <<http://zh.wikipedia.org/zh-tw>>2016年11月11日アクセス

も入って来た。植民地政府は、政府と民間が酒色にふけて性病の感染率が高いという事実を心配し、役人の綱紀を正して性病を予防するために、日本内地の公娼制度を台湾に取り入れる<sup>8)</sup>。

## (1) 公娼と私娼

日本による台湾統治の初期に、地方政府は様々な法規により性風俗業に対する取締りを行っていた。1906年に台湾全域で規則が統一化され、公娼取締規則というものが発表された。その内容は次のとおりである。

第十六条 娼妓稼を為さんとする者は官庁で指定した病院にて検診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以下の書面を添付し本庁や支庁に自ら出頭し願出て許可を受くべし

一、娼妓となる事由

二、住所、本籍、居住地、氏名、生年月日

三、同一戸籍内にある最近尊属親、尊属親がなきときは戸主の承諾を得ていること、もし承諾を与えるべき者がなきときはその事実

四、20歳未満にあつては前号のほか、実父、実父がないときは実母、実父母ともにならないときは実祖父、実祖父がないときは実祖母の承諾を得ていること

五、娼妓稼をなすべき場所及び貸座敷の住所と氏名

六、妓名、就業年限

七、現在の生業、ただし他人によって生計を営む者はその事実

八、娼妓であった事実の有無ならびにかつて娼妓であった者はその稼業の開始廃止の年月日、場所、娼妓であったときの住所および稼業廃止の事由。前各号のほか、庁府県令をもって定める事項、前項の申請には戸籍吏の作った戸籍謄本および戸口調査簿抄本。3. 4. の承諾書および市区町村長の作った承諾書印鑑証明書、娼妓就業契約書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登録申請者は登録前健康診断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七条 十六歳未満の者は娼妓稼を許可することを得ず。

第十八条 娼妓就業許可証の効力は効力の発生から4年制限とする。

第十九条 娼妓稼は官庁の許可したる貸座敷内に非ざれば之を為すことを得ず。

第二十条 娼妓は別途の規定に従ひ健康診断を受くるべし。健康診断を受くるに非ざ

8) 鈴木裕子『戦争責任とジェンダー』(未来社, 1998年)23頁

れば稼業に就くことを得ず

第二十一条 娼妓は法令の規定若くは官庁の命令により又は本庁や支庁に出頭するが為め外出する場合の外官庁の許可を受くるに非ざれば外出することを得ず

第二十二条 何人と雖娼妓の通信、面接、文書の閲読、物件の所持、購買其の外の自由を妨害することを得ず。

第二十三条 娼妓は就業場所または居住地を移転する際、本庁や支庁に許可証の発行を受くるべし。他の管轄内で許可を受けた場合、かかる許可の範囲内で本庁の管轄のもと、之を為す時は第十六条第二号と第五号、第六号により、許可証を添付して本庁や支庁にて新たに発行を受くる。かかる場合、許可の効力は官庁で定めた年限内に前号の許可証を得た日から三日以内に移転先の管轄庁に報告すべし。

[省略]

第三十条 貸座敷営業組合取締人(娼妓公会の責任者)の職務

一、貸座敷の営業者と娼妓名簿の調査

二、業者への貸座敷営業及び娼妓就業取締規則・命令の伝達

三、娼妓の健康診断及び疾病治療に関する事案

四、貸座敷営業者及び娼妓が規則・命令に反したときに警察署にこれを通報

五、組合に関する費用の支払い及び決済報告

六、前各号のほか特別の使命

[省略]<sup>9)</sup>

もし、女性が売春を営もうとするときには、直接官庁に出頭して免許を申し込む。所管役人は、(1) 満16歳以上、(2) 20歳未満は親父または戸主、親族の承諾(3) 公娼業者は期間の制限を受ける(4) 健康診断書がなければ、これを営むことができない(5) 指定の地域以外の場所は禁じる(6) 事業主、娼妓に違法行為があった場合は、娼妓組合が警察に通報して調査を行い、必ず規定に沿って処理して、娼妓営業許可証の発行を受けたいうで合法的に営業する(図1を参照)ように指導する。

日本植民地と日本本土における公娼制度を比較すると、公娼管理法はほとんど類似するが、制限年齢が異なるだけである。日本本土では満18歳(1927年に21歳に改める)、台湾は16歳、朝鮮は17歳、満洲は17歳となっている。日帝統治国家における公娼年齢の差

9) 1906年から台湾における娼妓業管理規則が統一された。宜蘭庁令第14号「貸座敷及び娼妓取締規則」翻訳文を参照。『宜蘭庁報』第252号(1906年3月)

は、性風俗業者が「人間市場」の網を仕掛けるうえで役に立っていたに間違いない。それ故に民族や地域を越えて女性売買をやらかすことができたのである<sup>10)</sup>。

台湾において、営業免許を有する公娼の数は殖民政府の統計によると、1897年664人であり、いずれも日本人であった。1925年には1050人で、そのうち日本人が922人、台湾人62人、朝鮮人が66人である。1937年の日中戦争中には合計1040人であり、そのうち日本人が808人、台湾人34人、朝鮮人が198人となっている。1941年の太平洋戦争中には925人であり、そのうち日本人は674人、台湾人24人、朝鮮人が227人である（表1を参照）。

2008年9月6日午前10時22分、オークションサイトに中華民国警察署が所蔵していた1920年12月当時の娼妓業証明書が、競売にかけられた。この証明書は、日本女性が上海市政府に対して、娼妓業従事の許可を申請したもので、2008年9月13日22時22分に4300円で販売された。同文書の大きさは横29cm、縦21cm、申請者の写真が貼付されている。文書の字体は読みにくいだが、その内容をみると、申請者の氏名（渡辺XX）、年齢（20歳）、国籍（日本）、現住所地（怡春堂）、申請理由（貧しいため働かざるを得ない）、志願、保証人（陳X芳）、追加（就業期間中には政府命令に従い、すべての責任は保証人が保証する）と、なっている（図2、オークション文書の説明資料を参照）。

日本女性が「志願」して申請した文書は、女性が売春に就くときには、必ず申請書を作成し、一定の申請手続を踏めば、管轄地官庁で許可をし、それに就くことができたということが分かる。言い換えれば、性風俗業の管理機関は申請者の「志願」さえ明記すれば、就業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め、政府の「強制動員」によって売春をしたという証拠は否定される。

芸妓、酌婦、女給、バーガール、ダンサー

近代日本における性風俗産業の範囲は広範囲にわたっていた。料理屋(酒場にあたる。従事者は主に芸妓)、料理店(酒場。従事者は酌婦で、今日にはホステスとも呼ぶ)、貸座敷(妓楼。従業者は娼妓)、貸席(料金を払って座敷を借り宴会もしくはサービスを提供する。従事者は酌婦)、カフェ(今のバーにあたる。従業者は女給、意味はバーガール)、舞踏場(従事者はダンサー)などに分類される<sup>11)</sup>。

「料理屋、飲食店、珈琲屋、席貸営業取締規則」の規定により、営業者は従業の許可証な

10) 藤永壮「植民地台湾における朝鮮人接客業と「慰安婦」の動員—統計値から見た覚え書き」(『近代社会と売春問題』, 大阪産業大学産研叢書16, 2001年3月, 84頁所収)。朱徳蘭「日治時期台湾花柳業問題(1895-1945)」(『人文学報』第27期, 2003年6月, 115, 164-170頁)。朱徳蘭, 前掲『台湾慰安婦』340-341頁

11) 朱徳蘭, 前掲「日治時期台湾花柳業問題(1895-1945)」106頁

き婦女をして芸妓、酌婦または女給の所業をさせてはならないと定められていた。地方の首長、警察署長、警察支署長、同種業界の組合などは、社会公共の安全と善良の風俗を害するところを発見したときは、営業の許可を取り消し、従業者を解雇するように命ずる。

「芸妓、酌婦、女給取締規則」の規定によると、次の通りである。

第一条 芸妓、酌婦、女給の営業者と呼ばれる者は、必ず郡守、又は警察署長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 一、本籍地、住所、氏名及び生年月日
- 二、営業の所在地若しくは居住地
- 三、異名若しくは芸名
- 四、必ず従事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由
- 五、雇用主にあつては、雇用主の住所、氏名、職業
- 六、営業契約書の写し
- 七、戸籍謄本又は戸口調査簿全面の写し(台湾人に限る)
- 八、伝染病にかかっていないことを証明する政府議員、又は公共医療機関からの診断書
- 九、以前に芸妓、娼妓、酌婦、女給又はダンサーとして働いていた者は、営業の種類、場所、廃止年月日及び事由を記載する。

第二条 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は、芸妓、酌婦、女給の職業に従事してはならない。

- 一、満12歳未満
- 二、営業期間が4年を超過したものの、幼い頃から教育を受け、又は学業などの特殊な状況により契約が8年を超過しない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 三、契約に適合しない者と認識される者
- 四、芸妓、娼妓、酌婦又は女給など、営業の許可が取り消された者については、公衆衛生にとって有害な者と見なす。
- 五、結核、麻疹、梅毒及びその他の伝染性疾病を患っている者については、公衆衛生にとって有害な者と見なす。
- 六、淫乱な性生活をした者又は、公共の安全と善良の風俗を害すると見なされる者

七、その他、従事する過程で公共の安全と善良の風俗を害すると見なされる者<sup>12)</sup>

芸妓、酌婦、女給、バーガール、ダンサーはこぞって就業の免許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ず、お客を誘引、または泊めてはならない。さらに本業以外の性風俗に従事してはならない。近代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開港場は、性産業の新天地だった。そこで「性的」サービスが、男性の間で歓迎を受けたのは、性を通して男性が日常生活の不安とストレス、挫折、怒り、苛立ち、精神的ストレスを解消し、男性としてのプライドや威厳、権力を味合えたためだった。このような心理現象は、特に戦時中の日本軍、軍属及び商人たちの間で現れた。

### 3. 性産業及び人身売買

1910年代、シンガポール旅行へ出かけていた岩田善男は「人間競売市場」の実態を目の当たりにして次のように述べた。

大体大正2、3年(1913-1914)の頃、シンガポールのある港の倉庫の前で、娼妓競売市場を目の当たりにした。12、13、14、15才の日本人少女の約10人が、薄い西洋風の服、又はガウンを着ていた。顔がかわいい少女は、真っ先に高価で売られた。その時、現場にいた少女たちは、わけがわからない顔をしていた。自分たちが、娼妓として売られるとは想像すらできない様子だった。中国とインドの港町でも、人身売買が行われていたが、少女たちの年齢はその時、日本の少女たちと同様に売られているように見えた。販売者は次のように叫んでいた。「身売りの値段は50元、50元、買う人いませんか。<sup>13)</sup>

多くの少女が、騙されて海外に連れて行かれたことは、人身売買業者によってモノ扱いされ売られていたことを意味する。日本の役人はこのような売春行為を人手不足により、海外へ密かに渡航する女性の急増に対し、厳しく取り締ま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さらに、海外で働いていた独身男性たちも、このような女性を必要としており、売春業の拡大は、

12) 昭和7年7月22日新竹州令第12号「芸妓、酌婦、女給取締規則」(『新竹州報』第643号)。朱徳蘭、前掲「日治時期台湾花柳業問題(1895-1945)」118, 120頁

13) 大場昇『からゆきさん おキクの生涯』(明石書店, 2001年)69-70頁

食堂、観光、百貨店、交通輸送など関連する産業の発展を促した。従って、邦人が在住するところは繁栄していたため、日本側は事実上、取り締まりに非常に消極的であった。一般に、人身売買業者たちは騙して海外へ連れて行く時、少女たちを船の底に隠して、海外へ密航させた。この過程で船員と結託し、さらには事務長、司厨長などとも結託した。少女たちは、強制的に娼妓にさせられた後、まるで商品のように「業主」の間で取引された<sup>14)</sup>。

1937-1945年の日中戦争期、1941-1945年の太平洋戦争期に、多くの日本人商人は、商業的な利益を求めて役人、軍人、軍属にサービスを提供し、「国策企業」「軍需企業」という名の下で、日本軍の占領地域で複数の等級に分けて慰安所、料理屋、カフェ、飲食店を設け、戦時中にお金を稼いでいた。例えば、福建省の廈門地域にあった「梅乃家」は、日本人が投資した高級料理屋で、店主は日本の娼妓を雇い入れ、軍高官に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た。「波止場」は朝鮮人によって経営されていた一般料理屋で、日本の一般兵に対し娯楽を提供し、売春を行っていた。「喜楽」「八洲庵」は台湾人が運営していたカフェだったが、カフェを装った妓楼であり、台湾、中国国籍の女性たちが日本兵と軍人たちへの接待を行っていた<sup>15)</sup>。

戦時中に日本政府は、業者たちを雇用し、軍部の了解を得たという名目で、至るところで婦女子を募集して、中国へ連れて行き売春行為をさせることで、後方の民心の安定を図り、違法な女性人身売買を防いだ。従って、1938年2月に内務省警保局は、各庁府県長官宛ての通謀により、各庁の現場役人が、規定に従って渡航手続きを行うことを命じた。その内容は次の通りである。

- 一、醜業を目的とする婦女の渡航は現在内地に於て娼妓其の他事実上醜業を営み満二十一歳以上且花柳病其の他伝染性疾患なき者にして北支、中支方面に向ふ者に限り当分の間之を黙認することとし昭和十二年八月米三機密合第三七七六号外務次官通牒に依る身分証明書を発給すること
- 二、前項の身分証明書を発給するときは稼業の仮契約の期間満了し又は其の必要なに至りたる際は速に帰国する様予め諭旨すること
- 三、醜業を目的として渡航せんとする婦女は必ず本人自ら警察署に出頭し身分証明書

14) 森克己『人身売買—海外出稼ぎ女』(至文堂, 1959年), 84-94, 101頁. 金一勉『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三一書房, 1977年)30-31頁

15) 朱徳蘭「海外淘金：日本人在台海兩岸拓展買淫業市場之研究」(湯熙勇編『中国海洋發展史論文集』第10輯, 中央研究院人文社会科学研究中心, 2008年, 452頁)

の発給を申請すること

- 四、醜業を目的とする婦女の渡航に際し身分証明書の発給を申請するときは必ず同一戸籍内に在る最近尊族親、尊族親なきときは戸主の承認を得せしむることとし若し承認を与ふべき者なきときは其の事実を明ならしむること
- 五、醜業を目的とする婦女の渡航に際し身分証明書を発給するときは稼業契約其の他各般の事項を調査し婦女売買又は略取誘拐等の事実なき様特に留意すること
- 六、醜業を目的として渡航する婦女其の他一般風俗に関する営業に従事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渡航する婦女の募集周旋等に際して軍の諒解又は之と連絡あるが如き言辞其の他軍に影響を及ぼすが如き言辞を弄する者は総て嚴重に之を取締ること
- 七、前号の目的を以て渡航する婦女の募集周旋等に際して広告宣伝をなし又は事実を虚偽若は誇大に伝ふるが如きは総て嚴重之を取締ること又之が募集周旋等に従事する者に付ては嚴重なる調査を行ひ正規の許可又は在外公館等の発行する証明書等を有せず身許の確實ならざる者には之を認めざること<sup>16)</sup>。

日本政府は、日本軍部の性問題に関する要請のため、たとえ伝染病のない酌婦は渡航して売春行為を行うことを黙認したが、周旋機関で婦女を募集する場合、未成年者を売買したり、軍隊の同意を得たとしても事実上誘引及び騙して連れて行ったことが判明した場合には、軍の威信に影響を与えかねないとし、政府役人が厳しく調査・取締りを行った。渡航売春婦に対しては、親や戸籍の戸主の同意を得るように定めており、本人自ら管轄する警察署に出頭し、身分証明書の発給を申請して確認した後、渡航して就業を行うこととしている。

議論すべき点は、警保局が、従業者の渡航条件の許可の際になぜ次のように記載したのかである。「現在内地で娼妓、その他事実上売春を営む満二十一歳以上。」この規定は何を意味するのだろうか。原因を探ってみると、日本が国際連盟に加入し、「婦人及び児童の売買禁止に関する国際条約」に加盟したが、日本が条約違反を恐れたことと関わりがある。1910年に国際連盟は、パリで「醜業を行わしむるための婦女売買禁止に関する国際条約」を締結して、次の通りに規定している。

第一条 何人たるを問はず他人の情欲を満足させるため、醜業を目的として未成年の婦女

16) 昭和13年2月23日内務省発警第5号「支那渡航婦女ノ取扱ニ関スル件」(吉見義明『従軍慰安婦資料集』大月書店, 1992年, 102-104頁所収)。

を雇い入れ、誘引し、もしくは誘拐したる者は、仮に本人の承諾を得ていても又犯罪構成の要素たる各種の行為が他国において行われたる時といえども罰せらるべし。

第二条 何人たるを問わず他人の情欲を満足させるため、醜業を目的として詐欺、暴行、脅迫、権力乱用その他一切の強制手段をもって、成人の婦女を勧誘し、誘引し、又は誘拐したる者は、仮に又犯罪構成の要素たる各種の行為が他国において行われたる時といえども罰せらるべし<sup>17)</sup>。

第一条の未成年は満20歳未満の女性を指す。つまり、仮に本人の同意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も、未成年者の売春行為を禁じている。1921年に国際連盟は、ジュネーヴでの条約の採択にあたり、未成年者の年齢を21歳に改めた。日本は、締約国に加わった当初、満18歳未満を未成年者と定義していたが、1927年にこの留保条件を撤廃した。

1938年に日本の警保局長は、売春婦の年齢について21歳以上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定めた。日本のいわゆる未成年者は、満21歳未満の女性であり、国際社会における規定と一致する。但し、1921年の婦人及び児童の売買禁止に関する国際条約の第14条の規定を挙げ、締約国だとしても適用されない状況があるとの主張を展開した。その当時、日本政府は、同条を利用して、同条約の植民地への適用を留保した。台湾及び朝鮮は、国際条約に拘束されなかったため、日本軍「慰安婦」の供給地と位置づけられ、このようにして婦女と児童が、国境を越えて売春行為ができるように助長した<sup>18)</sup>。

さらに、日本軍は植民地公娼管理法に違反していたが、日本政府及び台湾総督府はこれを黙認した。1940年の軍の公文書はその良い例だ。

1939年11月に日本軍は、広西省の南寧へ進撃しながら東部を占領する。中国軍は、力及ばず、欽州と廉江はもうすぐ日本軍に陥落した。1940年5月に日本軍は、中国軍をけん制すべく大規模な兵力を再集結させて、広東省北部を攻撃した。交戦の末、日本軍は食糧、弾薬の補給が途絶えたことや、広東守備軍の勇敢な抗戦などのため、退却せざるを得なかった<sup>19)</sup>。

1940年6月に、日本軍は欽州から退却しながら、林義秀連隊長が部隊の戦闘中の士気を高めるために、植民地の台湾軍に対して女性を連れてきて、慰安サービスを提供することを要請した。同年8月、高雄州知事の赤堀鉄吉は、外事部長宛ての公文を送付して、当該案

17) 鈴木裕子編『日本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下巻』(明石書店、2006年)123-124頁

18) 吉見義明『従軍慰安婦』(岩波書店、1995年)165-166頁

19) 丁身尊主編『広東民国史下冊』(広州：広東人民出版社、2004年)974-979、990頁

件の処理状況を報告している。公文には、欽州を占領した日本軍に関する証明書3部が添付されていた。

### 第一号 写しの添付

[写真] 証明書  
住所 0000000000  
氏名 000

当二十二歳

右ハ当隊附属慰安所経営者ニシテ今回慰安婦連行ノタメ帰台セシモノナリ  
就テハ慰安婦ハ当隊ノタメ是非必要ナルモノニ付之カ渡航ニ関シテ何分ノ便宜附与方取計  
相成度

右証明ス

昭和十五年六月二十七日

南支派遣塩田兵団林部隊長林義秀 [林部隊長之印]

### 第二号写しの添付

渡航証明願

本籍 台北州台北市O町OO番地  
現住所 広東省欽県奇霊 蓬萊慰安所  
職氏名 慰安婦業 000

当二十二年

- 一、渡航先 台湾、高雄
- 二、目的 慰安婦招致ノ為メ
- 三、期間 自昭和十五年六月二十七日至昭和十五年九月二十六日
- 四、出発地 欽県

出発月日 昭和十五年六月三十日

五、其他

右之通り渡航致度ニ付証明相成度及願候也

昭和十五年六月二十七日

右願出人 000

欽州憲兵分遣隊長 足立茂一殿

欽憲警第四六六号

右証明ス

昭和十五年六月二十七日

欽州憲兵分遣隊長足立茂一 [欽州憲兵分遣隊長印]

### 第三号 添付

呼寄証明願

本籍 台北市  
現住所 高雄市 O町O丁目OO番地  
職業 芸者  
氏名 OOO  
大正11年 O月OO日生

本籍 台中州 OOOO  
現住所 高雄市 O町O丁目OO番地  
職業 酌婦  
氏名 OOO  
大正14年 O月OO日生

本籍 台北州  
現住所 高雄市 O町O丁目OO番地  
職業 芸者  
氏名 OOO  
大正15年 O月OO日生

本籍 台中州 OOOO  
現住所 高雄市 O町O丁目OO番地  
職業 酌婦  
氏名 OOO  
大正13年 O月OO日生

本籍 台中州 0000  
現住所 高雄市 0町0丁目00番地  
職業 酌婦  
氏名 000  
大正13年 0月00日生

本籍 台北市  
現住所 高雄市 0町0丁目00番地  
職業 酌婦  
氏名 000  
大正14年 0月00日生

右者慰安所酌婦稼業ノ為メ呼寄致度願候也  
昭和十五年六月二十八日

右願出人本籍 台北市 0町000番地  
現住所 広東省欽県奇霊  
職業 蓬萊慰安所  
氏名 000  
当二十二才

欽州憲兵隊長足立茂一殿  
欽憲警第四六八号

右証明ス

昭和十五年六月二十八日

欽州憲兵分遣隊長足立茂一 [欽州憲兵分遣隊長印]<sup>20)</sup>

この案について、日本の外務省は、昭和15年5月に台湾総督府の規定に基づき、中国大陸への渡航の際に、(民間)人は必ず、在中国領事館発給の「中国大陸への渡航を必要とする事由証明書(渡支事由証明書)」を所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していた。ところ

20) 昭和15年9月2日外1 1162-1号「渡支事由証明書等の取寄不能と認めらるる對岸地域への渡航者の取扱に関する件」(吉見義明, 前掲書, 130-137頁所収)

が、高雄知事は、慰安所従事者が船に乗って移動するが、慰安所と軍部隊は、交通の不便な地域にあって、日本軍の需要を満たせるために便宜を提供しているだけに、身分、目的などに特に問題がないことを確認した後に業者が軍隊発給の証明書を所持していれば、女性の連行を目的とした中国への渡航を許可したのだ<sup>21)</sup>。

台湾総督府は、性風俗業取締法規で、営業者は芸妓、酌婦を宿泊させながら、サービスを提供してはならないと定めていた。社会公共の安全と善良の風俗を害した場合には、営業の許可をもらえなかった。芸妓、酌婦がもし、公共の安全と善良の風俗を乱したときには、その営業を停止又は、営業許可の取消を行った。芸妓、酌婦が売春の兼業を願う場合には、娼妓業管理規定により、就業の免許を申請しなければならない<sup>22)</sup>。

この6人の女性の本籍地をみると、4人は台北、2人は台中から来たことがわかる。彼女たちは、高雄地域に在住する台湾人の戸籍に載っていた。台湾人業主は、日本人芸妓、酌婦という名のもとに、彼女たちを連れて渡航したわけである。6人の少女の年齢は、18歳1人、14歳1人、15歳2人、16歳2人だった<sup>23)</sup>。台湾では、芸妓、酌婦が主に接待にあたった対象は、地元文化に精通する知識人やお金持ちだった。台湾の芸妓や酌婦は、日本語や日本の社交文化を身につけていなかったため、業主によって慰安所に入られて、当然踊りや芸を披露する必要もなく、日本軍の「性欲」の処理の道具としての役割だけをさせられた。

さらに、筆者が初めて同資料に目を通したとき、吉見義明編『従軍慰安婦資料』(大月書店)134-137頁と、後藤乾一・高崎宗司・和田春樹が共同執筆に参加した『政府調査「従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第1巻』(龍溪書舎, 1997年)147-162頁に同じ資料が収められていた。吉見義明氏は、個人情報の保護のために、内容の一部について「X」を表記して、芸妓、酌婦の生年月日(3-1、3-2参考)を記載している。1996年に日本の「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は、「慰安婦」関係資料委員会を設ける。委員会の委員たちの調査した資料は、外務省が提供したもので、その一部については黒塗りされた写しを使用している(図4-1、4-2参考)。

真相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2002年に筆者は、所蔵機関の東京の外務省外交史料館を訪ね、原本の調査を試みた。筆者は、史料館の関係者にコピー又は撮影をしないことを約束し、原本の閲覧を要請した。しかし史料館の関係者は、上司からの許可を得た後、「当事

21) 同上, 138頁

22) 朱徳蘭, 前掲「日治時期台湾花柳業問題(1895-1945)」118-124頁

23) 「渡支事由証明書等の取寄不能と認めらるる對岸地域への渡航者の取扱に関する件」

者のプライバシーを保護するために、史料館では、黒塗りされた写しのみを提供しており、原本の提供はできない」と回答した。

史料館側が閲覧を不許可した理由についてじっくり考えてみると、台湾人のプライバシーを保護するためではなく、被害者が訴訟を起こして、日本政府に対し「日本軍慰安所はなぜ、台湾人少女を「児童娼妓」にしたのか」と解明要求を提起することを恐れたためだろう。公文には、少女が「強制連行され」慰安所に送られた内容は記載されていない。もしそうだとすれば、彼女たちは「志願」して軍の慰安婦になったのだろうか。少女たちは、成人する前には、法律上自主権を有しない。親が娘を「売買」したのは、違法行為であるが、結局業主に「騙された」ことになるのか。それとも渡航するように「誘引」したのか。

もし業者が、詐欺、誘引、人身売買の方法で少女たちを募集したとすれば、これは、不当な手段による強制労働にあたり、植民地政府は当然ながら渡航を禁止すべきだった。しかし、それどころか、中国への渡航を許可している。日本の役人が、業者を処罰しなかったのは、慰安婦が日本軍にとって特殊な軍需品である上、必要で急を要する軍需物資であっただけに、法的な拘束力が及ばなかったためである。従って、性風俗業者、周旋業者、運輸業などあらゆる関係者が各種の資源を動員して、「性」市場に欠かせない日本軍の軍需品の「慰安婦」を大量に量産したのだ。

## 4. 結論

20世紀前半、日本が対外侵略戦争期間中に広大な大東亜の全地域において慰安所を大量に設置し、女性を「慰安婦」として募集・動員した行為は、「慰安婦」が日本軍の作戦に欠かせない「軍需品」であったことを意味する。このような現象について、当時の日本の新聞は次のように報じている。

軍は、「慰安婦」を人ではなく、「モノ」扱いをしていた。もし、輸送船が敵によって撃沈されると、「軍需品沈没」と報告した。「慰安婦」は、戦場で消えていき、軍人や軍属の身分もないため戦死者に含まれなかった。単に遺失物であり、捨てるべき対象だったので、いかなる勲章や慰労金も支給されなかった。

この記事で「慰安婦」は肉体的にも精神的にも、日本軍に必要な軍需品だった。

「慰安婦」市場の創出、主導権、統制権には、構造的な関連性がある。つまり、主な消費者は日本軍、日本人軍属、御用商人だった。「慰安婦」市場の発展方向は、日本政府によって左右された。その中の最大の受益者は、供給側だった。供給側は、日本軍と日本政府、植民地政府、日本占領地の傀儡政府によって選ばれた。特殊な「軍需品」の流通網は、製造、購買、供給、輸送から消費などの段階において、相互依存の関係を形成するが、こうした共存共栄の関係は商品市場の基本構造である<sup>24)</sup>。

特記すべきなのは、戦時中に日本政府が、国際連盟の「婦人及び児童の売買禁止に関する国際条約」に違反することを回避するために、売春を目的とした婦女がもし渡航を願う場合、日本本土において娼妓その他、事実上売春を営み、満二十一歳以上、かつ性病とその他の伝染性疾患なき者と定めていたことだ。しかし、日本国内の公娼数が限られている一方、増え続ける需要に応えるために、戦時総動員の一環として、性風俗業者たちは、国益と自己利益を求めて、娼妓を他の地域に移動させ「慰安婦」にさせており、その他にも人身売買業者と結託して詐欺、勧誘、暴行、権力乱用、売買などのあらゆる手段を動員して至るところで貧しくて性経験のない女性と児童を募集し「慰安婦」として動員した。そして風俗業界、慰安婦業者、周旋業者は巧妙に結託していた。

両性関係において日本軍は女性を「性奴隷」として扱ったが、これは、本質的に性暴力にほかならない。1937年から1945年にかけての日本軍による性暴力は、日本軍国主義が他民族に犯した軍事的暴力(侵略戦争)、司法的暴力(植民主義)、政治暴力(差別待遇)、経済的暴力(階級搾取)、文化的暴力(民族差別)、社会的暴力(性差別)などあらゆる暴力の一端を示している。

結論から言うと「慰安婦」の登場は、日本軍国主義をもとにした不義の戦争に端を発し、残酷な軍事暴力のために、大規模な性暴力が行われたわけである。

---

24) 入江徳郎編『新聞集成昭和史の証言』(本邦書籍株式会社, 1983年)177頁



表1 台湾で公娼職業に従事する日本人、台湾人、朝鮮人数(1894-1941年)

年別	種族別	臺北州	新竹州	臺中州	臺南州	高雄州	臺東廳	花蓮港廳	澎湖廳	小計	合計
M30 (1897)	内地人	425	--	79	86	--	--	--	74	664	664
	本島人	--	--	--	--	--	--	--	--	--	
M31 (1898)	内地人	547	--	107	169	--	--	--	49	872	912
	本島人	36	--	--	4	--	--	--	--	40	
M32 (1899)	内地人	576	--	130	282	--	--	--	44	1,032	1,083
	本島人	50	--	--	1	--	--	--	--	51	
M38 (1905)	内地人	345	9	82	190	40	--	--	10	676	711
	本島人	26	--	--	9	--	--	--	--	35	
	朝鮮人	--	--	--	--	--	--	--	--	--	
T4 (1915)	内地人	607	21	208	206	--	--	89	87	1,218	1,322
	本島人	6	--	--	98	--	--	--	--	104	
	朝鮮人	--	--	--	--	--	--	--	--	--	
T14 (1925)	内地人	423	--	105	122	232	--	40	--	922	1,050
	本島人	7	--	1	52	--	--	2	--	62	
	朝鮮人	25	--	14	13	14	--	--	--	66	
S5 (1930)	内地人	438	--	99	117	88	--	41	88	871	1,119
	本島人	4	--	--	115	--	--	--	--	119	
	朝鮮人	39	--	17	--	59	--	--	14	129	
S10 (1935)	内地人	407	--	62	44	163	--	11	114	801	1,026
	本島人	--	--	--	42	--	--	2	--	44	
	朝鮮人	65	--	29	47	18	--	22	--	181	
S11 (1936)	内地人	424	--	62	24	180	--	12	134	836	1,063
	本島人	--	--	--	37	--	--	32	--	69	
	朝鮮人	51	--	29	55	22	--	--	1	158	
S12 (1937)	内地人	420	--	58	26	177	--	10	117	808	1,040
	本島人	--	--	--	34	--	--	--	--	34	
	朝鮮人	50	--	29	56	28	--	35	--	198	
S13 (1938)	内地人	440	--	58	21	191	--	10	116	836	1,055
	本島人	--	--	--	30	--	--	34	--	64	
	朝鮮人	40	--	21	59	35	--	--	--	155	
S14 (1939)	内地人	395	--	35	14	191	--	14	47	696	969
	本島人	--	--	--	33	--	--	--	--	33	
	朝鮮人	60	--	28	55	41	--	56	--	240	
S15 (1940)	内地人	392	--	25	16	212	--	69	24	738	1,017
	本島人	--	--	--	30	--	--	--	--	30	
	朝鮮人	71	--	24	61	37	--	56	--	249	
S16 (1941)	内地人	380	--	19	24	225	--	2	24	674	925
	本島人	--	--	1	23	--	--	--	--	24	
	朝鮮人	55	--	15	66	33	--	58	--	227	

備考：Mは明治時代を、Tは大正時代を、Sは昭和時代を意味する。内地人は日本人、本島人は台湾人である。1942年から1945年までは、統計に含まれていない。

出典：台湾総督府民政部文書課、『台湾総督府統計書』1-3, 9, 19, 29, 34, 39-45巻, 「警察取り締まりに係る営業」(台北：台湾総督府官房調査課、1899-1943年)作成

## 図2 ネットオークションの出品文書に関する説明—遊女(娼妓)許可申請書

横29cm、縦21cm

2008年9月13日

<http://page.auctions.yahoo.co.jp/jp/auction/110556664>

4,300円

tkon3113(370)

出品者(評価) :

出品地域 : 千葉県

開始日時 : 9月6日 10時 22分

終了日時 : 9月13日 22時 22分

オークションID : 110556664

落札者 torukono45/評価 : 534

(評価の詳細)

中華民国警察局の物のようで詳しい事は判りませんが戦時中に中国（上海）の遊郭に働きに出向いた日本人女性の保証書と申請書のようなようです、20歳の日本人女性で働くお店が保証し、その働くお店は怡春堂と言う処でしょうか、国籍日本、貧困により自ら願い出た、就業期間中は政府命令には服従、全責任は保証人が請け負う、と言うような内容だと思えます、貧困により身売りされたのだと思えますが、その後のこの女性の運命を思うと複雑です、写真は同一人の者か別人か判りません（女性は化粧で変わりますので）あるいは貴重な資料なのかもしれませんが詳しい事は判りませんので見た目でご判断下さい、破損、汚損は有りません、横29cm位、縦21cm位の紙面です、画像をご覧頂きノークレーム・ノーリターンでお願い致し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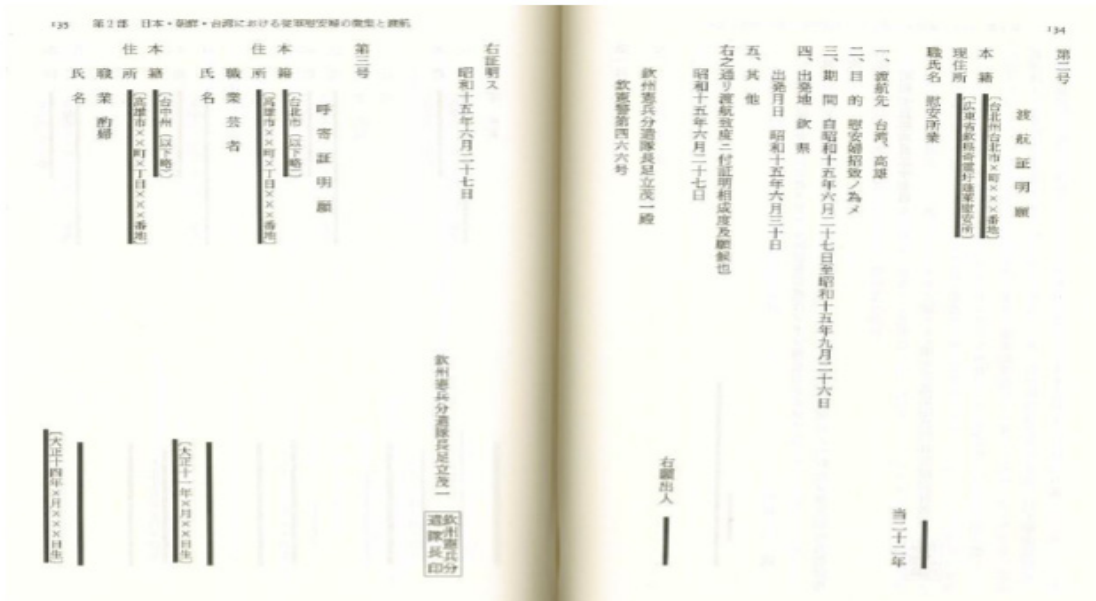


図3-1 慰安所業者が台湾に帰国して、台湾国籍の慰安婦を募集するための渡航証明願  
 出典：吉見義明編・解説(1992)『従軍慰安婦資料集』134-135頁



図3-2 慰安所業者が台湾に帰国して、台湾国籍の慰安婦を募集するための渡航証明願  
 出典：同上, 136-137頁



圖4-1

出典：後藤乾一・高崎宗司・和田春樹編『政府調査「從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第1卷』  
(龍溪書舍, 1997年)147-162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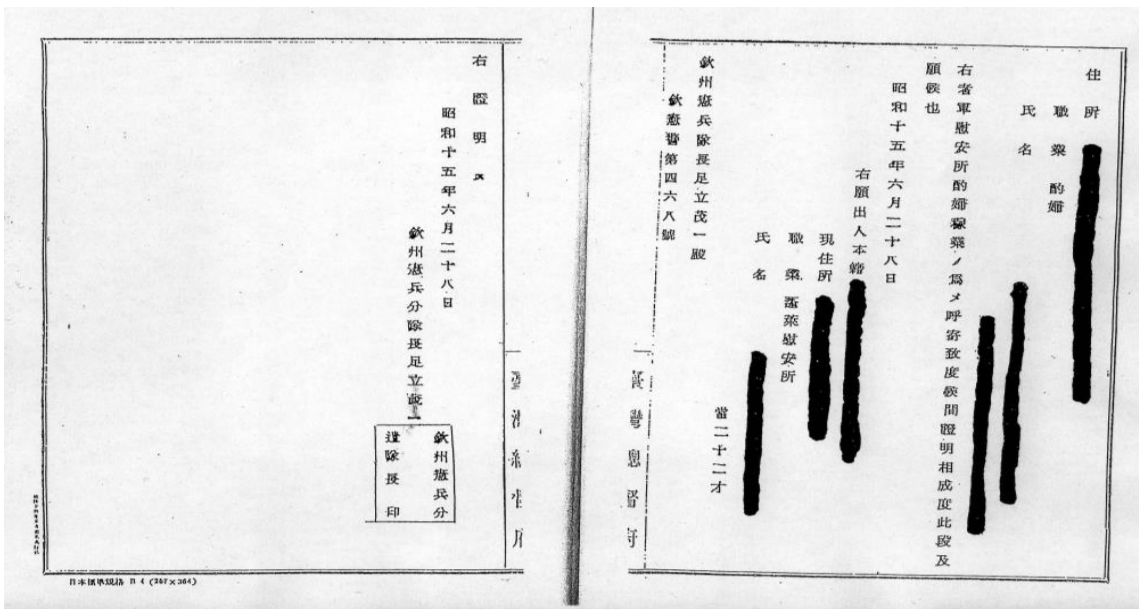


圖4-2

出典：同上, 158-159頁

## 日本軍國主義的軍需品——臺灣“慰安婦”研究視角

臺灣中央研究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 朱德蘭

### 摘 要

1937-1945 日華戰爭、1941-1945 年太平洋戰爭期間，日本政府為處理日軍“性”問題，徵集婦女到慰安所充當“慰安婦”，各地慰安所隨著日本軍國主義的膨脹，戰場的擴大，數量迅速的增加。

據不完整資料估算，臺籍“慰安婦”約有一千餘名。臺籍“慰安婦”有的死於戰爭，有的恥於公開身分，1992 年勇敢出面接受臺北市婦女救援基金會訪查的有 91 人，其中通過認證的有 58 人。1998 年臺籍“慰安婦”向日本控訴，要求日本政府承認國家犯罪，予以道歉與賠償。遺憾的是，她們的願望沒有達成已經病故，目前存活者只剩 3 人。

臺灣“慰安婦”在漫長的訴訟過程中，雖然有婦女團體、人權團體、各界人士為她們伸張正義，洗刷汙名，但也有一些人認為她們是出於“自願”，不是“被迫”做“慰安婦”的。

本文為釐清“慰安婦”問題爭議，擬以過去研究成果為基礎，針對：一、臺灣社會對慰安婦問題的認識；二、日本殖民時期臺灣公娼制度；三、性風俗業與人口買賣等項，做一具體的分析。

## 一、前言

慰安婦問題是戰後日本社會爭議性最大的戰爭遺留問題。迄今為止，有關這方面研究，如：檔案彙編與解說、戰爭記憶、口述歷史、影像紀錄、漫畫、小說、文學報導、學術著作等，出版品多達三、四百件。其中與臺灣相關，廣泛引起讀者關注的作品有：小林善紀著、賴青松、蕭志強翻譯，《「臺灣論」：新傲骨精神》（臺北：前衛出版，2001年）；朱德蘭著，《臺灣慰安婦》（臺北：五南圖書，2009年初版一刷、2010年初版二刷、2015年二版一刷）。

小林善紀（小林よしのり，Kobayashi, Yoshinori），日本漫畫家，1975年出道，初期以搞笑漫畫出名，1990年代開始以政治性議題做為漫畫材料，頗受日本右翼讀者歡迎。小林善紀為自由主義史觀派，他以漫畫方式，宣傳日本中心論（脫離自虐史觀），屬於推行修訂日本歷史教科書運動，刪除教科書中有關“慰安婦”記錄的成員。<sup>1</sup>小林善紀2000年於東京小學館出版《新傲骨精神宣言 SPECIAC 臺灣論》，2001年在臺北出版中譯本《「臺灣論」：新傲骨精神》（簡稱《臺灣論》）。《臺灣論》漫畫對於“慰安婦”的敘述，因與受害者經驗不符，在臺灣引起很大的論戰。

### 一、臺灣社會對慰安婦問題的認識

《臺灣論》一書是小林善紀多次訪問臺灣，先後與前元首李登輝、陳水扁，及著名企業家許文龍、蔡焜燦、金美齡（旅日臺僑）談話，另參考若干史料，用漫畫描繪臺灣四百年來歷史變化與當前現況的故事書。

#### （一）《臺灣論》風波

《臺灣論》第102頁記載，小林善紀經蔡焜燦安排，在前往臺灣新竹科學園區參觀途中，蔡焜燦敘述：

當慰安婦問題浮上檯面時，某位女性副總統候選人（指王清峰律師）曾招集臺籍慰安婦，到日本提起賠償訴訟！但是某臺灣企業家（指許文龍先生）也曾直接詢問這些當事人，結果發現根本沒有「強迫前往」這回事！大陸從前也有風化場所以「朝鮮館」來號召！這種事情並非始於大東亞戰爭！自古以來風塵女子便有遠行淘金的風氣！而且在戰場上，由軍隊負責衛生

<sup>1</sup>維基百科電子資料庫，<http://zh.wikipedia.org/2008年8月30日閱覽>。

管理，以及女子的載運作業，本來就是理所當然！<sup>2</sup>

其後，小林善紀前往臺南拜訪許文龍，談及臺灣慰安婦問題，許文龍說：

幾年前慰安婦的問題受到爭論時，最初提出不同意見的，就是我(指許文龍)，因為我覺得這種指控很奇怪，就進行調查，我找到幾個慰安婦，問她們當時是否真的遭脅迫被強行帶走的？結果她們都說不是，事實上，根本也不可能強迫她們。日本本土比如東北貧窮的農村，也有許多少女被家長販賣成為童妓。臺灣也有一些女孩十二、三歲時被家裡賣了，畢竟是貧窮的年代，很難避免。日軍當時也重視人權，能成為慰安婦對這些婦女而言，反而是出人頭地，每個人都是抱著希望進入軍隊，哪是被「強迫從軍」？被賣進妓女戶的女孩，即使賺了錢也常被侵吞，無法自己擁有，生病時，老板也不會照顧，令其自生自滅，一輩子就毀了。相反的，成為從軍慰安婦，收入穩定，也可以存錢，再加上有嚴格的衛生管理，對她們而言，簡直再好不過，一般的妓女戶可不會提供妓女保險套的。<sup>3</sup>

這段引文指出「日軍當時也重視人權，能成為慰安婦對這些婦女而言，反而是出人頭地，每個人都是抱著希望進入軍隊，哪是被“強迫從軍”」？許文龍強調，二次大戰時他十七歲，住家附近有娼妓館。據他所知，當時日軍編有充分的預算，通過代理商或民間財團，代為尋找女孩。商人在採購女孩的過程，通常是以合理的價錢，經由仲介或店主和女孩的父母談條件，讓父母把女兒賣到妓院，然後被集中管理，而成為日軍的玩樂場所。換言之，日本是以合法的手續進行合理的買賣，並沒有強抓女孩當慰安婦的事，國人實在不應該以沒有的事實來“冤枉”日本。<sup>4</sup>

許文龍的觀點，引起以臺北婦女救援會為首，諸多婦女團體、民意代表的批評。一名立法委員到書店前焚燒日本國旗、焚燒《臺灣論》、焚燒許文龍與小林善紀漫畫肖像。另一名立法委員呼籲民眾拒購、拒讀《臺灣論》，拒買許文龍企

<sup>2</sup>小林善紀著、賴青松、蕭志強譯，《「臺灣論」：新傲骨精神》（臺北：前衛出版，2001），第102頁。

<sup>3</sup>小林善紀著、賴青松、蕭志強譯，《「臺灣論」：新傲骨精神》，第203、204頁。

<sup>4</sup>朱德蘭，《臺灣慰安婦》（臺北：五南圖書，2015年二版），第37頁。

業生產的商品，並呼籲書商不賣、不出版《臺灣論》。<sup>5</sup>

相對於此，親日色彩濃厚的民間團體“臺灣南社”則很贊同許文龍、小林善紀的言論，他們發起購買《臺灣論》運動。《臺灣論》經過媒體大加報導，反而成為一本暢銷書。

許文龍見社會各界對他的發言爭吵不休，為使自己企業不受波及，便向媒體發表一份書面聲明：

一、對於慰安婦一事引發社會爭議，造成對當事人的二度傷害，深感歉意，受到有限經驗的限制，個人恐有以偏蓋全、不盡周延之處，但對於當事人絕無污蔑之意，希望各界能夠以理性態度面對。

二、本人並未表示慰安婦是為了「出人頭地」，也未使用「自願」這兩個字眼，關於此點，日本作家小林善紀已在接受訪問時公開表達。

三、關於本人曾經提到慰安婦「不是被強迫的」一事，是在指出當時日本政府並不是對慰安婦公開用捉的，是經過一定程序辦理的。此外，本人也並未否認有些人是在被勸誘或欺騙下才成為慰安婦的。

四、慰安婦的發生是歷史悲劇，和戰爭一樣，都是不人道的，本人對此深表遺憾，對當事人深感同情，除盡力撫慰當事人的創痛外，為了避免再次發生類似事件，本人將更加致力提高女權，使我們社會做到真正尊重婦女同胞的權益。

五、軍中妓女的存在，無論是在日本統治時代或國民黨政府時代，都是不應該的。為了更深入瞭解歷史真相，本人願意支持對慰安婦和過去軍妓制度更深入的研究，以還給社會一個歷史的真相。本人在此呼籲社會各界能夠阻止此一爭議發展成為政治和社會的嚴重對立，也避免對慰安婦當事人造成持續的傷害。<sup>6</sup>

許文龍的五點聲明主要目的是平息社會爭議。事實上，他不但沒有對受害者給予任何援助，也沒有反思：(1) 人口販子驅使婦女兒童為娼是犯罪行為，殖民政府為何不取締？(2) 戰時慰安婦市場的出現與日本軍國主義有沒有關聯？(3) 日本

<sup>5</sup>朱德蘭，《臺灣慰安婦》，第40頁。

<sup>6</sup>朱德蘭，《臺灣慰安婦》，第40-41頁。

政府把婦女送入慰安所，當作軍需品處置，這種讓日軍消費婦女“性、身體”，及侮辱女性尊嚴的行為，為何是一種“合理合法”的交易活動？

## (二) 中學教科書歷史課程綱要修訂案風波

1949-1987年蔣介石、蔣經國實施戒嚴令時期，臺灣為了反共、光復大陸，是以傳授國民黨思想做為教育政策的核心。漸漸的，教育受到經濟發達、社會進步、民主化運動的興起，以及1987年廢除戒嚴令的影響，中學教科書的編寫越來越重視本土(臺灣在地)歷史發展實況。

“中學教科書歷史課程綱要”是由專家學者和教師經過一定的討論程序制定而成的。課程重要綱目被訂立後，經過教育部確認、通過，予以公告。公告後，民間出版社請人撰寫教科書，等待教科書完成，再由教育部組織委員會進行審查，通過審定，取得發行權執照後，就可印行教科書，由學校各自選購課本。

回顧1996年臺灣全民直選總統以來，每屆執政黨為掌握歷史解釋權，主導國民的國家認同，而於1999年、2006年、2009年、2014年修訂過中學教科書歷史課程綱要。

值得關注的是，2014年教育部通過課程綱要修訂案，部分學者對於新修課程綱要不滿，因藉網路社群的力量，展開集體抵制抗議活動，致使修訂案暫停，延遲至今沒有推行。反對派學者指出修訂案問題百出，以“慰安婦”為例，反對派反對慰安婦添加“被迫”兩字，他們認為保持“中性”、“多元”角度，不加“被迫”為宜。支持派反駁，認為沒有人“自願”要做慰安婦，應加“被迫”兩字才對。馬英九(2008-2012年執政)支持“慰安婦”添加“被迫”兩字。正反兩派人士意見分歧，為了爭論“自願”、“被迫”，吵得沸沸揚揚。

檢討2009年筆者出版《臺灣慰安婦》後，臺灣有9間出版社通過教育部審定，在中學教科書歷史課本中，分別記載了“慰安婦”內容，即：

(1)賴澤涵主編，全華圖書股份有限公司出版，2012年初版，2015年二版，第155頁：

臺籍慰安婦的動員始自中日戰爭時期，其來源除特種行業者外，還有大量受騙而被迫至海外從事軍妓工作的女性，其所受的傷害難以磨滅。

(2)吳學明主編，翰林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出版，2012年初版，2015年三版，第147頁：

當時有許多婦女是被日本以招募護士、洗衣工等名義，誘騙成為慰安婦，造成當事者終身極大的傷害。

(3)薛化元主編，三民書局股份有限公司出版，2012年初版，2015年三版，第164頁：

此外，更有大量臺灣人奉命從事機場及防禦工事的修築，甚至徵集隨軍「慰安婦」，其中有不少是被強迫的。

(4)林能士主編，南一書局企業股份有限公司出版，2012年初版，2015年三版，第150頁：

此外，亦派臺籍慰安婦赴日軍足跡所到之處，她們大多是被迫或受騙前往。

(5)鄭政誠、趙祐志編著，康熹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出版，2012年初版，2015年三版，第141頁：

另外，還有許多婦女遭誘騙充當慰安婦，亦對當事人造成終身無法抹除的痛苦。

(6)戴寶村主編，龍騰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出版，2012年初版，2015年三版，第156頁：

戰爭期間，日本政府結合官、軍、憲、警、業者等，有計畫地以各種手段，於韓國、臺灣、中國及東南亞的占領地設置「慰安所」，誘騙、逼迫貧窮女子為日軍從事軍中「慰安」的性服務。

(7)陳豐祥主編，泰宇出版股份有限公司發行，2012年初版，2015年三版，第154頁：

此外，還有為數不詳的臺灣婦女，被迫或被騙前往海外，充當戰地日軍的慰安婦。她們即使歷劫歸來，身心所遭受的重創，終其餘生難以平復。

(8)雷家驥總主編，華興文化事業有限公司發行，2014年初版，2015年二版，第128頁：

日本政府為鼓舞軍隊士氣、防止性病蔓延等因素，在中國、殖民地臺灣、韓國與占領區菲律賓等地區，大量徵集「慰安婦」(即日軍軍妓)。臺灣總督府為配合日軍需求，以提供工作機會、改善家庭生活等名義，誘拐不少臺灣女性從事慰安婦工作。

(9)閻沁恆主編，史記文化事業有限公司發行，2013年初版，2015年二版，第135頁：

戰爭期間，日本還從臺灣強迫婦女充做軍妓，這些可憐的婦女遭受戰爭和日軍的蹂躪，戰後也長期生活在陰影之中，境遇悲慘。1996年，我國政府正式要求日本道歉賠償，但至今日本僅口頭表示道歉，對賠償問題則缺乏誠意，這問題至今尚未解決。

以上9間出版社邀請學者編寫的中學教科書歷史課本，針對臺灣“慰安婦”問題，各自使用：大量、大多或有不少婦女等詞彙，敘述臺灣婦女是因受騙、被迫、誘拐，而被充當“慰安婦”的。

不過，2014年教育部主持課程綱要修訂委員會決議加入“被迫”兩字後，由於反對派認為臺灣婦女不完全是“被迫”的，也有“自願”的，因此掀起反對派、支持派之間相當激烈的爭辯。<sup>7</sup>“被迫”、“自願”一直是日本右翼人士對“慰安婦”問題的主要爭議點。唯戰時性暴力問題牽涉到殖民主義、族別歧視、性別歧視等問題，並非只有“被迫”、“自願”這樣簡單的概念。

## 二、殖民地時期臺灣公娼制度

1895年日本割據臺灣，起初實行軍政，禁止日本商民、婦女渡臺，次年4月改行民政後，日本人可以自由渡臺，商機敏銳的花柳業者接踵而至。殖民地政府有鑒於官民沉湎酒色，性病感染率很高，為樹立官紀及預防性病，故將日本本

<sup>7</sup>維基百科，自由的百科全書「臺灣高中歷史課綱要微調案」。網址：<http://zh.wikipedia.org/zh-tw/>。2016年11月11日閱覽。

土的公娼制度導入了臺灣。<sup>8</sup>

### （一）公娼與私娼

日本統治臺灣初期，地方政府採取不同的法規取締性風俗業。1906 年全臺灣實施統一規則，頒佈公娼管理法如下。

.....

第十六條，凡欲就娼妓業者應請官衙指定醫生檢診之下，繕具左開事項躬赴本廳或支廳請給許可證。

一、欲就娼妓業之事由。

二、住所、本籍、寄留地、姓名、出生年月日等。

三、要同在一戶內或同一戶籍內之尊親允諾，若無尊親可允之時，要經戶主允諾，倘戶主難以為其允諾之時者，應據（明）該事實。

四、二十歲未滿者除前號以外，要該生父允諾，若無生父要生母，若無生母要祖父，若無祖父要祖母允諾事。

五、應行娼妓業之處所，以及所居貸座敷（妓院）名。

六、妓名、就業年限。

七、現在職業但倚他人營生者據（明）該事實；

八、嘗為娼妓事實之有無，倘有嘗為娼妓者，其就業開始及廢止之年月日並處所，以及廢止事由。前項願書（稟牘）後，應黏附檢診證書第三號、第四號所示承諾書，及當道官員造給本人之戶籍謄本或戶口調查簿抄本，並允諾者之印鑒證明書，以及娼妓就業所關契約書謄本等。

第十七條，十六歲未滿者不得以為娼妓。

第十八條，娼妓就業許可證之效力系限四年以內。

第十九條，娼妓不得於貸座敷以外處所住居或為該業。

第二十條，娼妓宜照另定章程請檢診以及療治，無承領檢診證書者不得就業。

第二十一條，娼妓除非法令規定或官廳命令，以及應行躬赴本廳、支廳之時以外，無請本廳或支廳許准者，不得擅出貸座敷（妓院）指定以外之地。

<sup>8</sup>鈴木裕子，《戰爭責任とジエンダー》（東京：未來社，1998 年），第 23 頁。

第二十二條，不論何人概不得妨礙娼妓休業、廢業、通信、面接（面會）以及其餘自由。

第二十三條，娼妓就業處所或住居欲行移轉之時，應稟請本廳、支廳換領許可證。

在他廳轄內經承許准就娼妓業者，于該許准限內移轉本廳轄下仍欲為該業之時，應具第十六條第二號並第五號、第六號所示事項，黏附該許可證稟請本廳、支廳換給，遇得此（情）時，該許准效力依照原廳所准年限內而行領過前項許可證之時，宜於三日內稟明原前所轄廳衙。

.....

第三十條，組合取締人（娼妓工會負責人）應行職務如左：

- 一、查照貸座敷（妓院）營業者及娼妓名簿事宜。
- 二、傳達貸座敷營業及娼妓就業所關章程命令等，俾當業者知照事宜。
- 三、娼妓檢診以及疾病療治所關事宜。
- 四、貸座敷營業者以及娼妓有違犯章程命令等之時，宜將情申報員警官吏事宜。
- 五、組合所關諸費收支以及決算報告所關事宜。
- 六、除列前各號以外，所有特命事項。

.....<sup>9</sup>

指出婦女如欲賣淫必須親赴官廳申請執照，官員依照：（1）年齡 16 歲以上；（2）未滿 20 歲者要有生父母或戶主、戶內尊親之允諾；（3）公娼執業者須有年期限制；（4）未具健康診斷書者不得從業；（5）不可在指定地以外的地方執業；（6）業主、娼妓如果違法，娼妓工會要報警查辦等，必須遵照規章辦理，取得執業許可證才能合法營業（參見圖 1）。

若將日本殖民地與日本本土做一對照，可以察知公娼管理法大致相同，只不過在年齡方面，日本本土須滿 18 歲（1927 年改為 21 歲），臺灣 16 歲，朝鮮 17 歲，滿州 17 歲。日本帝國統治圈內公娼年齡的差異，無疑地，有助於性風俗業

---

<sup>9</sup>自 1906 年開始，全臺灣娼妓業管理規則一致，參見宜蘭廳令第 14 號「貸座敷及娼妓取締規則」譯文，《宜蘭廳報》，第 252 號（1906 年 3 月）。

者建立“人肉市場”網絡，進行跨越族群、跨越區域的女子貿易活動。<sup>10</sup>

在臺灣，有營業執照的各族公娼人數，據殖民政府統計，1897年共664人，全屬日本人。1925年總數1,050人之中，日本人占922名、臺灣人占62名、朝鮮族占66名。1937年中日戰爭爆發，公娼總數1,040人之中，日本人占808名、臺灣人占34名、朝鮮族占198名。1941年太平洋戰爭爆發，公娼總數925人之中，日本人占674名、臺灣人占24名、朝鮮族占227名。（參見表1）

2008年9月6日上午10時22分拍賣網站上有一件1920年12月由中華民國警察署收藏，日本婦女向上海市政府請領許可從事娼妓業的證明文件。2008年9月13日22時22分有一買家出價4,300日圓買下了它。此一上海娼妓業文件尺寸：橫29cm、縱21cm，添附了申請人照片。文件字體有些模糊，內容包括：申請人姓名：渡邊□□，年齡20歲。國籍：日本，現在住所：怡春堂。請領理由：因貧，就業途徑：自願。保證人：陳□芳。附註：就業期間服從政府命令，所有責任由保證人擔負（參見圖2拍賣文件說明資料）。

這份日本婦女申請“自願”為娼的文件，說明婦女如欲賣淫，必須填寫申請書，經過一定的申請程序，被管轄地機關核准後才可就業。換言之，性風俗業的管理機關只註明申請人“自願”申請就業，絕不會有官方“強制”婦女賣淫的犯罪文件。

## （二）藝妓、酒女、女侍、吧女、舞女

近代日本性風俗業的範圍很廣，包括：料理屋（相當於酒樓，從業者為藝妓）、飲食店（酒館，從業者為酌婦，今稱酒女）、貸座敷（妓院，從業者為娼妓）、貸席（出租客房供客約會，服務者為酌婦）、咖啡屋（相當於今之酒吧，從業者為女給，意指女侍或吧女）、舞踏場（舞廳，從業者為舞女）等。<sup>11</sup>

根據“料理屋、飲食店、咖啡屋、席貸營業取締規則”規定，營業主“不得使沒有從業許可證之婦女做類似藝妓、酌婦或女給之行為”，地方首長、員警署長、員警分署長、同業工會倘若認為業者有紊亂社會公安與風俗之虞時，得取消其營業執照，或令其解雇從業者。又，根據“藝妓、酌婦、女給取締規則”規定：

<sup>10</sup>藤永壯，《植民地臺灣における朝鮮人接客業と「慰安婦」動員—統計値から見た覚え書き》，收入《近代社會と賣春問題》，大阪産業大學產研叢書16（大阪：2001年3月），第84頁。朱德蘭，《日治時期臺灣花柳業問題（1895-1945）》，刊載於《人文學報》，第27期（2003年6月），第115、164-170頁。朱德蘭，《臺灣慰安婦》，第340-341頁。

第一條 凡欲為藝妓、酌婦或女給營業者須具左開事項稟報郡守或員警署長允准：

- 一、本籍（居）地、住所、姓名及出生年月日。
- 二、營業場所或寄寓所。
- 三、別名或藝名。
- 四、必須從事營業之事由。
- 五、有雇主者雇主之住所、姓名及職業。
- 六、有關營業之契約書複本。
- 七、戶籍謄本或戶口調查簿全部複本（限臺灣本島人）。
- 八、證明無傳染病之官立醫院或公醫製作的診斷書。
- 九、以前做過藝妓、娼妓、酌婦、女給或舞女者，其營業之種類、場所、廢業年月日及其理由。

第二條 該當左開各項之一者不允許從事藝妓、酌婦或女給職業：

- 一、未滿十二歲者。
- 二、營業期間超過四年者，但從小培訓或學徒等有特別情況，契約不超過八年者不在此限。
- 三、被認為契約不當者。
- 四、藝妓、娼妓、酌婦或女給等營業許可被取消，或營業停止中，廢業未經過一年者。
- 五、罹患結核、癩（癩瘋）、梅毒及其他傳染性疾病，被認為有害公眾衛生者。
- 六、性行不良及被認為有害公安或風俗之虞者。
- 七、其他從業上被認為有害公安或風俗之虞者。<sup>12</sup>

指出藝妓、酒女、女侍、吧女、舞女皆須申請就業執照，而且不得引誘客人或留客住宿，從事其本業以外的性風俗業。

近代東亞地區的開港場是色情行業開闢市場的新天地。其中“性”服務業廣受男人歡迎的原因，源於：性的慰勞可使男性逃避現實生活中的不安、壓力、挫

---

<sup>11</sup>朱德蘭，《日治時期臺灣花柳業問題（1895-1945）》，第106頁。

<sup>12</sup>昭和7年7月22日新竹州令第12號《藝妓酌婦女給取締規則》，刊載於《新竹州報》第643號。

折、怨忿、煩躁、情感糾葛，可讓男性感到自尊、威武、權力等，這些心理現象尤易出現於戰場中的日軍、軍屬（軍方文職人員）及商民身上。

### 三、性風俗業與人口買賣

1910 年代旅居新加坡的岩田喜男見過“人肉拍賣市場”實況，他說：

大概是在大正二、三年（1913-1914）左右，我在新加坡碼頭倉庫前看過娼妓的拍賣市場。年約十二、三歲或十四、五歲的日本少女，大約有十人左右，她們穿著薄薄的洋裝或浴衣，長得很漂亮的價錢較貴，會先被賣掉。少女在當場還弄不清楚，完全沒有想到自己會被賣掉當妓女。……在中國和印度的港口也有人口買賣，好像妹妹（小女孩）大小年紀的日本姑娘似的被拍賣，賣主出價問道：50 元，50 元，要不要買？<sup>13</sup>

指出許多女童被誘拐到海外，是被人口販子當作物品般的喊價拍賣。唯，日本官員對此賣淫活動，受限於人手不足，無法嚴查來源不絕的偷渡婦，加上海外單身漢需要她們，以及賣淫業的興盛也可帶動餐飲、旅遊、百貨、交通運輸等關係行業，繁榮日僑居留區，因此取締態度十分消極。

一般而言，誘拐者誘拐人口出境，為把女孩藏入船底，密航海外，還與船員勾結和與船舶事務長、司廚長等搭上關係。女孩被迫做娼妓後，就像普通商品一樣轉手於一系列“業主”之間。<sup>14</sup>

1937-1945 年日華戰爭、1941-1945 年太平洋戰爭期間，日本商人為謀商業利益，為服務日本官民、軍人、軍屬，高舉“國策企業”、“軍需企業”的旗幟，到日軍占領區開設不同等級的慰安所、料理屋、咖啡屋、飲食店，大發戰爭財者多不勝數。舉例言之，福建省廈門地區的“梅乃家”是日本人投資的高級料理店，店主雇用日本藝妓專門服務高階軍官。“波止揚”是朝鮮人經營的低級料理店，屬於日本低階士兵娛樂、買春的場所。“喜樂”、“八洲庵”是臺灣人開的

---

朱德蘭，《日治時期臺灣花柳業問題（1895-1945）》，第 118、120 頁。

<sup>13</sup>大場昇，《からゆきさん おキクの生涯》（東京：明石書店，2002 年），第 69-70 頁。

<sup>14</sup>森克己，《人身売買—海外出稼ぎ女—》（東京：至文堂，1959 年），第 89-94、101 頁。金一勉，《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東京：三一書房，1977 年），第 30-31 頁。

咖啡屋，是一間變相的妓女院，雇用臺灣、大陸籍女侍服務日本兵卒和軍職人員。

15

戰時日本政府顧慮國內不良份子以得到軍方諒解為名，到處募集婦女前往中國賣淫，擾亂後方民心，及防止惡徒從事女子買賣活動，因此 1938 年 2 月由內務省警保局發出一紙公文，傳達各廳府縣長官須按規定辦理婦女出國手續。即：

1. 以醜業（賣春）為目的之女性的出國，限於現在日本本土是妓女，及事實上從事賣春，年滿二十一歲以上，非性病和其他傳染性疾病患者。目前要前往華中、華北方面者，將予以默認，依照昭和十二（1937）年八月三十一日外務次官發文（米三機密合第三七七六號），發給身份證明書。
2. 發出身份證明時，要先諭示工作契約期滿或無必要時，應盡速回國。
3. 以賣春為目的而出國的婦女，必須本人親至員警署申辦身份證明書。
4. 以賣春為目的要出國的婦女，在申辦身份證明書時，必須獲得同一戶籍內至親尊長的同意，如無至親尊長時，要有戶長的承認，如無可以同意的人，則要說明事實。
5. 以賣春為目的之婦女在出國發給身份證明書時，應調查其工作契約及其各種事項，必須留意沒有買賣婦女和掠奪誘拐的事實。
6. 仲介招募者以賣春為目的，及涉及一般風化業而出國之婦女時，說已得到軍方諒解，或說與軍方有聯絡者，都要嚴格的取締。
7. 仲介招募前項婦女，進行廣告宣傳、虛偽事實或誇大宣傳時，都要嚴加取締，並對仲介招募者進行嚴厲的調查，若無正式許可或駐外使館核發之證明，無法確認其身份時，則不予同意。<sup>16</sup>（原文日文，作者中譯。）

反映日本政府對於日軍性需求，雖然默認沒有傳染病的醜業婦可以出國賣春，但在仲介招募婦女的背後，因恐發生買賣未成年婦女，或聲稱得到軍方同意，卻發生掠奪誘拐的事，影響軍方威信，所以照會官員應該嚴加調查予以取締。另對出

---

<sup>15</sup>辛德蘭（朱德蘭），《海外淘金：日本人在台海兩岸拓展賣淫業市場之研究（1895-1945）》，收入 湯熙勇主編，《中國海洋發展史論文集》第 10 輯（臺北：中央研究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2008 年），第 452 頁。

<sup>16</sup>昭和 13 年 2 月 23 日內務省發警第 5 號：《支那渡航婦女ノ取扱ニ關スル件》收入吉見義明，《從軍慰安婦資料集》，第 102-104 頁。

國賣淫婦，則規定必須取得父母或戶長同意，必須本人親往轄區員警署申辦證件，經過核准後，才可出國就業。

值得討論的是，在上述警保局承認從業婦出國條件中，為何記載：“目前在日本本土是妓女，及事實上從事賣春，年滿 21 歲以上”這條規定呢？探究原因，這與日本參加國際聯盟，簽訂“禁止買賣婦女兒童條約”，擔心違反條約有關。進一步說，1910 年國際聯盟於巴黎訂定“關於取締醜業婦”之國際條約時，其中規定：

第一條，無論何人，為滿足他人的情欲，以賣春為目的，勸誘未成年婦女、引誘、誘拐者，雖得其本人的承諾，或在他國遂行構成犯罪要素之各種行為，應予處罰。

第二條，無論何人，為滿足他人的情欲，以賣春為目的，利用詐欺、暴行、脅迫，或濫用權勢以及其他一切強制手段勸誘成年婦女、引誘或拐去者，即使是在他國遂行構成犯罪之各種行為，也應處罰。<sup>17</sup>

說明第一條中的未成年是指未滿 20 歲的女孩。換言之，即使本人同意賣春，也要禁止未成年女童的賣春行為。1921 年國際聯盟在日內瓦簽約時，重新規定未成年為 21 歲。日本加入簽約國之際，起初是以不滿 18 歲為未成年的保留條件，等到 1927 年時撤銷了此一保留條件。

1938 年日本警保局長規定賣春婦年齡要在 21 歲以上，即佐證日本所謂未成年是指年滿 21 歲的女孩，已和國際社會一致。唯，1921 年禁止買賣婦女兒童國際條約中的第十四條規定，連署國可以宣稱有不適用情況。當時日本政府利用這項規定，使此條約不適用於殖民地。臺灣、朝鮮因不受此國際條約約束，成為日軍慰安婦的補給地，所以助長了歹徒從事婦女兒童越界買賣活動。<sup>18</sup>

此外，日軍違反殖民地公娼管理法，取得日本政府、臺灣總督府默許的情形，1940 年一份軍方文書是個好例子。

1939 年 11 月日軍進攻廣西省南寧地區，並向東面進犯，中國軍隊不敵，欽州、廉江立即淪陷。1940 年 5 月日軍為牽制中國軍隊，再度集結大批兵力攻擊廣東省北邊。經過交戰結果，日軍受到糧食、砲彈不足，廣東守軍勇敢抗戰的影響，只好下令撤退。<sup>19</sup>

<sup>17</sup>鈴木裕子編，《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下冊（東京：明石書店，2006 年），第 123-124 頁。

<sup>18</sup>吉見義明，《從軍慰安婦》，第 165-166 頁。

<sup>19</sup>丁身尊主編，《廣東民國史》，下冊（廣州：廣東人民出版社，2004 年），第 974-979、990 頁。

1940年6月一部份日軍退守欽縣，聯隊長林義秀大佐為了提升部隊作戰士氣，而有向殖民地臺灣軍提出讓婦女前來慰安的要求。同年8月高雄州知事赤堀鐵吉上呈外事部長一份公文，報告此案處理情形。公文中添附欽縣日本占領軍三份證明，即：

附件第一號副本

證明書 照 片

住址○○○○○○○○○○○○

姓名○○○ 本年二十二歲

上列人員為本隊附屬慰安所經營者，此次是為帶慰安婦同行而返臺。因慰安婦對慰勞本隊而言是絕對必要的，故對渡航請給予方便。茲為證明

昭和十五（1940）年六月二十七日

華南派遣軍鹽田兵團林部隊長林義秀 林部隊長之印

附件第二號副本

渡航證明書

本籍 臺北州臺北市○町○○○番地

現住址 廣東省欽縣奇靈圩蓬萊慰安所

職業姓名 慰安所業 ○○○本年二十二歲

一、渡航地 臺灣高雄

二、目的 為招來慰安婦

三、期間 自昭和十五（1940）年六月二十七日至昭和十五（1940）年九月二十六日

四、出發地 欽縣

出發時間 昭和十五年六月三十日

五、其他

如上渡航請給予證明

昭和十五年六月二十七日 申請人○○○

欽州憲兵分遣隊長足立茂一

欽憲警第四六六號

茲給證明

昭和十五（1940）年六月二十七日

欽州憲兵分遣隊長足立茂一 欽州憲兵分遣隊長之印

附件第三號：

召喚證明申請書

本籍 臺北市○○○○○○

住址 高雄市○町○丁目○○○番地

職業 藝者

姓名 ○○○ 大正十一年（1922）○月○○日生

本籍 臺中州○○○○○○

住址 高雄市○町○丁目○○○番地

職業 酌婦

姓名 ○○○ 大正十四年（1925）○月○○○日生

本籍 臺北州○○○○○○

住址 高雄市○町○丁目○○○番地

職業 藝者

姓名 ○○○ 大正十五年（1926）○月○日生

本籍 臺北州○○○○○○

住址 高雄市○町○丁目○○○番地

職業 酌婦

姓名 ○○○ 大正十三年（1924）○月○○日生

本籍 臺中州○○○○○○

住址 高雄市○町○丁目○○○番地

職業 酌婦

姓名 ○○○ 大正十三年（1924）○月○日生

本籍 臺北市○○○○○○

住址 高雄市○町○丁目○○○番地

職業 酌婦

姓名 ○○○ 大正十四年（1925）○月○○○日生

以上人員為招去軍隊慰安所就業，請給予證明，特此申請。

昭和十五（1940）年六月二十八日

申請人本籍 臺北市○町○○○番地

現住址 廣東省欽縣奇靈圩

職業 蓬萊慰安所

姓名 ○○○ 本年二十二歲

欽州憲兵分遣隊長足立茂一

欽憲警第四六八號

茲予證明

昭和十五（1940）年六月二十八日

欽州憲兵分遣隊長足立茂一 欽州憲兵分遣隊長之印<sup>20</sup>

針對此案，日本外事部的態度是，根據昭和十五（1940）年五月臺灣總督府規定，欲往中國大陸者必須持有在華領事館發給的“渡華事由證明書”，但高雄州知事報告，慰安所從業人員渡航急切，慰安所與聯隊設在交通不便的地方，為了滿足日軍需求，所以便宜行事，同意於調查身分、目的等確實無誤後，讓業者只憑軍隊所核發的證明書就可帶同婦女渡華。<sup>21</sup>

唯，臺灣總督府在風俗業取締法規裡，明白規定營業者不得使藝妓、酌婦服侍客席或寄宿。妨害公安或傷敗風俗者不許營業。藝妓、酌婦如有影響公安或紊亂風俗行為者，將令其歇業，或將其從業證照註銷。藝妓、酌婦有兼業欲做娼妓者，應該按照娼妓業管理章程申請就業執照。<sup>22</sup>

檢視這 6 名女子的本籍地，有 4 名來自臺北、2 名來自臺中，她們都寄留在高雄地區臺灣人的戶籍裡。臺灣人業主以藝旦、酌婦名義帶她們出國。6 名女孩

<sup>20</sup>昭和 15 年 9 月 2 日外 1 第 1162-1 號：《渡支事由證明書等の取寄不能と認めらるる對岸地域への渡航者の取扱に關する件》，收入吉見義明，《從軍慰安婦資料集》，第 130-137 頁。

<sup>21</sup>吉見義明，《從軍慰安婦資料集》，第 138 頁。

的年齡一個 18 歲、一個 14 歲、兩個 15 歲、兩個 16 歲。<sup>23</sup> 在臺灣，藝旦、酌婦的服務對象是熟悉方言文化的文化人或富人。臺灣藝旦、酌婦不懂日語、不懂日本社交文化，被業主送入慰安所，應該不是表演才藝，而是充當日軍處理“性”的工具。

值得提出的是，筆者最初閱讀此一資料時，發現吉見義明編集《從軍慰安婦資料集》（東京：大月書店，1993 年）第 134-137 頁，與後藤乾一、高崎宗司、和田春樹共編《政府調查“從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第 1 卷（東京：龍溪書舍，1997 年）第 147-162 頁，收錄相同的資料。吉見義明為保護個人隱私權，是用打「×」的方式隱匿一些文字，保留了藝旦、酌婦的出生年資料（見圖 3-1、3-2）。1996 年日本亞洲女性和平國民基金會成立“慰安婦”有關資料委員會，委員會成員所調查復刻的資料，是採用外務省提供，以墨水塗抹全部內容的複印資料（見圖 4-1、4-2）。

為了探究真相，2002 年筆者前往收藏機構東京外務省外交史料館查閱原始文件，筆者向館員提出保證，在不複印、不攝像條件下，要求允許閱覽原始史料。館員向主管請示許久後答覆：“為保護當事人隱私權，圖書館只提供這份被墨水塗抹的複印本，不能提供原始文件。”

細想館方禁止讀者閱覽的原因，應該不是為了保護臺灣人的隱私權，而是擔心受害者控告，要求日本政府解釋：日軍慰安所為何要讓臺灣女孩充當“童妓”？公文沒有記載女童是被“強制連行”送到慰安所的，那麼，女童是不是“自願”做軍妓的？女童尚未成年，在法律上沒有自主權，父母“販賣”女童亦屬違法，究竟是被業主“欺騙”？還是被“誘拐”出國的呢？

如果業主是用詐欺、誘拐或人口買賣方式募集女童，這些手段皆屬非法強制勞動，殖民政府應該禁止出境才是，結局卻被允許渡華。而日本官員不查辦，不取締營業主的原因，應該是“慰安婦”對於日軍來說，是一種特殊軍用品，因屬必要、急迫的軍需物資，不受法令約束，所以才連結性風俗業、勞務仲介業、交通運輸業等關係業者，集合各種資源，大量製造“性”市場所需要的日軍軍需品“慰安婦”。

---

<sup>22</sup>朱德蘭，《日治時期臺灣花柳業問題（1895-1945）》，第 118-124 頁。

<sup>23</sup>前引《渡支事由證明書等の取寄不能と認めらるる對岸地域への渡航者の取扱に關する件》。

## 六、結論

20 世紀前半葉日本對外發動侵略戰爭期間，在廣闊的大東亞地區普遍設置慰安所，招募婦女充當“慰安婦”行為，意味著“慰安婦”是日軍作戰不可缺少的“軍需品”。針對此一現象，當時日本國內新聞報導：

軍方對於“慰安婦”不是把她當做人，而是當成“物”一樣的處置，如果運輸船被敵軍擊沉了，就以“軍需品沉沒”回報。“慰安婦”即使死于戰場，也因沒有軍人、軍屬的身份，而不能說是戰死，只能看成是物品消失，必須要予以丟棄，不能給予什麼勳章或撫恤金。<sup>24</sup>

文章反映“慰安婦”是被日軍當作肉體、精神調和劑的軍需品。

“慰安婦”市場的啟動、主導權、控制權存在著結構性與關聯性問題。也就是說，消費群主要是日軍，另還有：日本軍屬、御用商人。“慰安婦”市場的發展方向是由日本政府掌控，其中，獲益最大的是供貨方。供貨方多由日軍與日本政府、殖民地政府、日占區傀儡政權選定。特殊“軍需品”的流通網，從製造、採購、供給、運輸到消費等環節，形成一種相互依存關係，這種共生共榮關係即為商品市場的基本結構。

值得關注的是，戰時日本政府為避免觸犯國際聯盟訂立“禁止買賣婦女兒童”之國際條約，規定以賣春為目的之女性如欲出國，限於現在日本本土是娼妓，及事實上從事賣春，年滿 21 歲以上，非性病和其他傳染性疾患的婦女。然而，日本國內公娼人數有限，無法應付不斷增長的消費群，作為戰爭總動員一環的風俗業者，從國家利益及自身利益出發，除了讓娼妓轉換地方成為“慰安婦”外，更結合人口販子的力量，靈活的利用：詐欺、勸誘、暴力、脅迫、濫用權力、買賣等手段，到處募集家境貧寒、沒有性經驗的婦女、兒童充當“慰安婦”，將色情行業、慰安婦業、勞務仲介業做了巧妙的連結。

如從兩性關係來說，日軍把女性當作“性玩物”，本質上就是一種性暴力。1937-1945 以日軍為核心的性暴力，明顯的體現了日本軍國主義對異民族遂行軍事暴力(侵略戰爭)、法律暴力(殖民主義)、政治暴力(差別待遇)、經濟暴力(階級剝削)、文化暴力(族別歧視)、社會暴力(性別歧視)等整體暴力的一部分。

<sup>24</sup>入江德郎等編，《新聞集成昭和史の証言》（東京：本邦書籍株式會社，1983 年），第 177 頁。

總結的說，“慰安婦”的出現源起於日本軍國主義發動不義戰爭，正因為有殘酷的軍事暴力，才有大量的性暴力。

令人遺憾的是，日本右翼人士不斷的強調：慰安婦是“自願”賣淫，並無日本政府強迫擄人(強制連行)從妓的證據。<sup>25</sup>日本右翼人士反覆把女性“物化”、“性工具”化，這樣缺乏人道觀念，漠視人的尊嚴及身心健康的言論，對日本政府意圖和解，撫平日本軍國主義給亞洲地區留下尚未痊癒的歷史傷痕，其實毫無幫助。日本政府唯有深切的反思與道歉，記取歷史教訓，才能與亞洲人民一同走向共同的未來。

---

<sup>25</sup>日本否認戰時性暴力言論，參見“慰安婦”問題を知るために役立資料。女たちの戦と平和資料館網址：<http://wam-peace.org/> (2014年4月25日閱覽)。另參見《暴論》，刊載於《產經新聞》，東京，2011年12月6日。網址：[http://www1.hk.apple.nextmedia.com/realtime/art\\_main.php?iss\\_id=20111206&sec\\_id=10793140&art\\_id=50053008](http://www1.hk.apple.nextmedia.com/realtime/art_main.php?iss_id=20111206&sec_id=10793140&art_id=50053008) (2014年5月1日閱覽)



表1 在臺灣從事公娼職業的日本、臺灣、朝鮮族人數(1897-1941年)

年別	種族別	臺北市	新竹州	臺中州	臺南州	高雄州	臺東廳	花蓮港廳	澎湖廳	小計	合計
M30 (1897)	內地人	425	--	79	86	--	--	--	74	664	664
	本島人	--	--	--	--	--	--	--	--	--	
M31 (1898)	內地人	547	--	107	169	--	--	--	49	872	912
	本島人	36	--	--	4	--	--	--	--	40	
M32 (1899)	內地人	576	--	130	282	--	--	--	44	1,032	1,083
	本島人	50	--	--	1	--	--	--	--	51	
M38 (1905)	內地人	345	9	82	190	40	--	--	10	676	711
	本島人	26	--	--	9	--	--	--	--	35	
	朝鮮人	--	--	--	--	--	--	--	--	--	
T4 (1915)	內地人	607	21	208	206	--	--	89	87	1,218	1,322
	本島人	6	--	--	98	--	--	--	--	104	
	朝鮮人	--	--	--	--	--	--	--	--	--	
T14 (1925)	內地人	423	--	105	122	232	--	40	--	922	1,050
	本島人	7	--	1	52	--	--	2	--	62	
	朝鮮人	25	--	14	13	14	--	--	--	66	
S5 (1930)	內地人	438	--	99	117	88	--	41	88	871	1,119
	本島人	4	--	--	115	--	--	--	--	119	
	朝鮮人	39	--	17	--	59	--	--	14	129	
S10 (1935)	內地人	407	--	62	44	163	--	11	114	801	1,026
	本島人	--	--	--	42	--	--	2	--	44	
	朝鮮人	65	--	29	47	18	--	22	--	181	
S11 (1936)	內地人	424	--	62	24	180	--	12	134	836	1,063
	本島人	--	--	--	37	--	--	32	--	69	
	朝鮮人	51	--	29	55	22	--	--	1	158	
S12 (1937)	內地人	420	--	58	26	177	--	10	117	808	1,040
	本島人	--	--	--	34	--	--	--	--	34	
	朝鮮人	50	--	29	56	28	--	35	--	198	
S13 (1938)	內地人	440	--	58	21	191	--	10	116	836	1,055
	本島人	--	--	--	30	--	--	34	--	64	
	朝鮮人	40	--	21	59	35	--	--	--	155	
S14 (1939)	內地人	395	--	35	14	191	--	14	47	696	969
	本島人	--	--	--	33	--	--	--	--	33	
	朝鮮人	60	--	28	55	41	--	56	--	240	
S15 (1940)	內地人	392	--	25	16	212	--	69	24	738	1,017
	本島人	--	--	--	30	--	--	--	--	30	
	朝鮮人	71	--	24	61	37	--	56	--	249	
S16 (1941)	內地人	380	--	19	24	225	--	2	24	674	925
	本島人	--	--	1	23	--	--	--	--	24	
	朝鮮人	55	--	15	66	33	--	58	--	227	

備註：M 代表明治，T 代表大正，S 代表昭和紀年。內地人是指日本人，本島人是指臺灣人。1942 至 1945 年無統計資料。

資料來源：根據臺灣總督府民政部文書課，《臺灣總督府統計書》第 1-3、9、19、29、34、39-45 冊，〈警察取締二條ル營業〉(臺北：臺灣總督府官房調查課，1899-1943 年)製作。

圖 2 網站拍賣文件說明資料——遊女(娼妓)請領許可申請書  
橫 29 cm、縱 21 cm 之紙面

2008 年 9 月 13 日

<http://page.auctions.yahoo.co.jp/jp/auction/110556664>

4,300 円

出品者(評価): tkon3113 (370)  
出品地域: 千葉県  
開始日時: 9月6日 10時 22分  
終了日時: 9月13日 22時 22分  
オークション ID: 110556664  
落札者 torukono45 / 評価: 534 (評価の詳細)

中華民国警察局の物のようで詳しい事は判りませんが戦時中に中国(上海)の遊郭に働きに出向いた日本人女性の保証書と申請書のようなようです、20歳の日本人女性で働くお店が保証し、その働くお店は怡春堂と言う処でしょうか、国籍日本、貧困により自ら願い出た、就業期間中は政府命令には服従、全責任は保証人が請け負う、と言うような内容だと思えます、貧困により身売りされたのだと思えますが、その後のこの女性の運命を思うと複雑です、写真は同一人の者か別人か判りません(女性は化粧で変わりますので)あるいは貴重な資料なのかもしれません詳しい事は判りませんので見ただ目でご判断下さい、破損、汚損は有りません、横29cm位、縦21cm位の紙面です、画像をご覧頂きノークレーム・ノーリターンでお願い致し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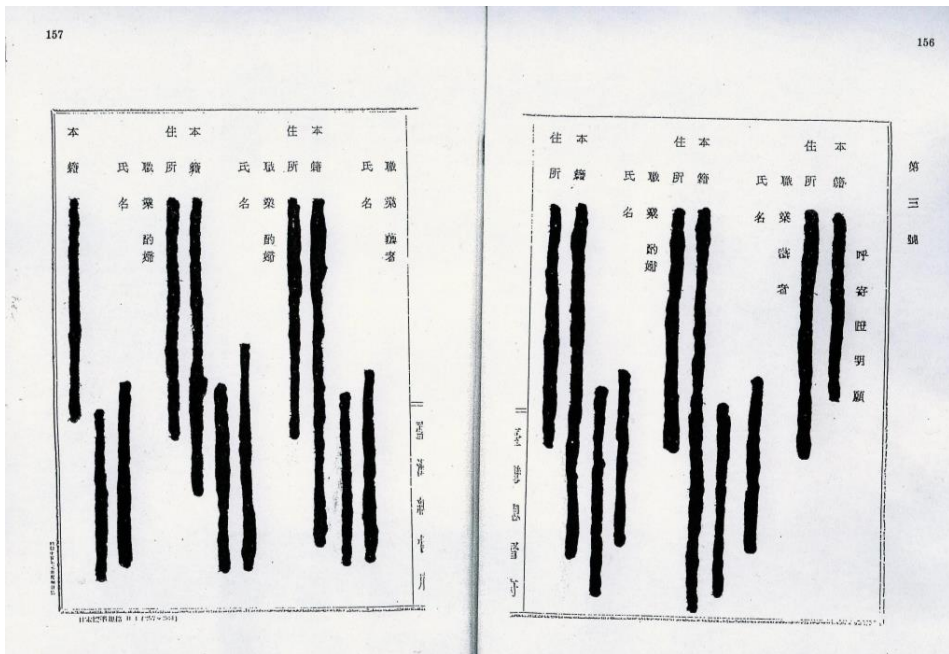


圖 4-1 業者申請返臺招募臺籍慰安婦渡航證明書（東京外交史料館不提供原件）  
資料來源：後藤幹一、高崎宗司、和田春樹共編：《政府調査“從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第 1 卷，第 156-157 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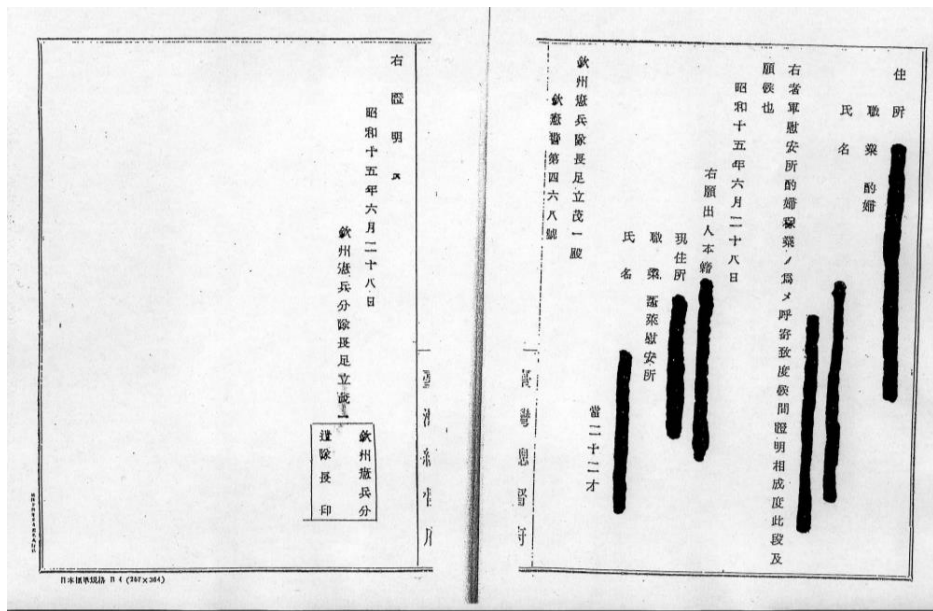


圖 4-2 業者申請返臺招募臺籍慰安婦渡航證明書  
資料來源：同圖 4-1，第 158-159 頁。

# Munitions of Japanese Militarism A Research Perspective on Taiwanese ‘Comfort Women’

Joo Deoran (Academia Sinica’s Research Center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Abstract

During the entire period of the Second Sino-Japanese War of 1937-1945 and the Pacific War of 1941-1945, the Japanese government forcibly conscripted women into ‘comfort stations’ in order to handle the Japanese army’s ‘sexual’ matters. The number of comfort stations in each region rapidly increased as Japanese imperialism expanded and the radius of the war zone stretched.

According to provisional data, it is estimated that there were approximately a thousand of ‘comfort women’ with Taiwanese nationality. Some of Taiwanese ‘comfort women’ died during the war time, and some were reluctant to reveal their identities to the public. Only 91 of them bravely agreed to sit for interviews with Taipei Women’s Rescue Foundation(婦女救援基金會), and 58 of them testified. In 1998, ‘comfort women’ with Taiwanese citizenship began a law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demanded an acknowledgement that forcible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was a state crime, a formal apology, and compensation. It is regrettable, however, that many of them have died before their wishes come true and only three of them are alive.

Women’s organizations, human rights groups, and eminent persons from all walks of life have taken the lead in crying for justice and tried to clear their names as comfort women during the long litigation of Taiwanese ‘comfort women.’ Nevertheless, some believe they were not forced to be ‘comfort women’ but they ‘volunteered.’

This paper aims to analyze disputes related to issues of ‘comfort women’ and to examine 1. The

awareness of comfort women in Taiwanese society, 2. The Taiwanese state-regulated prostitution under Japanese rule, 3. Traditional sexually oriented businesses (性風俗業) and human trafficking in details based on past research achievements.

## Introduction

The war has left the comfort women issue, which has aroused as the biggest controversy in the Japanese society after the war. To date, there are 300~400 published research materials, including organizations and interpretation of documents, war memories, oral history, cartoon, novel, literature report, scholarly work and others. Among them, some works that received the most attention from readers are: <「Theory of Taiwan」: A New Proud Spirit (「臺灣論」: 新傲骨精神)> (Taipei, published by 前衛, 2001) written by ‘Yoshinori Kobayashi (小林よしのり)’, translated by Lai Cing-Soong (賴青松) and Siu Chi-Keung (蕭志強), and <Taiwanese Comfort Women> by ‘Joo Deoran (朱德蘭)’ (Taipei: 五南Books, the first edition printed in 2009, the second impression of the first edition in 2010, the first impression of second edition in 2015).

Yoshinori Kobayashi is a Japanese cartoonist, who published his first work in 1975. Early on he became famous for his humorous comic works. Since 1990, he started drawing political cartoons and was welcomed by Japanese right-wing readers. Kobayashi is classified as a supporter of liberal view of history. He promotes Japanese Centralism (脫自虐史觀), spreads the campaign for reforming Japanese history textbook, and claims to delete the records of ‘comfort women’ in the textbook through his comics. <sup>1)</sup> Kobayashi published <The Declaration of New Proud Spirit SPECIAC Theory of Taiwan (新傲骨精神宣言 SPECIAC 臺灣論)> at Tokyo Shogakukan (小學館) in 2000, and printed the Chinese version of <Theory of Taiwan: A New Proud Spirit> (“Theory of Taiwan”) in Taipei in 2001. A heated dispute regarding the cartoon <Theory of Taiwan> was caused in Taiwan as the description of ‘comfort women’ did not agree with experiences of the victims.

---

1) Wikipedia <http://zh.wikipedia.org/> Read on 2008 Aug 30.

## Awareness of Comfort Women Issues in Taiwanese Society

Kobayashi drew <Theory of Taiwan>, which contains 400 years of history and present status of Taiwan, after meetings with Lee Teng-hui(李登輝), Chen Shui-bian (陳水扁), the renowned businessman Shi Wen-long (許文龍), Tsai Kun-chan (蔡焜燦), Jin Mei-ling (金美齡, Taiwanese Japanese) during multiple visits to Taiwan and with reference to a few of historical records.

### 1) The Backlash of <Theory of Taiwan>

The contents of page 102 from <Theory of Taiwan> is as follows. Tsai Kun-chan arranged an occasion for Kobayashi. While heading to Hsinchu Science and Industrial Park (臺灣新竹科學園區) together, Tsai Kun-chan says the following.

“If the comfort women issue comes up to the surface, the female vice president candidate (Wang Ching-feng (王清峰) a lawyer) will assemble comfort women with Taiwanese nationality, head to Japan, and file a lawsuit for compensation! But a Taiwanese businessman (Shi Wen-long) asked one of comfort women and found out that they were never ‘forcefully taken away!’ In the past, China also gathered women at ‘Joseonguan(朝鮮館).’ It is not true that such things began since the Pacific War! From old times women took a long journey to earn money during chaotic periods such as wartime! Thus it was only natural for them to control hygiene along the army and to transport force materials.”<sup>2)</sup>

Then Kobayashi meets with Shi Wen-long from Tainan (臺南) and talks about Taiwanese comfort women issue. Shi Wen-long says as follows.

“When a dispute over the issue of comfort women aroused several years ago, initially different opinions appeared. I (Shi Wen-long) felt skeptical and strange towards such criticism. So I did my own research, found several comfort women, and asked if they were really forcibly dragged into the warzone. And they said no. In fact, it was not possible to be hauled by force. Many women became young prostitutes in poor rural villages of the northeastern mainland of Japan because their parents

---

2) Wikipedia <http://zh.wikipedia.org/> Read on 2008 Aug 30.

sold them. In Taiwan, parents sold their 12 or 13-year-old young girls as well. It is an issue that could happen during the hardscrabble period. The Japanese Army put emphasis on human rights at the time. It was a great chance for those women who could be a comfort woman to stand out. Everyone wanted to join the army. After learning this, is it still possible to say they were forced to become military comfort women? The money earned by girls who had been sold to brothels was all taken away. They could not own any money. The owner didn't look after them when they were sick. When they were ill, they depended on themselves and destroyed their lives. On the other hand, women who became comfort women had steady incomes, were able to save money, and received strict hygienic care. The condition couldn't be better for them. Condoms were not even provided at general brothels.”<sup>3)</sup>

In this passage, Shi Wen-long mentions ‘The Japanese Army put emphasis on human rights at the time. It was a great chance for those women who could be a comfort woman to stand out. Everyone wanted to join the army. After learning this, is it still possible to say they were forced to become military comfort women?’ Shi Wen-long was 17 years old at the time of the Second World War. It is told that there was a brothel near his house. As far as he remembers, the Japanese Army had enough budgets that it hired brokers or private foundations to find girls. During the process of trading girls, reasonable prices were formed by dealers. Then they talked about conditions with the brokerage agency, the store owner, or parents of young girls. After the discussion, parents took in their daughters to the brothel. Young girls received intense care at the place and became the subjects of entertainment in Japan. In other words, Japan paid reasonable prices via legal procedures and thus did not coerce young women into becoming comfort women. Shi Wen-long emphasizes Taiwanese people should not ‘blame’ Japan for the empty truth.<sup>4)</sup>

Taipei Women's Rescue Foundation as a center, numerous women's groups, and business representatives criticized Shi Wen-long's point of view. A council member burned Japanese flag, <Theory of Taiwan>, Kobayashi's comics, and photos of Kobayashi and Shi Wen-long in front of a bookstore. Other congressmen urged a buyers' strike against <Theory of Taiwan>, staged a boycott against products made by Shi Wen-long's company, and appealed to bookstores and publishers not to sell or print

---

3) Yoshinori Kobayashi , Translated by Lai Cing-Soong & Siu Chi-Keung, 『Theory of Taiwan』: A New Proud Spirit (『臺灣論』: 新傲骨精神) (Taipei, published by 前衛, 2001), 102p

4) Yoshinori Kobayashi , Translated by Lai Cing-Soong & Siu Chi-Keung, 『Theory of Taiwan』: A New Proud Spirit (『臺灣論』: 新傲骨精神), 203, 204p

<Theory of Taiwan>.<sup>5)</sup>

‘Taiwanese Southern Society (臺灣南社),’ a near pro-Japanese group, supported opinions of Kobayashi and Shi Wen-long and encouraged others to buy <Theory of Taiwan>. After making headlines in the media, the book even became a bestseller.

After seeing ceaseless social controversy over him, Shi Wen-long issued a statement in writing to the press in order to protect his company.

1. I deeply apologize for causing a social dispute related to the comfort women issue and for hurting the directly involved party again. I made a bad judgement and was thoughtless due to lack of experience. I, however, never intended to put an affront upon the victims. I ask all walks of life to treat me reasonably.
2. I never said ‘being a comfort woman was a chance to stand out,’ and never mentioned the word ‘volunteer.’ Mr. Kobayashi spoke publicly about this at an interview.
3. What I meant by saying ‘the comfort women were not forcibly mobilized,’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round them up openly, rather the government followed certain procedures at the time. In addition, I have never disapproved the fact that some women were deceived and ended up becoming comfort women.
4. The comfort women system is tragedy of history and an inhumane act like war. I feel very regrettable for the issue. I have compassion on victims and will do my best to console their wounds. Also, I will endeavor to extend women’s rights and to make our society where women’s rights are truly respected so that similar incident would not happen again.
5. The existence of prostitution in the army is not acceptable eith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or the People’s Party period. In order to comprehend the truth of history in depth, I would like to research deeply on comfort women and military prostitution system in the past and to let all people know the historical truth. I will stop this problem from causing brutal conflicts politically and socially and from constantly hurting victims.<sup>6)</sup>

The purpose of five clauses in the Shi Wen-long’s statement is to end the dispute. In fact, he has not given any help to the victims nor reflected on himself. (1) It is a criminal act that human traffickers

---

5) Joo Deoran, <Taiwanese Comfort Women> (Taipei: 五南Books, 2015 the second edition), 37p

6) Joo Deoran, <Taiwanese Comfort Women>, 40p

took women and girls and turned them into prostitutes. Then, why didn't the colonial government crack it down? (2) Are the creation of comfort women market during the wartime and Japanese militarism unrelated? (3) The Japanese government treated women as munitions while transporting them to comfort stations. Is it possible to consider the act of the Japanese Army consuming 'sex and body' of women and insulting women's dignity as a 'reasonable and legal' trading activity?

### The Backlash from the Revision to Enforcement of History Curriculum of Middle and High Schools

During the years 1949-1987, Chiang Kai-shek (蔣介石) and Chiang Ching-kuo (蔣經國) declared martial law. Taiwan considered teaching the ideology of People's Party as a core of educational policy for anticommunism and country's independence. Education in Taiwan was impacted by economic growth, social advancement, the start of democratic movement, and the abolition of the martial law in 1987. The government started publishing textbooks of middle and high schools with more emphasis on the historic developments of the mainland (Taiwan).

'Enforcement of History Curriculum of Middle and High Schools (中學教科書歷史課程綱要)' was legislated after discussions among scholars and teachers. Once important contents of the curriculum are determined, the Ministry of Education verifies, passes, and then announces the new course. After the announcement, private publishing companies organize writing teams, and have them write a new textbook. The publishers could earn publication rights after passing the evaluation process of organizing committee of the ministry. After earning the approval, they start printing, and the schools autonomously select textbooks for themselves.

Since the direct election for president of Taiwan in 1996, the ruling party has led the people's national identity in order to seize the right to interpret history. Enforcement of History Curriculum of Middle Schools was revised in the year of 1999, 2006, 2009, and 2014.

A noteworthy point is that the Education Ministry passed an amendment to Curriculum Enforcement in 2014. Some scholars who were disaffected by the revised curriculum enforcement, however, started a collective protest movement via Internet SNS. Implementation of the amendment has been suspended and not made any progress to date. The opposing scholars argue the amendment contains too many errors. For instance, the opposition party disapproves the word 'coercion(被迫)' in the comfort women content. They insist that the curriculum must maintain a 'neutral' and 'pluralistic' view and the word 'coercion' should not be inserted. The party in favor of the amendment contro-

verts by stating that no one ‘volunteered’ to become a comfort woman and that making an insertion of the word ‘coercion’ is right. The 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China Ma Ying-jeou (馬英九, served during 2008-2012) supported putting in the ‘coercion’ word in the description of ‘comfort women.’ Due to the differing views of pro and opposing parties, the dispute over using the word ‘volunteer’ or ‘coercion’ has been unceasing.

Since the present writer published <Taiwanese Comfort Women> in 2009, nine of publishing companies have passed the ministry’s evaluation in Taiwan. Descriptions of ‘comfort women’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of those publishers are as follows.

- (1) Lai Jeh-hang (賴澤涵) Chief Editor, Chuan Hwa Book Co., Ltd. (全華圖書股份有限公司), First edition in 2012, Second edition in 2015, 155P  
*Mobilization of Taiwanese comfort women was started since the Second Sino-Japanese War. Most of them became military comfort women by being deceived or being forcibly transported overseas except some participants. The pain that they suffered was indescribable.*
- (2) Wu Hsueh-ming (吳學明) Chief Editor, Hanlin Publishing Co., Ltd. (翰林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 First edition in 2012, Third edition in 2015, 147P  
*At the time, many women were recruited as nurses or laundry women but only found out that they were deceived and were mobilized as comfort women. The incident gave them indelible scars.*
- (3) Xue Huayuan (薛化元), San Min Book Co.,Ltd (三民書局股份有限公司), First edition in 2012, Third edition in 2015, 164P  
*In addition, numerous Taiwanese were mobilized to airport and fortification construction sites and even became military ‘comfort women.’ Many of them were mobilized by force.*
- (4) Lin Neng-shih (林能士) Chief Editor, Nan I Book Enterprise Co., Ltd. (南一書局企業股份有限公司), First edition in 2012, Third edition in 2015, 150P  
*Besides, most of Taiwanese comfort women, who followed the Japanese Army’s moving path, were either forcibly mobilized or deceived.*
- (5) Cheng Cheng-chen (鄭政誠), Zhao Youzhi (趙祐志) Chief Editor, Kang Si Cultural Co.,Ltd. (康熹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First edition in 2012, Third edition in 2015, 141P

*In addition, many women were tricked to become comfort women. The incident gave them indelible pain.*

- (6) Dai Baocun(戴寶村) Chief Editor, Lungteng Cultural Co., Ltd. (龍騰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First edition in 2012, Third edition in 2015, 156P

*During the wartime, the Japanese government colluded with the government, the army, the constitution, the police, and brokers in establishing ‘comfort stations’ in Korea, Taiwan, China, and the occupied territories of Southeast Asia. The government intentionally used various ways and means in doing so. It also deceived and persecuted poor women and made them provide ‘comfort’ sexual services to the Japanese army.*

- (7) Chen Feng-xiang (陳豐祥) Chief Editor, Taiyu Publishing Co., Ltd. (泰宇出版股份有限公司). First edition in 2012, Third edition in 2015, 154P

*Besides a great number of Taiwanese women were forced or deceived to go overseas and became comfort women on the battlefield for the Japanese army. Their bodies and souls were seriously harmed even after returning to Taiwan. They could not live in comfort for their rest of their days.*

- (8) Lei Jiaji (雷家驥), Hwashing Publishing Co., Ltd. (華興文化事業有限公司), First edition in 2014, Second edition in 2015, 128P

*The Japanese government drafted a huge number of ‘comfort women (military prostitutes for the Japanese army)’ in China, Taiwan, Korea, and occupied territories such as the Philippines in order to boost morale of troops and to prevent venereal diseases. To satisfy Japan’s request, the Japanese government – General of Taiwan enticed many Taiwanese women into becoming comfort women by the offer of jobs and living support for families.*

- (9) Yen Chin-heng (閻沁恆), Shi Ji Cultural Co., Ltd. (史記文化事業有限公司), First edition in 2013, Second edition in 2015, 135P

*During the war, Japan mobilized Taiwanese women by force to have them as military comfort women. The war and the Japanese army abused poor women. Even after the end of the war, they lived shadowlike lives for a long time and have led miserable existences. Although the Taiwanese government publicly demanded to Japan for compensation in 1996, Japan has not shown a sincere attitude regarding indemnification issue, which still has not been resolved.*

Above passages are the contents from middle and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of nine publishing companies, which invited scholars to write them. Regarding the issue of Taiwanese ‘comfort women,’ each publisher describes by quoting testimonies of many comfort women the fact that Taiwanese women became comfort women because they were either forced or deceived.

Since the Curriculum Review Committee, which was ru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decided to add the word ‘coercion’ in description, the opposing party has argued that the word ‘volunteer’ must be inserted together as Taiwanese women were not 100 % ‘coerced.’ This event led to a start of a heated controversy between supporters and opponents.<sup>7)</sup> ‘Coercion’ and ‘volunteer’ are still a major issue that is brought up whenever Japanese right-wing figures mention ‘comfort women’ issue. Sexual violence problems during the time of war are related to colonialism, racial discrimination, and issues of sexism. It is not a simple problem to handle with the words ‘coercion’ and ‘volunteer.’

## 2) Taiwan’s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公娼制度) During the Colonial Era

In 1895, Japan invaded Taiwan and established a military government (軍政) which banned Japanese merchants and women from going over to Taiwan. Since Japan changed to civilian rule (民政) in April of the following year, Japanese people freely went to Taiwan. Procurers, who sensed a smell of money, entered the country as well. The colonial government was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became addicted to alcohol and women and that the rate of venereal infection was high. In order to tighten discipline among bureaucrats and prevent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from spreading, the government imposed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of mainland Japan on Taiwan.<sup>8)</sup>

### (1) Licensed Prostitution (公娼) and Unlicensed Prostitution (私娼)

During the early Japanese colonial rule in Taiwan, local governments constrained prostitution

---

7) Joo Deoran, <Taiwanese Comfort Women>, 40–41p

8) Wikipedia, Taiwanese Middle and High School History Curricula Guidelines (臺灣高中歷史課綱要微調案), <http://zh.wikipedia.org/zh-tw>, Red on 2016. Nov. 11.

business by various laws. They implemented unified rules and introduced the licensed prostitution law. The contents are as follow.

Article 16 Procurers must take medical examinations at hospital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They must fill in the following contents, and request for a license at the main office (本廳) or a district office (支廳).

1. Reasons to engage in the licensed prostitution business
2. Current address, permanent address, residence, name, date of birth
3. One must acquire an approval from a senior in the family register. If one fails to receive permission from a senior, permission from the head of a family should be given. If the head of a household cannot approve, such circumstance must be notified.
4. A person under 20 years old must receive consent from the biological father in addition to the preceding topics. In case of absence of the biological father, the biological mother's approval is required. If the biological mother does not exist, the grandfather's approval is required. If the grandfather is absent, the grandmother's permission should be received.
5. Address of the place for prostitution business, name and address of brothel (貸座敷)
6. Name of prostitutes (妓名), employment period
7. One who is working but employed by other person must notify such fact.
8. Prostitute fact checking, procurers should write start and end date of business, its address, reason for closing the business. After filling in the foregoing items, submit a medical certificate no.3, a written consent on no.4, a certified copy of one's family register, a copy of census,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the approver's seal, and a copy of employment contract.

Article 17 People under 16 years old cannot become a sex worker.

Article 18 The work permit for sex workers is valid for four years since the validation.

Article 19 The sex worker cannot reside or perform the work outside brothel.

Article 20 The sex worker must receive health screening and medical treatment by specific rules. Those who did not take the medical examination are not allowed to work.

Article 21 The sex worker cannot go to other places freely except the area designated as brothel (妓院) unless there is ordinance, regulation, or government order, or in case the main or district office called in, or one is authorized by the district office.

Article 22 No one can hinder the sex worker's holiday, closure, communication, interview (visit), and freedom.

Article 23 In case the place of work or residence is changed, the sex worker must report and receive a new permit from the main and district office.

If the sex worker received a permit from different district office and still wishes to continue working in the same business, the sex worker must apply for a new license at the main and district offices after submitting an old one, according to the article 16 subsection 2, 5, and 6. In this case, the effectiveness of permission must be reported to the previous competent office in 3 days since the new license is issued.

.....

Article 30 Duty of Union Controller (Person in Charge of Sex Worker Council)

1. Survey the list of brothel managers and sex workers.
2. Deliver compliance mandates on brothel business and employment of sex workers.
3. Issues related to sex workers' medical check-ups and treatments
4. Report to the police (警官吏) if a brothel manager or a sex worker violates compliance mandates.
5. Discharge association jurisdiction fee and report the settlement.
6. Special missions besides preceding items.

.....<sup>9)</sup>

If a woman wishes to work in the sex industry, she must go to the government office and apply for a license. The management rules are: (1) over 16 years old (2) under 20 must have permission from the head of family or a senior from the family (3) licensed procurers are limited by the term (4) workers are not allowed to work without a medical certificate (5) workers cannot work outside of the designated area (6) Sex Worker Council reports to the police if a brothel manager or a sex worker commit an illegal act, and handle the case 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The council perform its duties legally after receiving the performance license. (See figure 1)

Comparing Japanese colonies and mainland Japan, the licensed prostitution laws for each region are similar but show difference in age. The age limit in mainland Japan was 18 years old (it was changed to 21 in 1927), Taiwan was 16, Joseon was 17, and Manchuria was 17. The age difference in licensed prostitution under the sovereignty of Japanese empire evidently helped procurers create a net of 'human market,' who traded women crossing ethnicities and regions.<sup>10)</sup>

---

9) Suzuki Yuko (鈴木裕子), <戦争責任とジェンダー>, (Tokyo, 未来社, 1998), 23p

10) Since 1906, Taiwanese Licensed Prostitution Law Was Unified, 宜蘭廳令 Issue 14 <Brothel and Sex Worker Regulation (貸座敷及娼妓取締規則)> Refer to translation, <宜蘭廳報> Issue 252 (Mar 1906)

According to the colonial government's statistics, 664 licensed prostitutes in 1897, who were all Japanese. In 1925, there were 1050 in total. Among them, Japanese were 922, Taiwanese 62, and Korean 66. In 1937 at the beginning of the Second Sino-Japanese War, the total number of licensed sex worker was 1040. Of that, Japanese were 808, Taiwanese 34, Korean 198. In 1941 during the Pacific War, there were 925 licensed prostitutes. Japanese prostitutes were 674, Taiwanese 24, Korean 227. (See table 1)

At 10:22 on September 6 in 2008, a proof of document, possessed by the Republic of China police in December 1920, appeared on an auction website. The document had been submitted to the Shanghai government by a Japanese woman to request a permit to work in the sex industry. It was sold at 22:22 on September 13 in 2008 at 4300 Japanese yen. The size of Shanghai prostitution document is width 29cm and length 21cm. The applicant's photo is attached to it. Although the letter style is ambiguous, the documents shows the following information: the applicant's name (渡邊XX), age 20, nationality: Japan, current address: 怡春堂, reason for applying: I have to work because I am poor. volunteer., surety: 陳X芳, addition: during the employment obey to the government orders and the surety guarantees full responsibility (figure 2 refer to description of the auction document).

This document, which was submitted by a Japanese woman to 'volunteer', shows that women could work in the sex industry after turning in the application, going through formalities, and receiving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organization. In other words, it cannot be a criminal document that displays the government 'forcibly mobilized' for prostitution because the prostitution management agency could apply for employment as long as the document states 'volunteer.'

#### Japanese Prostitute (藝妓), Bar Maid, Hostess, Bar Girl, Dancer

The range of sex business in modern Japan is extensive. Some varieties are: cooking room (corresponds to bar. Workers are Japanese prostitutes), restaurant (bar, workers are hostesses, these days they are called as bar maids), brothel (go club, workers are prostitutes), kashiseki (貸席, leasing a house and holding a party, the service provider is hostess), café (corresponds to modern bar, workers are called waitresses but mean bar girls), dance hall (ballroom, workers are dancers) and so on.<sup>11)</sup>

---

11) Fujinaga Takeshi (藤永壯), 〈殖民地臺灣における朝鮮人接客業と「慰安婦 動員一統計値から見た覚え書き」〉, Included in 〈Modern Society and Prostitution Issue〉, Osaka Sangyo University 業研叢書 16 (Osaka, Mar 2001), 84p. Joo Deoran 〈Prostitution Issue in Taiw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895-1945) (日治時期臺灣花柳業問題)〉 Included in 〈Humanities Studies〉, Issue 27 (June 2003), 115,164-170p), Joo Deoran 〈Taiwanese Comfort Women〉 340-341p

‘Cooking Room, Restaurant, Café, Kashiseki Business Control Rules (料理屋、飲食店 飲食店、咖啡屋、席貸營業取締規則)’ regulates that women without permits must not work as a Japanese prostitute, hostess, or waitress.

Head of district, chief of police, chief constable, councils in the same industry order to cancel the business license and to dismiss the workers when they find a place which harms the public safety and disturbs the custom. The following is the regulations according to ‘Prostitute, Hostess, Waitress Control Rules (藝妓、酌婦女給取締規則).’

Article 1 A person who is called as a prostitute, a hostess, or a waitress must obtain a permission from the governor or the chief of police.

1. Permanent address (residence), address, name and date of birth
2. Address of business or residence
3. Nickname or stage name
4. Reason to work
5. Employer’s address, name, occupation
6. Copy of business contract
7. Copy of family registration or full copy of census (applicable to Taiwanese)
8. Medical certificate from government clinics or public medical institutes which demonstrates one does not have an infectious disease
9. Those who worked as a prostitute, a hostess, a waitress, or a dancer must write the type of business, location, closure date and reason for shutdown.

Article 2 People who are applicable to the content below cannot work as a prostitute, a hostess, and a waitress.

1. Under 12 years old
2. People whose business duration has passed 4 years but whose contract has not exceeded 8 years due to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education are not limited by this article.
3. A person who is considered as inapt for contracts (契約不當者)
4. A prostitute, a hostess, and a waitress whose business license has been canceled or suspended, or whose business was closed in a year
5. A person who has a tuberculosis, a measles, a syphilis or other contagious disease is considered harmful to public health.

6. A person who leads a promiscuous sexual life or who is considered harmful to the public and the custom.
7. A person who is regarded harmful to the public and the custom while employed<sup>12)</sup>

Japanese prostitutes, bar maids, hostesses, bar girls, and dancers must apply for the work permit. They must not seduce or hold customers. They must work as their original professions.

Open ports in modern East Asian region was sex industry's new world. A reason why 'sex' service business is welcomed by men is because through sex, men could escape from anxiety and stress of daily life, frustration, resentment, nervousness, emotional distress, while feeling self-esteem, dignity, and power. Such psychological phenomenon was found in Japanese soldiers, civilian employees, and merchants who were going through the war.

### 3. Sex Industry and Human Trafficking

Iwata Yoshio (岩田喜男), who was traveling Singapore in the 1910s, saw the real situation of 'human auction market' and said the following.

Roughly Taisho(大正) 2, 3 (1913~1914), I saw a prostitute auction market in front of a waterfront warehouse in Singapore. About 10 of Japanese girls aged 12, 13, 14, and 15 years old were wearing light Western style clothes or gowns. A girl who had a pretty face was sold first at a high price. Those girls seemed puzzled. Probably they never thought they were being sold as a prostitute. Human trafficking occurred at ports in China and India. Young girls at those locations were sold like the Japanese girls. The seller shouted, "50 yuan, 50 yuan for a girl, anyone wants to buy?"<sup>13)</sup>

The fact that many little girls were deceived into going abroad means they were sold like products

---

12) Joo Deoran, < Prostitution Issue in Taiw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895-1945) (日治時期臺灣花柳業問題)>, 106p

13) Showa 7 July 22 Shinjuku Order No. 12 < Prostitute, Hostess, Waitress Control Rules (藝妓酌婦女給取締規則)>, <新竹州報> Issue 643, Joo Deoran < Prostitution Issue in Taiw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895-1945) (日治時期臺灣花柳業問題)>, 118, 120p

by human traffickers. Regarding such prostitution activity, Japanese bureaucrats could not strictly check the increasing number of women sneaking out to board due to problems such as manpower shortage. Besides, bachelors at overseas needed women and development of prostitution business led to growth in related industries such as restaurant, travel, department stores, and transportation. For this reason, places where Japanese resided flourished, which made Japanese bureaucrats take a passive stance in control.

When human traffickers deceived people and took them abroad, they hid girls at the bottom of the ship to smuggle them into overseas. In this process, the traffickers colluded with crewmen, shipping chairmen, chefs, and others. After forcibly becoming prostitutes, girls were exchanged among ‘business owners’ like goods.<sup>14)</sup>

During the Second Sino-Japanese War (1937-1945) and the Pacific War (1941-1945), Japanese traders gave services to Japanese bureaucrats, soldiers, and military officers in order to take commercial profits. The merchants opened various grades of comfort stations, cooking rooms, cafes, and restaurants using the title of ‘government-run corporation’ and ‘munition company.’ Many merchants earned a lot of money during the wartime. For example, ‘Umenoya (梅乃家)’ was a high-end restaurant in Fujian (福建省) Xiamen (廈門) district, which a Japanese invested into. The shop owner hired Japanese prostitutes and made them give services to senior-level soldiers. ‘Pajichang’ was a general restaurant run by a Korean where Japanese ranks and files enjoyed entertainment and prostitution.

‘Kiraku (喜樂)’ and ‘Hachilinan (八洲庵)’ were cafes Taiwanese opened. They were cafes in name only, while operating as a prostitution house where Taiwanese and Chinese hostesses provided services to Japanese soldiers.<sup>15)</sup>

During the wartime, the Japanese government hired traders and had them recruit women for forced prostitution in China. By making them prostitute, the government tried to settle the public and prevent illegal women trafficking. In February 1948, Home Office Alarm Department (警保局) sent an official document to inform bureaucrats at each office to process women’s departur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The contents are as follow.

---

14) Ooba Noboru (大場昇), <からゆきさんおキクの生涯> (Tokyo : Akashi (明石) Bookstore), 69-70p

15) Mori Katsumi (森克己), <人身売買—海外出稼ぎ女> (Tokyo: 至文堂, 1959), 84-94, 101p. Kinichi Tsutomu (金一勉), <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 (Tokyo: Sanichishobo (三一書房), 1977), 30-31p

1. Women leaving the country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are limited to the prostitutes in mainland Japan who are over 21 years old and do not have venereal diseases or other infectious diseases.

A person who needs to go to the central China (華中), or Northern China (華北) are overlooked. On Showa 12 (1937) August 31 the foreign affairs secretary issue identification certificates.

2. If the contract period has ended or if a person does not require a contract at the time of issuance of identification certificate, the person must return to the home country promptly.

3. A woman who leaves the country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personally applies for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 at the police office.

4. A woman who leaves the country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must acquire a consent from a member in the same family register or immediate family members. If there is no consent from the direct family, she must receive a permission from a senior in the family register. If there is no one to ask for approval, she must explain the circumstance.

5. A woman whose purpose is prostitution should thoroughly check contract details and verify if it is not the case of a human trafficking, a decoy, or a fraud.

6. A recruitment broker for prostitution or a woman leaving the country for prostitution must explain that the person has asked for an excuse from the army. Or military officials must conduct strict control.

7. If a recruiting broker advertises or overstates false information, the person will be severely punished and receive a strict investigation. If the identification cannot be verified because an official permission or a certificate issued by a diplomatic office is missing, it is not agreed.<sup>16)</sup> (The reference is a text translated to Japanese)

The Japanese government allowed hostesses without venereal diseases to go abroad for prostitution mainly because of the request from the Japanese army for sex problem. In case of brokers recruiting women, however, incidents of trading minors.

Government officials scrutinized and controlled women going overseas since it could affect the

---

16) Joo Deoran, <Panning for Gold in Overseas: Research on Prostitution Market Which Japan Developed on Both Sides of Taiwan (1895-1945) (海外淘金: 日本人在台海兩岸拓展賣淫業市場之研究)> Tang Shi-yeoung (湯熙勇)'s <Journal of Chinese Marine Development History> Issue 10 (Taipei: Academia Sinica's Research Center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08), 452p

dignity of the forces if it turns out that the recruiting agencies enticed, deceived, and took the women even with the military's approval. The government stated that prostitutes going overseas must acquire consent from a parent or a senior from the direct family. It also prescribed the applicant herself must apply for a certificate at the local police station and could be hired overseas after confirmation.

A point to discuss is why did the Warning Department write departure conditions in such way when permitting sex workers to go abroad? 'Women who are prostitutes in mainland Japan and over 21 years old.' What is this rule? The cause was that Japan was worried about violating 'Women and Children Trade Prohibition Agreement' which it had signed after participating the League of Nations. The League concluded the treaty 'Prohibition of the Traffic in Women' in Paris in 1910, which states the following contents.

Article 1 If any person deceives minor women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and satisfying others' sexual desire, even if there was consent from herself, all actions, considered as a crime in other countries, must be prosecuted.

Article 2 The act of using duress, fraud, violence, or authority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or luring and deceiving adult women using other coercive measures is a crime even in other country and the person of act must be prosecuted.<sup>17)</sup>

The minor in Article 1 mean women who are under 20 years old. In other words, minors' prostitution is prohibited even if they agreed to it. In 1921 at the time of concluding a treaty in Geneva, the League of Nations re-defined the minor as under 21 years old. When Japan joined as a contracting party, people under 18 were considered as minors. In 1927 the reservation was canceled.

In 1938, the head of Japanese Warning Department stated that the age of prostitutes must be over 21. Japanese minors are women under 21. The definition matches the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it could be argued that there may be certain circumstances that even contracting parties are not applicable according to the article 14 of the 1921 international treaty that bans trafficking of children and women. At the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used this provision and made the treaty not applied to colonies. Taiwan and Joseon were not constrained by the international treaty. Thus they became comfort women supplying station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encouraged children and women to go

---

17) Showa 13 Feb,23 Home Office Warning No. 5 <支那渡航婦女ノ取扱ニ關スル件>, Yoshimi Yoshiyaki(吉見義明) <Data on Military Comfort Women> Included on 102-104p

abroad and practice prostitution.<sup>18)</sup>

The Japanese army violated Semicolonial Licensed Prostitution Administration Law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Taiwan connived at it. A military document in 1940 is a good example.

The Japanese army advances towards Guangxi (廣西省) Nanning (南寧) area and invades the east in November 1939. The Chinese army is no match. Qinzhou (欽州) and Lianjiang (廉江) fall instantly. To keep the Chinese military in check, the Japanese army assembles major forces and attacks the northern part of Guangdong Province in May 1940. As the effects of the battle, the Japanese army has to retreat because of the shortage of food and bullets, brave fighting of Guangdong defense force.<sup>19)</sup>

As the Japanese troops moves back from Qinzhou in June 1940, the colonel Hayashi Yoshihede (林義秀) requests for comfort service by bringing women to the colony Taiwan in order to boost the morale of the troops. In August of the same year, the governor of Kaohsiung (高雄) Akahori Thetgyi (赤堀 鐵吉) sends an official correspondence to the head of the Foreign Affairs Department (外事部長) and reports the processing status of the matter. He attached three pieces of evidence to the document, related to the Japanese occupation forces in Qinzhou.

## Copy of Item 1 Attached

Certificate Picture

Address OOOOOOOOOO

Name OOO Age 22

The person above, who is a manager of comfort station in the main force, returns to Taiwan accompanying comfort women. Comfort women are absolute necessities in comforting the main force. The person is provided with the convenience for voyage and this certificate is issued to prove it.

Showa 15 (1940 June 27)

Yantian expeditionary army 鹽田兵團林 Commanding Officer Hiyashi Yoshihide 林義秀 Hiyashi  
Commanding Officer 印

18) Suzuki Yuko (鈴木裕子), <Collection of Data Related to Japanese Army 'Comfort Women'> 2<sup>nd</sup> vol, (Tokyo: Akashi Books, 2006), 123-124p

19) Yoshimi Yoshiyaki, <Military Comfort Women> 165-166p

## Copy of Item 2 Attached

Voyage Certificate

Permanent Address Taipei province Taipei city ○町○○番地

Current Address Guangdong Province Shen County Chilingshi Penglai Comfort Station (廣東省欽縣奇靈圩蓬萊慰安所)

Name of Occupation Comfort station business ○○○ Age 22

Destination of voyage Taiwan Kaohsiung

Purpose Recruitment of comfort women

Duration Showa 15(1940) June 27 - Showa 15(1940) September 26

Point of Departure Shen County

Time of Departure Showa 15 June 30

Others

Proof of the described voyage application

Showa 15 June 27 Applicant ○○○

Xinzhou Provost Squad Commander Adachi Shigegatsu (足立茂一)

Xinzhou Military Force No. 466

Verified

Showa 15 (1940) June 27

Xinzhou Provost Marshal Adachi Shigegatsu 欽州憲兵分遣隊長 (Xinzhou Provost Marshal) 印

## Copy of Item 3 Attached

Application for Recall Verification

Permanent Address Taipei city ○○○○○○

Address Kaohsiung city ○ 町 ○ 丁目 ○○○番地

Occupation 藝者

Name ○○○ Date of Birth Taisho 11 (1922) 00.00.

Permanent Address Taichung 州 ○○○○○○

Address Kaohsiung city O 町 O 丁目 OOO番地

Occupation Hostess

Name OOO Date of Birth Taisho 14 (1925) 00.00.

Permanent Address Taipei 州 OOOOOO

Address Kaohsiung city O 町 O 丁目 OOO番地

Occupation Hostess

Name OOO Date of Birth Taisho 15 (1926) 00.00.

Permanent Address Taichung 州 OOOOOO

Address Kaohsiung city O 町 O 丁目 OOO番地

Occupation Hostess

Name OOO Date of Birth Taisho 13 (1924) 00.00.

Permanent Address Taichung 州 OOOOOO

Address Kaohsiung city O 町 O 丁目 OOO□□

Occupation Hostess

Name OOO Date of Birth Taisho 13 (1924) 00.00.

Permanent Address Taipei OOOOOO

Address Kaohsiung city O 町 O 丁目 OOO番地

Occupation Hostess

Name OOO Date of Birth Taisho 14 (1925) 00.00.

People above, employed to the military comfort station, apply for the issuance of the certificate.

Showa 15 (1940) June 28

Applicant Permanent Address Taipei O 町 OOO番地

Current Address Guangdong, Shen, Chilingshi

Occupation Penglai Comfort Station

Name OOO Age 22

Xinzhou Provost Marshal Adachi Shigegatsu

Xinzhou Military Force No.468

Approved

Showa 15(1940) June 22

Xinzhou Provost Marshal Adachi Shigegatsu(足立茂一) Xinzhou Provost Marshal □<sup>20)</sup>

Regarding this issue, the Foreign Affairs Department responded in Showa 15 (1940) May that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of Taiwan, people who wish to go to mainland China must possess a ‘Certificate of Reason for Going to China (渡華事由證明書)’ issued by the consulate in China.

It was difficult, however, to satisfy the Japanese army’s demand since the comfort station workers move via ship, but comfort stations and army stations were located at places difficult to reach. The governor of Kaohsiung, thus, allows traders to take women to China as long as women’s identifications and purpose of visit haven been verified, and traders have a certificate issued by the army.<sup>21)</sup>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of Taiwan states in the Sex Industry Regulations that Japanese prostitutes and hostesses cannot provide services while lodging. The government does not approve a business if it harms public safety or custom. If a Japanese prostitute or a hostess disturbs public security or custom, the government suspends the business or cancel the employee certificate. If a Japanese prostitute or a hostess wishes to practice prostitution as well, she must apply for an employee license according to the Licensed Prostitution Law.<sup>22)</sup>

Looking at the permanent addresses of six women above, it is known that four of them are from Taipei and two are from Taichung (臺中). They were entered in a family register of a Taiwanese from Kaohsiung district. A Taiwanese owner left the country with them holding the titles of Japanese prostitute and hostess. Among them, one was 18-year-old, one 14-year-old, two 15-year-olds, and two 16-year-olds.<sup>23)</sup> In Taiwan, the service targets of the service of Japanese prostitutes and hostesses

20) Ding Shenzun (丁身尊) Chief Editor < Guangdong History(廣東民國史)>, 2<sup>nd</sup> Vol, < Guangzhou: Guangdong People Publishing House, 2004), 974–979, 990p

21) Showa 15 Sep.2, 外1 Issue No, 1162-1 <渡支事由證明書等の取寄不能と認めらるる對岸地域への渡航者の取扱に關する件>, Yoshimi Yoshiyaki <Military Comfort Women> 130–137p

22) Yoshimi Yoshiyaki, <Military Comfort Women> 138p

23) Joo Deoran, , < Prostitution Issue in Taiw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895–1945) (日治時期臺灣花柳業問題)>, 118–124p

were intellectuals and the rich who knew the local culture. Since Japanese prostitutes and hostesses in Taiwan did not know Japanese language or Japanese socializing culture, they were entered into the comfort stations by the owners and had to only perform not as a dancer or a talent, but as a tool for the Japanese army to handle ‘sex.’

When this present writer read this reference, a same reference was listed in Yoshimi Yoshiyaki’s <Military Comfort Women>(Tokyo: Otsuki Books(大月書店)) 134-137p and <Collection of Government Research on ‘Military Comfort Women’> Vol. 1 (Tokyo龍溪書舎, 1997) 147-162p co-written by Goto Kenichi (後藤乾一), Takasaki Soji (高崎宗司), and Wada Haruki (和田春樹). Yoshimi Yoshiyaki wrote the date of birth data of Japanese prostitutes and hostesses (refer to 3-1, 3-2) by marking certain contents as ‘x’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privacy. Japan’s ‘Asian Women's Fund’ created a data committee for ‘comfort women’ in 1996. A reference a member of the committee researched was provided by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he present writer used a copy of the reference in which some contents were painted with black color (see figure 4-1, 4-2).

In order to uncover the truth, the writer of this article visited the diplomatic archives (外交史料館)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Tokyo in 2002 and intended to study the original document. The writer promised a library official not to copy or to photograph, and asked to see the original text. The official asked his superior and returned with a response stating ‘for protection of privacy of the concerned, the library can only offer the copy painted with black and cannot offer the original piece.’

Pondering upon why the library disapproved the reading, it is probably not because they want to protect the privacy of Taiwanese, but because they fear the victims would sue the Japanese government and demand answer for ‘why the comfort stations of Japanese military had Taiwanese girls as ‘child prostitutes.’ It is not described in the official document that girls were ‘forcibly taken’ to the comfort station. Does that mean girls ‘volunteered’ to become a prostitute of the army? They do not have legal autonomy before they come an adult. It is an illegal act by parents to ‘sell’ their daughters. Were they ‘deceived’ by owners? Or did the owners ‘lured’ them into leaving the country?

If the owners recruited girls by fraud, allurement, or human trafficking, such measure would be classified as an illegal forced labor, for which the colonial government should have banned from taking the overseas trip. The government, however, consequently allowed them to cross over to China. The reason why the Japanese officials did not punish the owners was that ‘comfort women’ were urgently needed as they were the special munitions for the Japanese army, thus the owners were not restrained by the law. For that reason, all the partakers such as sex business owners, brokers, and

transportation industry brought every resource and mass-produced ‘comfort women,’ the munitions for the Japanese army which were required by the ‘sex’ market.

## 4. Conclusion

Creating a large number of comfort stations in the Greater East Asian areas and mobilizing women as ‘comfort women’ during aggressive wars in early 20th century. Such acts by Japan mean ‘comfort women’ were necessary ‘munitions’ for Japanese military operations. At that time, a Japanese local paper reported about the situation as follows.

The army did not see ‘comfort women’ as human beings, but rather treated them as ‘commodities.’ When a transport was hit and sunk by the enemy, the Japanese military reported the incident as ‘submergence of munitions.’ When ‘comfort women’ disappeared from the battlefield, their deaths were not reported as they fell in a war because they were neither soldiers nor military officials. To the Japanese army, they were items that had been swept away and objects that the army had to throw away. For that reason, the army did not provide any medals or consolatory payments.<sup>24)</sup>

In the text, it is clear that the ‘comfort women’ were physically and mentally required munitions for the Japanese army.

There is a structural relevance in the beginning, initiative, and control power of ‘comfort women’ market. In other words, the consumers were the Japanese army, military officials (office workers in the military), and government merchants. The Japanese government determine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omfort women’ market. The most benefited side was suppliers. They were selected by the Japanese army, Japanese government, and the puppet colonial government. The distribution network for the special ‘munitions’ is created by the interdependence relations of production, purchase, supply, transportation, and consumption. Such symbiotic relationship (共生共榮) is the basic structure of commodity market.

---

24) 〈渡支事由證明書等の取寄不能と認めらるる對岸地域への渡航者の取扱に關する件〉,

A noteworthy point i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during the wartime set rules that if a woman wished to go abroad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she must be a prostitute in mainland Japan, over 21 years old without venereal or other contagious diseases. Such regulations were to avoid violating the League of Nations' 'Women and Children Trade Prohibition Agreement.' The number of licensed prostitutes in Japan, however, was limited and short to fulfill the increasing demand from consumers. Traders in sex industry started moving prostitutes to other region and making them 'comfort women' for their profits and country's gain. In addition, they conspired with human traffickers and carried out all means, such as fraud, enticement, violence, power abuse, and trade, to recruit women and children from everywhere, who were poor and did not have any sexual experience before, and to mobilize them as 'comfort women.' In such a way, the owners in sex industry, comfort women traders, and human traffickers skillfully colluded.

In terms of sex relations, the Japanese army considered women as 'sex slaves,' which is fundamentally sexual violence. During 1937-1945, the sexual abuse mainly led by the Japanese military reveals a section of all violence committed to other nations by the Japanese militarism, such as military violence (aggressive wars), legal violence (colonialism), political violence (differentiation), economical violence (class exploitation), cultural violence (ethnic discrimination), and social violence (sexual discrimination).

In conclusion, the emergence of 'comfort women' was started with the unjust wars based on Japanese militarism where sexual abuse was committed for cruel military violence.

The Japanese right-wing constantly stresses that 'the comfort women 'volunteered' to prostitute and there is no record of forcible mobilization.'<sup>25)</sup> The right wing persistently tries depicting women as 'tools' and to 'instrumentalize sex.' Such remarks without humanitarian point of view and statements that ignores human dignity and mental health do not help to settle the big wounds that Japanese militarism left in Asia. The government of Japan must regret its wrongdoings, apologize to victims, and learn lessons from history. It is the only solution that Japan could open a collaborative future with Asians.

---

25) 入江徳郎 編〈新聞集成昭和史の証言〉,(Tokyo : 本邦書籍株式会社, 1983), 177p

附錄第五號樣式 (用紙美濃紙)

第	屋號	出願	許可	廢業	後見人姓名	住所
業營		本籍地		出生地		
下層		身分		姓名		年齡
室數						
坪數						
階數						
階子						

裏

何 應 (何支廳) 印

明治何年何月何日免許  
 稼業期限 自明治何年何月何日  
 至明治何年何月何日  
 何年何個月

表

契印 (九寸一分)

何警第 號

娼妓免許鑑札

姓名 (本籍) 寄留地 姓名 年齡

附錄第六號樣式 娼妓番号簿  
 娼妓番号簿ハ 堅五寸五分横八寸  
 堅七寸 雇人名簿

娼妓番号簿ハ 爲之ヲ適用ス

娼妓名簿

何廳警務課 (何支廳)

考 備	號			
	出生地	本籍	住所	事務擔當者姓名
保 關 ノ ト 者				
	計	四階	三階	二階

Figure 1 Taiwanese prostitution license and list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Source of data: 宜蘭廳訓令 No. 12 「Brothel and Prostitution Control Enforcement Procedure (貸座敷及娼妓取締規則施行手續)」, 1906 Apr 1

表 1 在臺灣從事公娼職業的日本、臺灣、朝鮮族人數（1897-1941年）

年別	種族別	臺北州	新竹州	臺中州	臺南州	高雄州	臺東廳	花蓮港廳	澎湖廳	小計	合計
M30 (1897)	內地人	425	--	79	86	--	--	--	74	664	664
	本島人	--	--	--	--	--	--	--	--	--	
M31 (1898)	內地人	547	--	107	169	--	--	--	49	872	912
	本島人	36	--	--	4	--	--	--	--	40	
M32 (1899)	內地人	576	--	130	282	--	--	--	44	1,032	1,083
	本島人	50	--	--	1	--	--	--	--	51	
M38 (1905)	內地人	345	9	82	190	40	--	--	10	676	711
	本島人	26	--	--	9	--	--	--	--	35	
	朝鮮人	--	--	--	--	--	--	--	--	--	
T4 (1915)	內地人	607	21	208	206	--	--	89	87	1,218	1,322
	本島人	6	--	--	98	--	--	--	--	104	
	朝鮮人	--	--	--	--	--	--	--	--	--	
T14 (1925)	內地人	423	--	105	122	232	--	40	--	922	1,050
	本島人	7	--	1	52	--	--	2	--	62	
	朝鮮人	25	--	14	13	14	--	--	--	66	
S5 (1930)	內地人	438	--	99	117	88	--	41	88	871	1,119
	本島人	4	--	--	115	--	--	--	--	119	
	朝鮮人	39	--	17	--	59	--	--	14	129	
S10 (1935)	內地人	407	--	62	44	163	--	11	114	801	1,026
	本島人	--	--	--	42	--	--	2	--	44	
	朝鮮人	65	--	29	47	18	--	22	--	181	
S11 (1936)	內地人	424	--	62	24	180	--	12	134	836	1,063
	本島人	--	--	--	37	--	--	32	--	69	
	朝鮮人	51	--	29	55	22	--	--	1	158	
S12 (1937)	內地人	420	--	58	26	177	--	10	117	808	1,040
	本島人	--	--	--	34	--	--	--	--	34	
	朝鮮人	50	--	29	56	28	--	35	--	198	
S13 (1938)	內地人	440	--	58	21	191	--	10	116	836	1,055
	本島人	--	--	--	30	--	--	34	--	64	
	朝鮮人	40	--	21	59	35	--	--	--	155	
S14 (1939)	內地人	395	--	35	14	191	--	14	47	696	969
	本島人	--	--	--	33	--	--	--	--	33	
	朝鮮人	60	--	28	55	41	--	56	--	240	
S15 (1940)	內地人	392	--	25	16	212	--	69	24	738	1,017
	本島人	--	--	--	30	--	--	--	--	30	
	朝鮮人	71	--	24	61	37	--	56	--	249	
S16 (1941)	內地人	380	--	19	24	225	--	2	24	674	925
	本島人	--	--	1	23	--	--	--	--	24	
	朝鮮人	55	--	15	66	33	--	58	--	227	

**Table 1 The number of Japanese, Taiwanese, Korean licensed prostitutes in Taiwan (1897-1941)**

Note: M means the Meiji Restoration, T means Taisho period, and S means Showa period. Mainland people (內地人) mean Japanese, Main island people (本島人) mean Taiwanese. The years between 1942 -1945 are not included in the statistics.

Source of data: the archives from the Ministry of Civil Affairs of Government-General of Taiwan, <Government-General of Taiwan Statistics> Vol. 1-3, 9, 19, 29, 34, 39-45, <警察取締二係ル營業> (Taipei: Taiwanese Government-General Secretariat Research Department, 1899-1943)

## Figure 2 Description of the document on the auction website – Young girl (prostitute) License Application

Width 29cm, Length 21cm

2008 Sep 13

<http://page.auctions.yahoo.co.jp/jp/auction/110556664>

4,300円

tkon3113(370)

出品者(評価) :

出品地域 : 千葉県

開始日時 : 9月6日 10時 22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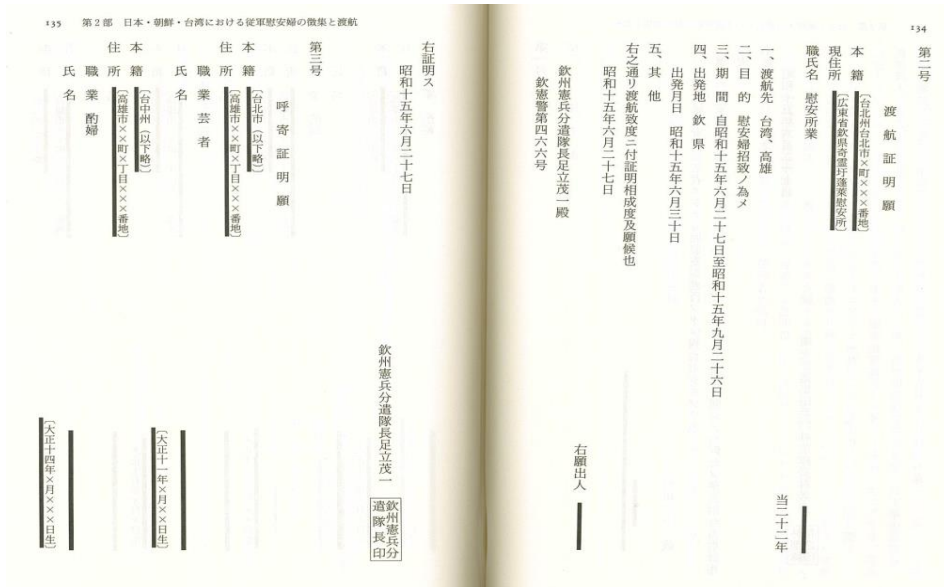
終了日時 : 9月13日 22時 22分

オークションID : 110556664

落札者 torukono45/評価 : 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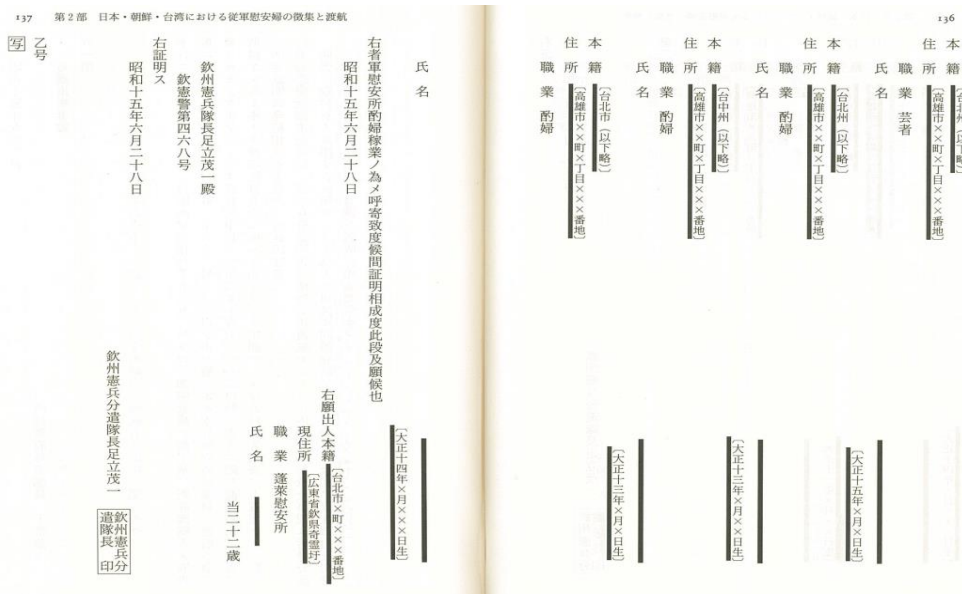
(評価の詳細)

中華民国警察局の物のようで詳しい事は判りませんが戦時中に中国（上海）の遊郭に働きに出向いた日本人女性の保証書と申請書のようなようです、20歳の日本人女性で働くお店が保証し、その働くお店は怡春堂と言う処でしょうか、国籍日本、貧困により自ら願った、就業期間中は政府命令には服従、全責任は保証人が請け負う、と言うような内容だと思います、貧困により身売りされたのだと思いますが、その後のこの女性の運命を思うと複雑です、写真は同一人の者か別人か判りません（女性は化粧で変わりますので）あるいは貴重な資料なのかもしれませんが詳しい事は判りませんので見た目でご判断下さい、破損、汚損は有りません、横29cm位、縦21cm位の紙面です、画像をご覧頂きノークレーム・ノーリターンでお願い致します。



**Figure 3-1 A voyage certificate of a comfort station owner for a trip to Taiwan to recruit Taiwanese comfort women**

Source of data: Yoshimi Yoshiyaki, Exposition <Military Comfort Women >, 134-135p



**Figure 3-2 A voyage certificate of a comfort station owner for a trip to Taiwan to recruit Taiwanese comfort women**

Source of data: same as figure 3-1, 136-137p





발표 4

---

일본군'위안부' 연구 성과와 과제 국제학술회의

# 최근의 한국 내 위안부문제 연구 현황과 과제

서현주 (徐賢珠, 동북아역사재단)

---



# 최근의 한국 내 위안부문제 연구 현황과 과제

## - 역사 분야를 중심으로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 ■ 시기구분

○ 1980년대 말 : 시민운동 성격이 강함

○ 2007년 : 역사학계의 연구와 논의대상으로 등장

- 역사 관련 학회(한국근현대사학회)에서 처음으로 ‘위안부’관련 국제학술회의 개최

○ 2015년 : ‘위안부’의 역사적 실체를 둘러싼 논쟁

- 관련 저작 -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서평, 저작비평회, 저자의 반박 등이 학술지에 게재

### ■ 주요 연구성과 및 발굴 자료

○ 피해자 증언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회(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2·3·5』, 1993·1997·1999(이상 한울)·2001(풀빛).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2001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여성과인권, 2004.

- (한국)정신대연구회(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엮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 군위안부들』1·2, 한울, 1995·2003
- 기독교살림여성회, 『전북지역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의 이야기』, 봉천출판사, 2004.
  -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강제로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 훈 할머니: 버려진 조선의 처녀들』, 아름다운 사람들, 2004.
  - 안이정선·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조운옥 할머니 일대기: 가고 싶은 고향을 내 발로 걸어 못가고』, 아름다운 사람들, 2007.
  -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내 속은 아무도 모른다카이: 일본군 ‘위안부’ 김순악』, 일일사, 2008.
  -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내가 어떻게 말을 해요, 어무이 가슴에 못 막을라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옥선 증언채록집』, 참, 2009.
  - 대일 항쟁 기강 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 『강제동원구술기록집12: 일본군위안부 피해 구술기록집- 들리나요?』, 2013.
  - 경상남도교육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일대기: 나를 잊지 마세요!』, 경상남도 교육청, 2013.
  - 종군위안부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짓밟힌 인생의 외침』, 1995.

## ○ 문서 자료

- 조선총독부 자료
  -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의 조사(2012.11~2013.1)에서 기 발굴 ‘외사’ 관련 자료 6건 이외에, ‘행형 기록’과 관련된 5건의 신규 문서 발굴
  - ※ 한 건은 직업소개업자가 17세 미성년자를 영리목적으로 유괴하여 국내 유흥업소에 팔아넘기려다 해당 업소가 폐업 중이었기 때문에 만주의 위안소로 다시 팔아넘기기 위한 국외이송 수속 중에 체포되었으나, 위안소 경영자는 미성년자를 매입했음에도 면소되었다는 내용임. 나머지는 유언비어에 관한 것.<sup>1)</sup>
  - 판결문 - 육군형법 99조(조언비어), 영리유괴, 국외이송 관련 - 분석
  -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내년 출판 예정
-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2013)
- 명부
  - 「留守名簿」(남방제5·9·10 육군병원, 남방제9육군병원복원명부)

1) 이신철, 2014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조사 현황 - 국가기록원 자료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중일 학술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와 연대』, 25쪽.

- 「수용인원명부」(한국부녀공제회-상하이 소재 작성, 기재 인원 790명 중 여성이 776명)
- 「귀국인 명단」(한국광복군 주호잡편지대 작성, 기재된 3,365명 중 여성은 221명)<sup>2)</sup>
- 「팔렘방조선인회명부」(1945.11.4~1946.2월 사이 강석재가 수첩에 이기, 위안소 관련자 77명)
- 「남방조선출신자명부」(1946년 이후 발릭파판에서 작성, 여성 12명)<sup>3)</sup>
- 「아유타수용소 여성명단」 등

## ■ 연구방법

### ○ 증언의 청취와 정리, 분석

#### ○ 증언과 문서 자료의 교차 검토

- 피해 증언이 반드시 문서 자료로서 입증될 필요는 없지만, 연구자는 유관자료를 최대한 수렴해서 교차 분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증언이 어떠한 힘과 가치를 가지는 지 드러낼 수 있음(박정애, 2016.11)
- 연합군 자료 : 김소란, 박영심, 공정엽, 문옥주
  - 문옥주의 증언, “여관에서 하룻밤을 잔 뒤 1942년 7월 10일 부산항에서 배를 탔는데 군용선 7~8척이 함께 떴고 여자들이 3,4백 명 넘게 있었다”
  - 미국전쟁정보국 「심리작전반보고서」(1944), “(조선군사령부로부터 ‘위안부’를 조선에서 버마로 데려갈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일본인 부부는 22명의 조선인 여성을 데리고 1942년 7월 10일 조선인 여성 703명과 90명의 일본인 남녀의 일원으로 부산항을 출발하여 싱가포르를 거쳐 같은 해 8월 20일에 랑군에 도착했다.”
  - “1942년 7월 10일에 부산항을 출발하여 8월 20일에 버마 랑군에 도착한 이른바 ‘제4차 위안단’(안병직 번역·해제, 2013,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이숲, 168쪽)
- 타이 국립 공문서관 자료
  - 2005년 며느리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사망한 시어머니의

2) 황선익, 2016 「해방 후 중국 上海지역 일본군 위안부의 집단수용과 귀환」 『한국독립운동사연구』54,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3) 강정숙, 2009 「인도네시아 동원 여성명부에 관한 진상 조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안부 피해 신고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09년 피해 판정 불능으로 결정 - 신고인의 진술 상 '위안부'일 가능성이 있으나 근거자료가 없어 진술만으로는 '위안부'로 판단하기가 곤란하여 증빙자료 발굴 시까지 판정을 보류.

- 타이 국립공문서관 소장 아우타 수용소 여성입소자 명단에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2015년 피해자로 인정됨

## ○ 현지인과의 공동연구

- 尹明淑과 왕쉬엔(王選)의 중국 저장성 진화(金華) 현지조사, 「진화 계림회(鷄林會) 명부」(1944년 4월 작성, 진화시 당안관 소장) 분석.
  - 계림회는 식민지 시기 해외 한인의 대표적인 친일단체.
  - 명부에는 회원 210명의 씨명, 연령, 본적지, 현주소, 직업을 기재.
  - 직업을 위안소주 혹은 위안소업 등 위안소 관계자로 표기한 사람이 3명. 이들과 주소지를 같이 한 여성이 각각 13명, 0명(중국인을 고용했을 가능성), 6-7명 나타남.
  - 다른 자료를 통해 이 지역에서 위안소를 경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인도 2명 있음.
  - 회원 210명 가운데 위안소나接客점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수가 129명으로 전체의 60%를 상회
- ※ 상세한 분석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로 2016년 연말에 발간 예정

## ○ 해외 자료 소장처에 대한 직접 조사

- 타이 국립공문서관(동북아역사재단)
- 상하이 · 난징당안관, 중국제2역사당안관(동북아역사재단 외)
- NARA(서울대 인권센터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관리사업팀)

## ■ 연구관점

### ○ 식민지 지배책임론

- 식민지 지배 자체를 전쟁범죄와 같이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서 정착하게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
-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전시 · 무력분쟁 하 여성에 대한 조직적 · 체계적 성폭력이라는

보편적인 관점과 더불어 민족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연관시켜 파악

- 창기 허가 하한 연령이 17세로 일본보다 낮음
- 「부녀와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식민지 적용 제외
- 「소개영업취체규칙」 등 인사소개업을 둘러싼 법령의 느슨함 등<sup>4)</sup>

### o 누가 '위안부'인가? 기존 '위안부' 개념 재검토

- 1932년 제1차 상해사변부터 1945년 일본 패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일본의 육군과 해군이 전지 점령지에 설치한 위안소에 끌려와 일본의 군인 군속의 성 상대를 강요당한 여성들(요시미 요시아키)<sup>5)</sup>
- '위안소'가 일본군의 전투 지역과 점령·주둔지에만 존재했다는 암묵적 인식 초래
- 대부분의 지역이 전쟁터가 되지 않았던 조선과 대만에서는 점령지나 전쟁터처럼 군이 '위안소'를 관리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음
- 병사의 성적 위안에 민간의 성매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군이 직접 관리하는 것 같은 '위안소'의 존재가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음<sup>6)</sup>
- '식민지 위안소'
- “식민지라는 군사적으로 특수한 지배 지역에서는 전장과 점령지 같은 지역에 만들어진 '위안소'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의 성매매 시설과는 분명히 다른 성매매 시설이 존재했으며, 이것을 '식민지 위안소'로 새롭게 분류(金榮·奄谿有香, 2012)<sup>7)</sup>
- “방진의 '풍해루'와 '은월루'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시설일 가능성이 크지만, (중략) 군사료와 상황으로부터 거의 군인들이 이용하던 시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략) 이것을 '식민지위안소'라고 새로운 분류를 함으로써 식민지 지배와 '위안부'제도가 짝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안자코 유카 奄谿有香, 2016)<sup>8)</sup>
- 지역군, 경찰 등이 1920년대에 위안소 설치 합의 : 북한의 연구성과

4) 서현주, 2015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식민지적 특성 - 소개영업취체규칙을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과제와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광복 70주년 기념 한중일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51쪽.

5) 요시미 요시아키 지음·남상구 옮김, 2013 「일본군'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역사공간, 20쪽.

6) 안자코 유카(奄谿有香), 2016 「함경북도 芳津의 '식민지 위안소」, 『일본군'위안부'문제의 기록과 역사적 전망』(제59회 전국역사학대회 한국사연구회세션 발표문), 43쪽.

7) 金榮·奄谿有香, 2012 「咸鏡北道の軍都と「慰安所」・「遊廓」, 『軍隊と性暴力 朝鮮半島の20世紀』, 現代史料出版)

8) 안자코 유카(奄谿有香), 앞의 글, 48쪽

- “일제는 군기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군전용 ‘위안소’ 건설을 기도. 그러한 조치로서 1928년 나남 19사단장, 헌병대장, 도지사 등의 모의에 따라 풍골의 이코마쵸(生駒町)에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됨.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최초의 일본군 ‘위안소’임”<sup>9)</sup>
- 아시아 태평양전쟁기에 일본군이 설치한 ‘위안소’나 전시체제하에서 재편된 제국 일본 지역의 관리성매매 시설 피해자(박정애)<sup>10)</sup>

## ■ 과제와 방향

### ○ 증언(피해자, 군인, 지역주민)과 문서(위안소 설치 지역, 위안부 출신 지역)의 교차 분석 필요

- 위안부와 위안소 실태에 대한 입체적 분석 가능

### ○ 국경을 넘나드는 자료와 연구 성과의 교류, 공동검토와 연구 필요성 절실

- 경기도 경찰부장이 조선총독부경무국장과 경성지방법원검사장에게 보낸 보고(1939년 9월 13일)  
 “1938년 3월 경성부 서대문정 2정목에 거주하고 있던 신순임(申順任)이 같은 동네 사람徐萬奎의 소개로 난징 소재 황군위안소로 갔다가 1939년 8월 중순 돌아온 후, ‘제일선의 창기는 군과 함께 전쟁에 참가하여 위험하기 때문에 금후 어떤 일이 있어도 황군위안소의 창기는 되지 않겠다.’며 군사와 관련된 유언을 발설하여 사실을 虛報한 바, 관할 종로경찰서에서 탐지하고 당사자를 동행취조하니, 난징에서 하루 70명을 상대하여 신체에 무리가 생겼다고 하는 등(중략) 동정해야 할 만한 점이 있어서 구류 7일의 처분을 내렸다.”
- 經盛鴻, 2013 「第八章 日軍의 ‘慰安婦’ 制度與南京의 ‘慰安所’」  
 『(增訂版)南京淪陷八年史』, 社會科學文獻出版社, p. 858~859  
 “일찍이 1937년 12월 중순 일본군이 난징을 침략하여 점령한지 오래지 않아, 일본군난징특무반의 오니시[大西] 등의 사람들은 곧 한간 쑤슈롱[孫叔榮] 왕청덴[王承典] 등의 사람들에게 100명의 ‘꽃처녀’를 모집하여 ‘황군위안소’를 만들라는 지령을 내렸다.”  
 “일본군부의 지시와 지지 하에 다른 불량배 한간들은 차오홍넨의 자취를 따랐고,

9) ) 리철홍, 2015 「조선에서 발견된 일본군 ‘위안소’와 성노예범죄의 진상」 『제2회 일본군‘위안부’문제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171쪽.

10) ) 박정애, 2015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 『사학연구』제120호, 한국사학회, 195쪽.

역시 각종 명목의 “위안소”가 분분히 개설되었다. 현재 자료가 남아있어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일화친선관(日華親善館)’, ‘황군위안소’(부후강에 있었다.), ‘대화루(大華樓)위안소’(중략) 등이다.<sup>11)</sup>

– 관동군특별연습(1941.7~8)과 조선인 ‘위안부’ 동원

· 증언

“조선총독부 총무국에 징모를 의뢰하고 총독부는 도·군·면에 하달하여 최종적으로는 면장의 책임 하에 모았을 것으로 생각하며, 일부에서는 2만 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8천 명 정도를 모았음”(하라 시로(原善四郎)관동군 참모의 증언)<sup>12)</sup>

“하라(原)참모의 조수로서 명령전달, 통달, 배치지시, 업자와의 접촉 등 사무 처리를 담당했으며 3,000명 정도였다고 기억”(村上貞夫조장의 수기)<sup>13)</sup>

· 흑룡강성 당안관 자료

“일본군대륙과견부대 전용위안부로 조선에서 모집한 조선 여성 2,000명 중에서 약 10명이 南天門에 왔음”(綏陽(쑤이양)國境警察隊寒蔥河(한충허)대장의 1941년 10월 20일 보고)

· 조선총독부 자료

朝鮮總督府警務局長, 「渡支邦人の取締に關する件」, 1942년 3월 19일, 第3表 渡航目的調(1941년 7월~12월)

		北支方面			中支方面			南支方面			合計
		내지인	조선인	계	내지인	조선인	계	내지인	조선인	계	
이주자	(중략)										
	요리옥, 음식점	5	59	64	2	9	11		6	6	87
	대좌부		4	4					2	2	6
	女給仲居	25	57	82	1	8	9	1	18	19	110
	예창기	16	274	290	1	59	60	4	48	52	402
	(중략)										
합 계		927	1,748	2,874	189	505	694	159	242	401	3,770

11) ) 經盛鴻, 2013, 864~865쪽.

12) ) 千田夏光, 1973, 『從軍慰安婦一聲なき女八萬の告發』, 雙葉社, 96~97쪽.

13) ) 秦郁彦, 1999/2005, 『慰安婦』, 新潮社, 97쪽.

朝鮮總督府警務局長, 「渡支邦人の取締に關する件」, 1942년 8월 29일, 第3表 渡航目的調 (1942년 상반기)

		北支方面			中支方面			南支方面		
		내지인	조선인	계	내지인	조선인	계	내지인	조선인	계
이주자	(중략)									
	요리옥, 음식점	7	103	110		13	13		8	8
	대좌부		1	1				1		1
	女給仲居	21	160	181		33	35		20	20
	예창기	25	215	238	7	37	44		34	34
	(중략)									
합 계		1,030	2,344	3,374	156	620	776	137	385	522

출처 : 吉見義明編, 1992 『從軍慰安婦資料集』, 大月書店, 154~157쪽.

※ 참고 : 1937년 9월부터 1938년 12월까지 16개월 동안 渡支 신분증명서 발급 현황

		北支方面			中支方面			南支方面		
		내지인	조선인	계	내지인	조선인	계	내지인	조선인	계
이주자	(중략)									
	요리옥, 음식점	129	798	927	15	158	173	2	8	10
	대좌부	4	66	70	1	44	45			
	女給仲居	246	532	778	22	92	114		1	1
	예창기	127	853	980	3	293	296		4	4
	(중략)									
합 계		5,270	16,328	21,598	420	2,100	2,520	10	58	68

출처 :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に於ける朝鮮の治安狀況-昭和十三年』, 154~155쪽.

○ ‘식민지 위안소’, “전시체제하에서 재편된 제국 일본 지역의 관리성매매 시설 피해자도 ‘위안부’”라는 ‘위안부’, ‘위안소’ 관련 새로운 범주, 기존 개념의 외연 확장에 대해 사실과 이론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검토 필요

# 最近における韓国内の慰安婦問題研究の現況と課題 —歴史分野を中心に

徐賢珠（東北亜歴史財団）

## ■ 時期区分

- 1980年代末：市民運動の性格が濃い。
- 2007年：歴史学界の研究と議論の対象として登場

—歴史関連学会（韓国近現代史学会）において初めて「慰安婦」に関する国際学術会議が開催

- 2015年：「慰安婦」の歴史的実体をめぐる論争

—関連する著作—『朝鮮人軍慰安婦と日本軍慰安所制度』、『帝国の慰安婦』—に関する書評、批評会、著者による反駁などが学術誌に掲載される。

## ■ 主要な研究成果及び発掘資料

- 被害者の証言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韓国）挺身隊研究会編『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

- 婦たち1・2・3・5』(1993・1997・1999(以上、ハンウル)・2001(プルピッ))
-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 2000年日本軍性奴隷制を裁く女性国際戦犯法廷韓国委員会証言チーム編『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4－記憶で書き直す歴史』(プルピッ, 2001年)
  -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付設 戦争と女性人権センター研究チーム『歴史をつくる物語：日本軍「慰安婦」女性たちの経験と記憶』(女性と人権, 2004年)
  - －(韓国)挺身隊研究会・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編『中国へ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1・2』(ハンウル, 1995・2003年)
  - －基督サリム女性会『全北地域における日本軍「慰安婦」生存者の証言』(ボンチョン出版社, 2004年)
  - －挺身隊ハルモ二とともにする市民の会『強制連行された日本軍「慰安婦」フンハルモ二：取り残された朝鮮の処女たち』(美しい人々, 2004年)
  - －アンイ・ジョンソン・挺身隊ハルモ二とともにする市民の会『チョ・ユンオクハルモ二一代記：帰りたい故郷に自分の足で歩いて行けずに』(美しい人々, 2007年)
  - －挺身隊ハルモ二とともにする市民の会『私の心は誰にも分からない：日本軍「慰安婦」キム・スンアク』(イルイル社, 2008年)
  - －挺身隊ハルモ二とともにする市民の会『私がどう話せますか、母が傷つくのが目に見えるのに：日本軍「慰安婦」被害者キム・オクソン証言採録集』(チャム, 2009年)
  - －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など支援委員会(2013)  
『強制動員口述記録集12：日本軍慰安婦被害口述記録集－聞こえますか?』(2013年)
  - －慶尚南道教育庁『日本軍「慰安婦」被害者キム・ボクトクハルモ二一代記：私を忘れないで!』(慶尚南道教育庁, 2013年)
  - －従軍慰安婦・太平洋戦争被害者補償対策委員会『踏みにじられた人生の叫び』(1995)

## • 文書資料

### 一 朝鮮總督府資料

- 成均館大學東アジア歴史研究所の調査(2012.11~2013.1)から既発掘の「外事」関係資料6点以外に、「行刑記録」関係5点の文書を新たに発掘

※一点には、周旋業者が17歳の未成年者を営利目的として誘拐して、国内の風俗店に売ろうとしたところ、その店が廃業していたため、満州の慰安所へ再び売るために国外移送手続きを行う過程で逮捕されたが、ところで慰安所経営者は、未成年者を買取ったにもかかわらず免訴判決を受けたという内容が記録されている。その他は、すべて流言蜚語に関する内容<sup>1)</sup>。

- 判決文—陸軍刑法第99条(造言蜚語)、営利誘拐、国外移送関連—分析

※ 韓国学中央研究院で来年出版する予定

### 一 『日本軍慰安所管理人の日記』(2013)

#### 一名簿

- 「留守名簿」(南方第5・9・10陸軍病院、南方第9陸軍病院復員名簿)
- 「収容人員名簿」(韓国婦女共済会—上海所在作成、記載された790名のうち、女性が776名)
- 「帰国人名簿」(韓国光復軍駐湖暫編支隊作成、記載された3,365名のうち、女性は221名)<sup>2)</sup>
- 「パレンバン朝鮮人会名簿」(1945.11.4~1946.2月にかけてガン・ソクジェが手帳に移記、慰安婦関係者77名)
- 「南方朝鮮出身者名簿」(1946年以後、バリクパパンで作成、女性12名)<sup>3)</sup>
- 「アユタヤ収容所女性名簿」など

1) 이신철(李信澈), 2014『한국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 조사 현황 - 국가기록원 자료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韓国の日本軍'慰安婦'関連資料調査現況—国家記録院資料調査結果を中心に)』, 『한중일 학술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와 연대』, 25頁.

2) 황선익(ファン・ソンイク), 2016『해방 후 중국 上海지역 일본군'위안부'의 집단수용과 귀환(解放後中国上海地域の日本軍'慰安婦'의集團収容と帰還)』, 『한국독립운동사연구』54,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3) 강정숙(カン・ジョンスク), 2009『인도네시아 동원 여성명부에 관한 진상 조사(インドネシア動員女性名簿に関する真相調査)』,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 研究方法

- 証言の聞き取りと整理、分析
- 証言と文書資料との照査

―被害証言が必ず文書資料として証明される必要はないが、研究者は関連する資料の収集に最大限に努めて交差分析する義務があり、これによって歴史的事件の本質を明らかにするのに証言が如何なる力と価値を有するかを示せる（パク・ジョンエ、2016.11）

―連合軍資料：キム・ソラン、朴永心（パク・ヨンシム）、コン・チョムヨプ、文玉珠（ムン・オクジュ）

- 文玉珠の証言、「旅館に一泊したあと、1942年7月10日、釜山港から船に乗ったが、船は軍用船で六隻か七隻がいっしょに出発したが、私のような女たちが三、四百人を超えるほどだった」
- 米戦争情報局「心理作戦班レポート」(1944)、『（朝鮮軍司令部から「慰安婦」を朝鮮からビルマへ連れていく許可を受けた）日本人夫婦は、22人の朝鮮人女性を連れて1942年7月10日に朝鮮人女性703人と90人の日本人男女の一員として、釜山港を出発してシンガポールを経由して同年8月20にラングーンに到着した』
- 『1942年7月10日に釜山港を出航して、8月20日にビルマ・ラングーンに到着したいわゆる「第4次慰安団」』（安秉直翻訳・解題『日本軍慰安所管理人の日記』（イスップ、2013年）168頁

―タイ国立公文書館資料

- 2005年、ある女性が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糾明委員会で亡くなった姑の慰安婦被害を申し込んだが、委員会は2009年に被害判定不能と決定―申請者の陳述からは、「慰安婦」である可能性が高いが、根拠資料がなく陳述だけでは「慰安婦」だと判断し難く、証拠資料が見つかるまでに判定を保留。
- タイ国立公文書館所蔵のアユタヤ収容所の女性被収容者名簿に載っていることが

確認され、2015年に被害者として認定された。

•

## • 現地人との共同研究

－尹明淑と王选（王選）による中国・浙江省金華の現地調査、「金華鶏林会名簿」（1944年4月作成、金華市档案馆所蔵）に対する分析。

- 鶏林会は、植民地期に海外朝鮮人からなる代表的な親日団体
- 名簿には会員210名の氏名、年齢、本籍地、現住所、職業が記載
- 職業は慰安所主あるいは慰安所業など、慰安所の関連業者と記入した人は3名。彼らと住所が同じである女性は、それぞれ13名、0名（中国人を雇い入れた可能性）、6－7名であることが判明。
- 他の資料を通して同地域で慰安所を経営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朝鮮人2名も確認された。
- 会員210名のうち慰安所や接客所にいたとみられる女性数は、129名で全体の6割以上を占めている。

※分析の詳細は、韓国女性政策研究院の報告書に収められており、2016年末に発刊予定

## • 海外資料所蔵先に関する直接調査

－タイ国立公文書館（東北亜歴史財団）

－上海・南京档案馆、中国第二歴史档案馆（東北亜歴史財団）

－NARA（ソウル大人権センター 日本軍「慰安婦」記録物管理事業チーム）

## ■ 研究の観点

### • 植民地支配責任論

- 植民地支配そのものを戦争犯罪と同じく、国際法上の犯罪である「人道に反する罪」と位置づけようとする取り組み
- 日本軍「慰安婦」問題を戦時、武力紛争下における女性への組織的・体系的性暴力という普遍的観点とともに、民族差別的、非人道的な日本帝国の朝鮮に対する植民地支配と関連付けて捉えている。
  - 娼妓許可の年齢下限が日本より低い17歳である。
  - 「婦人及児童ノ売買禁止ニ関スル国際条約」の締結にあたり、植民地は適用外とする。
  - 「紹介営業取締規則」など、人材紹介業に対する緩やかな法令など<sup>4)</sup>

### • 誰が「慰安婦」であるか?既存の「慰安婦」概念の見直し

- 1932年の第一次上海事件から1945年の日本の敗戦までの期間に、戦地・占領地で日本の陸軍と海軍が作った慰安所で軍人・軍属の性の相手をさせられた女性たち（吉見義明）<sup>5)</sup>
  - 「慰安所」が日本軍の戦闘地域と占領・駐屯地だけに存在していたという暗黙的な認識をもたらす。
  - 地域の大半が、戦場ではなかった朝鮮と台湾では、占領地や戦場と同じく、軍が「慰安所」の管理を行っていたことを示す明確な資料が出ていない。

4) 서현주(徐賢珠), 2015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식민지적 특성 - 소개영업취체규칙을 중심으로(日本軍「慰安婦」動員の植民地的特性—紹介営業取締規則を中心に)」『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과제와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광복 70주년 기념 한중일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51頁.

5) 吉見義明(南相九訳)『일본군'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日本軍「慰安婦」その歴史の真実)』(역사공간, 2012)20頁.

- 兵士の性的慰安のために、民間の売春施設を利用できる状況で、軍が自ら管理するような「慰安所」の存在が実証的に検証されていない<sup>6)</sup>。

#### －「植民地慰安所」

- 『植民地という軍事的に特殊な支配地域では、戦場と占領地といった地域につくられた「慰安所」と同条件を整えていたものではないが、民間の売春施設とは明らかに一線を画する売春施設があり、これを「植民地慰安所」として新たに分類』（金栄、2012）<sup>7)</sup>
- 「芳津の豊海楼と銀月楼は、民間人によって経営されていた売春施設であった可能性が高いが、（中略）軍の史料と状況からみて、ほとんど兵士たちが利用していた施設だと考えられる。（中略）これを「植民地慰安所」と新しく分類することで、植民地支配と「慰安婦」制度とは深い関わりのあることを、他の側面から確認できると思われる。（庵逄由香、2016）<sup>8)</sup>

#### －地元の軍、警察などが1920年代に慰安所を設置することで合意：北朝鮮の研究成果

- 『日帝は、軍紀の乱れを防ぐための対策として、軍専用「慰安所」の設立を試みる。その一環として、1928年に羅南第十九師団長、憲兵隊長、道知事などが謀議して、豊谷（当時は生駒町）に日本軍「慰安所」を開設する。これが朝鮮半島で確認された最初の日本軍「慰安所」である<sup>9)</sup>』

#### －アジア・太平洋戦争期であるだけに、日本軍が設置した「慰安所」や戦時体制下で再編された帝国日本地域の管理売春施設の被害者（パク・ジョンエ）<sup>10)</sup>

6) 庵逄由香, 2016 「함경북도 방진의 '식민지 위안소'(咸鏡北道芳津の「植民地慰安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기록과 역사적 전망』(제59회 전국역사학대회 한국사연구회세션 발표문), 43頁.

7) 金栄・庵逄由香「咸鏡北道の軍都と「慰安所」・「遊廓」, 『軍隊と性暴力 朝鮮半島の20世紀』, 現代史料出版, 2012年)

8) 庵逄由香, 前掲論文, 48頁

9) 리철홍(リ・チョルホン), 2015 「조선에서 발견된 일본군 위안소와 성노예범죄의 진상(朝鮮で発見された日本軍「慰安所」と性奴隷犯罪の真相)」, 『제2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171頁.

10) 박정애(박・젠에), 2015 「피해실태를 통해 본 일본군 위안부의 개념과 범주 시론(被害実態を通じてみた日本軍「慰安婦」の概念と範疇試論)」, 『사학연구』제120호, 한국사학회, 195頁.

## ■ 課題と方向

- 証言（被害者、軍人、地元住民）と文書（慰安所の設置地域、慰安婦の出身地域）との交差分析が必要である。

—慰安婦と慰安所の実態に関する立体的な分析が可能となる。

- 史料と研究成果の国境を越えた交流、共同検討と研究が喫緊の課題

—京畿道警察部長が、朝鮮総督府警務局長と京城地方法院検事正に出した報告(1939年9月13日)

『1938年3月、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に住んでいた申順任（シン・スニム）は、隣人の徐萬奎の紹介で南京所在の皇軍慰安所へ行って、1939年8月中旬に帰国した後、「第一線の娼妓は軍人と共に戦争に参加し危険なれば、今後如何なることがあっても皇軍慰安所の娼妓にはならず」と、軍事に関する流言を放って事実を虚報したところ、管轄の鐘路警察署で探知して当事者に対し同行して取調べを行った結果、南京で一日70名の相手をさせられて体が濫使されたなど（中略）同情にあたいする点があり、拘留7日に処された』

—経盛鴻「第八章日軍的‘慰安婦’制度與南京的‘慰安所’」『(増訂版)南京淪陷八年史』(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3年)858～859頁

『かつて1937年12月中旬、日本軍が南京を陥落してまもなく、日本軍南京特務班の大西らはすぐに漢奸の孫叔榮・王承典などの人々に対して100名の「処女たち」を募集し「皇軍慰安所」を設置することを指令した』

『日本軍部の指示と支持に支えられて、他のならず者の漢奸たちは、喬鴻年の跡を継ぎ、その後各種の名目で「慰安所」を次々と開設した。現在、「慰安婦」が資料に残り、調査可能なところは、「日華親善館」、「皇軍慰安所」（傳厚崗にあった。）、「大華楼慰安所」（中略）などである<sup>11)</sup>』

—関東軍特別演習（1941.7～8）と朝鮮人「慰安婦」の動員

11) 経盛鴻, 2013, 864～865頁.

- 証言

『朝鮮総督府総務局へその徴募を依頼し、総督府は道・郡・面にそれを下達し、最終的に面長の責任で集めたと思い、一角では2万名というが、実際には8千名余りを集めた』（原善四郎関東軍参謀の証言）<sup>12)</sup>

『原参謀の助手として命令の伝達、通達、配置の指示、業者との接触などといった事務の処理を担当したが、私の記憶では3000人くらいだった』（村上貞夫曹長の手記）<sup>13)</sup>

- 黒竜江省档案馆資料

『日本軍支那派遣軍の専用慰安婦として、朝鮮から募集した女性2,000名のうち、約10名が南天門に来た』（綏陽国境警察隊寒葱河隊長の1941年10月20日付報告）

- 朝鮮総督府資料

朝鮮総督府警務局長、「渡支邦人の取締に関する件」、1942年3月19日、第3表渡航目的調（1941年7月～12日）

		北支方面			中支方面			南支方面			合計
		内地人	朝鮮人	計	内地人	朝鮮人	計	内地人	朝鮮人	計	
移住者	(中略)										
	料理屋、飲食店	5	59	64	2	9	11		6	6	87
	貸座敷		4	4					2	2	6
	女給仲居	25	57	82	1	8	9	1	18	19	110
	芸・娼妓	16	274	290	1	59	60	4	48	52	402
	(中略)										
合計		927	1,748	2,874	189	505	694	159	242	401	3,770

12) 千田夏光『従軍慰安婦—“声なき女”八万人の告発』(双葉社, 1973年)96～97頁.

13) 秦郁彦『慰安婦』(新潮社, 1999/2005年)97頁.

朝鮮總督府警務局長、「渡支邦人の取締に関する件」、1942年8月29日、第3表渡航目的調（1942年上半期）

		北支方面			中支方面			南支方面		
		内地人	朝鮮人	計	内地人	朝鮮人	計	内地人	朝鮮人	計
移住者	(中略)									
	料理屋、飲食店	7	103	110		13	13		8	8
	貸座敷		1	1				1		1
	女給仲居	21	160	181		33	35		20	20
	芸・娼妓	25	215	238	7	37	44		34	34
	(中略)									
合計		1,030	2,344	3,374	156	620	776	137	385	522

出典：吉見義明編『従軍慰安婦資料集』(大月書店, 1992年)154~157頁

※参考：1937年9月から1938年12月までの16ヵ月間における渡支身分証明書の発給現況

		北支方面			中支方面			南支方面		
		内地人	朝鮮人	計	内地人	朝鮮人	計	内地人	朝鮮人	計
移住者	(中略)									
	料理屋、飲食店	129	798	927	15	158	173	2	8	10
	貸座敷	4	66	70	1	44	45			
	女給仲居	246	532	778	22	92	114		1	1
	芸・娼妓	127	853	980	3	293	296		4	4
	(中略)									
合計		5,270	16,328	21,598	420	2,100	2,520	10	58	68

出典：朝鮮總督府警務局『最近に於ける朝鮮の治安状況—昭和十三年』154~155頁

- 「植民地慰安所」、『戦時体制下で再編された帝国日本地域の管理売春施設の被害者も「慰安婦」という「慰安婦」、「慰安所」に関する新範疇、既存の概念の外延の拡大に対する事実と理論的側面からの研究と検討が必要である。

# 最近韩国慰安妇问题研究情况与课题

## - 以历史领域为中性

徐贤珠 (东北亚历史财团)

### 划分时期

- 上世纪80年代末：主要以市民运动形式进行
- 2007年：慰安妇问题逐渐成为历史学界的研究与讨论对象
  - 历史学会（韩国近现代史学会）首次召开关于“慰安妇”的国际学术大会
- 2015年：围绕“慰安妇”历史真相展开争论
  - 有关著作：《朝鲜人军队慰安妇与日军慰安所制度》、《帝国的慰安妇》的书评、著作讲评会、著者的反驳等内容刊载学术杂志

### 主要研究成果以及发掘资料

- 受害者指证
  - 韩国挺身队问题对策协议会，（韩国）挺身队研究会（所）编，《被强制征集的朝鲜人慰安妇1、2、3、5》，1993、1997、1999（HAN-UL），2001（普比特）
  - 韩国挺身队问题对策协议会“2000年日军性奴隶战犯女性国际法庭”韩国委员会作证组，《被强制征集的朝鲜人慰安妇4，以记忆重新叙述的历史》，普比特，2001
  - 韩国挺身队问题对策协议会所属的战争与女性人权中心研究组，《创造历史的故事：日军“慰安妇”受害者的经验与记忆》，女性与人权，2004

- (韩国)挺身队研究会(所), 韩国挺身队问题对策协议会编, 《被逼迫送到中国的朝鲜人慰安妇》1、2, HAN-UL, 1995, 2003
- 基督Salim女性会, 《全北地区日军“慰安妇”生存者故事》, 奉天出版社, 2004
- 与勤劳挺身队女性同在的市民组织, 《被强制征集的日军“慰安妇”训(李男伊)奶奶:被放弃的朝鲜姑娘》, 美丽人, 2004
- 安李真善、与勤劳挺身队女性同在的市民组织, 《曹允玉(音译)奶奶的传记:很想回老家,但自己走不出去》, 美丽人, 2007
- 与勤劳挺身队女性同在的市民组织, 《没有人理解我的内心:日军“慰安妇”金顺岳》, 一日社(音译), 2008
- 与勤劳挺身队女性同在的市民组织, 《我怎么诉说,害怕在妈妈的心里留下创伤:日军“慰安妇”受害者金玉善(音译)作证采录集》, CHAM, 2009
- 关于调查在抗日期间被强制动员的受害者以及国外被强制动员的牺牲者的支援委员会, 《强制动员口述记录集 12:日军慰安妇受害者口述记录集 - 听到了吗?》, 2013
- 庆尚南道教育厅, 《日军“慰安妇”受害者金福得奶奶传记:别忘记我!》, 庆尚南道教育厅, 2013
- 随军慰安妇太平洋战争受害者赔偿对策委员会, 《被蹂躏的人生之呐喊》, 1995

## ○ 档案资料

- 朝鲜总督府档案资料
  - 成均馆大学东亚历史研究所的调查(2012.11-2013.1)除了已发掘的“外事”有关档案6件外,新发掘“行刑记录”相关档案5件。
  - ※ 一个档案的内容为就业中介业者以赢利为目的诱拐17岁未成年,把她向国内风俗业贩卖,但是该风俗业处以暂停,而为她卖给满洲慰安所而送往国外的过程中,该中介业者被逮捕,然而慰安所运营者购买未成年人但被免诉。其他的内容涉及谣言。<sup>1)</sup>
  - 判决书-陆军刑法99条(造言蜚语)、赢利诱拐、送往国外 - 分析
  - ※ 韩国学中央研究院计划明年出版
  - 《日军慰安所管理人的日记》(2013)

1) 李信哲, 2014 「韩国日军“慰安妇”相关档案调查情况-以国家记录院资料调查结果为中心」, 『韩中日学术大会:为解决日军“慰安妇”问题的分享与连带』, 25页

## - 名簿

- 《留守名簿》（南方第5、9、10陆军医院，南方第9陆军复员名簿）
- 《收容人员名簿》（韩国妇女共济会 - 上海所在地编写，记载的人员790名中有女性776名）
- 《回国名单》（韩国光复军驻湖暂编支队编写，记载的3365名中有女性221名）<sup>2)</sup>
- 《巨港朝鲜人会名簿》（1945. 11. 4-1946. 2月，姜石才在手册记录，慰安所有关人士为77名）
- 《南方朝鲜出身者名簿》（1946年以后在巴里巴板编写，女性有12名）<sup>3)</sup>
- 《阿踰陀收容所女性名单》等

## 研究方法

### ○ 听取、整理、分析作证内容

### ○ 交叉检查作证内容与档案

- 受害作证不需要以文档资料作证，但是研究员有义务尽量确保相关资料，对此进行交叉检查，在此过程中可以证明作证在查明历史真相发挥什么样的角色以及证据的价值。（朴正爱，2016. 11）
- 联合军的资料：金昭兰（音译）、朴永心、孔正叶（音译）、文玉珠
  - 文玉珠指证，“在旅馆睡一晚，第二天的1942年7月10日在釜山港乘船，当时看到军用船舶7-8艘、妇女3-4百名左右。”
  - 美国战争情报局《心里作战组报告书》（1944），“（从朝鲜军司令部获得允许将‘慰安妇’从朝鲜送往缅甸）日本人夫妻带着22名朝鲜人，于1942年7月10日与朝鲜人妇女703名、90名日本人男女一起离开釜山港，经过新加坡，于当年8月20日到达仰光。”
  - “1942年7月10日从釜山港出发，于8月20日到达缅甸仰光的‘第四个慰安团’”（安秉直翻译解题，2013，《日军慰安所管理人的日记》，Esoop，168页）

2) 黄善翼，2016 「解放后，中国上海地区日军“慰安妇”集体收容所与归还」『韩国独立运动史研究』54，独立纪念馆韩国独立运动史研究所

3) 姜真叔，2009 「对印度尼西亚动员女性名簿的调查真相」，日帝强占下强制动员受害真相查明委员会

- 泰国国立公文书馆资料
  - 2005年，儿媳妇向日帝强下强制动员受害真相查明委员会举报已故婆婆为慰安妇受害者，但是，委员会于2009年决定不能判定把她视为受害对象- 根据举报人的陈述内容，婆婆充当“慰安妇”的可能性不能排除，但是没有依据资料，仅靠口述作证难以判断已故婆婆是不是“慰安妇”受害者，等到发觉证明资料将它进行保留。
  - 泰国国立公文书馆收藏的阿踰陀收容所妇女囚犯名单上有婆婆的名字，而于2015年给予承认她是“慰安妇”受害者。
  
- o 与当地人进行联合研究
  - 尹明淑与王选在中国浙江省金华地区进行现场调查，分析《金华鸡林会名簿》（1944年4月编写，金华市档案馆收藏）
    - 鸡林会是殖民统治时期最具代表的海外韩人亲日团体
    - 在名簿记载210名成员的姓氏、年龄、本籍、现在居住地址、职业
    - 在职业栏上，填写慰安所老板、慰安所业者、慰安所有关人士的人有3名，与他们的地址相同的妇女分别为13名、0名（雇佣中国人的可能性较大）、6-7名。
    - 通过其他资料，发现推测在该地区运营慰安所的朝鲜人有2名
    - 成员210名中，呆在慰安所或待客店的妇女人数为129名，占60%以上。
  - ※ 在2016年年底，韩国女性政策研究院的报告书将出版，可以参考更加详细的分析内容。
  
- o 对海外档案收藏地点直接进行调查
  - 泰国国立公文书馆（东北亚历史财团）
  - 上海、南京档案馆、中国第二历史档案馆（东北亚历史财团外）
  - NARA（首尔大学人权中心日军“慰安妇”档案管理事业组）

## 研究观点

### o 殖民地统治责任论

- 殖民地统治与战争犯罪一样，被列为国际法所规定的“反人道主义的犯罪行为”

- 日军“慰安妇问题”是战时、战争时期以妇女为对象有策划、有组织的性暴力问题，该普遍观点与种族歧视、反人道主义的、日帝对朝鲜的殖民统治相联结。
- 允许从事娼妓业的年龄为17岁，还少于日本国内允许的年龄
- 《禁止买卖妇女儿童国际条约》不适用于殖民地
- 《介绍营业取缔规则》等关于介绍业的法律不太严格<sup>4)</sup>

## ○ 谁是“慰安妇”？, 重新检查“慰安妇”概念

- 1932年第一次上海事变到1945年日本败战，被强制送往日本陆军、海军在战场与占领地设置的慰安所充当慰安妇，被迫给日军、军属提供性服务的妇女（吉见义明）<sup>5)</sup>
- 使人在不知不觉之中误会“慰安所”仅设置于日军战斗地区、占领地、驻地
- 朝鲜与台湾的大部分地区没有沦为战场，因此没有发现证明由日军策划管理“慰安所”的资料。
- 士兵为解决性“慰安”，可以利用民间的卖淫设施，因此没有证明日军直接管理的“慰安所”情况相关资料<sup>6)</sup>
- “殖民地慰安所”
- “殖民地这一特殊军政的地区，没有像战场、占领地区一样可以设置‘慰安所’的环境，但是与民间运营的卖淫设施不同的卖淫设施肯定存在，这重新列为‘殖民地慰安所’”（金荣，奄途有香，2012）<sup>7)</sup>
- “芳津的‘风海楼’、‘阴月楼’有可能民间业者运营的卖淫设施，（中略）按照军队史料与当时情况，该设施可以视为军人利用的设施，（中略）把它列为‘殖民地慰安所’，这可以从另外的角度证明殖民统治与‘慰安妇’制度有紧密联系。”（奄途有香，2016）<sup>8)</sup>
- 在上世纪20年代，地区军、警察等就慰安所设置达成协议：北韓的研究成果
- “日帝为防止军纪紊乱，计划设置军队专用‘慰安所’，与1928年罗南19师团团团长、宪兵大将、道知事等直接策划，在风骨（音译）生駒町设置日军‘慰安

4) 徐贤珠，2015 「日军“慰安妇”动员的殖民地特点-以介绍营业取缔规则为中心」【为日军“慰安妇”问题的历史课题与展望】，东北亚历史财团主办光复70周年纪念韩中日国际学术会议资料集，251页

5) 吉见义明 著，南相九 译，2013 【日军“慰安妇”，其历史的真实】，历史空间，20页

6) 奄途有香，2016 「咸镜北道芳津“殖民地慰安所”」，【日军“慰安妇”问题的记录与展望】（第59届全国历史学大会韩国史研究会会议的报告），43页

7) 金荣，奄途有香，2012 「咸镜北道の军都之『慰安所』・『游廓』」，『军队之性暴力 朝鲜半岛の20世纪』，现代史料出版

8) 奄途有香，前文，48页

所’，这是我国首次确认的日军‘慰安所’”。<sup>9)</sup>

- 亚洲太平洋战争期间，日军设置的‘慰安所’或在战时体制下重新部署的帝国日本地区的卖淫设施受害者（朴正爱）<sup>10)</sup>

## 课题与方向

### ○ 需要交叉分析作证（受害者、军人、地区居民）与档案（慰安所设置地区、慰安妇出身地区）

- 对慰安妇与慰安所的实际情况进行立体性分析

### ○ 迫切需要对资料研究成果进行跨境交流、联合检查与共同研究

- 京畿道警察部长向朝鲜总督府警务局长与京城地方法院检察厅的报告（1939年9月13日）

“1938年3月京城部西大门町2町目的申顺任通过邻居徐万奎的介绍到达南京皇军慰安所。1939年8月中旬回国后，她表示‘第一战线的娼妓随军参加战争，非常危险，我今后绝不充当皇军慰安所的娼妓’，同时暴露有关军事的流言，虚报事实，管辖钟路警察署进行检查，对当事人进行审讯，其结果，她在南京每天接待70名，而身体受伤，（中略），予以同情并考虑到这一点，把她拘留7天”

- 经盛鸿，2013 「第八章 日军的‘慰安妇’制度与南京的‘慰安所’」 『(增订版)南京沦陷八年史』，社会科学文献出版社 858-859页

“1937年12月中旬日军侵占南京后不久，日军南京特务班的大西等人，就指令下令汉奸孙叔荣、王承典等人迅速招募100名‘花姑娘’，建立‘皇军慰安所’”

“在日军部的指示和支持下，其他一些流氓汉奸步乔鸿年后尘，也纷纷开设各种名目的‘慰安所’。目前有案可查的就有‘日华亲善馆’、‘皇军慰安所（位于傅厚岗）’、‘大华楼慰安所’等（中略）”<sup>11)</sup>

9) 李哲宏（音译），2015 「在朝鲜发现的日军“慰安所”与性奴隶犯罪的真相」 『第2届日军“慰安妇”问题国际学术大会的报告』，171页

10) 朴正挨，2015 「通过受害情况分析日军“慰安妇”的概念和范畴时论」 『史学研究』第120号，韩国史学会，195页

11) 经盛鸿，2013，863-864页

- 关东军特别练习（1941. 7-8），动员朝鲜人“慰安妇”

• 作证

“估计委托朝鲜总督府总务局征集，总督府下达道、郡、面，最终由面长负责募集，有的人说募集2万名，但是事实上募集8千名左右”（原善四郎关东军参谋指证）<sup>12)</sup>

“作为原善参谋的助手，负责传达命令、通达、指示安排、与业者联络等业务，可能募集3千名左右”（村山真夫组长的手记）<sup>13)</sup>

• 黑龙江省档案馆的档案

“作为日军大陆派遣部队专用慰安妇，在朝鲜募集朝鲜妇女2千名中有10名到达南天门”（绥阳国境警察队寒葱河大将在1941年10月20日的报告）

• 朝鲜总督府资料

朝鲜总督府警务局长，《渡支邦人の取締に關する件》，1942年3月19日，第三标，渡航目的调（1941年7月-12月）

		北支方面			中支方面			南支方面			合计
		内地人	朝鲜人	总计	内地人	朝鲜人	总计	内地人	朝鲜人	总计	
移送者	(中略)										
	料理屋, 饮食店	5	59	64	2	9	11		6	6	87
	贷座敷		4	4					2	2	6
	女给仲居	25	57	82	1	8	9	1	18	19	110
	艺妓/娼妓	16	274	290	1	59	60	4	48	52	402
	(中略)										
合计		927	1,748	2,874	189	505	694	159	242	401	3,770

朝鲜总督府警务局长，《渡支邦人の取締に關する件》，1942年8月29日，第三标，渡航目的调（1942年上半年）

12) 千田夏光，1973，『从军慰安妇-声なき 八万の告发』，双叶社，96-97页

13) 秦郁彦，1999/2005，『慰安妇』，新潮社，97页

		北支方面			中支方面			南支方面		
		内地人	朝鲜人	总计	内地人	朝鲜人	总计	内地人	朝鲜人	总计
移送者	(中略)									
	料理屋, 饮食店	7	103	110		13	13		8	8
	贷座敷		1	1				1		1
	女给仲居	21	160	181		33	35		20	20
	艺妓/娼妓	25	215	238	7	37	44		34	34
	(中略)									
合计		1,030	2,344	3,374	156	620	776	137	385	522

来源：吉见义明编，1992《从军慰安妇资料集》，大月书店，154-157页

※ 参考：1937年9月到1938年12月的16个月期间，渡支身份证明书发给情况

		北支方面			中支方面			南支方面		
		内地人	朝鲜人	总计	内地人	朝鲜人	总计	内地人	朝鲜人	总计
移送者	(中略)									
	料理屋, 饮食店	129	798	927	15	158	173	2	8	10
	贷座敷	4	66	70	1	44	45			
	女给仲居	246	532	778	22	92	114		1	1
	艺妓/娼妓	127	853	980	3	293	296		4	4
	(中略)									
合计		5,270	16,328	21,598	420	2,100	2,520	10	58	68

来源：朝鲜总督府警务局，《最近に於ける朝鮮の治安狀況-昭和十三年》，154-155页

○ 考虑到“殖民地慰安所”、“在战时体制下重新部署的帝国日本地区的卖淫设施受害者也是‘慰安妇’”、关于“慰安妇”、“慰安所”的新范畴以及将既有概念的外延，需要按照事实与理论的观点进行研究与检查。

일본군'위안부' 연구 성과와 과제 국제학술회의

---

## 제2부

### 〈일본군'위안부' 자료 발굴 현황과 과제〉

---

- 발표1 : 일본정부가 보유 중인 '위안부' 관련 문서의 경계선에 대하여  
고바야시 히사토모 (小林久公,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자료팀)
- 발표2 : 한일화해 배경의 중국 '위안부' 사료 발굴 및 연구  
조옥결 (趙玉潔, 지린성당안관)
- 발표3 : 일본군'위안부' 미국 자료 발굴 현황과 과제  
강성현 (康誠賢,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 발표4 : 한국에서의 일본군'위안부'관련 자료발굴 및 그 활용  
한혜인 (韓惠仁,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발표 1

---

일본군'위안부' 연구 성과와 과제 국제학술회의

# 일본정부가 보유 중인 '위안부' 관련 문서의 경계선에 대하여

고바야시 히사토모 (小林久公,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자료팀)

---



# 일본정부가 보유 중인 ‘위안부’ 관련 문서의 경계선에 대하여

고바야시 히사토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자료팀)

## 1. 머리말

작년 12월,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인정은 ‘일본군의 관여’라는 것이었다. 이 ‘군의 관여’는 이미 25년 전에 일본정부가 인정한 사실로, 이 사실 인정으로는 해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그 후의 경과에서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군의 관여’를 일본정부가 반복하고 한국정부가 그것을 수용했다는 것은 한일 합의가 일본정부의 가해 사실을 뺀 얇은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1990년까지 일본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실 인정은 ‘위안부’ 제도는 업자가 알아서 한 일로,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1991년에 일본정부의 잘못된 사실 인정에 분노한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전면에서 나서서 ‘위안부’는 일본군이 한 짓이다, 내가 산증인이라고 호소한다.

그리고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가 방위성 자료실에서 ‘군의 관여’를 보여주는 문서를 발견하고 발표했다. 그 후 1992년에 일본정부는 가토 내각 관방 장관 담화를 통해 ‘군의 관여’를 인정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강제 동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 조사하겠다고 하고, 1993년의 고노 내각 관방 장관 담화를 통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라며 그 강제성을 인정했다. 그 후 일본정부는 ‘강제 동원’을 보여주는 문서는 없다는 견해를 발표하고, 그 입장을 오늘날까지 견지하고 있다.

허나 이 25년간의 투쟁 속에서 다수의 ‘위안부’ 관련 문서가 발견되어 조사,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는 당시에도 국내법,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인

권 침해이며, 그것을 조직적으로 계획, 실행한 주체가 일본군과 일본정부였음이 입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그러한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는 불법적인 인권 침해를 저지른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만은 피한 채 어떻게 해서든 끝내고 싶은 관료들의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그러한 속내 탓에 일본정부가 보유한 ‘위안부’ 관련 자료에 괴이한 경계선이 그어지고 말았다. 일본 정부기관이 보유 중인 ‘위안부’ 관련 자료 중 ‘위안부’ 자료로 내각관방이 수집한 문서는 ‘군의 관여’를 드러내는 범위의 자료에 국한되어 있다. 그 예외는 국회에서 거론되거나 자료의 존재가 언론에 보도된 것들뿐이다. 더욱이 그 자료들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위안부’ 제도의 시행 주체가 일본군임을 드러내는 문서, 그 위법성을 드러내는 문서, ‘강제 동원’을 드러내는 문서 모두가 일본정부의 조사 경계 밖에 놓이게 되었다. 이 일본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의 경계선을 극복하지 않고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일본정부가 그어 놓은 경계선 너머에 존재하는 것은 확고하게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문서류, 위법성과 정부의 ‘법적 책임’을 입증하는 문서류, ‘강제 동원’을 드러내는 문서류이다.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본정부의 각 부처가 보유 중이나 ‘위안부’ 관련 자료로 제출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그러한 자료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양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그에 놀아나고 있다.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마음만 있다면, 사실 인정에 필요한 자료는 경계선 너머에 존재하는 만큼 언제든지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그리고 “새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위안부 문제는 군의 관여 차원이 아니라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주체가 되어 시행한 여성에 대한 범죄 행위였음이 밝혀졌다, 일본정부는 그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겠습니다”고 발표한다면, 문제는 조기에 해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가이 가즈(永井和) 교수가 10년이나 전에 발견하여 공개한 「야전주보규정 개정의 건(野戰酒保規程改正の件)」 등의 문서를 일본정부는 여전히 ‘위안부’ 관련 문서로 인정하지 않고 수집하고 있지 않다.

필자는 그러한 문서들을 한국정부가 공식 외교 루트를 통해 일본정부에 제공을 요구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한국정부가 행동에 나선 흔적은 현재로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

일본의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은 작년 6월, 『일본군‘위안부’ 관계 자료 21선(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21選)』을 간행했다. 여기에는 ‘위안부’ 문제의 사실 인정에 관한 21점의 기본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집에는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으며, 일본정부가 ‘위안부’ 자료로 인정한 것, 그리고 아직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필자는 이 『일본군‘위안부’ 관계 자료 21선』의 자료를 토대로 보고하겠다.

2. 일본정부가 보유 중인 문서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그리고 각각 몇 종류로 다시 나눌 수 있다.

1) 내각관방이 경계선 안쪽 문서로서 정부 조사에서 ‘위안부’ 관련 문서로 수집한 문서류 ‘군이 관여했다’고 인정한 고노담화 발표 이전에 수집한 문서 종류

- (1) 『일본군‘위안부’ 관계 자료 21선』의 목차에 ○가 표시되어 있는 문서이다.
- (2) ‘고노담화’ 발표 후에 내각관방이 ‘위안부’ 관련 문서로서 수집한 문서 종류 『일본군‘위안부’ 관계 자료 21선』의 목차에 ×가 표시되어 있는 문서이다.

2) 일본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나, 경계선 밖의 문서로 아직 정부 조사 문서로서 내각관방에 송부되지 않은 문서류

- (1) 군이 주체로서 시행한 것을 입증하는 문서 종류 「야전주보규정개정 의 건」 등의 문서가 있다.
- (2) ‘위안부’ 여성을 강제 동원한 것을 드러내는 문서 종류 도쿄재판이나 BC급 전범재판의 문서 등이다.
- (3) 당시의 ‘형법’, ‘국제법’ 등 ‘위안부’ 제도가 당시에 불법적인 범죄 행위였음을 드러내는 문서 종류. ‘한일병합조약’, ‘형법’,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 ‘부녀매매금지국제조약’ 등이 있다.

### 3. ‘위안부’ 문제의 대응에 관한 일본정부의 행정문서

위의 문서 이외에도 일본의 관계 부처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정부의 행정문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행정문서들은 「공문서관리법」에 따라 각 관계 부처의 ‘행정문서파일’에 정리되어 있으며, 정보 공개 대상 문서이나 대부분 비공개로 공개된다 해도 먹칠투성이로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 했는지 또

는 ‘해결’하지 않으려 했는지를 훗날 검증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문서류이다.

거기에는 1991년 12월에 외무성이 美 국가기록원(NARA)에서 ‘강제동원’을 입증하는 문서를 입수했음을 보여주는 문서인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미국 전시정보국 작성 자료 (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 49)」도 포함되어 있다. 외무성은 이 문서에 대해 “일본인 대리업자가 감언이설로 꼬여 조선인 여성을 위안부로 모집한 양상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보고(報告)·총람(縱覽)’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서를 정부 조사에 제출하지 않은 채 여전히 은폐하고 있다. 또 외무성은 이 문서에 대해 소재 불명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외무성이 가토담화 발표 후인 1992년 7월 28일에 네덜란드의 헤이그공문서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네덜란드 BC급 전범재판의 「바타비아군사재판기록」을 입수했다는 행정문서가 있으나, 이 문서도 정부 조사를 위해 제출한 적이 없으며 숨겨 둔 상태이다. 이 문서에 대해서도 외무성은 소재 불명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 4. 마치면서 – 현 상황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 1) 사례1. 「일본해군 점령기간 중 네덜란드령(領) 인도서부 보르네오에서의 강제 매음 행위에 관한 보고」

2015년 3월 25일, 일본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공산당의 시오카와 데쓰야(塩川鉄也) 의원이 질의에 나서 고노담화 발표 이후에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존재가 판명된 경우에는 내각관방에서 공개 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관계 부처 등이 내각관방에 보고해야 하는 관련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절히 판단한 후, 관계 부처 등에 대해 내각관방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통지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고 정부에 답변을 요구한 뒤, 고노담화 발표 후 총 61건의 자료가 제공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 질의에 대해 방위성은 “작년(2014년)에는 방금 지적하신 영외시설규정(營外施設規程), 그리고 또 다른 1건인 일명 모리카와사료(森川史料)를 내각관방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자료 모두 방위성 방위연구소의 전사연구센터사료열람실에서 일반 분들의 지적 등을 바탕으로 이 센터의 직원이 재차 확인한 결과, 이른바 중군위안부 관련 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명되었기에 내각관방에 제출하였습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시오카와 의원은 “2007년 4월에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간토학원대학 교수는 기자 회견에서 위안부의 강제성을 드러내는 문서로 도쿄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몇몇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칼리만탄, 폰티아낙, 「일본 해군 점령기간 중 네덜란드령 인도서부 보르네오에서의 강제 매음 행위에 관한 보고」라는 문서입니다”고 지적하고, 그 문서를 ‘위안부’ 관련 문서로 국립공문서관이 내각관방에 송부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2015년 5월 21일에 국립공문서관은 내각관방에 ‘위안부’ 자료로서 그 문서를 제출했다. 즉 일본정부는 ‘강제 동원’의 증거 문서를 입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2) 사례2. 국립공문서관이 보유 중인 176건의 문서

2015년 7월 28일에 국립공문서관을 찾은 필자는 국립공문서관이 소장 중인 ‘위안부’ 관련 문서 176건의 리스트를 전달하고, ‘위안부’ 관련 문서로서 내각관방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후 유관기관의 대응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공한 176건의 리스트에 관해 국립공문서관은 그 문서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2015년 9월 30일에 끝마쳤다.

문서의 존재를 확인한 뒤, 국립공문서관에서는 ‘위안부’ 관련 자료인지 여부의 판단을 이관원인 법무성에 조회하겠다고 하고, 문서 「외부의 지적을 받은 귀성 이관문서에 대하여(조회)」(2016년 2월 29일자)와 함께 문서 리스트, 관련 문서 사본 약 500장을 법무성에 송부했다. 법무성은 회신 문서 「외부의 지적을 받은 당성 이관문서에 대하여(회답)」(2016년 3월 30일자)와 함께 리스트 약 10장에 걸쳐 회신 코멘트를 기재하고 국립공문서관에 회신했다. 국립공문서관에서는 법무성에 조회한 리스트에 자료 1점이 누락되어 있어 문서 「외부의 지적을 받은 귀성 이관문서에 대하여(조회)」(2016년 7월 21일자)를 법무성에 송부해, 법무성으로부터 같은 날에 ‘회답’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올해 12월을 목표로 국립공문서관 자체적으로 자료의 기술 등을 확인하면서 ‘위안부’ 관련 자료인지 여부를 판단 중이다.

이러한 대응 결과, 국립공문서관이 다수의 ‘위안부’ 관련 문서를 내각관방에 제출한다면, 일본정부의 사실 인정 변화를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日本政府が保有している 「慰安婦」関係文書の境界線について

小林久公 (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資料チーム)

## 1. はじめに

昨年12月の日韓両国政府の「慰安婦」問題に関する合意の事実認定は「日本軍の関与」というものであった。この「軍の関与」は、四半世紀も前に日本政府が行った事実認定であり、この事実認定では解決にならないことをその後の経過が明らかにしているにも関わらず、「軍の関与」を日本政府が繰り返し、韓国政府がそれを受け入れたことは、日韓合意が日本政府の加害事実認定抜きの茶番でしかなかったことを物語っている。

1990年までの日本政府の「慰安婦」問題に関する事実認定は、「慰安婦」制度は、業者が行ったものであり政府とは関係が無いというものであった。1991年に、日本政府の誤った事実認定に怒った金学順さんが名乗り出て「慰安婦」は日本軍がやったことだ、自分がその生き証人だと訴えた。

そして、吉見義明教授が防衛庁資料室から「軍の関与」を示す文書を発見し発表した。そして1992年に、日本政府は加藤内閣官房長官談話で「軍の関与」を認めたのであった。しかし、「強制連行」については認めず引き続き調査をすることで1993年の河野内閣官房長官談話で「本人の意思に反して」とその強制性を認めたのである。その後、日本政府は「強制連行」を示す文書は無いとの見解を発表し今日まで続けている。

だが、この四半世紀の闘いの中で、多数の「慰安婦」関係文書が発見され、調査。研究が進んだ。その結果、日本軍の「慰安婦制度」は、当時においても国内法、国際法に違反する重大な人権侵害であり、それを組織的に、計画、実施した主体が日本軍と日本政府で

あったことが証明さ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政府はその加害事実を認めようとしていない。

それは何故か、そこには、違法な人権侵害を行った日本政府の法的責任を認めることだけは避けて、なんとか終息させたいとの官僚たちの思惑が透けて見える。その思惑の結果、日本政府が保有する「慰安婦」関係資料に怪しげな境界線が引かれることとなった。

日本政府の機関が保有している「慰安婦」関係資料のうち、「慰安婦」資料として内閣官房が収集した文書は「軍の関与」を示す範囲の資料に限られている。その例外は、国会で取り上げられたり、資料の存在がマスコミで報道されたりしたものだけである。しかも、それらの資料は巧妙に隠されていた。

「慰安婦」制度の実施主体が日本軍であることを示す文書、その違法性を示す文書、「強制連行」を示す文書のすべてが、日本政府の調査の境界の外に置いておかれることになった。

この日本政府の「慰安婦」問題解決の境界線を乗り越えることなしに、「慰安婦」問題が解決されること出来ないと思われる。

すなわち、日本政府が引いた境界線の向こうに在るものは、しっかりした事実認定を行うことになる文書類、違法性と政府の「法的責任」を示す文書類、「強制連行」を示す文書類である。それらは存在しないのではなく、日本政府の各省庁が保有しているが「慰安婦」関係資料として提出されていないだけのことである。しかし、日本政府は、それらの文書が存在しないかの如く振る舞っている。そして、多くのマスコミが踊らされている。

日本政府が「慰安婦」問題を解決する気になれば、事実認定に必要な資料は境界線の向こうに存在しているのであるから、いつでも取り寄せられる状況に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

そして、「新しく見つかった資料によれば、慰安婦問題は、軍の関与というレベルではなく、日本政府と日本軍が主体となって実施した女性に対する犯罪行為であ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日本政府は、その法的責任を認め、被害者に謝罪し賠償します」と述べるならば、問題は早晩に解決に踏み出すことが出来る。

例えば、永井和教授が10年も前に発見、公表している「野戦酒保規程改正の件」などの文書を、日本政府は未だに「慰安婦」関係文書として認めておらず取り寄せていない。

私は、それらの文書を韓国政府が、公式に外交ルートを通じて日本政府に提供を求めてほしいと何度か要請したが、韓国政府がそのように動いた形跡は今のところ見当たらない。

日本の日本軍「慰安婦」問題解決全国行動は、昨年6月に『日本軍「慰安婦」関係資料21選』を刊行した。ここには、「慰安婦」問題の事実認定に関する基本的な21点の文書を収録した。この資料集は、どの資料がどこに在って、日本政府が「慰安婦」資料として認めたもの、まだ認めていないものが分かり易く並べている。

私の報告は、この『日本軍「慰安婦」関係資料21選』の資料に基づいて報告したい。

## 2. 日本政府が保有している文書は境界線で大きく二つに分類される。 更に、それぞれが幾つかの種類に分けられる。

### 1) 内閣官房が境界線の内側の文書として、政府調査で「慰安婦」関係文書として収集した文書類

(1) 「軍が関与した」と認めた河野談話発表までに収集した文書類

『日本軍「慰安婦」関係資料21選』の目次に○が附されている文書である。

(2) 「河野談話」発表後に 内閣官房が「慰安婦」関係文書として収集した文書類

『日本軍「慰安婦」関係資料21選』の目次に×が附されている文書である。

### 2) 日本政府の機関が保有しているが、境界線の外の文書として、未だに政府調査文書として内閣官房に送られていない文書類

(1) 軍が主体として実施したことを証明する文書類

「野戦酒保規程改正の件」などの文書がある。

(2) 「慰安婦」女性を強制連行したことを示す文書類

東京裁判やBC級戦犯裁判の文書などである。

(3) 当時の「刑法」、「国際法」など、「慰安婦」制度が当時において違法な犯罪行為であったことを示す文書類。「韓国併合条約」、「刑法」、「朝鮮刑事令」「婦女売買禁止条約」などがある。

### 3. 「慰安婦」問題の取組みに関する日本政府の行政文書

前期1の文書以外に、「慰安婦」問題に関する日本政府の行政文書が関係省庁に保有されている。それらの行政文書は、「公文書管理法」に基づき各関係省庁の「行政文書ファイル」に整理され、情報公開の対象文書であるが、そのほとんどは非公開としてマスキングされて公開される。

しかし、日本政府が「慰安婦」問題をどのように考え、どのように「解決」しようとしていたのか、または「解決」しないでおこうとしたのかを後日検証していくには欠かせない文書類である。

そこには、1991年12月に外務省がアメリカ公文書館から「強制連行」を証明する文書を入手していたことを示す文書「従軍慰安婦問題に関する米国戦争情報局作成資料」も含まれている。外務省はこの文書を「日本人の代理業者が甘言を弄して朝鮮人女子慰安婦に募集した様子が詳しく書かれている」とこの文書を「報告・縦覧」している。だが、この文書は、政府調査に提出されておらず隠されたままである。外務省はこの文書の行方は不明としている。

加藤談話発表後の1992年7月28日に外務省は、オランダのハーグ公文書館からインドネシアでのオランダのBC級戦争犯罪裁判の「バタビア軍事裁判記録」を入手したとの行政文書があるが、この文書も政府調査に提出されておらず隠されたままである。この文書についても、外務省は行方知れずと答弁している。

### 4. おわりに現状の具体例の紹介する

#### 1) 事例1、「日本海軍占領期間中蘭領東印度西部ボルネオに於ける強制売淫行為に関する報告」

2015年3月25日、衆議院内閣委員会で共産党の塩川議員が質疑を行い、河野談話の発表以降も「慰安婦問題に関連する資料や情報の存在が判明した場合には、内閣官房におい

て公開の手続をとるため、関係省庁等において内閣官房に報告すべき関係資料に該当するか否かを適切に判断された上で、関係省庁等に対して内閣官房に報告をするように求めているものでございます。現在も、この通知については効力を有しているものでございます」と政府に答弁させた上で、河野談話発表後に総計61件の資料提供があったことを確認している。この質疑で防衛省は「昨年(2014年)は、今御指摘ありました営外施設規定、それからもう一件、森川史料と呼ばれるものを内閣官房に提出いた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いずれの資料も、防衛省防衛研究所の戦史研究センター史料閲覧室において、一般の方からの御指摘等を受けまして、同センターの職員が改めて確認をいたしましたところ、いわゆる従軍慰安婦関連の資料に該当するということが判明をいたしましたことから、内閣官房に提出をし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と答弁した。

そして、塩川議員は「2007年の4月に、林博史関東学院大学教授は、記者会見で、慰安婦の強制を示す文書として、東京裁判で証拠として採用された文書の幾つかを公表しました。その一つであります、インドネシア・ボルネオ島、カリマンタン、ポンチアナック、「日本海軍占領期間中蘭領東印度西部ボルネオに於ける強制売淫行為に関する報告」という文書があります」と指摘し、その文書を「慰安婦」関係文書として国立公文書館が内閣官房に送ることを要求した。その結果、2015年5月21日に国立公文書館から内閣官房に「慰安婦」資料としてその文書は提出されました。すなわち、日本政府は「強制連行」の証拠となる文書を手寄せざるを得なかったのである。

## 2) 事例2 国立公文書館が保有する176点の文書

2015年7月28日に国立公文書館を訪ね、私は国立公文書館が所蔵している「慰安婦」関係資料176点のリストを渡し、「慰安婦」関係資料として内閣官房へ提供するよう申し入れた。その後の関係機関の対応状況は、次のようなものである。

提供された176点のリストについて、国立公文書館にその文書が物理的に存在するかどうかの確認を27年9月30日に終了した。

文書の存在を確認した後、国立公文書館では「慰安婦」関係資料であるかどうかの判断を移管元の法務省に対し照会することとし、「外部から指摘を受けた貴省移管文書について(照会)」(2016年2月9日付)の文書とともに、文書のリスト、関係文書のコピー約500枚を法務省に送った。法務省は「外部から指摘を受けた当省移管文書について(回答)」(2016年3月30日付)の回答文書とリスト10枚程度のものに回答のコメントを記載し、国立

公文書館に回答した。国立公文書館では、法務省に照会したリストに資料1点が漏れており「外部から指摘を受けた貴省移管文書について(照会)」(2016年7月21日付)文書を法務省に送り、同省から同日付で「回答」をもらった。そして、本年12月を目途に国立公文書館として、資料の記述などを確認して「慰安婦」関係資料であるかどうかの判断を調査中である。

この取組みの結果、国立公文書館から多数の「慰安婦」関係文書が、内閣官房に送られるならば、日本政府の事実認定の変化を促すものとなることが期待される。

# 日本政府“慰安妇”相关档案之界线

小林久公, 解决日军“慰安妇”问题全国行动资料组

## 1. 前言

去年12月, 韩日两国政府就慰安妇问题最终达成一致, 承认慰安妇问题是一项在当时日军的干预下让很多女性的名誉和尊严受到深刻伤害的问题。日本政府已经在25年前承认“日军的干预”, 但是这不足以完全解决慰安妇问题, 这是不争的事实。然而, 日本政府在“日军的干预”上的立场反复无常, 韩国政府欣然接收, 这意味着韩日有关慰安妇问题协议是没有提及日本政府加害事实的“打折协议”。

到上世纪90年代, 日本政府承认“慰安妇”问题时, 都强调“慰安妇制度”只是当时一些民间业者的自发行为, 而与日本政府与军队无关。然而, 在1991年, 金学顺奶奶对歪曲事实、不承认慰安妇问题的日本政府感到愤怒, 首次指证慰安妇真相, 表示“日军强征‘慰安妇’, 我是慰安妇受害者”。

吉见义明教授从防卫省资料室发现与公开“日军干预”相关档案。在1992年, 日本时任内阁官房长官加藤弘一发表谈话, 正式承认日军慰安妇问题“牵涉”日本军队(日军干预), 但是没有承认“强制征集”, 只表示继续调查慰安妇相关问题; 1993年, 时任内阁官房长官河野洋平发表谈话, 正式承认“采用强制的手段, 总体上违反了本人的意志”。至今为止, 日本政府坚持没有发现证明“强征当地妇女充当慰安妇”相关档案的立场。

但是，在长达25年的斗争，很多“慰安妇”相关档案被发掘，并对此进行调查与研究。其结果显示，日军“慰安妇制度”违反国内法与国际法，是严重侵犯人权行为，并在日军与日本政府的策划下多次有组织的动员慰安妇。但是，日本政府不想承认加害事实。

日本政府为何不承认“慰安妇”问题，其背后隐藏着日本政府高级官员尽量避免日本政府承认非法侵犯人权，尽快结束有关强制动员慰安妇历史的争论。因此，日本政府在“慰安妇”相关资料上的态度一直模棱两可。

日本政府机构收藏的“慰安妇”相关档案中，内阁官房收集的“慰安妇”档案仅局限于证明“日军干预”的资料范围，都是国会提出的、舆论媒体报道的资料而已，将其他的资料巧妙地被隐藏起来。

证明制造“慰安妇”制度的主体是日军、证明违法行为、证明“强制动员”的档案都在日本政府调查的界线之外。

我觉得如果我们没有跨越日本政府对“慰安妇”问题所划分的界线，“慰安妇”问题很难得到解决。

日本政府的界线外的档案有：让日本政府承认事实的档案；证明违法行为与日本政府负有“法律上责任”的档案；证明“强制动员”的档案。这些档案不是不存在，而是日本政府的各部门收藏但没有作为“慰安妇”相关档案提交。然而，日本政府假装这些资料不存在，并且很多舆论媒体也随声附和。

如果日本政府有意解决“慰安妇”问题，可以收集承认慰安妇真相所需的档案。

若日本政府发表立场，表示“根据新发掘的档案，慰安妇问题不仅仅是军队干预的问题，而且是在日本政府与日军直接策划指挥下的有组织的对妇女犯罪行为。日本政府承认法律上的责任，向受害者谢罪与赔偿”，那么慰安妇问题早日能够得到解决。

比如，永井和教授十年前发现并公开的《野战酒保规章改正之件》等档案，但是日

本政府仍然不把它视为“慰安妇”档案，也没有收集。

笔者多次要求韩国政府通过外交渠道向日本政府要求分享这些慰安妇档案，但是，韩国政府也尚未采取积极行动。

日本的“解决日军‘慰安妇’问题全国行动”于去年6月出版《日军“慰安妇”相关资料21选》，收录承认“慰安妇”问题的21个档案，该资料集包括资料位址、日本政府承认的“慰安妇档案”和尚未承认的档案目录，一目了然。

笔者以《日军“慰安妇”有关资料21选》为基础进行报告。

## **2. 日本政府收藏的档案分为两种类型，以此为基础再次分几种类型。**

### **1) 内阁官房认为“界线内的档案”，是政府进行调查时作为“慰安妇”档案而收集的档案**

(1) 承认“军队干预”的河野谈话发表之前收集的档案种类

日军“慰安妇”有关资料21选》的目录上以O标示。

(2) “河野谈话”发表后，内阁官房作为“慰安妇”文件而收集的档案种类

《日军“慰安妇”有关资料21选》的目录上以X标示。

### **2) 日本政府收藏但被列为界线外的档案，是政府正在调查而没有交给内阁官房的档案**

(1) 证明由军队主导策划的档案

如《野战酒保规章改正之件》

(2) 证明强制动员妇女充当“慰安妇”的档案

如东京审判或乙丙级战犯的档案

- (3) 证明按照当时“刑法”、“国际法”规定“慰安妇制度”为非法犯罪行为的档案如“韩日合并条约”、“刑法”、“朝鲜刑事令”、“禁止贩卖成年妇女的国际公约”

### 3. 应对“慰安妇”问题的日本政府行政档案

除了前1的文件以外，日本有关部门收藏关于“慰安妇”的日本政府行政档案。根据《日本公共文件和档案管理法》，日本有关部门“行政文件档案”包括行政档案，大部分档案都列为非公开档案，即使被公开也以墨水涂抹内容。

但是，今后证明日本政府如何对待“慰安妇”问题，如何“解决”慰安妇问题，为何不想解决“慰安妇问题”，这些档案是不可缺少的。

该档案还包括提出于1991年12月外务省从美国国家档案和纪录管理局（NARA）获得证明“强制动员”的《关于随军慰安妇问题的美国战争情报局资料(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 49)》。外务省报告与纵览“该档案叙述日本业者诱骗朝鲜妇女充当慰安妇的具体情况”。但是外务省尚未提交给政府调查，把该档案进行隐藏，并且主张该档案的来源不明。

外务省在加藤谈话发表后的1992年7月28日，荷兰海牙国立公文书馆收集印度尼西亚举行的荷兰乙丙级战犯审判“巴达维亚军事审判记录”的行政档案，但是外务省尚未交给政府调查，把该档案进行隐藏，并且主张该档案的来源不明。

### 4. 总结- 介绍目前具体情况

#### 1) 案例一，《日本海军占领期间，荷兰令印度西部婆罗的强制卖淫行为报告》

2015年3月25日，日本众议院内阁委员会上，共产党塩川铁也议员向政府要求回答“在河野谈话发表以后，有慰安妇问题相关资料与档案被发掘时，内阁官房根据公开程序进行处理，有关部门判断将它是否列为向内阁官房报告的档案，然后要求有关部

门向内阁官房进行报告。该通知仍具有效力”，他确认在河野谈话发表之后提供61件档案。

对此，防卫省回答“去年（2014年），您提出的营外设施规程与森三史料提交给内阁官房，在防卫研究所战史研究中心史料阅览室接受一些人的意见，研究员重复确认，判断这属于随军慰安妇有关档案，而向内阁官房提交。”

塩川铁也表示“2007年4月关东学院大学教授林博史在记者招待会上公开证明强制动员慰安妇的档案之一东京审判证据文件，如印度尼西亚东马岛、加里曼丹、坤甸、《日本海军占领期间，荷兰令印度西部婆罗的强制卖淫行为报告》，并要求把该档案作为“慰安妇”相关档案，国立公文书馆交给内阁官房。其结果，2015年5月21日，国立公文书馆向内阁官房交给慰安妇相关档案。这意味着日本政府不得不收集证明“强制动员慰安妇”的档案。

## 2) 案例二，国立公文书馆收藏的176个文件

2015年7月28日，笔者访问国立公文书馆，交给国立公文书馆收藏的“慰安妇176个档案目录”，要求他们把它作为“慰安妇档案”交给内阁官房，以后有关机构的回复情况如下。

国立公文书馆确认您提供的176个档案目录，该工作到2015年9月30日结束。

我们确认档案后，国立公文书馆让法务省调查该档案是不是“慰安妇”相关档案，将〈受到外部谴责的贵省移交档案（查询）〉（2016年2月29日）、档案目录与有关档案副本500页交给法务省。法务省回复〈受到外部谴责的贵省移交文件（查询）〉（2016年3月30日）、目录10页的意见，交给国立公文书馆。国立公文书馆发现法务省调查的目录中一个档案被遗漏，而又将〈受到外部谴责的贵省移交文件（查询）〉（2016年7月21日）交给法务省，当天法务省回复。国立公文书馆计划到今年12月为底，自行确认资料的叙述内容，正在分析这是不是“慰安妇”相关档案。

国立公文书馆将多数“慰安妇”有关档案交给内阁官房，能够敦促日本政府改变立场，承认慰安妇问题。

# About the Boundaries of ‘Comfort Women’-related Documents Held by the Japanese Government

Kobayashi Hisamoto<sup>1)\*</sup>

## 1. Introduction

In December last year,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Japan reached an agreement about the ‘comfort women’ issue. The fact recognized in the context of this agreement was the ‘involvement of the Japanese army.’ However, the involvement of the army was something that was already acknowledg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wenty-five years ago. Moreover, the events that took place since then have amply proved that acknowledging this fact alone cannot lead to the resolu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In spite of this, the Japanese government reiterated its past recognition of the involvement of the military,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cepted it. This agreement is therefore nothing more than a thinly-disguised scheme designed to exonerate the Japanese government from its responsibility over the ‘comfort women’ issue.

Up until 1990, Tokyo claimed that the ‘comfort women’ system was established and run by private operators and that the government had absolutely nothing to do with it. In 1991, a ‘comfort women’ victim came forward for the first time, outraged by this false claim by the Japanese government. Ms. Kim Hak-sun offered her testimony as a living witnes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and denounced the Japanese army as its real operator.

Around the same time, Professor Yoshimi Yoshiaki found documentary evidence of the

---

1)\* Kobayashi Hisamoto is a member of the Documentary Evidence Team of the Nationwide Action for the Resolution of Japan’s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nvolvement of the Japanese army in the Defense Agency library. This finally led to the admission statement by Chief Cabinet Secretary Kato that comfort stations were indeed established and run by the Japanese army. However, Kato refused to concede that ‘comfort women’ were ‘forcibly recruited,’ adding that the matter will be further investigated. In 1993, the forcible recruitment of ‘comfort women’ was acknowledged in the Kono statement in which the victims were said to have been recruited “against their will.” However, subsequent Japanese administrations maintained that there was no documentary evidence that ‘comfort women’ were recruited forcibly, and this is also the position of the current Japanese administration.

However, the twenty-five years of struggle to expose the truth of this wartime practice have resulted in the discovery of important quantities of ‘comfort women’-related documents. The study of these documents has established without a doubt that the ‘comfort women’ system constitutes a grave violation of human rights against international law and that it was planned and implemented by the Japanese army and the Japanese government. In spite of it all, the Japanese government nevertheless persists in the denial of its own responsibility.

What could be the reason for such a denial? Clearly, what these bureaucrats are hoping is that they will somehow manage to wrap up the affair without the Japanese government having to acknowledge its legal responsibility. Due to this imperative, strange boundaries have been drawn concerning ‘comfort women’-related documents held by the Japanese government.

Of the ‘comfort women’-related documents currently held by Japanese government institutions, documents that have been collected by the Cabinet Secretariat are limited to those that reveal the ‘involvement of the army.’ Other types of documents are only discussed in the parliament or referenced in press reports. These other documents have been in fact cleverly hidden out of sight.

What this means is that documents that prove that the Japanese army’s role in the ‘comfort women’ system went beyond simple participation and that it was in reality the implementer of this system, documents that expose its illegal and criminal nature and documents attesting to the fact that the victims were ‘forcibly recruited’ are now all outside the scope of the official inquiry by the Japanese government.

For this reason, in my opinion, unless these tacit boundaries are removed, the ‘comfort women’ issue is unlikely to be resolved.

Documents that lie outside the limits drawn by the Japanese government are those that attest to the criminality of the ‘comfort women’ operation beyond doubt, constitute conclusive evidence of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reveal that the victims were ‘forced’ into it against their own will. This is not because such documents are non-existent. They are held by the various agencies and institutions of the Japanese government. But, these documents have simply never been submitted as evidence for the official ‘comfort women’ inquiry. The Japanese government behaves as though they don’t exist. Much of the Japanese press and media are also misled and deceived to believe in their non-existence.

If the Japanese government genuinely wishes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all the documentary evidence they need to establish facts are already available, but they just lie beyond the boundaries it has drawn itself. All it has to do is reach out and collect them.

If only the government could release a statement similar to “Newly-emerged evidence revealed that the Japanese army was not just involved in the ‘comfort women’ system, but implemented and operated this criminal practice against women.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s its legal responsibility and commits to issue a formal apology to, and compensate, the victims,” this would bring an early resolution to the issue.

For example, documents discovered by Professor Nagai Katsu already ten years ago, including the one about the amendment of the Japanese army’s internal rules (‘Yasen shuho kitei kasei-no ken’), have not been recognized as ‘comfort women’-related documents, hence never been considered as evidence.

I have contacted the Korean government several times so that it demands the Japanese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for the release of these documents. But, I have seen thus far no sign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ny action in this regard.

In June last year, the Nationwide Action for Japan’s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published Nihon-gun ‘ianfu’ kankei’ shiryō 21 sen [A Selection of 21 Documents Related to Japan’s Military ‘Comfort Women’]. The publication contains twenty-one basic documents that prove the existence and criminality of the ‘comfort women’ system and the involvement of the Japanese authority. This sourcebook indicates the respective locations of the twenty-one documents and is organized in such a way to make it easy to distinguish between those that are currently accep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as evidence and those that are not.

My discussion in the rest of this presentation will be based on the evidence included in Nihon-gun ‘ianfu’ kankei shiryō 21 sen.

**2. Documents held by the Japanese government fall into two main categories, those within and without the boundaries of its official inquiry. These documents can be further classified into several sub-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type:**

1) Documents that are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inquiry that were collected by the Cabinet Secretariat:

(1) Documents collected prior to the Kono statement which acknowledged the ‘involvement of the Japanese army’:

(2) In the Table of Contents of Nihon-gun ‘ianfu’ kankei shiryō 21 sen, these documents are marked by the symbol ‘○.’

(3) Documents collected after the Kono statement by the Cabinet Secretariat:

In the Table of Contents of Nihon-gun ‘ianfu’ kankei shiryō 21 sen, these documents are marked by the symbol ‘x.’

2) Documents held by government agencies, but not submitted to the Cabinet Secretariat as they fall outside the boundaries:

(1) Documents proving that the ‘comfort women’ system was established and run by the Japanese army: ‘Yasen shuho kitei kasei-no ken’ and others.

(2) Documents that expose the fact that ‘comfort women’ were forcibly recruited:

Records of the Tokyo War Crime Trials and trials of Class-B and Class-C war criminals.

(3) Documents proving tha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fort women’ system constituted a criminal act in violation of the Japanese Penal Code in place at that time as well as international law in force at that tim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of 1910, Penal Code, ‘Joseon Criminal Ordinance (Chosen keiji rei),’ ‘1921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etc.

### 3. Internal Administrative Documents of the Japanese Government about the Response to the ‘Comfort Women’ Issue

Aside from documents listed above, there are also administrative documents related to the ‘comfort women’ issue that are held by various government agencies. These documents are kept in the ‘Administrative Archives’ of each government agency pursuant to Japan’s Administrative Documents Management Act. Although they are documents subject to public disclosure, most of them remain undisclosed. In rare cases of disclosure, they are usually heavily censored in black ink.

These documents are, however, essential for us to understand how the successive Japanese administrations viewed the ‘comfort women’ issue and how they attempted to ‘resolve’ or avoided ‘resolving’ the issue.

The ‘US OWI (Office of War Information) Document on th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s one such document which indicates that in December 1991,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btained from the US 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a document (‘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 49’) establishing that ‘comfort women’ were forcibly recruited. The OWI report, the Foreign Affairs Ministry states in this document, “describes in detail how Korean women were tricked into becoming ‘comfort women’ by private Japanese operators.” The document, never submitted as evidence for the official inquiry by the government, has remained concealed to this date. The Foreign Affairs Ministry’s current claim is that whereabouts of this document are not known.

Furthermore, there exists another administrative document indicating that on July 28, 1992, shortly after the Kono statement, the Foreign Affairs Ministry obtained from the Hague public archives the records of the Batavia trials in which Class-B and Class-C war criminals were judged by a provisional military tribunal set up in Batavia, Indonesia by the Netherlands. This document also remains concealed and has never been submitted for the government inquiry. The Foreign Affairs Ministry again claims that they are unaware of the whereabouts of this document.

## 4. Conclusion: Current Status of Evidence-Finding Efforts Based on Concrete Examples

### 1) Example1: 'Report on Forced Prostitution in Borneo in the Western Dutch East Indies during its Occupation by the Japanese Navy'

Whe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Cabinet met on March 25, 2015, Japanese Communist Party representative Shiokawa Tetsuya asked the Cabinet members about the status of its evidence-collection efforts regarding the 'comfort women' issue. He stated that "Even after the Kono statement, the Notice requiring the Cabinet Secretariat to disclose any new evidence related to 'comfort women,' as it emerges, following appropriate procedures, and government agencies to report the Cabinet Secretariat about documents constituting new evidence after determining whether they are documents subject to the reporting requirements still has the force of law," adding that there were sixty-one total pieces of evidence provided since the Kono statement. The Minister of Defense answered to this question by saying, "Last year [2014], we submitted to the Cabinet Secretariat the 'Regulations on Off-barracks Facilities' that you just mentioned as well as one other document, 'Morikawa Records.' Based on the suggestions and feedback from people at the library of the War History Center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Defense Studies, we had both sets of documents double-checked by the library staff to ascertain whether they properly qualify as 'comfort women'-related documents. As they were deemed to be valid documents upon a careful examination, we submitted them to the Cabinet Secretariat."

Representative Shiokawa then said, "In April 2007, Professor Hayashi Hirobumi of Kanto Gakuin University made public a series of documents that were accepted during the Tokyo trials as evidence of the forced nature of the 'comfort women' operation. One of these documents is the 'Report on Forced Prostitution in Borneo in the Western Dutch East Indies during its Occupation by the Japanese Navy' detailing the related practices in Pontianak, Kalimantan in Borneo." Pointing out that this report was a document with relevance to the 'comfort women' issue, he demanded that it be sent from the National Archives to the Cabinet Secretariat. As a result, on May 21, 2015,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submitted this document to the Cabinet Secretariat. In other words, the Japanese government had no choice but to accept this piece of evidence that 'comfort women' were 'forcibly recruited.'

## 2) Example 2: 176 Documents Hel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On July 28, 2015, I personally visited the National Archives and made the request that one hundred seventy-six documents related to ‘comfort women’ in its collection be submitted to the Cabinet Secretariat by presenting a list of these documents. The response I have received from the National Archives to my request since then has been as follows:

They have informed me that on September 30, 2015, they completed the verification of the physical existence of the one hundred seventy-six documents in my list.

The existence of these documents being now confirmed, they have indicated that they will consult the Ministry of Justice to which the documents will be transferred, to establish whether they indeed are ‘comfort women’-related documents. Along with an official inquiry titled ‘About Documents to Be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upon Request from an External Party’ (February 29, 2016), the list of documents and some five hundred pages of photocopied documents have been sent to the Ministry of Justice. On March 30, 2016, the Ministry of Justice replied to this inquiry (‘About Documents Transferred from the National Archives upon Request from an External Party’), including in its reply some ten pages of comments to the document list. It later came to the atten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that one of the items was missing from the list sent to the Justice Ministry, and a second inquiry was therefore transmitted to the latter on July 21, 2016, which was answered during the same day. It has been further communicated to me that the National Archives is conducting an internal review of the documents in question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relevant to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at they expect this review to be completed by December this year.

If as a result of the steps undertaken above, the National Archives submits a large number of ‘comfort women’-related documents to the Cabinet Secretariat, this will hopefully force the Japanese government to change their current stance on what they consider and recognize as facts.



발표 2

---

일본군'위안부' 연구 성과와 과제 국제학술회의

# 한일화해 배경의 중국 '위안부' 사료 발굴 및 연구

조옥결 (趙玉潔, 지린성당안관)

---



# 한일화해 배경의 중국 ‘위안부’ 사료 발굴 및 연구

조옥결 (지린성당안관)

## 요약

‘위안부’ 강제모집 문제는 전시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심각한 비인도적 범죄이자, 전세계 여성인권과 관계된 중요한 과제다.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국은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을 타결했다. 이 합의에 따른 한일 양국의 화해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면, 그 실질이 지정학적 공리주의에 입각한 한일 정부간 화해이며, 무성의한 조건부 화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화해는 일본 정부의 국가적 책임 인정과 법적인 보상을 요구하면서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바람과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옛 일본군의 비인도적 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지 못했고, ‘위안부’라는 전후문제를 전세계 여성 인권의 존엄성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했다.

중국은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가장 큰 피해국으로, 1980년대부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민간 조사가 산발적이거나 시작되었다. 그 동안 전문가와 민간인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위안부’ 제도의 중국 여성인권 침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일련의 연구성과가 나왔다.

한일 화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형성과 실시 과정을 드러내는 문헌 자료와 구술 사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를 강화하여, 일본이 국가와 군대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지게 만들고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다.

키워드: 한일화해, 위안부, 사료 발굴 및 연구

## I. ‘위안부’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관된 태도 및 한일

## 화해의 실질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안부’ 문제는 전세계 여성인권과 관련된 전후문제이다. 옛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연루된 피해 여성은 중국 대륙, 타이완, 한국, 북한,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호주,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러시아 등지에 널리 흩어져 있다. 중국측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 피해 여성 규모가 36~41만 명 이상으로 추측되는데, 이 가운데 중국 피해여성이 약 20만 명이다<sup>1)</sup>. 물론 각국이 ‘위안부’ 숫자를 서로 다르게 추산하고 있지만, 중국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가장 큰 피해국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전세계 각자들이 모두 공감한다.

다년간 각국의 학자와 시민단체 및 법조계 인사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을 해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사료를 발굴·연구하고, 각지의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조사·방문하여 구술 자료를 수집해왔다. 또한, 일본 정부에 공개 사과와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일부 피해 여성의 소송을 성원하고 도왔으며, 위안부 역사 기념관과 박물관을 설립했다. 이 밖에도 유네스코 ‘위안부’ 자료 인류문화유산 등재 신청, 올바른 역사교육 추진 등 국제사회에 여성의 존엄성과 인권 수호를 일깨우는 영역에서 크게 공헌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갖가지 핑계로 각국의 피해 여성에 대한 법적인 국가 배상과 국제적인 공개 사죄를 거부하며 저항하고 있다.

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집권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은 특히 유감스럽다. 종전 70주년이라는 역사적 기점인 2015년 한 해에만, 아베 총리는 애매 모호한 태도를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보였다.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에서 입으로는 무라야마(村山) 담화 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실제로는 반성, 사과, 배상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언어유희를 벌였는데, “더 이상 ‘사죄의 숙명’을 지지 않고 싶다”고 강조하여 이어지는 사과, 사죄 및 전쟁 배상의 종결을 위한 복선을 깔 것이 그것이다. 이어 2015년 12월 28일 일본은 한국 ‘위안부’ 피해자 그룹에 대해 한국 정부와 한일합의를 타결함으로써, 양국 현실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군부가 많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다. 아베 총리는 일본 내각 총리대신의 자격으로 이

1) 蘇智良(Su zhiliang), 姚霏(Yao fei), 陳麗菲(Chen lifei) 편저 《중국침략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P7

에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 둘째, 일본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기금’을 형성해 양국이 공동으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 데 사용하도록 2016년 정부 예산에서 10억 엔을 출자하기로 약속한다. 셋째, 합의의 충분한 이행을 전제로, 양측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공동으로 확인한다. 양측은 앞으로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수준의 진전이라는 각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미국도 한미일동맹관계 개선과 밀착을 통한 ‘아시아 재균형 전략’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이 타결을 환영했다. 반면, 중국은 “성실하고 책임지는 태도로” ‘위안부’ 문제를 처리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일본에 촉구했다. 세계 각국의 ‘위안부’ 지원단체, 학자, 법조계 인사들은 역사 반성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을 회피했고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역사 문제 해결 측면에서 지엽적이며 ‘위안부’ 지원 조치 측면에서 법적인 경로를 회피하면서 돈으로 정의를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에 관계된 중요한 문제를 모호하게 처리했다는 점에서 모두 합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한일 양국의 야당, 시민단체 및 ‘위안부’ 피해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이 합의의 이행에 저항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반대하는 한국 대학생과 시민들이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이 합의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일본이 10억 엔으로 비인도적 범죄를 덮으려 한다”, “아베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사과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외치면서, 한국 정부의 ‘친일’과 ‘매국’을 성토했다.<sup>2)</sup> 얼마 전 8월 26일에도 3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서울의 위안부피해자지원시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정부가 일본의 ‘치유금’을 받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를 팔아 넘긴 것과 다를 없다”고 비판하면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일본 총리가 직접 와서 사과하고 일본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오히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이미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일 외무장관회담 당시 일본은 이 10억 엔이 법적인 배상금이 아니라 도의상의 원조 기금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게다가, 아베 총리는 ‘위

2) 찬카오샤오시(參考消息, cankaoxiaoxi) 2016.1.3, 8판 “한국 집회, ‘한일위안부 합의’ 폐지 요구”

안부' 피해자 개인에게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으며, 일단 합의가 이행되면 양측이 곧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하게 된다.

한일합의 발표 이후, 아베 총리는 아나나다를까 전화를 통해 내각총리대신의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 개인이 아닌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반성과 사과를 표명했다. 이는 한일 합의에 언급된 '위안부' 역사 문제의 해결이 정부 간 정치거래일 뿐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존엄성 회복,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위안부' 피해자의 절실한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 피해여성으로부터의 법적 권리 청구를 회피하기 위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다른 나라 및 지역과 비슷한 합의를 체결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법적인 경로를 우회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식을 취한 것은, 전쟁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는 진정성도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 한일합의의 뿌리는 곧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재촉에 따른 화해이자, 한·미·일이 지정학적 전략에 따라 진행한 정치거래의 결과다. 일본이 10억 엔이라는 '치유금' 지불의 전제조건으로 '위안부' 소녀상의 철거를 제시한 것은, 이것이 조건이 달린 진심이 없는 화해이며 피해자의 바람을 저버리고 공정함과 올바름을 되찾으려는 한국 피해여성의 앞길을 가로막는 화해라는 방증이다. 이러한 언행은 일본 정부가 전쟁 범죄를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세계 여성 인권의 존엄성까지 경시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최근 상하이사범대학에 중국 '위안부' 역사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위안부' 조각상 제막식이 열렸다. 이 행사를 겨냥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중일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위안부'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방해하는 등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태도를 연상시킨다. 모두 '위안부' 문제의 '종결'이 '한일합의' 문구에 머무를 뿐 사실상의 '종결'과 한참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본군'위안부'의 비인도적인 범죄에 관한 자료와 문서 및 구술사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본의 국가적 책임과 군대의 책임을 추궁하고 일본 정부가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전쟁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여, 한국의 피해 여성을 포함한 전세계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철저히 회복하고 여성 인권을 수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의미가 있다.

## II. 중국 '위안부' 연구 성과와 사료 발굴의 현황 및 특징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가장 큰 피해국이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14년 동안, 중국의 대부분 지역이 일본 점령지나 식민지로 전락했다. 옛 일본군 위안소는 중국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내이멍구(內蒙古), 산시(山西),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허난(河南), 산둥(山東), 장쑤(江蘇),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푸젠(福建), 광둥(廣東), 광시(廣西), 윈난(雲南), 구이저우(貴州), 하이난(海南), 홍콩, 타이완(臺灣) 등 20여 도시와 지역에 널리 흩어져 있다.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중국에서 가장 피해 범위가 크고 피해자 분포가 광범위하며 여러 민족과 언어 및 풍속에 걸쳐 있다. 또한 위안소 유적이 분산되어 있고 전후 보존이 불충분하며 조사 및 통계의 어려움이 크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연구조사 역량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현재 ‘위안부’ 문제 조사 연구 종사 인력은 각 지역의 다양한 업무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있다. 여기에는 고등교육기관(군사학교 포함), 사회과학원, 중국공산당 당사연구실(黨史研究室), 국가 종합 기록보관소, 지방 사지판공실(史志辦公室), 문화재 관리 부처, 각급 정협((政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문사위원회(文史委員會, 문사·학습위원회), 각급 여성조직, 문학예술계 조직, 지역 언론사 등 전문가, 연구·편찬 인력 및 일부 역사학에 관심이 있는 민간 연구인력, 법조계 인사가 망라되어 있다. 연구 인력이 방대하고 각자 관심 분야에서 흩어져 일하고 있어, 이는 현재 연구성과가 다양하게 나오는 장점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연구성과를 모아내는 작업이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각계 각층에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중국 대륙에는 가치 있는 연구서, 구술사료집, 유적조사기록, 학술논문이 대거 구축되었다. 또한, 역사의 엄밀함을 전제로 ‘위안부’ 주제를 다룬 역사적 가치를 갖춘 보고문학, 르포문학, 다큐멘터리, 영상물까지 출현하고 있으며, 외국의 ‘위안부’ 연구에 대한 역서도 다수 출판되었다. 상하이사범대학은 학술 영향력을 갖춘 중국 ‘위안부’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충분한 실증 조사와 고증 연구를 기반으로 서울과 도쿄에 이어 ‘위안부’ 자료관, 즉 중국 ‘위안부’ 자료관을 전세계 세 번째로 개관했다. 2015년 난징대학살기념관(南京大屠殺紀念館)은 난징(南京) 친화이(秦淮, qinhuai) 구 우라오(五老, wulao) 마을에 있는 가장 잘 보존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리지샹(利濟巷, lijixiang) 일본군 ‘위안소’ 유적지에 중국 최초의 ‘위안부’ 박물관을 세우고, 난징대학살기념관의 지점으로 지정했다. 또한, ‘위안부’ 피해자가 집중된 산시(山西) 위셴(盩厔, yuxian)의 일본군 ‘위안소’ 유적지에 민간에서 출자해 중국 ‘위안부’ 진구이((進

圭, jingui) 기념관을 세우고, 올해 8월 15일에 정식 개관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중국 ‘위안부’ 문제 연구가 크게 진전되었다.

중국의 다양한 ‘위안부’ 주제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실증 조사에 기반한 보고문학, 르포문학 작품

이들은 본질적으로 문학작품의 범주에 속하지만, 표현하는 주제와 사건 및 인물이 진실성을 갖추고 있다. 지은이가 대부분 작가로, 일반적으로 실재인물의 회고록의 형태를 취하면서 적절하게 예술적인 가공을 하는데, 중국 ‘위안부’ 그룹의 존재, 피해여성의 아픈 기억, 현재의 삶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이들의 아픔을 생생하게 대중의 눈 앞에 그려내면서 관심과 고민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작품은 다음과 같다.

- (1) 《중국 위안부: 전시 군대 매춘부 기밀서류 폭로》, 저장(瀛江) 출판사, 1991년 출판. 저자: 우하이펑(吳海峰, Wu haifeng), 광시(廣西) 문학예술계연합회 소속 작가
- (2) 《공개: 중국 위안부》, 작가출판사(作家出版社) 1993년 출판 및 칭하이(靑海) 인민출판사 1998년 수정 재출간. 저자: 장하오(江浩, Jiang hao), 네이멍구(內蒙古) 문학예술계연합회 소속 작가
- (3) 《위안부 고찰 수기》, 지린(吉林) 문사출판사(文史出版社) 2007년 출판. 저자: 차오바오밍(曹保明, Cao baoming), 지린(吉林) 문학예술계연합 부주석, 민속학 전문가
- (4) 《진상: 위안부 조사 르포》, 장쑤(江蘇) 문예출판사 2007년 출판. 저자: 천칭샹(陳慶港, Chen qingxiang), 항저우(杭州) 《청바오(城報, chengbao)》신문 미디어시각 담당
- (5) 《고성일록(孤城日落)》 장편 르포소설, 중국청년출판사 1999년 출판. 저자: 핑징펑(彭荊風, Peng jingfeng), 윈난(雲南) 작가협회 부주석
- (6) 《위안부의 피눈물》 장편 르포소설, 산시(陝西) 태백문예출판사(太白文藝出版社) 2015년 출판. 저자: 쑤신(孫遜, Sun xun), 장두(江都, jiangdu) 퇴직 교사

## 2. 각지의 일본군 위안소 유적지, ‘위안부’ 피해자, 옛 일본군 병사

## 에 대한 실증 조사에 의한 구술문학 기록, 녹음, 영상 자료

중국학자의 일본군 위안소 유적지 조사 및 ‘위안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술자료 조사 작업은 이미 30여 년 넘게 진행된 경우도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기록도 매체의 변화를 겪었는데, 종이 기록, 사진, 녹음, 녹화, 비디오 등 다양하다. 녹취자의 법률 의식과 자료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면서, 일부 미디어 기록이 법률 공증을 거쳐 매우 높은 사료 및 증거 가치와 연구 가치를 갖추게 되어, 역사 연구와 법적 소송에서 각각 참고 자료와 증거 및 증언으로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 (1) 《군항발 밑의 피비린내: 하이난 침략 일본군 폭력 실록》총서, 하이난(海南)출판사 1995년 출판. 편집자: 푸허지(符和積, Fu heji), 하이난 사지판공실 부주임
- (2) 《혈무미망(血霧迷茫): 원난·미얀마 항일과 일본군 죄상 공개》, 원난(雲南) 미술출판사 2004년 출판. 저자: 천주량(陳祖梁, Chen zuliang), 원난 바오산(保山, baoshan) 사지판공실 퇴직간부
- (3) 《상하이 일본군 위안소 실록》, 상하이 삼련서점(三聯書店) 2005년 출판. 저자: 쑤즈량(蘇智良, Su zhiliang)&천리페이(陳麗菲, Chen lifei)
- (4) 《포루(砲樓) 안의 여인: 산시(山西) 일본군 성노예 조사 실록》, 장쑤(江蘇) 인민출판사 2011년 출판, 2015년 재판 당시 책제목을 《위안부 조사 실록》으로 변경. 저자: 장쌍빙(張雙兵, Zhang shuangbing), 산시 위셴 현의 비정규 교사
- (5) 《전시 일본 ‘위안부’ 강제모집 죄상 인터뷰 기록》, 중화서국(中華書局) 2015년 출판. 저자: 장궈통(張國通, Zhang guotong), 허난(河南) 서잉바오(□影報, sheyingbao) 신문 주필
- (6) 이 밖에 이미 수집·정리하여 출판한 ‘위안부’ 구술사료 가운데 주목해야 할 자료로 각급 정협 문사위원회가 만든 정협문사자료가 있다. 정협 문사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고(故)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의 지시에 따라 시기별 구술사료 수집과 정리 및 출판 작업을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장기간 전개해 온 부처로, 1959년 이후 각 시기의 구술사료를 수집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각급 정협 문사위원회는 수집 작업 관련 ‘삼친(三親)’, 즉 직접 겪고, 직접 보고, 직접 듣는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렇게 수집 정리된 ‘삼친’ 사료는 《정협문사자료》의 형식으로 정기 간행한다. 이 가운데 일본군이 운영한 ‘위안부’ 제도를 직접 보여주는 부분이 적지 않아, 중국 국내에서 ‘위안부’ 당사자, 증인 및

관계자가 직접 겪고 보고 들은 충실한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 7) 중국침략 일본군의 구술 자료 수집 작업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일중구술역사문화 연구회(日中口述歷史文化研究會) 부회장이자 지린사범대학(吉林師範大學) 교수인 리쑤진(李素貞, Li suzhen) 여사는 20여 년 전 일본에서 가르칠 당시, 옛 일본군 병사를 인터뷰 대상으로 설정해 '위안부' 등 일본군의 구술 증언 조사 수집 작업을 전개했다. 이 밖에 일본 민간으로부터도 2천여 건의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 서한을 수집해, 방대한 규모의 '위안부' 주제 영상 데이터 자료와 실물 자료를 구축했다.
- 8) 《죄와 증거: 중국 위안부 실록》 산시(陝西) 인민출판사 2015년 출판, 생존 '위안부' 인터뷰를 모은 영상 기록. 저자: 마젠허(馬建河, Ma jianhe), 전 《러칭르바오(樂清日報, reqingribao)》, 《중귀스유바오(中國石油報, zhongguoshiyoubao)》 기자

### 3. 실제 역사 인물과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실제 인물과 사건을 다루면서 일정한 주제에 따라 자료를 취사선택하는 이러한 성과물은 진실성과 재미를 모두 갖추고 주제가 뚜렷하여, 역사 연구 가치와 전파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 (1) 《기밀 해제, 위안부 스토리》 다큐멘터리, 중국 안후이(安徽) 성 타이허(太和, taihe) 현 캉먀오(康廟, kangmiao) 마을에 사는 한국인 '위안부' 생존자 리텐잉(李天英Li tianying, 본명 金蓋華)의 신세를 기록 대상으로 삼았다. 감독: 루이(魯毅, Lu yi)
- (2) 《하이난 섬 '위안부' 조사》 다큐멘터리, 중국위안부문제연구센터 제작
- (3) 《32》다큐멘터리, 감독 귀커(郭柯, Guo ke). 당시(2012년) 32명 남은 중국 '위안부' 생존자를 기록 대상으로 삼고 제목으로 정함.
- (4) 《22》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귀커. 당시(2014년) 22명 남은 중국 '위안부' 생존자를 기록 대상으로 삼고 제목으로 정함.

### 4. '위안부'를 주제로 예술적 가공을 거쳐 창작한 영상물

- (1) 영화 《위안부 수용소》1995년 광시(廣西) 영화스튜디오, 감독: 뤼샤오룽(呂小龍, Lv xiaolong)
- (2) 영화 《위안부 수용소》2006년 출품, 창춘(長春) 영화스튜디오, 감독: 천귀권(陳國軍, Chen guojun)
- (3) 드라마 《자접(刺蝶)》, 《지옥 속의 여인》 등

## 5. 중, 일, 괴뢰정권, 기관이 남긴 중국 각급 종합 기록보관소 및 기타 부처 소장 ‘위안부’ 자료 및 문헌

중국에는 모두 4,000여 개의 각급 국가 종합 기록보관소가 있는데, 일부 기록보관소에는 일본의 중국침략 실태를 보여주는 수많은 공식 문서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이 가운데 중화민국과 중화소비에트 정권의 기관이 작성한 자료도 있고, 중국침략 일본군, 일본의 식민기관 또는 괴뢰정권의 기관이 남긴 자료도 있어, 서로 다른 역사적 시각으로 일본의 중국 침략 역사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의 각급 국가 종합 기록보관소가 시기별 역사자료 정리 및 발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역사자료 정리 작업이 진전되면서,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보여주는 공식 자료가 속속 발굴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중국과 기타 국가의 피해 여성에게 가한 심각한 인권 재난을 진실되게 보여준다.

2014년 6월 중국은 난징대학살 자료와 일본군‘위안부’ 강제모집 자료의 세계기록문화유산 신청 작업에 들어갔다.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자료》를 주제로 하는 세계기록문화유산 신청 자료는 각각 중국 중앙 기록보관소, 랴오닝성(遼寧省) 기록보관소, 지린성(吉林省) 기록보관소, 헤이룽장성(黑龍江省) 기록보관소, 상하이시(上海市) 기록보관소 및 난징시(南京市) 기록보관소에서 모은, 전후 중국 정부가 접수한 적산자산, 조사한 전쟁피해 및 일본 전범 심문 자료, 일본이 점령지역에 세운 괴뢰정권 자료, 중국침략 일본군 관동헌병대 자료, 괴뢰만주국 중앙은행 자료 및 상하이 공공조계 경무처 자료 등이다. 상술한 기록보관소 외에 일본군‘위안부’ 범죄 자료와 문헌을 찾아낸 기타 기록보관소로는, 산시성(山西省) 기록보관소, 내이명구자치구(內蒙古自治區) 기록보관소, 톈진시(天津市) 기록보관소, 허

베이성(河北省) 친황다오시(秦皇島市) 기록보관소, 저장성(浙江省) 진화시(金華市) 기록보관소 등이 있다. 이 밖에 상하이사범대학 위안부문제연구센터,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軍事科學院) 역사연구부(歷史研究部),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 및 중국 일부 지역 정협 문사자료위원회, 당사(黨史) 연구소, 사지(史志) 연구소 등이 다년간 수집·누적 및 보존한 다양한 규모와 형식의 위안부 문헌 자료가 있다.

중, 일, 괴뢰정부 기관이 남긴 각급 국가 종합 기록보관소 소장 ‘위안부’ 자료는 진실된 1차 사료라는 특징이 있다. 지린성 기록보관소의 경우 소장한 일본 중국침략 자료가 일본군과 정부기관 스스로 남긴 일본어로 쓴 2차 공식 문서로서, 일본이 중국에서 저지른 비인도적 ‘위안부’ 범죄에 대한 확고한 증거물이다. 이는 반박 불가능한 역사 증거로서 가치가 있으며, 역사 연구와 법률 소송 및 역사 교육 등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중국 중앙 기록보관소에는 일본 전범의 필기 증언 기록이 대거 보존되어 있는데, 2014년 7월 인터넷에 《일본 전범의 중국침략죄행 자백》자료집을 업로드했고, 2015년 8월 15일에 다시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자료》라는 제목의 모두 8회로 이루어진 영상물을 업로드했다.

- 1회: 중앙 기록보관소에서 일본으로 가 8명의 일본 전범 병사를 직접 인터뷰한 《일본군 ‘위안부’ 자료》 문헌 영상물<sup>3)</sup>
- 2회: 일본군 중국침략기관의 자료<sup>4)</sup>
- 3회: 1938년~1945년 괴뢰만주국과 왕징웨이(汪精衛) 괴뢰정권의 자료<sup>5)</sup>
- 4회: 상하이 공공조계 자료<sup>6)</sup>
- 5회: 전후 접수한 적산자산 자료와 전쟁피해 조사 자료<sup>7)</sup>
- 6회: 중국 사법기관의 일본전범 심문 자료<sup>8)</sup>
- 7회: 전시 출판된 중국어 및 일본어 도서 자료<sup>9)</sup>
- 8회: 상하이사범대학 중국 ‘위안부’ 연구센터의 ‘위안부’ 역사 사진<sup>10)</sup>

## 6. 지린성 기록보관소 ‘위안부’ 자료의 발굴 정리 현황

3) 시나넷(新華網) 20150815 참고

4) 시나넷(新華網) 20150816 참고

5) 시나넷(新華網) 20150817 참고

6) 시나넷(新華網) 20150818 참고

7) 시나넷(新華網) 20150819 참고

8) 시나넷(新華網) 20150820 참고

9) 시나넷(新華網) 20150821 참고

10) 중국 중앙정부 포털사이트 2050823 참고

지린성 기록보관소에는 10만 건의 일본 중국침략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며,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자료를 공개했다.

2014년 4월에 1차 공개된 일본군 폭력을 주제로 한 89건의 자료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범죄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25건으로, 관동헌병대의 조사보고서, 《우정검열월보(郵政檢閱月報)》, 인도네시아 자바 헌병대의 《헌병월보(憲兵月報)》, 만주 중앙은행 외자과(外資課) 전화기록 등 문서 양식이 다양했다. 일부 자료는 관동군 위안소와 ‘위안부’의 소재지, 소속 및 숫자 등을 직접 드러내고 있고, 모욕당하고 학대받는 일본군 ‘위안부’의 비참한 처지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자료도 있었다.<sup>11)</sup> 만주 중앙은행 전화기록은 만주 중앙은행이 관동군 제4과와 괴뢰만주국 경제부의 승인을 거쳐 군용 공금 계정에서 위안부 자금을 지출했음을 상세하게 보여주었다. 이 자료들은 일본 정부와 군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구축에 조직을 제공하고 경비를 보장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일본군 ‘위안소’가 중국 동베이(東北), 화베이(華北), 화중(華中)에서부터 인도네시아 자바까지 있었으며, 나아가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피해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 지를 증명하였다.

2014년 7월 2차로 관동헌병대 우편검열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모두 약 450건으로, 중국 각지의 일본점령지에서 헌병대가 ‘검열’한 서신 4만 5천 통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지린성(吉林省) 기록보관소는 이 자료를 정리·연구하는 과정에서 다시 2건의 새로운 ‘위안부’ 증거를 발굴했다.

### ▶ 자료1)

일본군 하라다(原田) 부대 겐쥬(見城) 부대 다무라(田村) 팀 모리야마 도모키치(森山友吉)가 일본 하코다테(函館) 시의 이토 요시조(伊藤芳三)에게 보내는 서신의 요약문. 중국 번역문은 “내가 지금 지나(중국) 처녀와 조선 처녀의 검진 업무를 하고 있다. 소위 검진이란 여인의 음부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상하고 괴이한 모양이, 너희들은 상상조차 못할 걸, 상당히 매력적인 경우도 있다.”<sup>12)</sup>다. 이 자료는 일본 헌병이 군인의 서한을 우편검열하면서 발신인인 모리야마가 군대 소속 서열과 기밀 업무 내용을 누설하고 또한 ‘위안부’ 검진 시의 느낌을 속된 말로 기술한 것을 발견하고, 군사 기밀을 누설한 ‘비위(非違)’ 사항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자료는 비록 짧고 간단한 내용이지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역사 정보를 증명한다.

11) 장옌(莊嚴, Zhuang yan)의 국가사회과학기금 특별위탁프로젝트 《철증여산(鐵證如山)》제1부 참고

12) 지린성 기록보관소 소장 관동헌병대 우정검열 자료 J315-9-231, P73

첫째, 군대가 위안소의 위생 관리에 직접 참여했다. 군대가 위안소를 실제 운영하는 조 직자이자 보장자임을 설명한다.

둘째, 일본군 하라다 부대 소속 겐조 부대의 다무라 팀이 소재지 일본군‘위안부’의 성병 검사 임무를 담당했다.

셋째, 이 일본군 위안소에는 중국인 ‘위안부’도 있었고 조선인 ‘위안부’도 있었다.

넷째, 일본군 군의가 성병 검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여성과 일본군 직접 가해자 모두를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

▶ 자료2)

《현역 군인, 군대 복무인원 주요 불법행위 조사표》

소속: 라오헤이산(老黑山, laoheishan) 844부대

관등 및 인원수: 육군 1명

날짜: 4월 6일

내용: 외출 중 불법 ‘보드카’를 강제로 구매해 인사불성으로 취한 후 군 위안소에 가서 여 러 명의 기녀를 구타하고, 이후 다시 만주인 잡화점의 창을 깨고 판매 물품을 뒤엎 으면서 고용한 잡역부를 구타했다.

소속: 라오헤이산 844부대

관등 및 인원수: 군대 복무인원 1인

날짜: 4월 6일

내용: 외출 중 불법 ‘보드카’를 강제로 구매해 인사불성으로 취한 후, 군 ‘위안부’ 침실에 불법 침입해 거울, 유리, 전등 등 약 13엔 가치의 물품을 훼손하고, 여러 명의 ‘위 안부’를 구타했다.(역자주: 이상 두 건은 같은 페이지의 내용임에도 ‘기녀’와 ‘위안 부’라는 다른 어휘가 나타남)

이 두 건은 2014년 이후 지린성 기록보관소 소장 ‘위안부’ 자료 발굴 과정에서 새롭게 발 견된 자료이다. 일본군이 남긴 공식 문서라는 유리한 시각으로, 일본군이 직접 진행한 ‘위 안부’ 위생 관리와 ‘위안부’ 구타와 모욕이라는 역사적 사실로 “‘위안부’는 ‘민간업자’의 자유 상업 행위”라는 등의 일본 우익의 궤변을 반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린성 기록보관소 가 발굴한 일본군‘위안부’ 자료를 내용 유형의 측면에서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 로 자료 발굴 정리 및 연구 작업 과정에서 더 많은 새로운 자료가 발견될 것이다.

지린성 기록보관소가 이미 공개한 일본 중국침략 ‘위안부’ 범죄 자료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7가지 내용으로 분류된다.

- 1) 일본군 점령지 각지의 위안소 시설 상황에 관한 자료
- 2) 일본군 숫자와 ‘위안부’ 배치 비율 통계 자료
- 3) 일본군이 ‘위안소’로 가서 ‘위안부’를 이용한 인원수 통계 자료
- 4) 일본군이 공금으로 ‘위안부’ 관련 비용을 지불한 자료
- 5) 중국 및 현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 ‘위안소’에 있는 일본군인 상황에 관한 일본군 헌병대의 자료
- 6) 일본군의 ‘위안부’ 성병 검진 위생 관리 자료
- 7)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폭력 행사 자료

지린성 기록보관소가 이미 발굴한 일본군 공식 사료는 다음과 같은 ‘위안부’ 범죄 사실을 증명한다.

- 1) ‘위안부’ 피해자가 중국 각지, 한반도 및 동남아 각지 출신임을 일본군 자신이 남긴 자료를 확실한 증거로 삼아 보여주며, ‘위안부’ 문제의 국제성이라는 특징을 다시금 증명한다.
- 2) 일본 정부는 ‘위안부’를 강제 모집한 조직자이자 보장자이다.
- 3) 일본군 위안소가 광범위하게 분포했다.
- 4) 일본 군대는 ‘위안부’ 제도의 창시자이자 운영·유지한 관리자였다.
- 5) 일본 군비가 ‘위안부’ 자금의 지불 경로였다.
- 6) 일본 군대 내부에서 ‘위안부’ 성적 이용은 계급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았다.
- 7) 일본 군인의 ‘위안부’ 학대와 능욕이 보편적이었다.

지린성 기록보관소가 2014년 공개한 25건의 ‘위안부’ 자료 가운데, 6건이 일본군이 ‘위안부’에 가한 폭력 기록이었다. 새로 발견한 두 건의 자료 가운데 1건 역시 일본군이 ‘위안부’를 구타한 내용을 언급했다. ‘위안부’ 폭행 사건이 여러 일본군 부대와 관련되며, 피해여성이 여러 나라와 지역 출신임을 자료가 보여준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중국침략 자료 공개를 기반으로, 2014년 이후 지린성 기록보관소는 《철증여산(鐵證如山): 지린성 신발굴 일본 중국침략 자료 연구》[장연(莊嚴) 편

집], 《철증여산: 지린성 기록보관소 소장 일본 중국침략 우정검열월보 특집①》[인화이(尹懷, Yin huai) 편집], 《철증여산: 지린성 기록보관소 소장 일본 중국침략 우정검열월보 특집②》[인화이 편집]을 잇달아 출판했다. 현재《철증여산》 시리즈 총서의 편집 및 번역이 계속 진행 중인데, 출판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에 《철증여산: 지린성 기록보관소 소장 일본 중국 침략 우정검열월보 특집③》에서 《철증여산: 지린성 기록보관소 소장 일본 중국침략 우정검열월보 특집⑦》까지 모두 5권의 일본 중국침략 우편검열 자료 특집이 출판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추어 《철증여산》시리즈의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한국어, 불어 등 외국어 버전도 출판 준비 중이다. 현재 《철증여산: 지린성 신발굴 일본 중국침략 자료 연구》는 각 외국어 번역본이 이미 출간되었다.

2014년 이후 지린성 기록보관소는 또한 일본 중국침략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과 번역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관동헌병대 자료의 전문 디지털화 작업을 모두 완료되었으며, 모두 4,100만 자의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기록보관소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이 점차 완료되면서, 더 많은 미발굴 위안부 자료 정보가 지속적으로 공개될 것이다.

## 7. 학술적 중요성을 가진 연구 서적, 논문 및 역서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위안부’ 역사연구 및 사료발굴 작업에 참여한 인력은 매우 방대하며 성과도 풍성하다. 수많은 연구성과 가운데, 일부 대학 연구기관 소속 전문 학자의 성과물이 학술적 의미나 연구의 깊이가 있는 편으로, 대표적인 학자와 저서는 다음과 같다.

- 1) 상하이사범대학 위안부연구센터 쑤즈량(蘇智良, Su zhiliang) 교수와 부인 천리페이(陳麗菲, Chen lifei) 교수는 중국에서 위안부 연구 분야에서 업적이 탁월한 리더격 인물로 널리 알려졌다.

쑤즈량 교수는 오랫동안 실증 조사, 사료 발굴 및 일상화된 국내외 학술 교류를 통해 학술적 의미를 갖춘 일련의 저서를 완성해 왔다. 저서로는 《위안부 연구》(1999년 상하이 서점출판사 출판), 《일본군 성노예, 중국 ‘위안부’ 진상》(2000년 인민출판사 출판), 《전

시 일본군‘위안부’ 제도》 및 《중국침략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구》[중일전쟁 당시 중국인 사상자와 재산손실 조사연구 총서, 2016년 중국공산당 당사출판사 출판, 쑤즈량&야오페이(姚霏, Yao fei)&천리페이 공저] 등, 중국에서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변화 과정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 등에 대해 체계적인 해석을 진행해왔다. 천리페이 교수도 저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 비판》(2006년 중화서국출판사 출판)에서 일본군의 집단 성폭력 제도와 그 위험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파헤치면서 비판을 가했다.

2) 일본군 중국침략 폭력을 파헤치는 종합적인 저서나 ‘위안부’ 주제 이외의 전문서도 일본군이 중국에서 저지른 ‘위안부’라는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연구하고 비판하였다. 대표적인 학자와 저서는 다음과 같다.

- (1) 장셴윈(張憲文, Zhang xianwen), 장련홍(張連紅, Zhang lianhong), 왕웨이싱(王衛星, Wang weixing) 편저 《난징대학살전사(南京大屠殺全史)》, 2012년 난징대학출판사 출판
- (2) 세중허우(謝忠厚, Xie zhonghou) 편저 《일본 화북 침략 죄상 자료》
- (3) 자오링스(趙聆實, Zhao lingshi) 편저 《동북 함락 14년사 총서》
- (4)저우아이민(周艾民, Zhou aimin) 지음 《동방 마지노선의 비밀을 밝히다: 중국침략 일본군 괴뢰만주국 국경요새 실록》
- (5)성홍장(盛鴻將, Sheng hongjiang) 지음 《사무라이 칼 아래의 난징》 등

3) 각종 간행물 및 회의에서 발표된 수많은 ‘위안부’ 주제의 학술 논문에서 일본군‘위안부’ 제도에 대해 종합적이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파헤쳐왔다. 이러한 논문이 실린 학술 간행물로는 《항일전쟁연구》, 《일본침화사연구(日本侵華史研究)》, 《부녀연구논총(婦女研究論叢)》, 《이론관찰》, 《종횡》 및 각 대학 학보 공식 홈페이지 등이 있다. 논문은 수량이 방대해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다.

## 8. 외국 ‘위안부’ 연구 저서의 중문 역서

‘위안부’ 역사 문제는 세계 각국 및 지역과 연관되며, 각국 학자들이 다년 간의 불굴의 노력을 통해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구축해왔다. 중국 학계가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권의 역서를 출간해, 중국 ‘위안부’ 문제 연구에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역서는 다음과 같다.

- 1) 《중군위안부》 후난(湖南) 인민출판사 1988년 출판.  
저자: (일본)센다 가코(千田夏光), 역자: 린화이추(林懷秋, Lin huaiqiu)
- 2) 《위안부》 신화출판사(新華出版社) 2002년 출판.  
저자: (호주)조지 히스, 역자: 텡젠쥘(滕建群, Teng jianqun)
- 3) 《중군위안부-케이코(慶子)》군중출판사(群衆出版社) 1996년 출판.  
저자: (일본)센다 가코, 역자: 쉬셴청(徐憲成, Xu xiancheng)
- 4) 《전쟁과 인간: 군국주의 일본의 정신 분석》 광시(廣西) 사범대학출판사 2012년 출판.  
저자: (일본)노다 마사아키(野田正彰), 역자: 주춘리(朱春立, Zhu chunli)&류옌(劉燕, Liu yan)
- 5) 《1937: 영국 기자가 기록한 일본군의 폭력》  
저자: (영국)팀펄레이(Timperley), 역자: 양밍(楊明, Yang ming) 2005년
- 6) 《군기혈누(軍妓血淚): 천황군대와 조선위안부》  
저자: (일본)金一勉, 역자: 제상(接桑, Jie sang)&시린(溪林, Xi lin)&후이메이(慧玫, Hui mei) 등, 텐진사회과학출판사, 1993년 출판.

## 9. 중국인 생존 ‘위안부’의 대일 소송에 대한 중국 법조계 인사의 법률 지원

비록 1992년 7월 8일 중국 대륙의 ‘위안부’ 피해여성이 처음으로 일본에 제기한 배상청구소송부터 2011년의 마지막 배상청구소송까지 모조리 일본의 이심 법원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기각 당하는 등 승소한 예가 하나도 없지만, 중국 국내 법조계는 중국 피해여성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일부 일본 변호사와 줄곧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무료 법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공정성을 요구하고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힘써 왔다. 베이징시 화타이(華泰, Huatai) 변호사사무소 강젠(康健, Kang jian) 변호사가 바로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중화전국변호사협회와 중국법률원조재단이 공동으로 설립한 중국 옛 ‘위안부’ 피해사실 조사위원회에서 때마침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2007년 7월과 2008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위안부’ 피해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굳건히 지원하고 있다.

### Ⅲ. 중국 ‘위안부’ 사료 발굴 및 연구의 과제와 전망

이상과 같은 ‘위안부’ 사료 발굴·연구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중국 ‘위안부’ 사료 발굴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또한 몇 가지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도 있다.

1. 현재 중국 국내의 ‘위안부’ 사료 성과 가운데, 구술 사료와 실증 조사 성과물이 자료 자체의 발굴 성과보다 많은 듯이 보인다. 비록 구술 및 실증 조사 사료가 실제 수집 과정에서 연구인력이 막대한 희생을 종종 감내해야 하며, 게다가 연세가 많은 ‘위안부’ 피해자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남아 있는 위안소를 구하는 작업이 시급하지만, 일차사료인 원시문서 발굴이 불충분할 경우 학술 연구와 법률 활동의 깊이와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차사료의 발굴과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2. 중국 각지의 자료보관 기관이 일본의 중국침략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상당수 보존하고 있다. 정리인력의 규모, 업무계획의 배려 및 외국어 자료에 대한 업무인력의 언어 식별 능력 등과 같은 기타 객관적인 요인의 제약으로 인해, 자료정리 진도가 고르지 못해 진전이 늦다. 이러한 요인은 학술연구를 깊이 있게 진전시키는 데 직접적인 저해요인이다. 발굴을 더 힘있게 추진하여, 생존자와 경험자의 구술 사료를 살려내는 동시에 기록보관소의 ‘위안부’ 사료 발굴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다.

3. 국토가 드넓은 중국에서 옛 일본군이 침략한 지역의 경우, 비록 정도에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피해 지역이다. 일본군 위안소와 생존 ‘위안부’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벌여 더욱 정확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모아 정리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4. 전문가 학자와 사료보관 기관의 연계를 강화해 사료 발굴의 성과와 효율을 높여야 한다. ‘위안부’ 사료 발굴 방법 측면에서, 기록보관소 업무인력은 자료 발굴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풍부한 식별 경험을 가진 학자나 동료와 일상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 전시 일본은 국가와 군대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기밀 유지를 위해 이를 ‘은닉’하는 호칭을 쓰곤 했다. 관련 지식이 부족할 경우, 자료 발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례로, 일본군은 731부대로 이송하는 인원을 일본군 문서에서 ‘特移扱(특별수송)’이라는 암호로 적었으며, 일본군의 ‘세균전’은 문서로 표현할 때 기밀 유지를 위해 ‘細防(세균방역)’이라고 적는 등의 규정이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위안부’ 사료 발굴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문헌에서 자주 나타나는 ‘위안부, 안동녀(東安女)와 같은 (지명+女), (지명+P), 소녀, 작부, 아가씨, 매춘아가씨와 P옥, 매음옥, 요리옥(料理屋), 요정(料亭) 및 ‘검정(儉征)’ 등 ‘위안부’ 관련 어휘에 주목하면서, 자료가 보여주는 다른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판단해야 한다. 역사적 배경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글자와 행간에 숨어 있는 역사의 진상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5. ‘위안부’ 문제는 전후문제의 최종적 해결과 전세계 여성인권의 존엄성과 관계된 중대한 과제다. 세계각국의 학자와 연구자들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미 발굴된 ‘위안부’ 사료 정보와 연구 성과를 일상적으로 기관끼리 또는 나라끼리 교류하고 모아 내야 한다. 동시에, ‘위안부’ 자료의 유엔 기록유산 등재 공동 신청 사업을 추진해, ‘위안부’ 역사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인류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

# 日韓和解の背景となる中国における 「慰安婦」史料の発掘と研究

趙玉潔（中国吉林省档案館研究員）

## 要約

「慰安婦」の強制募集問題は戦時日本の軍国主義が犯した深刻な非人道的犯罪であると同時に、世界中の女性の人権にかかわる重要な課題である。

日本と韓国は2015年12月28日に、日韓「慰安婦」問題の交渉妥結にこぎつけた。この合意による日韓両国の和解について深く分析すると、その本質は地政学的功利主義に即した両国政府間での和解であり、お座成りな紐付きの和解に過ぎないということが直ぐ分かる。このような和解には、日本政府に対して、国家責任を認めて法的な補償を要求する一方、尊厳を取り戻したい「慰安婦」被害者たちの念願と目標が誠実に反映されていない。日本政府は旧日本軍による非人道的な犯罪の深刻性について深く認識することができず、反省もしていない。ひいては「慰安婦」という戦後処理問題を、世界中の女性の人権と尊厳という側面を取り上げ、根本的に解決することもできていない。

中国は日本軍の「慰安婦」制度による最大の被害国として、1980年代から「慰安婦」被害者に対する民間の調査が散発的ではあるが、始まっていた。これまで、専門家や民間人たちによる絶え間ない努力の賜物として、「慰安婦」制度による中国女性の人権侵害に関して注目すべき一連の研究成果を得ることができた。

日韓和解という歴史的な背景のなかで、日本軍「慰安婦」制度の形成とその実施過程を裏付ける文献資料や口述史料を継続的に発掘して研究を強化し、日本が国家と軍隊の責任を認めて責任を負うようにし、これを通して「慰安婦」被害者たちの尊厳を完全に回復させることが非常に重要かつ現実的な課題である。

キーワード：日韓和解、慰安婦、史料の発掘と研究

# I. 「慰安婦」という歴史問題に対する日本政府の一貫した態度及び日韓和解の本質

周知のように、「慰安婦」問題は、世界中の女性の人権にかかわる戦後処理問題である。旧日本軍の「慰安婦」制度に巻き添えになった被害女性は中国大陸、台湾、韓国、北朝鮮、フィリピン、ベトナム、シンガポール、ミャンマー、マレーシア、インドネシア、パプアニューギニア、オーストラリア、アメリカ、オランダ、スペイン、ロシアなどにわたっている。中国の専門家の研究によると、世界的に被害女性の規模は36-41万人を上回るものと推測しているが、そのうち中国被害女性は約20万人である<sup>1)</sup>。むろん、「慰安婦」に対する各国の推算是一致していないが、中国が日本軍の「慰安婦」制度による最大の被害国であるという結論については、世界の学者の間にコンセンサスがある。

多年にわたり、各国の学者や市民団体、法律専門家が日本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多様な観点で有意義な作業を行ってきた。具体的に検討してみると、まず「慰安婦」問題に対する公式史料を発掘・研究し、各地における生存する「慰安婦」被害者を調査・訪問して口述資料を集めた。また、日本政府に公開謝罪と国家賠償を求める一部の被害女性の訴訟を応援しサポートする一方、慰安婦歴史記念館と博物館を設立した。その他にもユネスコ（国連教育科学文化機関）に対し「慰安婦」資料の人類文化遺産への登録を申請したり、正しい歴史教育の推進など国際社会に向けて女性の尊厳と人権の擁護を発信する領域において大きく貢献してきた。しかしながら、日本政府はいまだに様々な口実をつけて、各国の被害女性に対する法的な国家賠償と国際的な公開謝罪を拒否し、抵抗している。

安倍晋三が首相に就任して以来、「慰安婦」問題に対する日本政府の政策は特に遺憾である。終戦70年という歴史的な節目にあたる2015年の一年に限って、安部首相は公式な場であやふやな態度を幾度もみせていた。終戦70年談話において、口先では村山談話の精神を受け継いでいくと繰り返す一方、実際には反省、謝罪、賠償などの肝心な問題に対して曖昧な表現で弄んでいるが、『「謝罪を続ける宿命」を背負わせてはならない』と強調した上で、お詫びをした。これは、謝罪と戦争賠償にけじめをつけたいという伏線を敷いたことにほかならない。その後、2015年12月28日、日本は韓国の「慰安婦」被害者たちに対し、韓国政府と日韓合意を妥結することで、両国関係に悪影響を及ぼしている歴史

1) 蘇智良・姚霏・陳麗菲編『侵华日军「慰安婦」問題研究』7頁

の障害物を取り払おうとした。合意の内容は次のとおりである。第一に、日本は当時の軍の関与の下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と認め、日本政府の責任を痛感している。安倍首相は、日本国の内閣総理大臣としておわ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する。第二に、日本は、韓国政府が「慰安婦基金」を設立し、両国政府が共同で『「慰安婦」被害者の方々の名誉と尊厳の回復、心の傷の癒やしのための各種事業』を行うことに使用できるように、2016年度政府予算で10億円を拠出することを約束する。第三に、合意を着実に履行するとの前提で、両国は「慰安婦」問題が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共同で確認した。あわせて、両国は、今後、国連など国際舞台で、本問題について互いに非難・批判することは控えることを約束する。

日本のこのような行動をめぐっては世界的に様々な見方がある。具体的に見てみると、潘基文国連事務総長は、「慰安婦」被害者に対する支援水準が進展したという側面で肯定的に評価しており、アメリカも日米韓における同盟関係の改善や密着による「アジア重視のリバランス戦略」の推進という観点で、この妥結を歓迎した。一方、中国は日本に対し「誠実で、責任を負う態度で」「慰安婦」問題を処理し、歴史を正しく認識して徹底的に反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促した。世界各国における「慰安婦」支援団体、学者、法律専門家などは、歴史の反省という観点で肝心な部分を回避しており、国際的な性格を有する歴史問題の解決という側面で枝葉的であり、「慰安婦」への支援措置という側面で法的な経路を回避しながら、カネにものをいわせて正義に代替することで、被害者の名誉と尊厳にかかわった重要な問題を曖昧に処理したという点で、いずれも合意内容について疑問を提起している。さらに、日韓両国の野党、市民団体及び「慰安婦」被害者たちは大きく反発し、この合意の履行に抵抗する市民運動を展開した。

報道によると、日韓「慰安婦」問題の合意に反対する韓国大学生と市民たちはソウルの日本大使館前で相次いで集会を開き、この合意の廃止を求めている。

集会の参加者は「日本が10億円で非人道的な犯罪を取り繕おうとしている」、「安部がひざまずいて涙を流しながら、私たちに謝るまで争う」と叫びながら、韓国政府の「親日」と「売国」を糾弾した<sup>2)</sup>。先日の8月26日にも3人の慰安婦被害者がソウルの慰安婦被害者支援施設で記者会見し、「韓国政府が日本からの「治癒金」を受け取ったのは、慰安婦被害者を売り渡したことにほかならない」と批判し、慰安婦被害者の名誉の回復のために日本首相が直接来て謝罪をし、日本が犯したすべての犯罪を認めることを求めている。

---

2) 参考消息、2016年1月3日8版、『韓集会要求废除「韓日慰安妇共识」』

しかし日本側はむしろ『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慰安婦」問題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済みであるという立場に変わりはない』と強調している。これは日本政府の法的責任を事実上否定するものである。だからこそ、日韓外相会談において、日本はこの10億円が法的な賠償金ではなく、道義上の援助基金であると強調したのである。さらに、安部首相は「慰安婦」被害者の個人に対しては反省と謝罪をしないと韓国側に通知し、一応合意が履行されれば両側が直ちに「慰安婦」問題の最終的かつ不可逆的な解決を確認することになる。

日韓合意の発表後に、案の定、安部首相は電話で内閣総理大臣として「慰安婦」被害者の個人でない、韓国の朴槿惠大統領に反省と謝罪を表明した。これは日韓合意で言及されている「慰安婦」という歴史問題の解決が政府間での政治的な取引であるだけであって、日本政府による責任の認定、尊厳の回復、国家賠償を求める「慰安婦」被害者の切実な念願とはかけ離れているという事実を見せつけている。

他の国の被害女性からの法的権利請求を避けるために、菅義偉官房長官は他の国・地域とは（日韓合意に）類似する合意を締結する計画はないと付け加えた。

日本が特別韓国に対してのみ、法的な経路から迂回したような「慰安婦」問題の解決方式を取ったことは、戦争犯罪を心より反省しておらず、「慰安婦」問題を完全に解決しようとする真正性もないということを物語る。日韓合意の根本は、まさにアメリカのアジア重視のリバランス戦略を促すことによる和解であると同時に、日米韓が地政学的戦略に則って進めた政治的な取引の結果である。日本が10億円という「治癒金」を支払う前提条件として「慰安婦」少女像の撤去を提示したのは、これが条件付きの真正性のない和解であって、被害者の願いに背き、公正さと正義を取り戻そうとする韓国被害女性の前途を塞ぐ和解という傍証にほかならない。このような振る舞いは日本政府が戦争犯罪を深く認識し反省せずに、むしろ世界中の女性の人権と尊厳まで軽視・無視しているという事実を裏付けている。

最近、上海師範大学で中国「慰安婦」歴史博物館が開館し、「慰安婦」彫像の除幕式が行われた。菅義偉官房長官はこの行事に対し「日中関係に肯定的な影響を及ぼすことはない」とし、遺憾の意を表明した。これは「慰安婦」資料をユネスコ記憶遺産への登録申請を妨げるなど、歴史を反省しない日本政府の誤った態度を連想させる。いずれも「慰安婦」問題の「終結」が「日韓合意」のレトリックにとどまっているだけであって、事実上の「終結」とは程遠いという事実を物語る証である。

このような背景のもと、日本軍「慰安婦」の非人道的な犯罪に関する資料と文書及び口

述史料を継続的に発掘し、研究に拍車をかけながら、日本の国家的責任と軍隊の責任を追究し、日本政府が歴史を深く反省して戦争責任を負うように促す。そして韓国の被害女性をはじめとし、全世界の「慰安婦」被害者たちの尊厳を徹底して回復し、女性の人権を擁護することは非常に重要で、現実的な意味を持つ。

## II. 中国における「慰安婦」研究の成果と史料発掘の現況及び特徴

上述のように、中国は日本軍の「慰安婦」制度による最大の被害国である。日本が中国を侵略していた14年間、中国のほとんどの地域が日本占領地や植民地として転落してしまった。旧日本軍の慰安所は、黒竜江、吉林、遼寧、内蒙古、山西、北京、天津、河北、河南、山東、江蘇、安徽、江西、湖北、湖南、上海、浙江、福建、広東、広西、雲南、貴州、海南、香港、台湾など20余りの都市と地域に広く散在している。日本軍「慰安婦」制度は、中国において最も被害範囲が広く、被害者の分布も広範囲に及んでおり、多数の民族や言語及び風俗にわたっている。また慰安所の遺跡が分散しており、戦後保存が十分行われていないために調査や統計が非常に難しいなどの特徴がある。研究の調査能力についてみると、中国において現在「慰安婦」問題の調査研究に携わる人材は、各地域の多様な業務システムによって分散しているが、これには高等教育機関（軍事学校を含む）、社会科学院、中国共産党党史研究室、国家総合档案馆、地方史志弁公室、文化財管理省庁、各級の政協（中国人民政治協商会議）の文史・学習委員会、各女性組職、文学芸術組職、地域報道機関など専門家、研究・編纂の人材及び一部史学に関心のある民間研究者、法律専門家が関わっている。多くの研究人材がそれぞれの関心分野において分散して取り組んでいるが、それは今、多様な研究成果が出ているという強みであると同時に、研究成果を体系的にまとめる上では厄介な点もある。

それにもかかわらず、数十年間にわたって、各界各層で粘り強く取り組んできた結果、中国大陸には価値のある研究書、口述資料集、遺跡調査記録、学術論文が大量に蓄積された。また歴史の厳密さを前提に「慰安婦」を題材にした、歴史的価値のある報告文学、ルポルタージュ、ドキュメンタリー、映像コンテンツも登場しており、外国における「慰安婦」研究の訳書も多数出版された。上海師範大学は、学術的な影響力を持つ中国「慰安

婦」研究センターを設立し、十分な実証調査や考証研究を基にソウルと東京に次いで「慰安婦」資料館、すなわち中国「慰安婦」資料館を世界で三番目に開館した。2015年に南京大虐殺記念館は、南京秦淮区の五老村に所在する、保存状態が最もよいアジア最大規模の日本軍「慰安所」である「利濟巷慰安所」の旧址に中国で初めて「慰安婦博物館」を設け、南京大虐殺記念館の分館として開館した。また「慰安婦」被害者が集中していた山西の孟県にある日本軍「慰安所」旧址に、民間出資による中国「慰安婦進圭記念館」をつくり、今年8月15日に正式開館した。このような成果を追い風に、中国における「慰安婦」問題の研究は大きく進展することになった。

中国における「慰安婦」を主題とする様々な研究成果を分野別に整理すると、次のとおりである。

## 1. 実証調査に基づく報告文学、ルポルタージュ作品

これらは本質的には文学作品の範疇に属するが、表現するテーマや事件及び人物が真実性を有している。著者はほとんどの場合で作家であり、一般的に実在の人物の回顧録という形で、適切に芸術的な加工を加えるが、中国における「慰安婦」集団の存在、被害女性の痛い記憶、今の暮らしなどを客観的に記述し、大衆の前に彼らの痛みを如実に描き出しながら、関心と悩みを喚起させる役割を果たす。代表的な作品は次のとおりである。

- 1) 呉海峰(1991)『中国慰安婦一戦時における軍隊売春婦機密書類の暴露』漓江出版社、著者：呉海峰（広西文学芸術界連合会所属作家）。
- 2) 江浩(1993)『公開—中国慰安婦』作家出版社、青海人民出版社、1998年改正再出刊。著者：江浩（内蒙古文学芸術界連合会所属作家）。
- 3) 曹保明(2007)『慰安婦考察手記』吉林文史出版社、著者：曹保明（吉林文学芸術系連合副主席、民俗学専門家）。
- 4) 陳慶港(2007)『真相—慰安婦調査ルポ』江蘇文芸出版社、著者：陳慶港（杭州城報新聞メディア視覚担当）。
- 5) 彭荊風(1999)『孤城日落』中国青年出版社、長編ルポ小説、著者：彭荊風（雲南作家協会副主席）。

- 6) 孫遜・江都(2015)『慰安婦の血涙』陝西太白文芸出版社、長編ルポ小説、著者：孫遜・江都（退職教員）。

## 2. 各地における日本軍慰安所遺跡、「慰安婦」被害者、旧日本兵に対する実証調査による証言記録、録音・映像資料

中国学者による日本軍慰安所遺跡に関する調査や「慰安婦」被害者と加害者の証言資料に関する調査の中には、すでに約30年も前に取り組まれてきたものもある。科学技術の発展に伴い、こうした記録も媒体の変化を受けたが紙記録、写真、録音、録画、ビデオテープなど多岐にわたる。録取者の法意識と資料の重要性が高まり、媒体記録の一部は法の公証を受けることで、資料や証拠、研究としての価値が非常に高まり歴史研究と法的訴訟においてそれぞれ参考資料と証拠及び証言として活用されてきた。その代表例は次の通りである。

- 1) 符和積編(1995)『鉄蹄下の腥風血雨—「日軍海南省暴力実録」』海南出版社、シリーズ、編集者：符和積（海南史志弁公室副主任）
- 2) 陳祖梁(2004)『血霧迷茫—雲南・ビルマにおける抗日と日本軍の罪惡の公開』雲南美術出版社、著者：陳祖梁（雲南保山史志弁公室の退職幹部）
- 3) 蘇智良・陳麗菲・姚霏(2005)『上海日軍慰安所実録』上海三聯書店。
- 4) 張双兵(2011)『トーチカの中の女性—山西日軍性奴隷調査実録』江蘇人民出版社、2015年の裁判当時、書名を『慰安婦調査実録』へ変更。著者：張双兵（山西省孟県の非正規教員）
- 5) 張国通(2015)『戦時期における日本による「慰安婦」の強制募集罪状に対する聞き取り記録』中華書局、著者：張国通（河南の撮影報新聞社主筆）
- 6) この他にも、すでに収集・整理され、出版された「慰安婦」に関する聞き取り調査資料のうち、注目すべきものとしては、各級の政協文史委員会がまとめた政協文史資料が挙げられる。政協文史委員会は中華人民共和国の成立以降、故周恩来総理の指示に従い、時期別口述資料の収集と整理及び出版作業を、全国に先駆けてかつ長期にわたり行ってきた省庁であり、1959年以降、時期別口

述資料を収集する作業に継続的に取り組んできた。各級の政協文史委員会は収集作業に当たり「三親」、即ち直接「体験する」「見る」「聞く」という原則を強調してきた。このように収集・整理された「三親」資料は、『政協文史資料』の形で定期的に刊行された。そこには日本が実施した「慰安婦」制度を直接示すものが少なくなく、「慰安婦」被害者、証人及び関係者自らが体験し、見聞きした充実した記録として知られている。

- 7) 中国侵略に関する日本軍の口述資料収集に長期間携わってきた日中口述歴史文化研究会の副会長である吉林師範大学の李素貞教授は、約20年前に日本で教鞭をとっていた時、旧日本兵を対象にインタビュー調査を行い、「慰安婦」など元日本兵の口述証言収集作業に取り組んでいた。この他にも、日本の民間人からも日中戦争期における日本兵の書簡を約2千点収集し、「慰安婦」問題にかかわる膨大な映像データ資料と実物資料を構築した。
- 8) 馬建河(2015)『罪と証拠—中国慰安婦実録』陝西人民出版社。生存する「慰安婦」のインタビューを集めた映像記録。著者：馬建河（楽清日報・中国石油報の元記者）

### 3. 歴史上実在していた人物と事件を題材にしたドキュメンタリー

実際に起きた事件や実在の人物を取り上げながら、テーマにより資料を取捨選択した成果物は真実性と娯楽性を兼ね備え、テーマも明確であるため、歴史研究としての価値と伝播力のある程度有している。その代表的な成果は次の通りである。

- 1) 『機密解除・慰安婦ストーリー』ドキュメンタリー、中国安徽省太和県康廟村に住む元「慰安婦」生存者の李天英（本名：金盖華）の実話を記録したもの。監督：魯毅
- 2) 『海南島「慰安婦」調査』ドキュメンタリー、中国慰安婦問題研究センター制作
- 3) 『三十二』ドキュメンタリー、監督：郭柯。2012年に中国に生存していた32名の元「慰安婦」を記録対象にし、タイトルに選んだ作品。
- 4) 『二十二』ドキュメンタリー映画、監督：郭柯。2014年に中国に生存していた元「慰安婦」を記録対象にし、タイトルに選んだ作品。

#### 4. 「慰安婦」を題材にして芸術的な加工を加えた創作映像

- 1) 映画『慰安婦収容所』（1995年、監督呂小竜）。広西映画製作所
- 2) 映画『慰安婦収容所』（2006年、監督陳国軍）。長春映画製作所
- 3) ドラマ『刺蝶』、『地獄の中の女性』など

#### 5. 日・中傀儡政権の機関が残した中国各級档案館及びその他の省庁所蔵の「慰安婦」資料及び文献

中国には、全国に約4,000ヵ所に及ぶ各級档案館（公文書館）があるが、档案館の一部には、日本による中国侵略の実態を示す大量の公文書が保管されている。この中には、中華民国と中華ソビエト共和国の機関が作成した資料や、中国を侵略した日本軍、日本の植民地統治機関または傀儡政権の機関が残した資料があり、お互いの違う視点から日本による中国侵略の歴史を総合的に示している。

最近、中国の各級档案館は、時期別の歴史資料の整理及び発掘作業に拍車を掛けている。歴史資料の整理作業が進むにつれて、日本軍「慰安婦」犯罪を示す公式資料が続々と発掘されている。これら資料は、日本軍「慰安婦」制度が中国及び他の地域の被害女性に対しいかに深刻な人権侵害を犯したかを如実に示している。

2014年6月に中国は、ユネスコの世界記憶遺産に、南京大虐殺資料と日本軍「慰安婦」強制動員資料の登録を申請した。『「慰安婦」、日本軍性奴隷資料』をテーマにした世界記憶遺産申請資料は、それぞれ中国中央档案館、遼寧省档案館、吉林省档案館、黒龍江省档案館、上海市档案館及び南京市档案館から集め、中国政府が戦後、接收した敵産（敵性資産）、調査した戦争被害、そして日本の戦犯に対する尋問資料、日本が占領地に樹立した傀儡政権の資料、中国侵略日本軍の残した関東憲兵隊資料、傀儡満州国中央銀行の資料及び上海共同租界の資料などである。上述した档案館以外にも、日本軍「慰安婦」犯罪に関する資料と文献を見つけた他の档案館としては、山西省档案館、内モンゴル自治区档案館、天津市档案館、河北省秦皇島市档案館、浙江省金華市档案館などが挙げられる。この他に、上海師範大学の中国慰安婦問題研究センター、中国人民解放軍軍事科学院歴史研究

部、中国人民抗日戦争紀念館及び中国一部地域の政協文史資料委員会、党史研究所、史志研究所などが多年にわたり、収集・蓄積及び保存していた多様な規模と形式の慰安婦文献資料がある。

日・中傀儡政権の機関が残した各級の国家総合档案馆所蔵の「慰安婦」資料は、真実性に富んだ一次資料という特徴を持つ。吉林省档案馆に所蔵されている日本の中国侵略資料は、日本軍と政府機関が残した和文の二次公文書で、日本が中国で行った非人道的な「慰安婦」犯罪を裏付ける確固たる証拠である。これは、反駁できない歴史証拠としての価値を有し、歴史研究や法的訴訟及び歴史教育などのために貴重な資料として活用できる。

中国中央档案馆には、日本の戦犯による書面証言が大量に保存されているが、2014年7月にインターネットで資料集『日本戦犯の中国侵略罪行自供』を公開しており、さらに2015年8月15日から『「慰安婦」—日本軍性奴隷資料』映像を計8回にかけて公開した。

- 1回：中央档案馆から日本を訪ね8人の日本戦犯兵士を直接インタビューした『日本軍「慰安婦」資料』の文献・映像<sup>3)</sup>
- 2回：日本軍の中国侵略機関の資料<sup>4)</sup>
- 3回：1938年～1945年における傀儡満州国と汪兆銘傀儡政権の資料<sup>5)</sup>
- 4回：上海共同租界資料<sup>6)</sup>
- 5回：戦後、接収した敵産資料と戦争被害調査資料<sup>7)</sup>
- 6回：中国司法機関による日本戦犯尋問資料<sup>8)</sup>
- 7回：戦時中に出版された中国語及び日本語図書資料<sup>9)</sup>
- 8回：上海師範大学の中国「慰安婦」研究センターの「慰安婦」歴史写真<sup>10)</sup>

---

3) 新華網20150815参考

4) 新華網20150816参考

5) 新華網20150817参考

6) 新華網20150818参考

7) 新華網20150819参考

8) 新華網20150820参考

9) 新華網20150821参考

10) 中国中央政府ポータルサイト 2050823 参考

## 6. 吉林省档案館における「慰安婦」資料の発掘・整理現況

吉林省档案館には10万点の日本中国侵略資料が保管されており、2014年に二度にわたってこの資料を公開している。

2014年4月に最初に公開された日本軍の暴力をテーマにした資料89点のなかには、日本軍慰安婦犯罪に関する資料が計25点あり、関東憲兵隊の調査報告書である『郵政検閲月報』、インドネシア・ジャワ憲兵隊の『憲兵月報』、満州中央銀行外資課の電話記録など、文書様式は多様である。資料の一部には、関東軍慰安所と「慰安婦」の所在地、所属及び数字などが直接記載されており、侮辱・虐待された日本軍「慰安婦」の悲惨な状況を客観的に記述する資料もあった<sup>11)</sup>。満州中央銀行の電話記録は、満州中央銀行が関東軍第四課と傀儡満州国經濟部の承認を経て、軍用公費を慰安婦資金にあてたことを詳細に示している。これら資料は日本政府と日本軍が日本軍「慰安婦」制度の構築のために組織を提供し、経費を保証していたことを裏付ける直接的な証拠であり、日本軍「慰安所」が中国の東北、華北、華中からインドネシア・ジャワまで及んでおり、さらには日本軍「慰安所」制度の被害範囲がいかに広範囲であるかを立証する。

2014年7月に二回目の資料として、関東憲兵隊の郵便検閲資料を公開した。この資料は計約450点で、中国各地における日本占領地で憲兵隊が「検閲」した手紙4万5千通が含まれていた。

最近、吉林省档案館はこれら資料を整理・研究する過程で新たに2点の「慰安婦」証拠を発見した。

### 資料1)

日本軍原田部隊の見城部隊田村チームの森山友吉が日本の函館市の伊藤芳三に送った書簡の要約文。中国語翻訳文によると、「私は今、中国と朝鮮の処女に対する検診業務に携わっている。いわゆる検診とは、女性の局所を観察する仕事だ。変で不思議な形をしていて、あなたは想像すらできない、相当魅力的なものもある<sup>12)</sup>」としている。同資料には、日本憲兵が兵士の書簡の郵便検閲を行う過程で、発信人の森山が軍隊の所属序列と機密業

11) 莊嚴の国家社会科学基金特別委託プロジェクト『鉄証如山』第1部参考

12) 吉林省档案館所蔵の関東憲兵隊郵政検閲資料J315-9-231, P73

務を漏洩し、また「慰安婦」の検診の際に感じたことを卑しい言葉で表現したことを発見し、軍事機密を漏洩した「非違」事項として処理されたと書かれている。資料は短くて簡単な内容からなっているものの、少なくとも次のような歴史情報を明らかにしている。

第一に、軍隊が慰安所の衛生管理に直接関与していたこと。軍が実際に慰安所を運営していた組織者であり、保障者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

第二に、日本軍原田部隊に属する見城部隊の田村チームが駐屯地の日本軍「慰安婦」に対する性病検査の任務を担っていたこと。

第三に、同日本軍慰安所には、中国人「慰安婦」もいたし、朝鮮人「慰安婦」もいたこと。

第四に、日本軍の軍医が性病検査を行う過程で、「慰安婦」被害女性も日本軍加害者ともに正常ではないと考えていたこと。

## 資料2)

『現役軍人軍属主要不法行為調査表』

所属：老黒山844部隊

官等及び人数：陸軍1名

日付：4月6日

内容：外出中、不法「ウォッカ」を買い取らされ、泥酔するまでに飲んだ後、軍慰安所に行き数人の妓女を殴り、その後満州人が経営する雑貨店の窓ガラスを割り、商品を壊し、働いていた雑役夫を殴った。

所属：老黒山844部隊

官等及び人数：軍属1名

日付：4月6日

内容：

外出中、不法「ウォッカ」を買い取らされ、泥酔するまでに飲んだ後、軍慰安所の寢室に不法侵入し、鏡、ガラス、電灯など約13円の器物を毀損し、数人の「慰安婦」を殴った。（訳註：上述した2件については、頁も内容も同様であるが、「妓女」と「慰安婦」という異なる言葉を使っている）

この2件は、2014年以降、吉林省档案馆所蔵の「慰安婦」資料を発掘する過程で新たに発見された資料である。日本軍が残した公文書であるという有利なものであり、日本軍が

直接実施した「慰安所」の衛生管理と「慰安婦」に対する暴行と侮辱という歴史的事実を示すもので、『「慰安婦」は民間業者による自由な商行為である』という日本右翼の主張を反論している。それとともに、吉林省档案馆が発掘した日本軍「慰安婦」資料を内容・類型の面から補完する役割を果たしている。今後、資料の発掘・整理及び研究過程で、より多くの資料が発見されると期待する。

吉林省档案馆がすでに公開した日本中国侵略に関する「慰安婦」犯罪資料を整理してみると、次の7つの内容に分けられる。

- 1) 日本軍占領地における慰安所施設の状況に関する資料
- 2) 日本軍の人数と「慰安婦」の配置比例の統計に関する資料
- 3) 日本軍が「慰安所」を訪ねて「慰安婦」を利用した人数統計に関する資料
- 4) 日本軍が公費を「慰安婦」関係費用にあてた資料
- 5) 中国及びインドネシア・ジャワ地域に設置されていた「慰安所」を利用した日本軍に関する日本憲兵隊の資料
- 6) 日本軍による「慰安婦」性病検診・衛生管理に関する資料
- 7) 「慰安婦」に対する日本軍の暴行資料

吉林省档案馆がすでに発掘した日本軍の公文書は次のような「慰安婦」犯罪事実を証明している。

- 1) 日本軍自らの資料は、「慰安婦」被害者が中国、朝鮮半島及び東南アジア出身であったことを示す確固たる証拠であり、「慰安婦」問題の国際性という特徴を改めて証明する。
- 2) 日本政府は「慰安婦」を強制募集した組織者であり、保障者であった。
- 3) 日本軍慰安所は広範囲に設置されていた。
- 4) 日本軍は「慰安婦」制度の創設者であり、運営・維持する管理者であった。
- 5) 日本軍費が「慰安婦」資金にあてられた。
- 6) 日本軍の内部では「慰安婦」の利用の際、階級によって「待遇」が違っていた。
- 7) 「慰安婦」に対する日本軍の虐待と侮辱は、日常的だった。

吉林省档案馆が2014年に公開した25点の「慰安婦」関係資料のうち、6点は日本軍が「慰安婦」に犯した暴行の記録だった。新たに見つかった2点のうち、1点も同じく日本軍による「慰安婦」暴行に触れている。資料からは、「慰安婦」暴行事件は、多数の日本軍部隊で起こり、被害女性も数カ国・地域出身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

さらに、二度にわたる日本の中国侵略関係資料の公開に基づいて、2014年以降、吉林省档案馆は、『鉄証如山：吉林省新発掘 日本の中国侵略資料研究』[編集：莊巖]、『鉄証如山：吉林省档案馆所蔵 日本の中国侵略郵政検閲月報特集①』[編集：尹懷]、『鉄証如山：吉林省档案馆所蔵 日本の中国侵略郵政検閲月報特集②』[編集：尹懷]を相次いで出版した。現在、『鉄証如山』シリーズの編集及び翻訳に継続して取り組んでおり、出版計画によると、年内に『鉄証如山：吉林省档案馆所蔵 日本の中国侵略郵政検閲月報特集③』から『鉄証如山：吉林省档案馆所蔵 日本の中国侵略郵政検閲月報特集⑦』まで全5巻の日本の中国侵略郵便検閲資料の特集が出版される予定である。これにあわせ、『鉄証如山』シリーズの英語、日本語、ロシア語、韓国語、フランス語など外国語版も準備している。現在、『鉄証如山：吉林省新発掘 日本の中国侵略資料研究』はすでに外国語版が出版されている。

その上、吉林省档案馆は2014年以降、日本の中国侵略資料のデジタル化と翻訳作業に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る。現在、関東憲兵隊資料のデジタル化作業を完了し、計4,1000万字に及ぶ中国語に翻訳された。

档案馆所蔵の資料のデジタル化作業が次第に完了すると、より多くの慰安婦関係の未発掘資料・情報が継続して公開されるだろう。

## 7. 学術上重要な研究著書、論文及び訳書

前述したとおり、中国では非常に多くの人材が、「慰安婦」に関する研究及び資料発掘作業に携わり多大な成果を上げている。多くの研究成果のうち、一部大学の研究機関に所属する専門研究者の成果が、学術上あるいは研究上意義が深いものがあり、代表的な研究者と著書は、次の通りである。

- 1) 上海師範大学の中国慰安婦研究センターに所属する蘇智良教授とその夫人の陳麗菲教授は、中国で慰安婦研究分野において卓越した成果を出した第一人者として広く知られている。

蘇智良氏は長期間にわたる実証資料、資料発掘及び日常化された国内外の学術交流を通じて、学術上価値のある一連の著書を出してきた。著書としては、『慰安婦研究』（1999年、上海書店出版社）、『日本軍性奴隷、中国「慰安婦」の真相』（2000年、人民出版社）、『戦時中における日本軍「慰安婦」制度』、『中国侵略日本軍の「慰安婦」問題研究』[日中戦争における中国人死傷者と財産被害に関する調査研究叢書、2016年、中国共産党党史出版社、蘇智良・姚霏・陳麗菲共著]など、中国で日本軍「慰安婦」制度の変化過程とそれに伴う人権侵害などについて系統立てた解釈を推し進めてきた。陳麗菲氏も著書『日本軍慰安婦制度の批判』（2006年、中華書局出版社）で、日本軍による集団性暴力制度とその危険性について深く掘り下げて研究し、批判を加えた。

- 2) 中国侵略の中で日本軍により行われた暴力を究明する著書や「慰安婦」を題材にしたものの以外の専門書も、日本軍が中国で行った「慰安婦」という非人道的な行為について研究し批判している。その代表的な研究者とその著書は次の通りである。

- (1) 張憲文・張連紅・王衛星編(2012)『南京大屠殺全史』南京大学出版社、
- (2) 謝忠厚編『日本侵略華北罪行档案』
- (3) 趙聆実編『東北陥落14年史叢書』
- (4) 周艾著『東方のマジノ線の秘密を解明する：中国侵略日本軍の傀儡満州国の国境要塞実録』
- (5) 盛鴻将著『侍刀の下の南京』など

- 3) 各種の刊行物及び会議で発表された多くの「慰安婦」関係の学術論文は、日本軍「慰安婦」制度について総合的かつ踏み込んだ研究により究明してきた。これら論文が掲載された刊行物としては、『抗日戦争研究』、『日本侵華史研究』、『婦女研究論叢』、『理論觀察』、『縦横』及び大学の学報・公式サイトなどがある。論文数は膨大な為、一つ一つを取り上げることは難しい。

## 8. 「慰安婦」関係の研究著書の中国語訳書

「慰安婦」歴史問題は世界各国・地域に関係しており、各国の学者たちは、多年にわたり絶えず努力を重ね、注目すべき研究成果を構築してきた。中国学界では、これに対する関心を継続して寄せるとともに研究を進めることで、数巻の訳書を出版し、中国における「慰安婦」問題を研究する上で有益な参考資料として活用している。代表的な訳書としては、次のものがある。

- 1) 千田夏光(1988)『従軍慰安婦』林懐秋訳, 湖南人民出版社.  
著者：(日本) 千田夏光、訳者：林懐秋
- 2) ジョージ・ヒック(2002)『慰安婦』滕建群訳, 新華出版社.  
著者：(オーストラリア) ジョージ・ヒック、訳者：滕建群
- 3) 千田夏光(1996)『従軍慰安婦—慶子』徐憲成訳, 群衆出版社.  
著者：(日本) 千田夏光、訳者：徐憲成
- 4) 野田正彰(2012)『戦争と罪責—軍国主義日本に関する精神分析』(朱春立・劉燕訳), 広西師範大学出版社.  
著者：(日本) 野田正彰、訳者：朱春立・劉燕
- 5) ハロルド・J・ティンパー(2005)『1937：イギリス記者が記録した日本軍の暴力』楊明訳  
著者：(イギリス) ハロルド・J・ティンパーリ、訳者：楊明
- 6) 金一勉(1993)『軍妓血涙：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接桑・溪林・慧玫ほか訳), 天津社会科学出版社.  
著者：(日本) 金一勉、訳者：接桑・溪林・慧玫など。

## 9. 中国の元「慰安婦」の生存者の対日訴訟に対する中国法曹界の法的支援

たとえ1992年7月8日に中国大陸の元「慰安婦」被害女性が、最初に日本政府を相手として起こした賠償請求訴訟から2011年の最後の賠償請求訴訟まで、いずれも日本の二審

の控訴審で全部または一部棄却されるなど勝訴した例は一件もないが、中国の法曹界は、中国の被害女性に対する法的支援を提供する日本の一部弁護士と協力して、被害者に無料で法的支援を行いながら、より多くの被害者が日本政府に対し公正さを求め、尊厳を取り戻せるように取り組んできた。北京市にある華泰弁護士事務所の康健弁護士は、最も代表的な人物として知られる。

中華全国弁護士協会と中国法律援助財団が共同で設立した中国元「慰安婦」被害事実調査委員会が、まさに調査結果を発表したことで（2007年7月と2008年12月の二度にわたって調査結果を発表）、「慰安婦」被害者が人としての尊厳を取り戻せるよう着実な支援を行っている。

### Ⅲ. 中国における「慰安婦」をめぐる史料の発掘及び研究課題と展望

以上のような「慰安婦」に関する史料の発掘・研究活動の全般的状況を考察すると、今後中国における「慰安婦」史料の発掘は活発になると期待されるが、それと同時に徐々に改善を必要とする問題もある。

1. 現在、中国の「慰安婦」史料・成果のうち、口述史料と実証調査の成果が資料そのものから発掘された成果より多いように見える。口述及び実証調査の資料を実際に集める過程で、研究人材は、度々想像を絶する犠牲に耐え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に加え、高齢の「慰安婦」被害者と消滅の危機に直面している慰安所を救うための取り組みが急がれる中、一次資料である原資料の発掘が十分でない、学術研究と法的活動の効果に直接影響を与えるため、一次資料の発掘と研究を強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中国各地における資料保管機関には、日本による中国侵略を示す資料が、多数保存されている。資料の整理作業にあたる人材の規模、業務計画への配慮及び外国語資料に対する業務人材の言語識別能力など、客観的な制約要因により、資料整理の進捗状況の足並みがそろわず、遅々として進んでいない。このような要因は、学術研

究の進展を直接的に妨げている。発掘に一層積極的に取り組み、生存者と体験者の口述史料を活かすとともに、档案馆による「慰安婦」資料の発掘能力を継続的に高めていくことが長期的課題である。

3. 広大な国土を有する中国で、旧日本軍が侵略した地域は、程度の差はあるにせよ、その大半は日本軍「慰安婦」制度の被害地域である。日本軍慰安所と生存している「慰安婦」を対象に、全国調査を実施し、より正確で総合的な状況を集め、整理する作業も喫緊の課題だ。
4. 専門研究者と資料保管機関との連携を強化し、資料発掘の成果と効率を上げるべきだ。「慰安婦」資料の発掘資料の面から見ると、档案馆のスタッフは、資料発掘により効率よく取り組むために、識別能力を備える経験豊かな学者や同僚と頻繁に交流する必要がある。日本は戦時中に国と軍隊による国際法違反を隠し、機密を保持するために、「隠匿名称（通称号）」を使っていた。関連知識が乏しいと、資料発掘に悪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例えば、日本軍は人々を731部隊へ移送する時に、「特移扱（とくいあつかい）」という暗号を書類に書いており、日本軍の「細菌戦」は機密保持上、「防疫」と書くなどの規定が定められていた。こうした状況を「慰安婦」資料の発掘過程で見つけられるかどうかについて十分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例えば、「慰安婦」についてこれまでの文献で頻繁に登場するものとしては、「東安女」といった（地名+女）、（地名+P）、女郎、酌婦、お嬢さん、売春お嬢さんがあり、慰安所についてはピー屋、淫売屋、料理屋、料亭及び「検征」など「慰安婦」関係の用語に注目しながら、資料に含まれた他の関連情報を参考して判断すべきである。歴史的背景を分析・研究することで、文字間、行間に隠された歴史の真相を追究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
5. 「慰安婦」問題は、戦後問題の最終的解決と世界中の女性の人権と尊厳にかかわる重要な課題である。世界各国の学者や研究者が交流と協力を強めるとともに、すでに発掘された「慰安婦」関係の資料・情報と研究成果を頻繁に機関同士または国同士で交換し、収集しなければならない。同時に「慰安婦」に関する資料をユネスコの世界記憶遺産へ登録する共同申請事業を展開し、「慰安婦」問題の最終的な解決につなげ、人類の恒久的な平和に貢献しなければならない。

# 日韩和解背景下 中国“慰安妇”史料的发掘与研究

赵玉洁 (中国吉林省档案馆研究馆员)

## 内容提要

强征“慰安妇”是日本军国主义在二战期间犯下的严重反人道罪行，也是事关全球女性人权问题的重要课题。

2015年12月28日，日本与韩国达成了解决“慰安妇”历史问题日韩协议。研读分析协议带来的两国和解，不难看出其实质是两国政府基于地缘政治的功利性的和解，是有条件无诚意的和解。这种和解并未真正体现“慰安妇”受害群体要求日本政府承担国家责任、从法律意义上获得赔偿，从而恢复尊严的愿望和目标。说明日本政府对旧日军反人道罪行的严重性并没有深刻认识和反省，更没有将“慰安妇”战争遗留问题上升到关系全球女性人权尊严的高度彻底解决。

中国是日军“慰安妇”制度的最大受害国。上世纪八十年代已零星开始“慰安妇”受害者的民间调查。多年来，经过专家学者及民间人士的不懈努力，在“慰安妇”制度对中国妇女人权侵犯的一系列课题上取得了令人瞩目的研究成果。

在日韩和解历史背景下，继续深入挖掘反映日军“慰安妇”制度形成实施过程的档案文献、口述史料并加强研究，推动日本承认并承担国家和军队责任，全面恢复“慰安妇”受害群体尊严，具有非常重要的现实意义。

关键词：日韩和解 慰安妇 史料发掘、研究

## 一、日本政府对“慰安妇”历史问题的一贯态度及日韩和解的实质

众所周知，“慰安妇”问题是关系全球女性人权的战争遗留问题。旧日军“慰安妇”制度波及下的受害妇女遍布中国大陆、台湾地区、韩国、朝鲜、菲律宾、越南、新加坡、缅甸、马来西亚、印度尼西亚、巴布亚·新几内亚、澳大利亚、美国、荷兰、西班牙、俄罗斯等众多国家和地区。据中国方面专家研究推算，全世界受害妇女总量达36-41万人之多，其中中国受害女性约达20万人<sup>1)</sup>。当然，在“慰安妇”群体数字的推算上，虽然各国学术界不尽一致，但中国是日军“慰安妇”制度最大的受害国这一结论，仍是各国学者的研究共识。

长期以来，各国学者、市民团体及法律界人士围绕日军“慰安妇”问题展开了多方面有意义的工作。通过挖掘研究“慰安妇”问题的官方史料、调查走访各地幸存“慰安妇”受害者，收集口述资料；声援和帮助部分受害妇女提起诉讼，要求日本政府公开道歉并实施国家赔偿；建立慰安妇历史纪念馆、博物馆；向联合国教科文组织申请“慰安妇”档案入遗，推动正确的历史教育等等，为警示国际社会维护女性尊严与人权做出了卓越贡献。但迄今为止，日本政府仍以各种理由抵制和拒绝从法律层面针对各国受害妇女进行国家赔偿及在国际上公开谢罪。

现任首相安倍晋三执政以来，日本政府针对“慰安妇”问题的施策犹为令人遗憾。仅在纪念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70周年重要节点的2015年，安倍首相的数次公开表态都表现得闪烁其词，飘忽不定。在纪念二战结束70周年谈话中，口称继承村山谈话精神，实际大玩文字游戏，在反省、道歉、赔偿等关键问题上暧昧、遮掩，明确强调“不愿再背负‘谢罪的宿命’”，为其后终结道歉、谢罪及战争赔偿埋下伏笔；2015年12月28日，日本专门针对韩国“慰安妇”受害群体，与韩国政府达成日韩协议，试图以此消除影响两国现实关系的历史屏障。协议内容主要有三项。一是日本承认军方对大量女性带来名誉与尊严的深重伤害，承认日本政府责任。安倍首相以日本内阁总理大臣身份对此表示谢罪和反省。二是日本承诺从2016年政府预算中出资10亿日元，供韩国政府建立“慰安妇基金会”，用于两国共同开展“恢复‘慰安妇’受害者名誉和尊严、治愈受害者心灵创伤的各种项目”。三是在充分履行协议的前提下，双方共同确认“慰安妇”问题最终和不可逆的解决。双方承诺今后在联合国等国际场合保持

---

1) 苏智良 姚霏 陈丽菲 编著《侵华日军“慰安妇”问题研究》P7

克制，避免在该问题上再度相互指责。

日本这一举动引起国际社会的广泛评议：从推进“慰安妇”受害者援助进程角度，联合国秘书长潘基文对此给予了积极评价；从改善和密切日美韩盟国关系，推进“亚太再平衡战略”层面，美国乐看其成；中国则敦促日本“本着诚实和负责任的态度”处理“慰安妇”问题，切实正确认识和深刻反省历史；而针对协议内容在反省历史上避重就轻、在解决具有国际性的历史问题上以偏盖全、在援助“慰安妇”措施上回避法律渠道，以金钱取代正义，在涉及受害者名誉尊严的重要问题上模糊处理的做法，各国“慰安妇”支援团体、学者、法律界人士均广泛提出质疑；日、韩两国在野党、市民团体及“慰安妇”受害者强烈反对并多次发起抵制协议实施的市民运动。

据报道，反对日韩“慰安妇”问题共识的韩国大学生及市民们相继在首尔的日本大使馆前举行集会，要求废除共识。集会的人们高喊“日本想以10亿日无抹掉非人道罪行”，“要一直战斗到安倍屈膝流泪向我们道歉”，指责韩国政府“亲日”、“卖国”。<sup>2)</sup>刚刚过去的8月26日，又有3名慰安妇受害者，选择在首尔的慰安妇受害者援助设施召开了记者会，批判“韩国政府接受日本‘治愈金’，是等同于出卖慰安妇受害者；要求日本首相亲自当面道歉，承认日本所犯下的所有罪行，以恢复慰安妇受害者的名誉”。

但日方却强调“基于1965年日韩请求权协定，“慰安妇”问题已最终且完全解决的立场没有改变”。这实际上否定了日本政府的法律责任。因此，日、韩国外长会晤时，日方强调这10亿日元资金是基于道义上的援助基金，而非法律意义上的赔偿金。告知韩方安倍首相不会针对“慰安妇”受害者个人进行反省和道歉，并且协议一旦履行，双方即告确认“慰安妇”问题得到最终且不可逆的解决。

日韩协议公布后，安倍果然只通过电话，以内阁总理大臣身份，向韩国总统朴槿惠而非“慰安妇”受害者个体表示了反省和道歉。这表明，日韩协议言及的“慰安妇”历史问题的解决，只是政府之间的政治交易，并没有真正实现“慰安妇”受害者要求日本政府承担责任，恢复尊严和国家赔偿的真实心愿。

为了避免来自其他国家受害妇女的维权追索，日本官方长官菅义伟特别申明，日本没有与其他国家和地区签署类似协议的计划。

很显然，日本针对韩国一国采用非法律途径解决“慰安妇”历史问题的做法，既没有诚意反省战争罪行，也没有诚意彻底解决“慰安妇”遗留问题。日韩和解根本就是

---

2) 《参考消息》2016. 1. 3第8版《韩集会要求废除“韩日慰安妇共识”》

美国亚太再平衡战略催生下的和解，是日、韩、美基于地缘政治战略所进行的政治交易的结果。日本在支付10亿日元“治愈金”前设定以移除“慰安妇”少女像为前提条件，更加说明这是有条件、无诚意的和解，是违背受害者意愿、断送韩国受害妇女争取公平正义之路的和解。这些举动证明，日本政府并未深刻认识和反省战争罪行，恰恰表现出的是对全球女性人权尊严问题的轻漫和蔑视。

近期，上海师范大学中国“慰安妇”历史博物馆开馆并新设“慰安妇”雕像典礼。针对这一事件，日本官房长官菅义伟以“此举不会给日中关系带来正面影响”表示遗憾。这让人联想到日本政府对“慰安妇”档案申报世界记忆遗产名录问题上百般阻挠、不愿反省历史的错误态度。由此看出，“慰安妇”历史问题的“终结”只是停留在“日韩协议”文本中，现实当中离“终结”还有相当远的距离。

在这种背景下，继续深入挖掘反映日军“慰安妇”反人道罪行的档案文献、口述史料并加强研究，进一步追究日本国家和军队的责任，敦促日本政府深刻反省历史，承担战争责任，彻底恢复包括韩国受害妇女在内的全球“慰安妇”受害群体尊严，维护女性人权，具有非常重要的现实意义。

## 二、中国“慰安妇”研究成果及史料发掘的现状与特点

如前所述，中国是日军“慰安妇”制度的最大受害国。日本侵华14年中，中国绝大多数省份沦为日占区、殖民地。旧日军慰安所遍及中国黑龙江、吉林、辽宁、内蒙古、山西、北京、天津、河北、河南、山东、江苏、安徽、江西、湖北、湖南、上海、浙江、福建、广东、广西、云南、贵州、海南、香港及台湾等20多个省、区、市。日军“慰安妇”制度在中国具有侵害范围大，受害人分布广，多民族、多语种、多风俗，慰安所遗存分散、战后保护不充分，调查统计难度大等特点；从研究调查力量上看，中国目前从事“慰安妇”问题调查研究人员分布在各省、自治区、直辖市所属多个工作系统。包括高等院校（含军事院校）、社会科学院、中共党史研究室、国家综合档案馆、地方史志办公室、文物管理部门、各级政协文史委员会、各级妇女联合会、文学艺术界联合会、各地新闻单位等专家学者、编研工作者及部分对历史研究感兴趣的民间研究人员、法律界人士。调研队伍庞大，且各自为战、各有侧重。这种状况导致现有研究成果多元、异彩纷呈，但缺乏全局性、系统性，全面整合不易。

尽管如此，几十年来经过各方人士的不懈努力，中国内地仍形成了一大批极具价值的研究专著、口述史料汇编、遗址调查实录、学术论文，在坚持历史严肃性的前提下，还衍生出许多颇具历史价值的“慰安妇”主题报告文学、纪实文学作品、纪录片、影视作品，国外“慰安妇”研究的译著也有多部出版。上海师范大学建立了颇具学术影响力的中国“慰安妇”研究中心，并在充分的实证调查、考证研究的基础上，继首尔、东京之后，建立了世界上第三个“慰安妇”资料馆——中国“慰安妇”资料馆；2015年南京大屠杀遇难同胞纪念馆利用位于南京秦淮区五老村街道的亚洲地区最大保存最完整的利济巷日军“慰安所”旧址，建成了中国大陆首座“慰安妇”主题博物馆，并作为南京大屠杀纪念馆分馆；在“慰安妇”受害者集中的山西盂县日军“慰安所”旧址，民间人士出资建成了“中国‘慰安妇’进圭纪念馆”，也于本年8月15日正式开馆。这些成果大幅推进了中国“慰安妇”问题研究的进程。

中国国内“慰安妇”主题研究成果多样，主要类别如下。

### **(一) 基于实证调查撰写的报告文学、纪实文学作品。**

这类成果本质上应属文学作品范畴，但其所表现的主题事件人物具有真实性。著作人大多为作家，一般采取真人回忆录兼以合理的艺术加工，对中国“慰安妇”群体的存在、受害妇女的苦难经历、生存状况进行客观描述，使得这一苦难群体得以生动地呈现在公众视野，从而引发关注和思考。代表性成果有：

1. 《中国慰安妇：一部揭露战地军妓的秘密档案》，漓江出版社1991年出版。著者：吴海峰，广西文联作家；
2. 《昭示：中国慰安妇》，作家出版社1993年出版及青海人民出版社1998年修改再版。著者：江浩，内蒙古文联作家；
3. 《慰安妇考察手记》，吉林文史出版社2007年出版。著者：曹保明，吉林省文联副主席，民俗学专家；
4. 《真相：慰安妇调查纪实》江苏文艺出版社2007年出版。著者：陈庆港，杭州《城报》传媒视觉总监。
5. 《孤城日落》长篇纪实小说，中国青年出版社1999年出版。著者：彭荆风，云南省作家协会副主席
6. 《慰安妇血泪》长篇纪实小说。陕西太白文艺出版社2015年出版，著者：孙逊，江都退休教师。

## (二) 对各地日军慰安所遗址和“慰安妇”受害者、原日本兵实证调查形成的口述文字记录、录音、影像资料。

中国学者开展日军慰安所遗址调查以及“慰安妇”受害者、加害者的口述资料调查最长的已有三十多年。随着科技手段的进步，这些记录经历了载体的变迁，种类有纸质记录、照片、录音、录像、视频等。随着采录者法律意识及档案意义的逐步增强，一些载体记录还进行了法律公正，因此此类成果一般具有很高的史证价值和研究价值，能够在历史研究及法律诉讼中用于研究参考、提供佐证。代表性成果有：

1. 《铁蹄下的腥风血雨——侵琼日军暴行实录》丛书，海南出版社1995年出版。  
主编：符和积，海南史志办副主任。
2. 《血雾迷茫——滇缅抗日及日军罪恶揭秘》，云南美术出版社2004年出版。  
著者：陈祖梁，云南保山史志办退休干部
3. 《上海日军慰安所实录》，上海三联书店2005年出版。著者：苏智良、陈丽菲
4. 《炮楼里的女人——山西日军性奴隶调查实录》江苏人民出版社2011年出版，2015年再版易名为《慰安妇调查实录》。著者：张双兵 山西孟县民办教师
5. 《二战时期日本强征“慰安妇”罪行采访纪实》，中华书局2015年出版。著者：张国通，河南摄影报主编。
6. 在已收集整理汇集出版的“慰安妇”口述史料中，不可忽视的还有各级政协文史委员会形成的政协文史资料。政协文史委员会是中华人民共和国成立后，根据已故周恩来总理指示，在全国范围内最早且长期开展各时期口述史料收集和整理出版的部门。自1959年以来，一直坚持进行各历史时期口述史料的收集工作。各级政协文史委收集工作强调“三亲”即亲历，亲见，亲闻，收集整理完毕的“三亲”史料以《政协文史资料》形式定期结辑出版。其中不乏直接反映日军实施“慰安妇”制度的部分，堪称中国国内“慰安妇”当事人、见证人和知情者亲历、亲见、亲闻的忠实记录。
7. 长期从事侵华日军口述资料收集工作的日中口述历史文化研究会常务副会长、吉林师范大学教授李素贞女士，20多年前在旅日讲学期间，以前日本侵华老兵为采访对象，开展了包括“慰安妇”史实在内的日军侵华老兵口述证言的调查采集。此外，还在日本民间收集到二千余件侵华时期日本军人信

件，形成了颇具规模的“慰安妇”主题影像数据资料和实物资料。

8. 《罪与证——中国慰安妇实录》陕西人民出版社2015年出版，是采访幸存“慰安妇”形成的影像记录。著者：马建河，原《乐清日报》、《中国石油报》记者。

### **(三) 反映真实历史人物、事件的纪录片。**

这类成果一般针对真实的人物事件，按照一定的主题进行资料取舍，成果具纪实性和观赏性，主题鲜明，具有一定的历史研究价值和感染力。代表性成果有：

1. 《解密·慰安妇的故事》，纪录片。以生活在中国安徽省太和县康庙村的韩国人“慰安妇”幸存者李天英(金盖华)身世为记录对象。编导：鲁毅。
2. 《海南岛“慰安妇”调查》，纪录片，中国慰安妇问题研究中心拍摄。
3. 《三十二》纪录片，导演郭柯。以拍摄当时中国仅存的32名（2012年）“慰安妇”幸存者作为记录对象并作片名。
4. 《二十二》，纪录电影，导演郭柯。以拍摄当时中国仅存22名“慰安妇”幸存者（2014年）为记录对象并作片名。

### **(四) 以“慰安妇”为主题艺术创作加工的影视作品。**

1. 电影《慰安妇集中营》1995年广西电影制片厂，导演吕小龙。
2. 电影《慰安妇集中营》2006年出品，长春电影制片厂，导演陈国军。
3. 电视剧《刺蝶》、《地狱中的女人》等多部。

### **(五) 中国各级综合档案馆及其他部门所存中、日、伪傀儡政权、机构遗存的“慰安妇”档案、文献。**

中国有各级国家综合档案馆4000余个，其中一些档案馆保管着大量反映日本侵华实态的官方文书档案：既有中华民国及中华苏维埃政权机构形成的档案，也有侵华日军、日本殖民机构或伪政权机构遗留的档案，从不同的历史视角全方位反映了日本侵略中国的历史。

近年来，中国各级国家综合档案馆加快了各时期历史档案的整理发掘工作。随着历

史档案整理工作的进展，反映日军“慰安妇”罪行的官方档案被陆续发掘出来。这些档案，真实地反映了日军“慰安妇”制度给中国及其他国家受害妇女带来的深重人权灾难。

2014年6月，中国启动了南京大屠杀档案和日军强征“慰安妇”档案的申遗工作。以《“慰安妇”——日军性奴隶档案》为主题的申遗档案，分别来自中国中央档案馆、辽宁省档案馆、吉林省档案馆、黑龙江省档案馆、上海市档案馆和南京市档案馆所保管的战后中国政府接收被占资产、调查战争损失以及审讯日本战犯形成的档案、日本在占领区扶植建立的伪政权档案、侵华日军关东宪兵队档案、伪满洲中央银行档案以及上海公共租界警务处档案等。除上述档案馆外，其他已经发掘出日军“慰安妇”罪行档案文献的综合档案馆还有山西省档案馆、内蒙古自治区档案馆、天津市档案馆、河北省秦皇岛市档案馆、浙江省金华市档案馆等。此外还有上海师范大学慰安妇问题研究中心、中国人民解放军军事科学院历史研究部、中国人民抗日战争纪念馆及中国部分省市县政协文史资料委员会、党史研究机构、史志研究机构等，经多年收集、积累，也保存的数量不等、形式各异的慰安妇文献资料。

各级国家综合档案馆中保存的中、日、伪政权机构遗存“慰安妇”档案，具有原始性，真实性。以吉林省档案馆为例，其所存日本侵华档案，是日本侵华军、政机构自身遗留下来的用日文书写的原始官方文书，是日本侵华“慰安妇”反人道罪行的如山铁证，具有无可辩驳的史证价值，是进行历史研究、法律诉讼及历史教育等不可多得的第一手资料。

中国中央档案馆保存有大量日本战犯的笔供记录。曾于2014年7月，在互联网上公布了《日本战犯的侵华罪行自供》档案；2015年8月15日又发布了专题视频《“慰安妇”——日军性奴隶档案》。这部专题视频共分8集。

- 第一集：中央档案馆赴日面对面采访8名日本侵华战犯老兵形成的《日军“慰安妇”档案》文献电视片。<sup>3)</sup>
- 第二集：日本侵华机构形成的档案材料。<sup>4)</sup>
- 第三集：1938年——1945年伪满洲国和汪精卫伪傀儡政权形成的档案。<sup>5)</sup>
- 第四集：上海公共租界档案。<sup>6)</sup>

---

3) 参见新华网20150815

4) 参见新华网20150816

5) 参见新华网20150817

6) 参见新华网20150818

第五集：战后接收日占资产档案和调查战争损失档案<sup>7)</sup>。

第六集：中国司法机关审讯日本侵华战犯形成的档案<sup>8)</sup>。

第七集：发布了战时出版的中日文图书资料<sup>9)</sup>。

第八集：发布了来自上海师范大学中国“慰安妇”研究中心的“慰安妇”历史照片<sup>10)</sup>。

## (六) 吉林省档案馆“慰安妇”档案的发掘整理情况

吉林省档案馆保管着10万卷件日本侵华档案。2014年

曾分两批向社会公布了日本侵华档案。

第一批2014年4月份公布的以日军暴行为主题的89件档案中，反映日军慰安妇罪行的共计25件。档案有关东宪兵队的调查报告、《邮政检阅月报》、印尼爪哇宪兵队《宪兵月报》、满洲中央银行外资课电话记录等多种文书形式。一些档案直接反映了关东军慰安所和“慰安妇”所在地点、所属以及数量情况，有些则客观记述了日军“慰安妇”被欺侮、受虐待的悲惨经历等等<sup>11)</sup>。满洲中央银行电话记录详细反映了满洲中央银行经关东军第四课和伪满洲国经济部批准，以军用公款科目，划拨慰安妇资金的史实。这些档案是日本政府和军队为日军“慰安妇制度”的建立提供组织和经费保障的直接证据，档案显示日军“慰安所”从中国东北、华北、华中一直到印尼爪哇，进一步证实了日军“慰安妇”制度危害的广泛性。

第二批2014年7月公布的关东宪兵队邮政检阅专题档案。这部分档案共约450件，涉及被各日占区宪兵队“检阅”信件4.5万封。

近期，吉林省档案馆在对该部分档案整理研究过程中，又发掘出2件“慰安妇”档案新证。

### 档案1：

日军原田部队见城部队田村队森山友吉写给日本函馆市伊藤芳三的信件节略。中译文是“我现在做支那（中国）姑娘和朝鲜姑娘的检诊工作。所谓检诊，就是观看女人

7) 参见新华网20150819

8) 参见新华网20150820

9) 参见新华网20150821

10) 参见中国中央政府门户网站2050823

11) 见庄严主编国家社会科学基金特别委托重大项目——《铁证如山》第一部分

的阴部。奇形怪状的，你们很难想象，有的感觉相当有魅力。”<sup>12)</sup>档案显示，日本宪兵在对军人信件实施邮政检查中，发现写信人森山泄露军队所属序列和涉密工作内容，并以猥琐语言描述为“慰安妇”检诊时的心理感受，被作为泄露军机的“非违”事项受到处理。档案虽没有太多文字，但其至少证实以下历史信息：

一是军队直接参与慰安所的卫生管理。说明军队是慰安所实际运行的组织者和保障者。

二是日军原田部队所属见城部队田村队承担对所在地日军“慰安妇”的性病检查任务。

三是该日军慰安所既有中国人“慰安妇”，也有朝鲜人“慰安妇”。

四是日军军医实施性病检诊过程中，对“慰安妇”受害女性与日军直接侵害者怀有同样的不轨心理。

#### 档案2：

《现役军人、军队服务人员主要非法行为调查表》

所属：老黑山八四四部队

官等级、人数：陆军1人

时间：4月6日

内容：外出中，强行购买禁止出售的“伏特加”，酩酊大醉后到军慰安所殴打数名妓女，之后又打碎了满人杂货店的窗户，推倒了出售的货品，殴打了雇佣的杂役。

所属：老黑山八四四部队

官等级、人数：军队服务人员1人

时间：4月6日

内容：外出中，强行购买了禁止出售的“伏特加”，酩酊大醉后，私闯军“慰安妇”寝室，损坏了镜子、玻璃、电灯等物品，价值约13日元，还殴打了数名“慰安妇”。（译者注：以上两件为同一页内容，却出现了“妓女”和“慰安妇”两个词汇。）

这两份档案是继2014年后，吉林省档案馆馆藏“慰安妇”档案发掘方面的新发现，它从日军遗留官方文书的有利视角，以日军直接进行“慰安妇”卫生管理以及殴打、

---

12) 吉林省档案馆馆藏关东宪兵队邮政检阅档案J315-9-231 P73

凌辱“慰安妇”的历史事实，驳斥了日本右翼关于“‘慰安妇’是‘民间业者’的自由商业行为”等狡辩；同时，对吉林省档案馆已发掘日军“慰安妇”档案在内容类型上是一个充实和完善。相信在今后的档案发掘整理和研究工作中，还会有更多新的发现。

梳理总结吉林省档案馆已公布日本侵华“慰安妇”罪行档案情况，可细划为七个方面内容：

1. 关于日军占领区各地慰安所设施状况的档案；
2. 日军兵员数及“慰安妇”配置比例的统计档案；
3. 日军到“慰安所”利用“慰安妇”的人数统计档案；
4. 日军用公款支付“慰安妇”相关费用的档案；
5. 日本宪兵队关于日本军人在中国及今印度尼西亚爪哇地区“慰安所”情况的档案；
6. 日军对“慰安妇”实施性病检诊卫生管理的档案。
7. 日军对“慰安妇”施暴档案。

吉林省档案馆已发掘日军官方史料可证实如下“慰安妇”罪恶史实：

1. “慰安妇”受害者来自中国各地、朝鲜半岛及东南亚各地，以日军自身遗留档案的确凿证据，再次验证了“慰安妇”问题的国际性特征；
2. 日本政府是强征“慰安妇”的组织者、保障者；
3. 日军慰安所分布广泛；
4. 日本军队是“慰安妇”制度的始作俑者和运营维系的管理者；
5. 日军军费被作为“慰安妇”资金支付渠道；
6. 日本军队内部利用“慰安妇”泄欲按官兵等级，实施差别“待遇”；
7. 日本军人虐待、凌辱“慰安妇”具有普遍性。

吉林省档案馆2014年公布的25件“慰安妇”专题档案中，有6件为日军对“慰安妇”施暴记录。新发现的两件档案中有一件也涉及日军殴打“慰安妇”内容。档案显示，施暴“慰安妇”事件涉及多支日军部队、受害妇女来自多个国家、地区。

此外，在两次集中公布日本侵华档案的基础上，2014年以来，吉林省档案馆相继出版了《铁证如山——吉林省新发掘日本侵华档案研究》庄严主编；《铁证如山——吉

吉林省档案馆馆藏日本侵华邮政检阅月报专辑①》尹怀主编；《铁证如山——吉林省档案馆馆藏日本侵华邮政检阅月报专辑②》尹怀主编。目前，《铁证如山》系列丛书仍在持续编译中，按照出版计划，年内将有《铁证如山——吉林省档案馆馆藏日本侵华邮政检阅月报专辑③》至《铁证如山——吉林省档案馆馆藏日本侵华邮政检阅月报专辑⑦》共5卷日本侵华邮政检阅档案专辑出版发行。与此相应的《铁证如山》系列英、日、俄、韩、法等外文版本也在出版准备中。目前，《铁证如山——吉林省新发掘日本侵华档案研究》各外文版本已出版发行。

2014年以来，吉林省档案馆也加快了日本侵华档案的数字化整理和翻译工作。目前已全部完成关东宪兵队全宗档案的全文数字化工作，档案译成中文达4100万字。

随着馆藏档案数字化工作的逐步完成，相信将有更多尚未发掘出来的慰安妇档案信息得到持续公开。

### **(七) 具有学术意义的研究专著、论文及译著。**

如前所述，中国参与“慰安妇”历史研究及史料发掘工作的人员队伍庞大，成果丰富。在林林总总的研究成果当中，一部分来自大学研究机构的专家学者成果更具学术意义和研究深度。代表学者及著作有：

1. 上海师范大学慰安妇研究中心苏智良教授及其夫人 陈丽菲教授，是中国内地公认的慰安妇研究领域卓有建树的领军人物。

苏教授基于长期的实证调查、史料发掘以及常态化的国

内外学术交流，完成了更具学术意义的系列著述。其著作《慰安妇研究》（1999年上海书店出版社出版）、《日军性奴隶. 中国“慰安妇”真相》（2000年人民出版社出版）；《二战时期的日军“慰安妇”制度》以及《侵华日军“慰安妇”问题研究》（抗日战争时期中国人口伤亡和财产损失调研丛书）（2016年中共党史出版社出版，苏智良 姚霏 陈丽菲共同编著）等，对日军“慰安妇”制度在中国的演进过程及带来的人权侵害等进行了系统阐释。陈丽菲教授所著《日军慰安妇制度批判》（2006中华书局出版社出版），也对日军集体性暴力制度及其危害进行了深层面的研究、揭露和批判。

## 2. 部分揭露日军侵华暴行的综合性著作或非“慰安妇”

专题著作也对日军在华“慰安妇”反人道罪行进行了一定程度的研究和批判。代表学者及著作有：

- (1) 张宪文、张连红、王卫星主编《南京大屠杀全史》，  
2012年南京大学出版社出版）；
- (2) 谢忠厚主编《日本侵略华北罪行档案》；
- (3) 赵聆实主编《东北沦陷十四年史丛书》；
- (4) 周艾民著《东方马其诺防线大揭秘——侵华日军伪满洲国境要塞群实录》
- (5) 盛鸿将著《武士刀下的南京》等。

3. 各类期刊及会议发表的大量“慰安妇”专题学术论文，对日军“慰安妇”制度进行了全面、深入的研究和揭露。刊载这些论文的学术期刊如《抗日战争研究》、《日本侵华史研究》《妇女研究论丛》、《理论观察》、《纵横》以及各大学学报、官网等。论文数量庞大，不一一列举。

## (八) 外国“慰安妇”研究专著的中文译著。

“慰安妇”历史问题波及世界很多国家和地区。各国学者经过多年不懈努力，形成了令人瞩目的研究成果，中国学界对此给予了持续的关注和研究，出版了多部译著，为中国“慰安妇”问题研究提供了有益的借鉴。代表性译著有：

1. 《随军慰安妇》湖南人民出版社1988年出版。  
著者：（日）千田夏光，译者：林怀秋。
2. 《慰安妇》新华出版社2002年出版。  
著者：（澳）乔治·希克斯，译者：滕建群。
3. 《随军慰安妇——庆子》群众出版社1996年出版。  
著者：（日）千田夏光，译者：徐完成。
4. 《战争罪责——一个日本学者关于侵华士兵的调查》广西师范大学出版社2012年出版。著者：（日）野田正章，译者：朱春立、刘燕。
5. 《1937：一名英国记者实录的日军暴行》  
著者：（英）田伯烈，译者：杨明。2005年

## 6. 《军妓血泪——天皇军队与朝鲜慰安妇》

著者：（日）金一勉，译者：接桑、溪林、慧玫等 天津社会科学院出版社，1993年出版。

### （九）中国法律界人士对幸存中国人“慰安妇”对日诉讼的法律援助。

尽管自1992年7月8日中国大陆“慰安妇”受害妇女首次向日本提出索赔诉讼到2011年最后一批索赔诉讼，均被日本两级法院全部或部分驳回，无一胜诉，但中国国内法律界一直与给予中国受害妇女法律援助的部分日本律师团结协作，坚持对受害者提供免费法律援助，并致力于使更多受害者向日本政府讨回公道，恢复尊严。北京市华泰律师事务所康健律师，就是其中最具代表性的一个。

中华全国律师协会与中国法律援助基金会还共同成立了中国原“慰安妇”受害事实调查委员会，适时发布调查结果，（曾于2007年7月和2008年12月公布过阶段性调查结果），成为“慰安妇”受害者恢复做人尊严的坚实后盾。

#### 三、中国“慰安妇”史料发掘与研究的课题与展望

从上述“慰安妇”史料发掘研究的综合情况看，中国“慰安妇”档案史料在发掘方面仍有很大空间，同时存在一些问题需要逐步修正。

- （一）从现有中国国内已发掘“慰安妇”史料成果来看，口述史料和实证调查成果似多于档案史料的发掘成果。尽管口述及实证调查史料在实际收集过程中常常需要研究人员付出难以想像的艰苦努力，且随着“慰安妇”受害者年事已高或遗存慰安所面临消失，抢救工作迫在眉睫，但作为一次史料的原始文书发掘不够，将直接影响学术研究和法律活动的纵深度与史证效果，所以一次史料的发掘与研究亟待加强。
- （二）中国各地档案保管机构保存相当数量反映日本侵华活动的档案。限于整理人员数量、工作计划安排以及其他客观因素如工作人员对外档案的语言识别能力等影响，相关档案整理进度不尽一致，进展缓慢。这些因素直接妨碍了学术研究的推进和深入。加大发掘力度，在抢救幸存者和亲历者口述史料的同时，继续扩大档案馆发掘“慰安妇”史料的发掘能力是一个长期课题。

(三) 中国幅员广阔，旧日军侵略所及之处，相当地区都受到日军“慰安妇”制度不同程度的侵害。对日军慰安所和幸存“慰安妇”开展全国性的专题调查，并汇总出更加准确全面的情况，也是一个刻不容缓的课题。

(四) 加强专家学者与史料保管机构的互联互促，提高史料发掘效率、效果。

在“慰安妇”史料发掘方法上，档案馆工作人员特别需要与有丰富辨识经验的学者或同行进行经常性交流，以使档案史料的发掘达到事半功倍的效果。

战时日本对违反国际法的国家、军队行为，常采用“隐匿”称谓达到保密效果。如果缺乏相关知识，给档案史料的发掘就会带来不利影响。比如，日军在向731部队移送人员在日军文书中被隐匿称为“特移扱”；而日军“细菌战”在文书表达时为保密起见则被规定为“细防”等等。这些情况是否在“慰安妇”史料发掘中也会遇到，就应引起足够重视。比如对迄今为止档案文献中经常出现的“慰问妇、(地名+女)如东安女、(地名+P)、女郎、酌妇、姑娘、野鸡姑娘；P屋、淫卖屋、料理屋、料亭；以及“检征”等一类与“慰安妇”问题相关词汇，就应注意参考档案文件所提供的其他相关信息进行判定，通过对史实背景的分析研究，揭示隐藏在字里行间的历史真相。

(五) “慰安妇”问题是关系到战争遗留问题最终解决和全球女性人权尊严的重要课题。各国学者和研究人员应加强沟通、协作，对已发掘出的“慰安妇”史料信息和研究成果保持经常性的馆际或国际的交流与整合；推进“慰安妇”档案共同申报联合国记忆遗产工作，切实可行地推动“慰安妇”历史问题最终解决，为人类持久和平做出贡献。

# Korea-Japan Reconciliation and Chinese Research into ‘Comfort Women’ Issue and Evidence Collection Efforts

Zhao Yujie\*

## Abstract

The forcible recruitment of ‘comfort women’ during World War II was a heinous crime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Japanese Imperialism, which also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rights of women the world over.

On December 28, 2015, Japan and South Korea reached an agreement on how to address the ‘comfort women’ issue. However, on careful perusal, one quickly realizes that the reconciliation that may result from this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amounts to nothing more than reconcili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Japan and South Korea based on geopolitical utilitarianism and a conditional reconciliation utterly lacking in sincerity. Such a reconciliation is far from the outcome hoped for by surviving ‘comfort women’ victims who have demanded a state-level recognition of Japan’s responsibility and legal compensation from Tokyo as only this can restore their injured honor and dignity. Not only did Tokyo failed to fully recognize the gravity of an inhumane crime perpetrated by the wartime Japanese military, but also proved itself incapable of offering fundamental solutions to this postwar problem in acknowledgement of its larger implications for the rights and dignity of women all over the world.

China was the biggest victim of the so-called ‘comfort women’ system. Research on ‘comfort women’ victims has been conducted since as early as the 1980’s on private initiatives, albeit sporadically at the beginning. The efforts made by experts and private citizens over the decades have yielded some remarkable results on how the human rights of Chinese women were violated by the ‘comfort women’ system.

---

\* Zhao Yujie is a researcher at the Jilin Provincial Archive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recent step toward historical reconcili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o continue with the effort to discover documentary evidence and oral testimony that can help expose the reality of the ‘comfort women’ system by the Japanese military and expand research on how this system was put in place and how it was implemented. This is essential in order to force Japan to recognize and bear its responsibility as a nation and for the actions of its military and to thoroughly restore the honor and dignity of ‘comfort women’ victims.

Keywords: Korea-Japan reconciliation, comfort women, discovery and study of historical sources/documentary evidence

Zhao Yujie is a researcher at the Jilin Provincial Archives.

## **I . Long-held Stance of the Japanese Government on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e Reality of Korea-Japan Reconciliation**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is a postwar problem that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rights of women across the world requires no further explanation. Victim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by the wartime Japanese military are found in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from the Chinese continent, Taiwan, South and North Korea to the Philippines, Vietnam, Singapore, Myanmar, Malaysia, Indonesia, Papua New Guinea, Australia, the US, Netherlands, Spain and Russia. According to an expert estimate from the Chinese side, as many as three hundred sixty to four hundred ten thousand women worldwide were forced into sexual enslavement by this system. Of this figure, about two hundred thousand are Chinese nationals.<sup>1)</sup> While countries vary in their estimate of the number of victims, none will question the fact that China was the biggest victim of the ‘comfort women’ system.

Over the years, there has been meaningful research into the ‘comfort women’ issue by scholars, citizens’ organizations and legal experts of many countries, conducted from various different perspectives. Concretely, the research effort has consisted, on the one hand, in discovering and

---

1) Su Zhiliang, Yao Fei and Chen Lifei, *Zhongguo qin lue Ri jun ‘wei an fu’ wen ti yan jiu*, Beijing: Zhonggong dangshi chubanshe, 2016, p7.

studying official historical sources, and, on the other hand, in gathering oral histories by visiting and interviewing surviving ‘comfort women’ victims. Moreover, legal assistance has been offered to those victims who have decided to sue the Japanese government for a public apology and state-level compensation. Memorial halls and museums dedicated to the history of ‘comfort women’ have also been set up. Finally, records on ‘comfort women’ have been included in UNESCO’s World Heritage list, and initiatives toward a ‘proper’ history education have been undertaken, making major contributions, in the process, toward increasing the awareness of women’s rights issues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spite of i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hown great reluctance to agree on legal compensation or issue a public apology bef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der various pretexts.

Tokyo’s stance on the ‘comfort women’ issue since the Abe Shinzo administration came to power is particularly regrettable and alarming. During 2015 alone, the 70<sup>th</sup>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Prime Minister Abe was exceedingly vague on several occasions when he was asked, during public appearances, to state his position on the issue. In a statement on the occasion of the 70<sup>th</sup>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war, all the while saying that his administration will adhere to the basic line of the Murayama statement, Abe resorted to vague wording concerning key issues, such as unequivocal expression of remorse, apology and compensation, in what amounted to nothing more than a play with words. For instance, the emphasis Abe placed on his view that Japan’s future generations must not be “predestined to apologize” foreshadowed his later move to put an end to the issues of apology, reparations and compensation once and for all. Later, on December 28 of the same year, Japan reached an agreement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garding the Korean ‘comfort women’ victims; ostensibly an attempt to eliminate historical obstacles negatively aff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highlights of this agreement are as follows: First, Japan acknowledges that its military severely injured the honor and dignity of countless women and recognizes the responsibility of its government. Prime Minister Abe Shinzo apologizes and expresses his remorse in his capacity as the head of the Japanese Cabinet. Second, Japan commits to disburse JPY 1 billion, from its government’s 2016 budget, to the ‘Comfort Women Fund’ that will be establish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finance joint projects by the two countries to restore the honor and dignity of ‘comfort women’ victims and heal their psychological wounds. Third, the two countries acknowledge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would be finally and irreversibly resolved if all agreed conditions were fulfilled. The two countries further agree to refrain from criticizing each

other over the issue at the United Nations and elsewhere.

The world community reacted to this move by Japan in various different ways. To give concrete examples, UN Secretary Ban Ki-moon positively assessed this development for the progress it represents in terms of compensation toward ‘comfort women’ victims. The US welcomed it as the resulting enhancement of the US-ROK-Japan alliance and closer trilateral tie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can only facilitate and advance its ‘rebalancing strategy’ in Asia. China, on the other hand, urged Japan to approach the ‘comfort women’ issue “with a sincere and responsible attitude” so that it may lead to a correct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a true remorse. Meanwhile, ‘comfort women’ support groups, scholars and legal experts in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expressed misgivings about the contents of this agreement. They pointed out that the agreement skirts central issues such as those related to historical remorse and that it was tangential at best as a solution to a major historical issue having an international scope. They further noted how legal channels were avoided in delivering compensation and how money substituted for justice in what appears to be a less than clear-cut resolution to an important issue affecting the honor and dignity of victims. Moreover, the agreement was strongly protested by the opposition parties of South Korea and Japan, citizens’ groups and ‘comfort women’ victims, who have launched movements to repeal it.

According to press reports, a large crowd of South Koreans, many of them students, have been gathering outside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to demand that this agreement be repealed. The protesters shouted slogans such as “Japan wants to cover up crimes against humanity with 1 billion yen” or “We will continue our fight until Abe comes down on his knees and apologizes in tears” and denounced their government for what they called “pro-Japanese betrayal” and “treason.”<sup>2)</sup> More recently, on August 26 of this year, three victims held a press conference in a ‘comfort women’ support facility located in Seoul and criticized the Korean government, saying, “It’s no different from selling the ‘comfort women’ victims for Japanese “healing funds.” They demand that in order to truly restore the honor of the victims, the Japanese Premier must come forward and personally apologize to them, acknowledging all crimes perpetrated by Japan.

However, the Japanese side is reiterating their previous position, stating, “Our position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was fully and finally resolved with the 1965 Korea-Japan Claims Agreement remains unchanged.” This is a de facto denial of Japan’s legal responsibility on the part of its

---

2) “Protest in Korea, Demanding the Repeal of the Korea-Japan Comfort Women Agreement,” Cankao xiaoxi, Jan. 3, 2016, p.8.

government. It precisely explains why during the bilateral talk between the Japanese and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s, the Japanese side stressed that JPY 1 billion in question was not provided as legal compensation, but was aid funds offered as a moral gesture. Furthermore, Japanese Premier Abe notified the Korean side that he would not apologize individually to ‘comfort women’ victims. Also, as was said earlier, the two countries agreed to consider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is finally and irreversibly resolved if all agreed-upon conditions are met.

As a matter of fact,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the conclusion of the Korea-Japan agreement, Abe Shinzo called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on the phone, and not the surviving ‘comfort women’ victims, to express remorse and apologize. This makes it very clear that the resolu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as mentioned in this agreement, is a mere political deal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nd has very little to do with a sincere recognition of responsibility by Tokyo demanded by the victims, the restoration of their dignity or state-level compensation they hoped for.

To avoid legal claims from women from other countries, Japanese Chief Cabinet Secretary Suga Yoshihide added that they have no plan to enter into a similar agreement with other countries.

The fact that Japan adopted this approach of bypassing legal channels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only for Korea is telling of its utter lack of remorse about war crimes it committed and also suggests that it has never had a real intention to fully resolve the issue. This agreement was prompted by the need of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the interest of the US’s rebalancing strategy in Asia and was the result of a political deal made based on the geopolitical strategy between the US, Korea and Japan. Japan, for instance, conditioned the disbursement of the promised sum of JPY 1 billion won on the removal of the ‘comfort women’ memorial statue in Seoul. A reconciliation that is contingent on such a condition cannot be a true or sincere reconciliation and is only meant to obstruct the Korean victims’ attempts to seek fairness and justice. What transpires from these various statements and actions i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feels no genuine compunction about Japanese war crimes and has no respect for women’s rights worldwide, if not downright making a mockery of them.

At the ‘Comfort Women’ Museum of History recently opened at Shanghai Normal University, an unveiling ceremony of ‘comfort women’ statues was held. Japan’s Chief Cabinet Secretary Suga Hideyoshi commented on this event, saying that its impact on China-Japan relations would not be positive. This statement is yet another reminder of the Japanese government’s reprehensible stance on

this issue. Not only did Tokyo fail to draw proper lessons from Japan's wartime past, but it also tried to block the bid to include 'comfort women' records in the list of world documentary heritage. All of these actions prove the fact that the so-called 'resolu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is a mere word in the text of the Korea-Japan Agreement and is a travesty of a resolution.

In light of this situation, one can hardly exaggerate the importance of continuously discovering documentary evidence and collecting oral testimony to expose this crime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the Japanese army and strengthening research into the topic. At the same time, we must also continuously demand Japan to recognize its responsibility as a nation and acknowledge the responsibility of its military. We must urge the Japanese government to sincerely face Japan's wartime past and admit the injustices perpetrated by it so that the dignity of Korean victims as well as other 'comfort women' worldwide can be thoroughly restored, and the rights of women respected and protected.

## **II . Current Status of Chinese 'Comfort Women' Research and Evidence Collection Efforts and Characteristics Thereof**

As was already said, China is the biggest victim of Japan's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During the fourteen-year Japanese invasion of China, most regions fell to invading forces, eventually becoming either occupied territories or colonies of Japan. 'Comfort stations' run by the wartime Japanese military were found in some twenty cities and regions across China, including Heilongjiang, Jilin, Liaoning, Neimenggu (Inner Mongolia), Shanxi, Beijing, Tianjin, Hebei, Henan, Shandong, Jiangsu, Anhui, Jiangxi, Hubei, Hunan, Shanghai, Zhejiang, Fujian, Guangdong, Guangxi, Yunnan, Guizhou, Hainan, Hong Kong and Taiwan. The damage from the 'comfort women' system was most severe as well as most extensive geographically in China, affecting women of various different ethnicities. The fact that former sites of 'comfort stations' are scattered across a large geographical expanse has made the postwar preservation effort more difficult and presents challenges in the conduc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tatistics. As for available research capacity, currently in China, research workers involved in the 'comfort women' issue belong to various different types of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located across the country. Some of them are experts and research

and publishing workers belonging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cluding military academies) and social science academies, and others employees of Chinese Communist Party history offices, the State Archives Administration, local offices of histor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s or the cultural and historical records committees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CPPCC) in various regions. There are also private citizens and legal professionals interested in history who are members of women's organizations, art and literature organizations or employees of local press companies. The availability of vast research human resources is an advantage in terms of diversity of results as they conduct research in their respective areas of interest. On the other hand, this also makes it daunting to gather and manage research outcomes to create a comprehensive body of knowledge.

Despite this, thanks to the unwavering efforts of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over several decades, China currently has an extensive and valuable research literature and a colossal body of oral history documentation, field research records and academic papers. Moreover, historically rigorous reportage literature works, documentaries and videos and films have appeared on the subject of 'comfort women.' Many foreign research works on 'comfort women' have also been translated into Chinese. Shanghai Normal University has recently set up a research center dedicated to Chinese 'comfort women,' staffed with eminent and influential scholars, and opened a Chinese 'comfort women' archives, the third of its kind worldwide after the ones in Seoul and Tokyo. In 2015, the first 'comfort women' museum in China was constructed by the Nanjing Massacre Memorial Hall as one of its branches, at the former site of Lijixiang 'comfort stations,' the largest complex of this type located in Wulao Village in Qinhai, Nanjing. Furthermore, on August 15, 2015, a memorial hall honoring the memories of 'comfort woman' Jingui, whose construction was financed by private citizens opened its doors. All of these achievements have provided a great momentum for research into Chinese 'comfort women.'

Chinese research accomplishments on the subject of 'comfort women' are summarized below by field:

## **1. Reportage Literature Based on Historical Research**

Although works of this type are literary in essence, they nevertheless display factual rigor concerning both the events and characters they present. These works, mostly authored by literary

writers, are often written in the style of a memoir by an actual victim, while making use of an appropriate degree of artistic license. As objective accounts on the existence of Chinese ‘comfort women,’ describing the painful memories of the surviving victims and the lives they are currently leading, these works help awaken public interest in their plight and spark a societal debate through a vivid portrayal of their suffering. Below are some examples of reportage literature on ‘comfort women’:

(1) Wu, Haifeng, Zhongguo: [Chinese Comfort Women: Classified Documents on Wartime Military Prostitutes Exposed], Guilin: Lijiang chubanshe, 1991.

\*Wu, Haifeng is a writer belonging to the Guangxi Literary and Art Circles Federation.

(2) Jiang, Hao, Zhaoshi: Zhongguo wei an fu – kua guo kua shi dai diao cha bai pi shu [Exposé: Chinese Comfort Women – An Investigation Across the Boundaries of Nations and Times], Xining: Qinghai renmin chubanshe, 1998.

\*Jiang Hao is a writer belonging to the Neimenggu Literary and Art Circles Federation.

(3) Cao, Baoming, Wei an fu kao cha shou ji [Investigative Notes: the Comfort Women], Changchun: Jilin wenshi chubanshe, 2007.

\*Cao Baoming is the Vice-President of the Jilin Federation of Literary and Art Circles and a folklorist.

(4) Chen, Qinggang, Zhen xiang: [Truth: Reportage on Comfort Women], Nanjing: Jiangsu wenshi chubanshe, 2007.

\* Chen Qinggang is the bureau chief of the Hangzhou Daily News.

(5) Peng, Jingfeng, Gu cheng ri luo [Sunset in the Isolated City], Beijing: Zhongguo qingnian chubanshe, 1999.

\*Peng jingfeng, the author of this reportage novel, is the Vice-President of the Yunnan Writers’ Association.

(6) Sun Xun, Wei an fu xue lei [Blood and Tears of the Comfort Women], Xian: Taibai wenyi chubanshe, 2015.

\* Sun xun is a retired teacher residing in Jiangdu.

## 2. Oral histories Collected from Visiting Former ‘Comfort Station’ Sites and Interviewing Victims and Japanese War Veterans and Video and Audio Recordings

The investigations of former sites of ‘comfort stations’ and oral history projects interviewing victims and former Japanese soldiers have been carried out in some case for over thirty years. With the recent technological progress, the types of media used for recording oral testimony have changed as well. Today, they range from paper documents to photographs, audio and video records. Thanks to the growing legal awareness of those who document oral histories, in tandem with the increasing importance recognized to these records, today, many of them are high-quality, court-certified records, used as sources in historical research and accepted as evidence or testimony in trials. Noteworthy examples of them are as follows:

(1) Fu, Heiji (ed.), *Tie ti xia de xing feng xue yu: Ri jun qin qiong bao xing shi lu* [Bloody Crimes of the Occupation Rule: Records of the Atrocities Committed by the Japanese Military], Hainan: Hainan chubanshe, 1995.

\*Fu Heiji, the editor, is the Deputy Chief of the Provincial History Office in Hainan.

(2) Chen, Zuliang, *Xue wu mi mag: Dian Mian kang Ri ji Ri jun zui e jie mi* [Enshrouded in the Mist of Blood: Anti-Japanese Struggles in Yunnan and Myanmar and Crimes by the Japanese Military Exposed], Kunming: Yunnan meishu chubanshe, 2004.

\*Chen zuliang is a retired senior official of the History Office of Baoshan, Yunnan.

(3) Su, Zhiliang and Chen, Lifei, *Shanghai Ri jun wei an suo shi lu* [Veritable Record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Stations in Shanghai], Shanghai: Sanlian shudian, 2005.

(4) Zhang, Shuangbing, *Pao lou li de nu ren: Shanxi Ri jun xing nu li diao cha shi lu* [Women inside the Bastion: Veritable Records of an Inquiry into the Japanese Military’s Sex Slaves in Shanxi], Jiangsu: Renmin chubanshe, 2011.

\*The title of the book was changed to *Wei an fu diao cha shi lu* [Veritable Records of the Inquiry into Comfort Women] at the time of its reprint in 2015. Zhang Shuangbing, the author, is a part-time teacher residing in Yuxian, Shanxi.

(5) Zhang, Guotong, [Records of Interviews on the Crime of Forcible Recruitment of Comfort Women by Wartime Japan], Beijing: Zhonghua shuju, 2015.

\*Zhang Guotong is the editor-in-chief of the Sheyingbao, a daily newspaper based in Henan.

(6) Otherwise, there are also an important body of oral testimony by ‘comfort women’ victims collected and published by the Literature and History Committees of the CPPCC in various regions. The Literature and History Committee of the CPPCC was the first government organization to carry out a project to collect, compile and publish oral histories related to this wartime practice by the order of the late Zhou Enlai, the inaugural Premi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nder this project which is also the longest project of its kind undertaken in China, oral accounts have been continuously collected since 1959 for different time periods. The Literature and History Committees of the CPPCC in various parts of China emphasize the first-handedness of witness accounts they collect according to the so-called principle of ‘san guin’ [three directness] which refers to first-hand experience, first-hand witnessing and first-hand hearing. The accounts so collected are published on a regular basis as a series known as the “CPPCC Literature and History Sourcebook.” As many of them contain compelling accounts that are directly revealing of the ‘comfort women’ system, they are considered highly reliable sources of information that faithfully record what the Chinese victims, witnesses and others involved in this system saw and experienced.

(7) Li Suzhen, the Vice-President of the Society for Japan-China Oral History and Cultural Research and a professor at Jilin Normal University has devoted many years to the collection of oral testimonies by former Japanese soldiers who were deployed in the Sino-Japanese War. Her ‘comfort women’ oral history project began some twenty years ago when she was teaching in Japan and started to interview former Japanese soldiers. She also collected close to two thousand pieces of letters written by soldiers during the Sino-Japanese War from private sources, building an impressive body of ‘comfort women’-related evidence, some of which are in video format.

(8) Ma, Jianhe, [Crime and Evidence: Veritable Records of Chinese Comfort Women], Taiyuan: Shanxi renmin chubanshe, 2015.

\*Ma Jianhe, the author of this collection of videos of surviving ‘comfort women,’ is a reporter who has worked for the Reqingribao and the Zhongguoshiyoubao.

### **3. Documentaries Based on Real Historical Events and Persons**

While based on real historical events and persons, these documentaries take the liberty of highlighting certain facts rather than others depending on the chosen theme. Interesting and fun without sacrificing factual accuracy, they tend to be thematically clear and can offer some historical insights as well as have the ability to bring the subject matter to the forefront of the public consciousness. Below are some notable examples of works in this category:

- (1) A documentary about Li Tianying, a surviving Korean ‘comfort woman’ (real name Kim Hap-hwa) residing in Kangmiao Village of Taihe Prefecture, Anhui, directed by Lu Yi.
- (2) Hainan dao ‘wei an fu’ diao cha [‘Comfort Women’ Inquiry in Hainan Island], a documentary produced by the Research Center for Chinese Comfort Women at Shanghai Normal University.
- (3) 32 , a documentary directed by Guo Ke, whose title was chosen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were thirty-two surviving ‘comfort women’ victims in China at the time of its filming (2012).
- (4) 22, a documentary directed by Guo Ke, whose title refers to the fact that only twenty-two ‘comfort women’ victims were still surviving in China at the time of its filming (2014).

### **4. Movies and Other Fictional Video Works on the Theme of ‘Comfort Women’**

- (1) Wei an fu shou rong suo [Comfort Women Camp], directed by Lu, Xiaolong, Nanning: Guangxi Film Studio, 1995.
- (2) Wei an fu shou rong suo [Comfort Women Camp], directed by Chen, Guojun, Changchun: Changchun Film Studio, 2006.
- (3) Television series: Ci die [Assassination of the Butterfly], [Women In Hell], etc.

### **5. ‘Comfort Women’-related Records from Past Chinese, Japanese and Manchukuo Government Institutions in the Collection of National Archives and Government Agencies**

There are four thousand total national archives in China. A number of these archives have reams of official records that can cast light on the reality of the Japanese invasion of China. Some are records created by the government institu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Chinese Soviet Republic, and some others those by Japanese colonial institutions or institutions of the puppet regime of Manchuria. These records varying in historical perceptions they embody together offer a broad overview of the Japanese invasion of China.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accelerated efforts by various national archives to organize their materials into a comprehensive body of records and discover new materials. As progress is made in this effort, a slew of new official evidence on the 'comfort women' system run by the Japanese military are emerging from across China. The newly-uncovered evidence lays bare the truth of the 'comfort women' system and clearly shows what grave injuries were inflicted on the women of China and other countries in this human rights disaster of an unprecedented scale.

In June 2014, China undertook preparatory steps for its bid to obtain world documentary heritage status for historical records on the Nanjing Massacre and the forcible recruitment of 'comfort women.' Records submitted under the heading of "‘Comfort Women’: Records on the Japanese Military's Sexual Slaves' were records of enemy assets acquired by China's postwar government, war damage records and war criminal-interrogation records, records pertaining to the puppet regime set up by Japan in the occupied territory in Manchuria, those related to the Kwantung Military Police and Manchukuo's central bank and the police records of the Shanghai International Settlement, which were gathered from the Central Archives of China, Liaoning Provincial Archives, Jilin Provincial Archives, Heilongjiang Provincial Archives, Shanghai Municipal Archives and the Nanjing Municipal Archives. Aside from the above archives, others such as the Shanxi Archives, Neimenggu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Archives, Tianjin Municipal Archives, Hebei Provincial Archives, Qinhuangdao Municipal Archives, and the Municipal Archives of Jinhua, Zhejiang also have uncovered new documents and records exposing the 'comfort women' system. Otherwise, the Research Center for Chinese 'Comfort Women' at Shanghai Normal University, History Research Department of the Academy of Military Sciences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a number of regional Literature and History Committees of the CPPCC and Chinese Communist Party history offices and historical chronical research centers hold collections of 'comfort women'-related documents of varying sizes and types, acquired and accumulated over many years.

These ‘comfort women’ records from Chinese, Japanese and Manchukuo government institutions that are held at national archives in various locations are factual primary sources that provide fact-based evidence. For instance, war documents in the collection of the Jilin Provincial Archives are official documents by the Japanese government and military, written in Japanese, that provide conclusive evidence regarding inhumane crimes committed by Japan in China under the so-called ‘comfort women’ system. These documents, invaluable as irrefutable evidence of Japanese crimes, are also priceless for historical research and education and for building court cases against Japan.

There are massive quantities of hand-written testimonies by Japanese war criminals at the Central Archives of China. In July 2014, a collection of confessions by Japanese World War II criminals was published on the internet. Later, on August 15, 2015, a video series, titled ‘Comfort Women’: Archives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s and consisting of eight installments was uploaded on the internet.

1<sup>st</sup> Installment: Transcripts and Video recordings of the interviews of eight Japanese World War II criminals conducted in Japan, in the collection of the Central Archives of China.<sup>3)</sup>

2<sup>nd</sup> Installment: Records of wartime Japanese military institutions in China.<sup>4)</sup>

3<sup>rd</sup> Installment: 1938-1945 records of the Manchukuo regime and Wang Jingwei’s puppet regime.<sup>5)</sup>

4<sup>th</sup> Installment: Records of the Shanghai International Settlement.<sup>6)</sup>

5<sup>th</sup> Installment: Enemy assets acquired in the postwar era and war damage and casualties.<sup>7)</sup>

6<sup>th</sup> Installment: Records of interrogation of Japanese war criminals by Chinese judiciary institutions.<sup>8)</sup>

7<sup>th</sup> Installment: Books published during the war in Chinese and Japanese.<sup>9)</sup>

---

3) <http://www.xinhuanet.com>, accessed on August 15, 2015.

4) <http://www.xinhuanet.com>, accessed on August 16, 2015.

5) <http://www.xinhuanet.com>, accessed on August 17, 2015.

6) <http://www.xinhuanet.com>, accessed on August 18, 2015.

7) <http://www.xinhuanet.com>, accessed on August 19, 2015.

8) <http://www.xinhuanet.com>, accessed on August 20, 2015.

9) <http://www.xinhuanet.com>, accessed on August 21, 2015.

8<sup>th</sup> Installment: Historical photographs of ‘comfort women’ in the collection of the Research Center for Chinese ‘Comfort Women’ at Shanghai Normal University.<sup>10)</sup>

## 6. Documentary Evidence on ‘Comfort Women’ at Jilin Provincial Archives

The Jilin Provincial Archives has in its collection close to 100,000 pieces of documentary evidence on the Japanese invasion of China. In 2014, a selection of them were shown to the public on two separate occasions.

Twenty-five of eighty-nine total items that are evidence of atrocities committed by the Japanese army shown during the first exposition in April 2014 had to do with ‘comfort women.’ They are an eclectic set of documents, ranging from reports by the Kwantung Military Police to monthly postal censorship reports, monthly military police reports by the Java Military Police in Indonesia and the telephone records of the Foreign Capital Office of Manchukuo’s central bank. Some of these documents contain the precise locations of the Kwantung Army’s ‘comfort stations’ and ‘comfort women,’ the names of units to which they belong and their numbers, with some others objectively describing the brutal and humiliating treatment to which ‘comfort women’ were subjected.<sup>11)</sup> As for the telephone records of Manchukuo’s central bank, these documents reveal in great detail how comfort women-related expenditures were paid from the Japanese army’s account at this bank, with the approval of the 4<sup>th</sup> Division of the Kwantung Army and the Manchukuo Ministry of Economy. These documents constitute direct evidence to the fac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nd military provided organizational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fort women’ system and funded its operation. ‘Comfort stations’ run by the Imperial Japanese Army existed in places like Dongbei, Huabei and Huazhong as well as in far-flung Java, Indonesia. These documents clearly show just how vast the geographical area affected by the of ‘comfort women’ system was.

The second exposition in July 2014, records of postal censorship by the Kwantung Military Police were made public. These records, close to four hundred fifty in number, were displayed along with 45,000 letters that had been ‘inspected’ by the Japanese military police in occupied territories in

---

10) Chinese government portal (<http://www.gov.cn>), accessed on August 23, 2015.

11) See *Tie zheng ru shan I* by Zhuang Yan, a special project commissioned by the National Social Science Research Fund.

China.

More recently, the Jilin Provincial Archives happened onto two new pieces of ‘comfort women’-related evidence during the process of sorting and classifying records in its collection.

### Item 1.

Summary of a letter by Moriyama Tomokichi belonging to the Tamura Company of the Genjo Battalion of the Harada Division to Ito Yoshijo, resident of Hakodate, Hokkaido:

The Chinese translation reads: “I am currently in charge of inspecting Chinese and Korean girls. The so-called inspection is really about examining women’s private parts. You’ll never guess how strange and freakish they look. Sometimes, they can be quite fascinating.”<sup>12)</sup> The record states that it came to the postal inspector’s attention that Moriyama’s letter contained information about the army’s structure and hierarchy and described what he felt during the medical examinations in crude language, and that it was therefore selected for violation of military secrecy rules. Although rather brief and simple in its content, this record is important evidence pointing to the following facts:

Firstly, the army directly participated in the control of hygiene at ‘comfort stations.’ This therefore confirms that the army was the de facto operator and sponsor of the ‘comfort stations.’

Secondly, the Tamura Company of the Genjo Battalion of the Harada Division was in charge of conducting screening for venereal diseases on local ‘comfort women’ serving the army.

Thirdly, there were both Chinese and Korean ‘comfort women’ in the Japanese military’s ‘comfort stations.’

Fourthly, the Japanese army medical officer performing screening for sexually-transmitted diseases looked upon both ‘comfort women’ who were the victims and Japanese soldiers who were the direct aggressors as abnormal.

---

12) Kwantung Military Police postal censorship records in the collection of the Jilin Provincial Archives, J315-9-231, P73.

## Item 2.

Table listing misconduct by servicemen and other army staff:

Affiliation: 844<sup>th</sup> Laoheishan Battalion

Rank and number of persons: 1 army serviceman

Date: April 6

Description: During an outing, the serviceman made an illegal and forcible purchase of vodka and heavily inebriated himself. He then went to the army comfort station and attacked and battered several prostitutes there. Later, he shattered the window of a convenience store owned by a Manchurian man, knocked over merchandise and assaulted a handyman who works at the store.

Affiliation: 844<sup>th</sup> Laoheishan battalion

Rank and number of persons: 1 army staff member

Date: April 6

Description: During an outing, he made an illegal and forcible purchase of vodka and consumed it until heavily inebriated. He then broken into the bedrooms of army ‘comfort women’ and destroyed about thirteen yen worth of fixtures including glass panes, mirrors and lamps and battered several ‘comfort women’ (Chinese translator’s note: Although these two articles ostensibly describe the same incident, the word ‘prostitute’ was used in one, instead of ‘comfort women (weianfu)’ used in the other).

These two pieces of evidence were newly discovered while searching for ‘comfort women’-related materials among the documents held by the Jilin Provincial Archives under a project begun in 2014. These documents attesting to the fact that the army directly oversaw the hygiene of ‘comfort women’ and that these women were brutalized and humiliated provide a powerful rebuttal to the outrageous claim by the Japanese right wing that being a ‘comfort woman’ was a free, private commercial activity. The fact that they are the official documents of the Japanese army lends more weight to

them as evidence. Moreover, they complement other existing ‘comfort women’-related materials in the collection of the Jilin Provincial Archives as a new type of records. Going forward, more new documentary evidence is expected to emerge as further progress is made in sorting the items in the archives.

Items that constitute ‘comfort women’-related documentary evidence already made public by the Jilin Provincial Archives fall into the following seven categories:

- (1) Documents and records about ‘comfort women’ stations in territories occupied by the Japanese army;
- (2) Statistical data on the ratio of the number of Japanese troops to the number of ‘comfort women’;
- (3) Statistical data on the number of Japanese soldiers visiting ‘comfort stations’ and using the services of ‘comfort women’;
- (4) Financial information about ‘comfort women’-related expenditures paid through funding from the Japanese army’s regular budget;
- (5) Documents and records of the Japanese military police about the status of servicemen at ‘comfort stations’ located in China and today’s Java, Indonesia;
- (6) Documents and records about the screening for sexually-transmitted diseases conducted on ‘comfort women’;
- (7) Documents and records about the violence of Japanese soldiers against ‘comfort women’;

The official documents and records of the Japanese military already identified by the Jilin Provincial Archives attest to the following facts:

- (1) The victim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were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and regions including China, the Korean peninsula and Southeast Asia, as the Japanese army’s own records clearly indicate. These documents therefore lend support to the notion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is an international issue with broad relevance.
- (2) The Japanese government was the organizer of the ‘comfort women’ operation that forcibly recruited women from occupied territories at the same time as being its sponsor and guarantor.
- (3) The Japanese military’s ‘comfort stations’ existed across wide-reaching territories.
- (4) The Japanese army was the founder and operator of the ‘comfort women’ system.

- (5) Japan's military budget was the source of funding for the 'comfort women' system.
- (6) Within the Japanese army, the right to use 'comfort women' for satisfaction of sexual needs and the extent thereof depended on the rank.
- (7) The brutal treatment and humiliation of 'comfort women' were a widespread behavior among Japanese soldiers.

Of the twenty-five items about 'comfort women' unveiled to the public by the Jilin Provincial Archives in 2014, six are records related to the physical violence of Japanese soldiers. One of the two newly-discovered records also mentions the battery of 'comfort women' by a Japanese soldier. These records therefore suggest that violence against 'comfort women' occurred in various different units of the Japanese army and against victims of various different nationalities and origins.

Based on the documents and records shown to the public during these two successive expositions, the Jilin Provincial Archives has issued a series of publications since 2014, including *Tie zheng ru shan: Jilin Sheng xin fa jue Riben qin Hua dang an yan jiu* [Irrefutable Evidence: Studies of Newly-discovered Records on the Japanese Invasion of China from the Jilin Provincial Archives] (ed. Zhuang Yan); [Irrefutable Evidence: A Special on Postal Censorship Records in the Collection of the Jilin Provincial Archives I] (ed. Yin Huai); and [Irrefutable Evidence: A Special on Postal Censorship Records in the Collection of the Jilin Provincial Archives II] (ed. Yin Huai). The project to publish the *Tie zheng ru shan* series into a single collection of books and translate them into international languages is currently underway. The plan is to release before the end of this year five books on the Japanese postal censorship, corresponding to Irrefutable Evidence: A Special on Postal Censorship Records in the Collection of the Jilin Provincial Archives III to VII. International language versions of the *Tie zheng ru shan* series, in English, Japanese, Russian, Korean and French, are also in preparation. As for *Tie zheng ru shan: Jilin Sheng xin fa jue Riben qin Hua dang an yan jiu*, translations have been already published in several languages.

Since 2014, efforts for the digitalization and translation of documents related to the Japanese invasion of China have actively taken place at the Jilin Provincial Archives. The digitalization of documents related to the Kwantung Military Police, translated into 41 million Chinese characters, has been already completed.

As further progress is made in the digitalization of material in the Archives, more new information about ‘comfort women’ is expected to emerge.

## **7. Research Papers, Books and Translated Works of Scholarly Significance**

As was stated earlier, there is a vast pool of manpower in China, involved in historical research on Chinese ‘comfort women’ and the discovery of related documentary evidence; which explains the wealth of results in this field. Some of the most meaningful research results on this subject have been produced by scholars working for university research institutions. Notable scholars and their works are listed below:

- 1) Su Zhiliang, a professor at the Research Center for Chinese Comfort Women at Shanghai Normal University, and his wife Chen Lifei, also a professor at the same institution are arguably two most prominent figures in ‘comfort women’ research in China, who have made outstanding accomplishments in this field.

Professor Su has published works of great scholarly significance that are based on the results of years of fact-finding endeavor and efforts to discover new historical sources and produced through active academic exchange with Chinese and foreign scholars. His major publications include *Wei an fu yan jiu* [A Study on Comfort Women] (Shanghai: Shanghai shudian chubanshe, 1999), *Ri jun xing nu li : Zhongguo wei an fu zhen xiang* [Japanese Military’s Sex Slaves: The Truth of Chinese Comfort Women] (Beijing: renmin chubanshe 2000), *Zhan shi Ri jun ‘wei an fu’ zhi du* [Wartime Japanese Military’s ‘Comfort Women’ System] and *Zhongguo qin lue Ri jun ‘wei an fu’ wen ti yan jiu* [A Study on Issues Related to ‘Comfort Women’ of Invading Japanese Forces in China] (A study on Chinese casualties and property losses during the Sino-Japanese war, co-authored with Yao Fei and Chen Lifei, published in 2016 by Zhonggong dangshi chubanshe). Su has comprehensively researched on the Japanese army’s ‘comfort women’ system in China, investigating how this system evolved over time and how it violated the human rights of its victims. As for Professor Chen Lifei, she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the mass sexual violence committed by the Japanese army and

its destructive consequences in her book, *Ri jun wei an fu zhi du pi pan* [A Critique of the Japanese Military's Comfort Women System] (Beijing : Zhonghua shuju, 2006) .

2) The abominable institution of 'comfort women' has been also denounced in other scholarly works that generally deal with war crimes and atrocities committed by Japan during its invasion of China, in which this issue receives some attention, even if it is not the main or central topic. Noteworthy examples of these publications are as follows:

- (1) Zhang, Xianwen, Zhang, Lianhong and Wang, Weixing (ed.), *Nanjing da tu sha quan shi* [The Nanking Massacre: A Complete History], Nanjing: Nanjing University Press, 2012.
- (2) Xie, zhonghou (ed.), *Riben qin lue Hua bei zui xing shi gao* (Evidence of War Crimes Committed by Japan in Northern China).
- (3) Zhao, Lingshi (ed.), *Dongbei Xianluo 14nianshi Congshu* (Fourteen-year-history of the fall of Dongbei )
- (4) Zhou, Aimin, *Dong fang maqinuo fang xian da jie mi: Qin hua Ri jun wei man zhou guo jing yao sai qun shi lu* [Exposing the Secrets of the Eastern Maginot Line: The Truth About the Japanese Army's Stronghold at the Manchukuo Borders During Japan's Invasion of China].
- (5) Sheng, Hongjiang, *Wushidaoxiade Nanjing* (Nanjing under Samurai Swords), etc.

3) Finally, there are important numbers of research papers on 'comfort women,' published in various journals or presented in academic conferences that are of remarkable breadth and depth. These papers, too numerous to list here, have appeared in journals such as *Kang Ri zhan zheng yan jiu*, *Riben qin Hua shi yan jiu*, *Fu nu yan jiu lun cong*, *Li lun guan cha* and *Zhong heng* and were also published at university websites.

## 8. Chinese Translations of Foreign Publications on ‘Comfort Women’

There has been an impressive progress in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comfort women’ issue also outside China, thanks to years of research endeavor by scholars of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Chinese academia has been following their research with interest. Many of them have been translated into Chinese and are used as reference in Chinese research into the same issue. Below are some of the major translated works:

- (1) Senda, Gako, Sui jun wei an fu [Wartime Comfort Women], translated by Lin, Huaiqiu, Changsha: Hunan renmin chubanshe, 1988.
- (2) Hicks, George, Wei an fu [The Comfort Women], translated by Teng, Jianqun, Beijing: Shinhua chubanshe, 2002.
- (3) Senda, Gako, Sui jun wei an fu - Keiko [Wartime Comfort Woman - Keiko], translated by Xu, Xiancheng, Beijing: Qunzhong chubanshe, 1996.
- (4) Noda, Masaaki, Zhan zheng yu zui ze: Zhun guo zhu yi Riben jing shen fen xi [War and Human Beings: A Psychoanalysis of Militarist Japan], translated by Zhu, Chunli and Liu, Yan, Nanning: Guangxi Normal University Press, 2012.
- (5) Timperley, Harold, [1937: Atrocities Committed by the Japanese Army As Witnessed by a British Reporter], translated by Yang, Ming, 2005.
- (6) Kim, Il-men, Jun ji xue lei: Tian huang jun dui yu Chao xian wei an fu [Blood and Tears of Army Prostitutes: The Emperor’s Army and Joseon Comfort Women], translated by Jie, Sang, Xi, Lin and Hui, Mei et al., Tianjin: Tianjin shehui kexueyuan chubanshe, 1993.

## 9. Legal Support Provided for Lawsuits Against Japan by Surviving Chinese ‘Comfort Women’

Damages lawsuits filed by Chinese ‘comfort women’ have been mostly dismissed by the upper

court in Japan. Not a single one of the many lawsuits against Japan, from the first one filed on July 8, 1992 to the most recent one in 2011, has been won. Nevertheless, legal professionals in China have continuously offered pro bono counsel to Chinese plaintiffs through cooperation with Japanese counterparts to help more victims seek justice and the restoration of their honor and dignity by bringing their cases to court. Kang Jian of the Huatai Law Office in Beijing is one such attorney.

New evidence uncovered and released by the Chinese Former ‘Comfort Women’ Truth Commission, jointly established by All China Lawyers’ Association and the China Legal Aid Foundation (published twice in July 2007 and December 2008) have helped them better assist the victims seeking the restoration of their honor through legal channels.

### **III . Discovery of New Historical Evidence Related to Chinese ‘Comfort Women,’ Key Research Tasks and Outlook**

The active level of research into Chinese ‘comfort women’ and the great progress made in the discovery of related historical evidence, discussed above, makes the outlook bright for this field. However, going forward, some improvement is needed in the following areas:

1. Much of the ‘comfort women’-related evidence currently available in China appears to be accounted for by oral histories and field research, rather than documentary evidence. Collecting oral histories and conducting field work can be harrowing tasks demanding tremendous sacrifices from researchers. Moreover, the fact that most of the surviving ‘comfort women’ victims are elderly makes it rather urgent to obtain their personal accounts and preserve comfort station sites. However, an insufficient availability of original documents and records – in other words, primary sources- can have a direct and negative impact on scholarly research and legal efforts to redress injustices suffered by the victims. Therefore, it is paramount to step up the effort to discover and study primary sources.
2. There are important quantities of materials in the collection of various archives across China that can potentially expose the details of the Japanese wartime aggression of Chinese people and

that are yet to be uncovered and classified. However, progress in their search and classification has been uneven or slow due to the insufficiency of manpower as well as other factors such as inadequate planning and the lack of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on the part of archivists. These limitations, impediments to the advancement of research in this field, need to be addressed. The long-term task is to continuously expand the capacity to discover new ‘comfort women’-related historical sources, at the same time as collecting oral histories from surviving victims and first-hand witnesses.

3. In China, vast though its territorial expanse is, most cities and regions that fell to Japanese forces were also subjected to the inhumane system of ‘comfort women.’ Hence, it is urgent to conduct a nationwide inquiry, focusing on former ‘comfort station’ sites and ‘comfort women’ victims, to more accurately assess the extent of damages sustained from this system across all parts of China.
4. Researchers and scholars should more closely collaborate with historical archives for better outcomes and greater efficiency in discovery of sources.

To improve the methodology of discovering ‘comfort women’-related sources, archivists need to routinely communicate and exchange with scholars and colleagues from external institutions who have extensive experience in identifying this type of material.

To keep the secrecy of their wartime activities that ar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Japanese used coded or covert terms. Not being able to recognize these coded or covert terms can undercut an archivist’s ability to discover documents they are looking for. As an example, the Japanese army used the coded term ‘special transport (特移送)’ for documents sent to Unit 731, and ‘sanitation/ sterilization (細防)’ to refer to biological warfare. Therefore, archive workers need to be vigilant about whether coded words are also used in ‘comfort women’-related documents. For example, words like ‘comfort women (慰安婦),’ ‘Dandon Women (東安女)’ and other words created by combining a place name with the word ‘women/ girl (女),’ ‘girls,’ ‘barmaids,’ ‘maidens,’ ‘prostitutes,’ ‘brothel,’ ‘restaurant (料理屋 or 料亭)’ and ‘inspection (儉征)’ should be interpreted in a context-dependent manner. In other words, they need to bring to light the historical truth hidden between the lines by thoroughly acquainting themselves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to the documents they are dealing with.

5. The ‘comfort women’ issue is an issue with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final resolution of postwar problems and the rights and dignity of women the world over. Hence, it is essential that scholars and researchers around the world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one another. Documentary evidence and research results related to ‘comfort women’ should be shared and exchanged between research institutions and countries, as they become available, to build a comprehensive body of knowledge. At the same time, a joint project should be carried out to have ‘comfort women’-related documents and records recognized as UNESCO documentary heritage in a practical effort to help bring a final resolution to this problem to thereby contribute to the lasting peace of the world.



발표 3

---

일본군'위안부' 연구 성과와 과제 국제학술회의

# 일본군'위안부' 미국 자료 발굴 현황과 과제

강성현 (康誠賢,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





## 일본군 '위안부'

### 미국 자료 발굴 현황과 과제



강 성 현(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 1. 미국 자료의 필요성

### ■ 미국 자료 조사의 필요성

- 일본 자료의 의존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일본 소장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약됨
- **연합국 생산 자료 및 연합국이 압수·노획한 일본 자료**의 중요성이 대두됨
- 미국 자료 등 연합국 자료 조사 수집을 통한 일본군 '위안부' 아카이브 구축 요청
- '위안부' 아카이브 기반을 활용한 연구 및 콘텐츠 생산, 외교 역량의 강화 요청

### ■ 미국 자료

- 미국 자료기관(NARA, MacArthur Archives, Naval Operational Archives of DN, LOC, Hoover Institution Archives 등)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임
- 미국 자료기관에는 미국 등 연합군이 생산한 자료 뿐 아니라 일본(정부/군)으로부터 노획, 압수한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음
- 2000년대 초반 InterAgency Working Group(IWG)의 활동 결과 일본 전쟁범죄 관련 약 10만 쪽 분량 자료 기밀 해제되어 공개됨

# 1. 미국 자료의 필요성

## ■ 연합군 생산 보고서 및 기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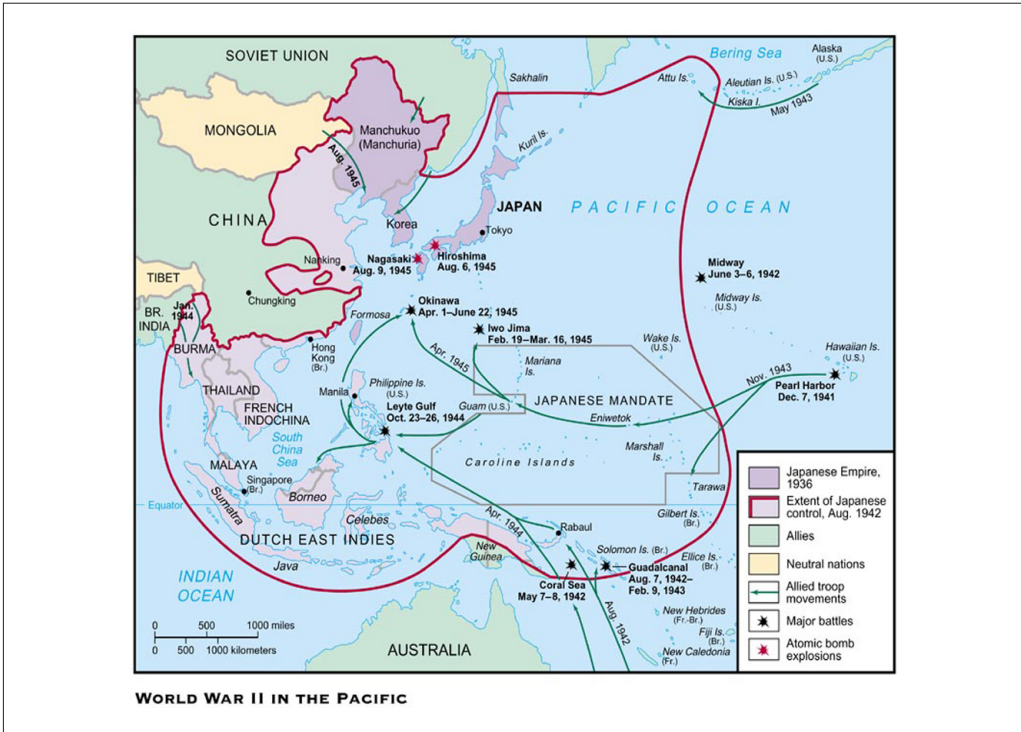
- 일본군 포로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심문보고서(Interrogaton Report)
- 정보(G-2), 작전(G-3) 보고서 : 일지, 주간, 월간 보고서
- 연구보고서(Research Report)
- 군 사진병이 촬영한 스틸사진과 영상들

## ■ 일본군으로부터 노획, 압수한 자료

- 전시, 전후 일본 점령 영토(남양군도, 남방, 필리핀, 중국, 대만, 조선, 일본)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노획, 압수한 자료
- 일부 자료는 종전 직전 조직적으로 소각·폐기되었지만, 많은 잔존 자료들이 압수됨
- 전쟁(전투) 정보 파악, 전범 자료 수집 등의 차원에서 노획, 압수한 일본어 문서를 번역(전문번역, 선별번역), 암호문서(MAGIC)

## ■ 일본 자료의 반환

- 1950년대 중반부터 일본으로 반환되기 시작.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전사도서관, 외무성 외교사료관, 국립공문서관, 국회도서관 등 자료의 원소장처로 재배치
- 1990년대 이후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와 일본정부의 조사로 '위안부' 자료 일부가 발굴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2관 (<http://www.archives.gov/>)
- 주소: 8601 Adelphi Road College Park, MD 20740

## 1. 미국 자료의 필요성

### ■ (디지털 시대) 자료의 '원본'과 '복사본'의 경계

- NARA 소장이라 하더라도 자료의 원소장처로부터 이관될 때 오리지널 원본 뿐 아니라 복사본도 들어옴. 또한 원본이 생산 과정에서 여러 개 만들어질 수 있으며, 각기 다른 RG로 흩어져 있을 수 있음(자료 생산 때 'distribution line' 문제)
- MA 소장 자료는 대부분 NARA 소장 맥아더 관계 자료의 복사본임. 그럼에도 MA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소장처를 MA로 표기하고 원본 취급함

### ■ 자료의 '신발굴'과 '기발굴'의 경계

- 과거 언론과 학계 등에 '공식 보고'한 자료는 통상 '기발굴'로 이해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발굴된 자료 건의 일부가 언론에 노출되었더라도, 논문이나 책에 자료를 인용 소개했더라도, 기타 방식으로 요약 해제가 이루어졌더라도, **현재 그 자료(복사본)를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복사본을 갖고 있더라도 **원소장처의 자료 위치(MLR)를 몰라 다시 접근할 수 없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발굴되지 않은 것으로 봄

## 2. 미국 자료 조사 수집 현황

### 1) 일본

#### ■ [정부조사 종군위안부 관계 자료집성 5권](아시아여성기금자료집)

- GHQ(SWPA/USAFFE/SCAP) ATIS 자료 26건, 인도-버마전구의 SEATIC 자료 5건, 미국 OWI 자료 1건, 사진 4건
- 영인본 자료집. 자료 건의 전체가 아니라 '위안부'가 언급된 일부만 복사 영인. 연구해제가 없음
- 자료의 생산 맥락 속에서 '위안부' 정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음. 게다가 어떤 자료 건의 경우 선별된 위안부 내용과 누락된 내용이 있음. 왜? 어떤 기준?

#### ■ 계간 [전쟁책임 연구]와 WAM

- 2000년대 들어 일본 전쟁책임자료센터가 연구해제 형식을 빌려 체계적으로 자료 소개
- 수집 자료의 본격적인 발간 사업은 없지만, 연구자 개별적으로 다수의 자료 소장 판단
- 위안부 관계 자료 해제는 1990년대 1편이었지만, 2000년 이후 14편
- 미국, 호주로부터 조사 수집한 WAM의 NEFIS 심문보고

#### ■ 하야시 히로후미

- 전범재판, 오키나와 및 남양과 남방에 배치된 군대와 '위안부' 관계 자료 조사 및 연구가 상당한 수준.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자료기관에서 다년간 조사 수집

## 2. 미국 자료 조사 수집 현황

### 2) 한국

#### ■ 여성가족부

- 2002-2003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외자료 조사 연구 사업(연구책임자 정진성)
- ATIS 심문보고서, 연구보고서(120번), OSS 중국지부의 쿤밍보고서(최초 발굴)
- 광 전범재판의 시노하라 케이스 관계 일부 자료(전쟁책임자료센터 하야시 히로후미 수집 자료 사본)
- 문서 정중앙의 여가부 마크

#### ■ 국사편찬위원회

- 2016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및 전쟁범죄 자료집 간행 사업 시작
- ATIS 관계 전체 문서를 입수. 위안부 관계 문서를 번역 진행

####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국제연대위

- 아시아여성기금 자료집 5권 수록 자료+알파(문서 및 사진) 중심 목록작성

## 2. 미국 자료 조사 수집 현황

### 3) 서울대 인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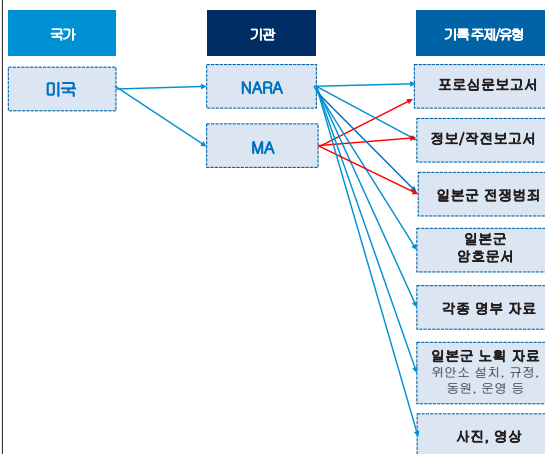
#### ■ 2014-2015년 1단계 사업(서울대 인권센터)

- 미국 NARA와 MA로 3주간 현지조사 수집(6명)
- '위안부' 관계 자료 총 120건 수집. 자료기관별 NARA 95건, MA 25건. 자료 생산기관별 ATIS 32건, SEATIC 21건, NEFIS 33건, 기타 26건. 자료 유형은 일본군 포로(군인, 군속, 민간인) 심문보고서, 일본군 노획자료 번역본, 전범재판 자료, 정보보고서, 스가모형무소 관계 수인 자료 등
- 신발굴 문서이면서, 자료 가치가 매우 뛰어난 문서 10여건. 그 가운데 2건을 KBS 뉴스 (2015.3.2)를 통해 보도. KBS 해방70주년 <끌려간 소녀들, 버마전선에서 사라지다> 다큐에 일부 소개

#### ■ 2016년 2단계 사업(서울대 인권센터+서울시)

- 미국 NARA로 4주간 현지조사 수집(7명)
- '위안부' 자료 총 130건 수집. 자료 생산기관별 MIS CPMB 20건, OWI 19건 Y-Fos 16건, 기타 58건. 자료 유형은 일본군 포로(군인, 군속, 민간인) 심문보고서, 일본군 노획자료 번역본, 육군/해군 정보 및 작전 보고서, 포로수용소 명부 및 승선 명부 자료 등
- 위안부 학살 연구를 위한 미군 공문서, 위안부에 대한 미군의 인식과 심리전 활용을 보여주는 문서, 위안부 귀환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수용소 명부 및 승선 명부 등 자료 가치가 큰 자료 다수 수집

## 2. 미국 자료 조사 수집 현황



#### ■ Documentation Strategy

- NARA 웹사이트 검색공구, 일본전쟁범죄 관계 Finding Aids, 주요 레퍼런스, 본 연구팀이 다년간 걸쳐 수집 완성한 Finding Aids 활용
- 국내에서 수개월 동안 Targeting List 작성
- 미국 NARA, MA 현지조사에서 조사, 수집, 목록작성(Cataloging), 번역과 연구 해제

## 2. 미국 자료 조사 수집 현황

2015년

RG	생산기관	유형	건수
3(MA)	ATIS, SWPA	T	25
111	164 Sig Photo Co, unid, US SC	SP	8
125	Guam Island HQ	T	8
153	CINCPAC	T	1
165	ATIS, SWPA, SOPAC, SEATIC, MIS, CSDIC, CBI	T	28
226	SEATIC	T	4
319	NEFIS	T	33
493	SINTIC	T	1
496	USAFFE, SEATIC	T	10
554	Sugamo	T	2
총계			120

## 2. 미국 자료 조사 수집 현황

2015년

RG	생산기관	유형	건수
38	Navy OP-16-G, OP-16-Z	T	8
111	164 Sig Photo Co, unid, US SC	SP	18
125	the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Navy)	T	7
153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T	1
165	MIS CPMB	T	20
208	OWI	T	19
226	OSS, ATIS, NEFIS	T	22
319	JICA(Joint Intelligence Collection Agency) China	T	1
331	Okinawa COMMAND BASE	T	1
457	National Security Agency	T	4
493	Y Fos	T	16
496	OWI, NEFIS	T	8
554	CSDIC	T	5
총계			130

### 3. 자료 소개

#### 1) 수집 대상 RG-Series의 개괄

RG	Series 개요
38	위안부 관계 해군 암호관계 문서, 미해군 군정(오키나와 등) 관계 문서. ONI에 집적된 조선인 포로 심문 및 심리전 관계 자료
59	En A1 5697(ZZ1005)에 1990년대 전후 위안부 문제 관계 국무부 자료.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입장,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
125	태평양지역 여러 제도에서 행한 해군 전범재판 자료 중 위안부 관계 자료(사뮤엘 T. 시노하라, 나카무라 시게요시 중위 자료 등)
153	일본군 장군, 장교 개인별 전쟁범죄 파일, 전쟁범죄 통계 등 MIS, OSS, ATIS 등 생산 자료 존재
165	미 전쟁부 MIS의 포로 및 노획 자료과의 생산, 노획자료 중요
208	미 전쟁정보국(OWI) 산하 인도-버마-중국 전구에 배치된 Outpost와 심리전팀이 생산한 위안부 관계 자료
226	R&A 조직과 X-2조직의 생산 자료 중요. 일명 Regular 시리즈와 XL 시리즈의 문서들은 일본군 전쟁범죄 기록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위안부 자료도 다수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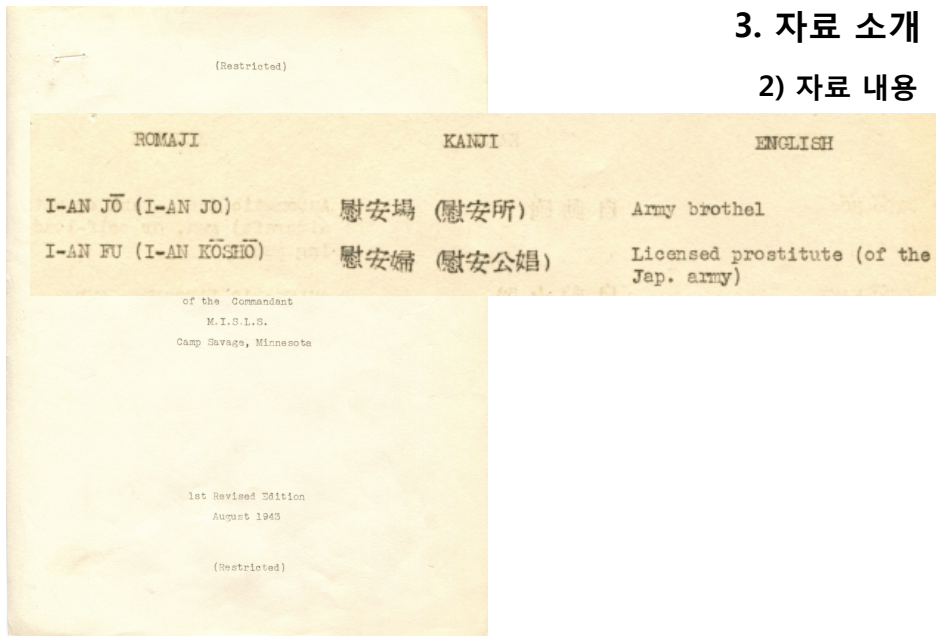
### 3. 자료 소개

RG	시리즈 개요
319	일명 'ID 파일'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중요. ATIS, SEATIC, SINTIC 등 번역통역기관의 생산 자료들이 다수 존재
331	SCAP의 법무국 자료 중요. 일본 전범 기소 자료뿐 아니라 수사 자료 중 여성에 대한 강제 매춘, 강간, 살해, 학대 자료 중요
457	방대한 규모의 암호해독 자료 가운데 약 2만쪽 분량의 Summaries of Japanese Messages (SJM) 중요
493	버마와 중국 전구 정보(G-2) 및 작전(G-3) 보고서, SINTIC 생산 자료 주목
496	태평양전쟁 태평양 섬들에서의 정보, 작전 보고서의 보고. 특히 SWPA(맥아더)의 심리전과가 생산, 노획한 자료 중요
554	SCAP, FEC, UNC(맥아더)의 정보, 작전, 전범재판 관계 자료의 보고. ATIS, SEATIC, WDC 보고서 중 위안부 관계 자료 주목. 스가모 형무소 자료 내 전범 및 위안부 자료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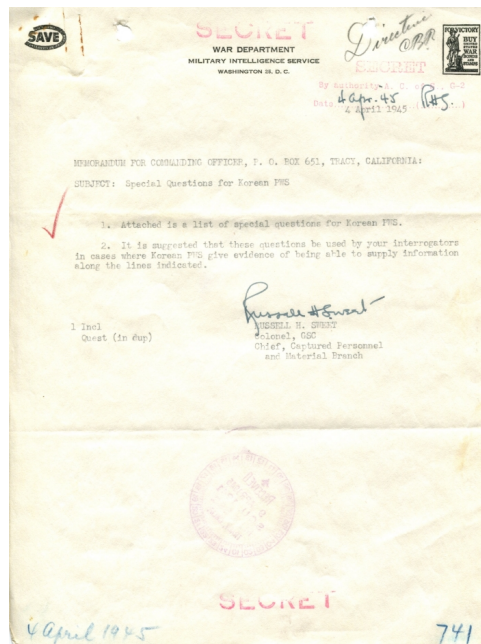
**13개 RG에서 다양한 유형의 일본군 '위안부' 관계 자료 발굴, 수집**

### 3. 자료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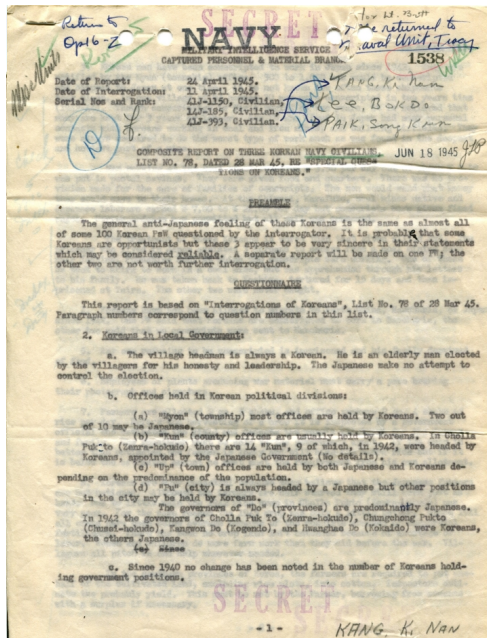
#### 2) 자료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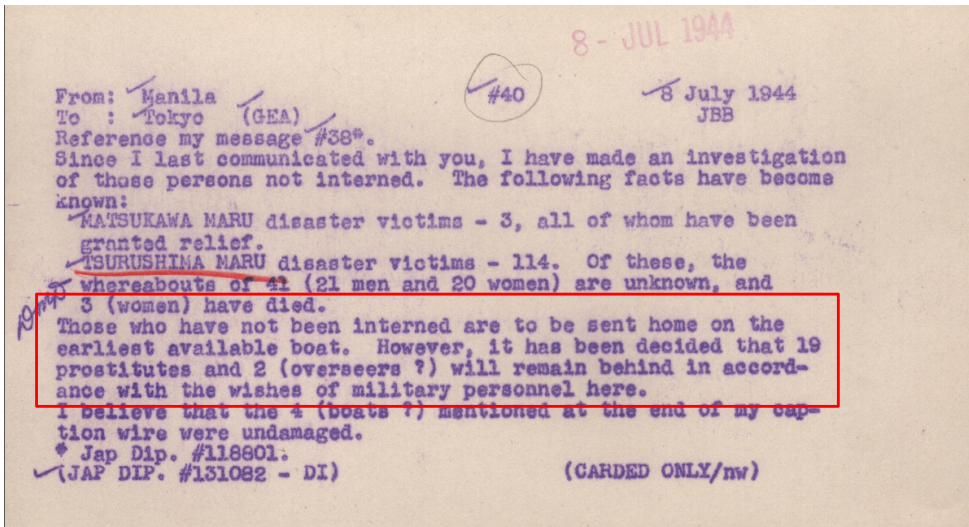
NARA RG 165 전쟁부 일반/특수참모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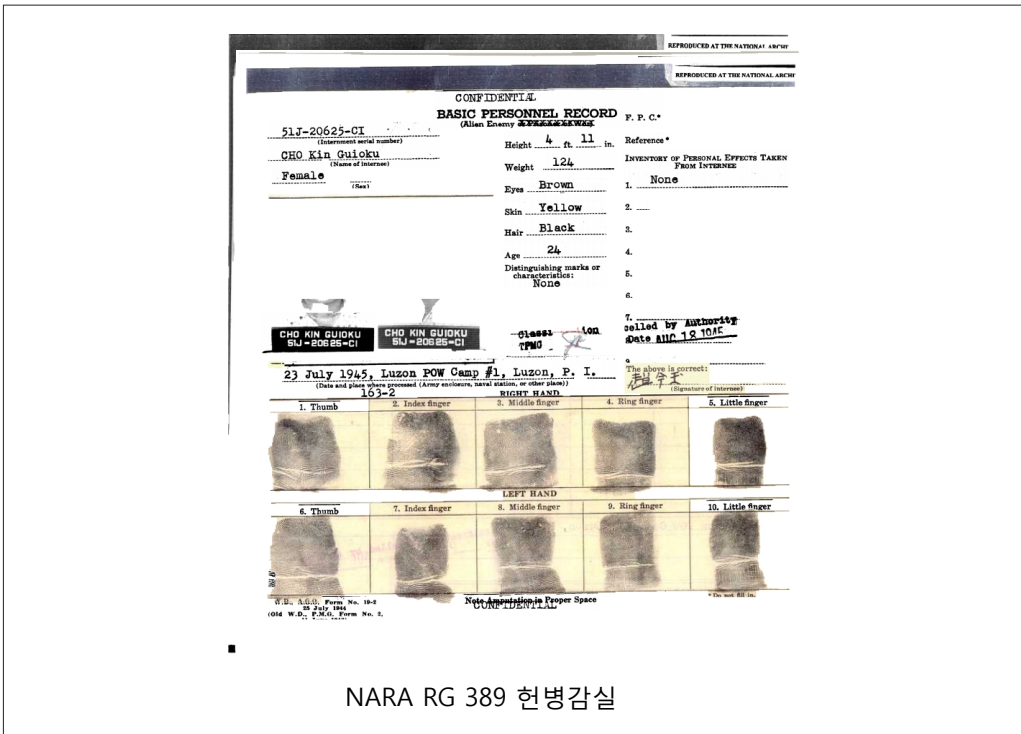
NARA RG 165 전쟁부 일반/특수참모본부



NARA RG 38 해군작전부장실



NARA RG 38 해군작전부장실



SECRET

평가  
 이 포로를 통해 얻은 가장 귀중한 정보는 일본인이 조선인을 차별한다는 것이다. 포로는 연합국이 일본군보다 자신들에게 잘 대해줄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 연합국의 포로가 된 것을 기뻐한다.

...  
 전투상황  
 한번은 너무 화가 나서 그들에게 포로가 되겠다고 말했다. 의사는 가라고 하면서 그들이 널 잡으면 강간하고 죽일 것이라고 했다. 내가 잡혔을 때 두려웠던 것은 그 때문이었는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 그들은 내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

...  
 일반적 견해  
 ...  
 조선인 경찰은 일본인 경찰보다 더 악질이다. 그들은 자신이 일본인들과 같거나 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로서 일본에 충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야 하는데 그 반대다.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본인들과 같거나 더 악질이다.

...

**RG 208 전시정보국(OW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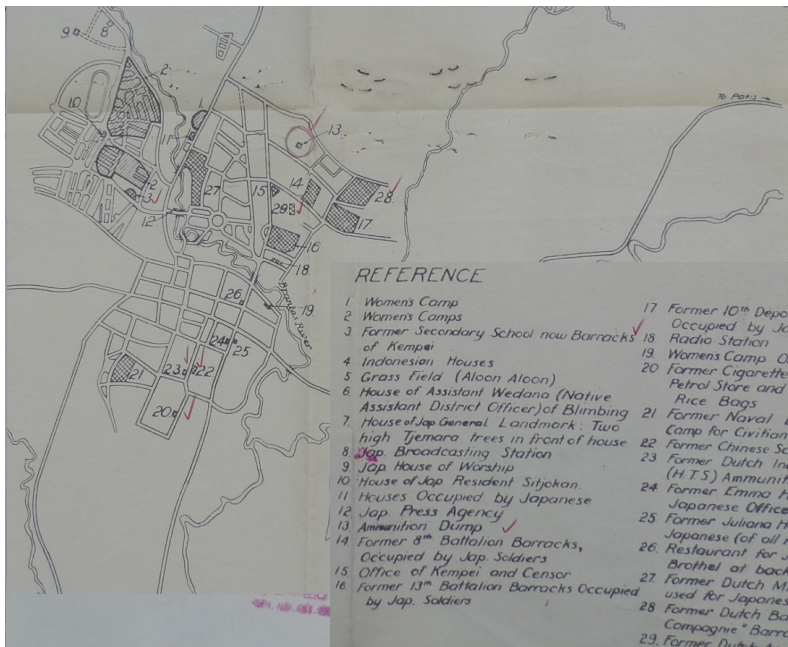


NOV 10 1944  
**NETHERLANDS FORCES INTELLIGENCE SERVICE** 82504  
 (NEFIS)  
 NEW ZEALAND INSURANCE BUILDING  
 304-308 QUEEN STREET, BRISBANE  
 26 OCT 1944  
 ENCLOSURES 2  
 Interrogation Report, **SECRET** 25th October, 1944.  
 Compilation of NEFIS Interrogation Reports Nos. 418-425 (Inclusive (Not issued separately)).  
 1. Attached is Compilation of NEFIS Interrogation Reports Nos. 418-425 inclusive (Not issued separately).  
 2.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report is based solely on interrogation of evacuees and should be evaluated accordingly.  
 3. It is requested that care be taken in the distribution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f the whole or any part of this report is reproduced, no indication may be given of names and localities concerned, to avoid compromising relatives of evacuees and exposing them to enemy reprisals, and to prevent closure of important sources of information. Copy No. 41.  
 Lt. Cdr. J. C. Smit,  
 Deputy Director NEFIS.  
**RECORDED**  
 INTELLIGENCE CT LIBRARY

**XIII. GENERAL.**

**Forced Abduction of young girls:** On the order of the Assistant Wedana of Ngargojoso, Solo (Mid-Java) a number of young girls were assembled, of whom five were selected and forcibly taken to Solo by the Japanese. Informant did not actually witness this, but knows for certain of the incident, which took place in the first half of '43. He knows of one girl, aged 14, named Waginem from Kampong Plawan (Mid-Java) who was taken. This girl was sent back to the village shortly after, infected with venereal dis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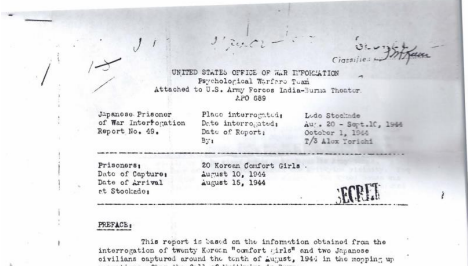
NARA RG 319 육군참모부



NARA RG 319 육군참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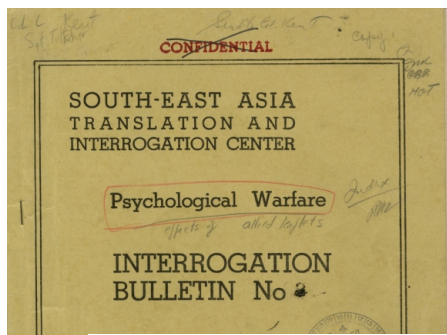


## 4. 자료 연구 해제



**모집**

1942년 5월 초, 일본인 업자들이 일본군이 새롭게 정복한 동남아시아 영토에서 “위안 접객”을 할 조선 여성을 징모할(enlisting) 목적으로 조선에 도착했다. 이 “접객”의 성격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한 부상병을 방문하여 봉대를 감는 등 주로 군인을 기쁘게 해주는 것과 관련된 일로 여겨졌다. 이 업자들이 이용한 유인책은 상당한 수입, 가계 빚을 갚을 기회, 손쉬운 일, 그리고 신천지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생활을 할 전망이었다. 이러한 사기에 속아 많은 여성들이 해외임무를 위해 징모되었고 몇 백 엔의 선불금을 받았다. 여성들 중 일부는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에서 일한 적 있으나, 대다수는 무지하고 교육받지 못했다. 그들이 체결한 계약은 선불금으로 받은 빚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동안 군대 규정과 “포주”를 위한 노동에 그들을 예속시켰다.



**포로 M. 739는 아내 및 처제와 함께 조선 경성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얼마간 돈을 벌었으나 사업이 기울었다. 이에 돈을 벌 기회를 찾기 위해, 조선에서 버마로 '위안부'를 동원하는 허가권을 경성 주둔 조선군사령부에 신청했다. 포로에 따르면 그 제안은 조선군사령부가 먼저 했고, 포로와 유사한 처지의 수많은 재조선 일본인 “업자들”에게 하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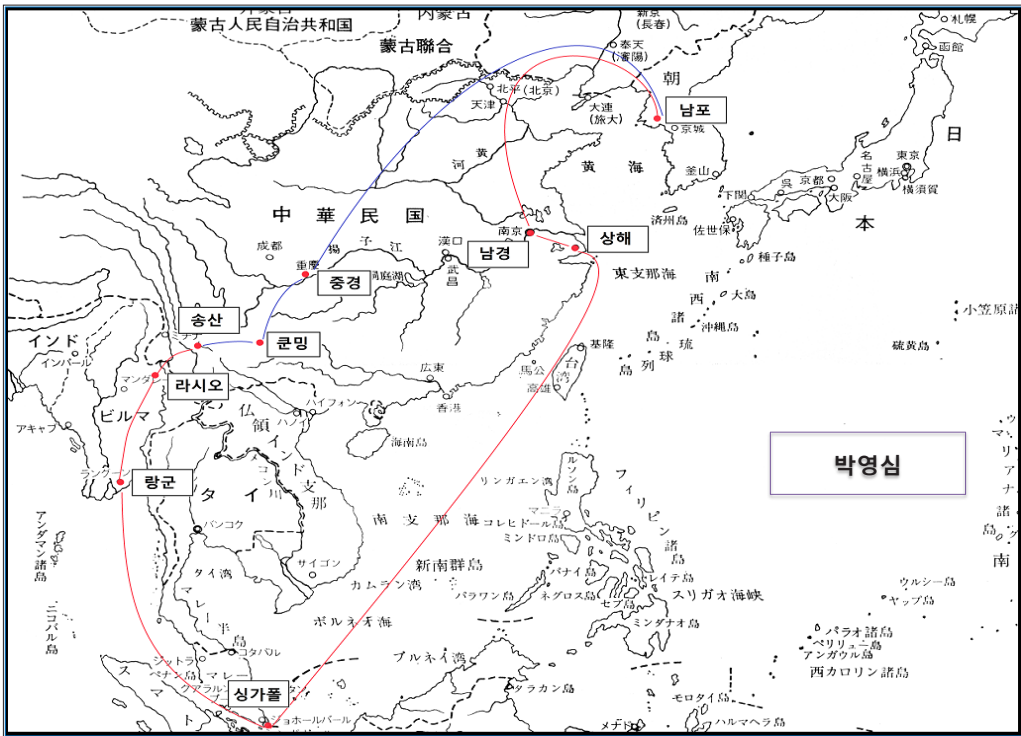
포로는 여자의 성격, 외모, 연령에 따라 300엔에서 1000엔에 이르는 선불금을 여자들의 가족에게 지불하고, 조선 여자 22명을 구입했다. 여자는 22명은 19세에서 31세까지였다. 이들은 포로의 배타적 재산으로, 군이 이 여자들한테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다. 조선군사령부는 모든 일본군 사령부에게 수송, 배급, 의료 등 포로가 요청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포로에게 제공했다.

### ■ 심문보고 49호(일명 요리치 보고서)

- 연구보고서(120호)와 더불어 **매우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됨. 일본군의 관여 하에 업자의 조선인 '위안부' 모집 방법, 버마 이송 과정, '위안부'의 생활, 위안소 운영과 이용 실태, 일본군에 의해 버려지고 연합군의 포로가 된 상황의 전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보고
- 그 한계도 명백함. **알렉스 요리치는 미군 정보 병사였지만, 일본계이기 때문에 자신을 적국 일본의 스파이로 보는 시선이 존재하는, 그래서 미국 시민으로서 애국심을 입증해야 하는, '남성' 군인**
- 그의 정체성 및 위치는 **조선인 위안부의 성격, 위안소에서의 생활과 처우에 대한 보고서의 서술에 편향과 왜곡을 발생**
- 예컨대 조선인 '위안부'를 "군대를 따라 다니는"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여성으로 인식. 이 전제로 조선인 '위안부'들이 "유치하고, 엉뚱하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있으며" "낮선 이 앞에서는 조용하고 암전하지만, 여자의 기술을 안다"는 말 늘어놓음. 자기 앞에 선 조선인 여성이 자기 처지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는 위안부가 "자기 직업을 싫어한다고 주장하고 그 일이나 가족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한다"고 단정함.
- "다른 곳에 비하면"이라는 단서, 버마에서 위안부 생활은 "사치스럽다고 할 정도"이며, "운동경기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소풍, 오락, 사교만찬에 참석"했으며, "축음기를 가지고 있었고, 시내에 장보러 갈 수도 있었다"고 서술함. 이 서술은 그 자체로 사실이라기보다, **일본계 미국인 남성 정보 군인인 알렉스 요리치가 심문자의 위치에서 심문 대상인 조선인 여성의 말 속에서 나온 편린 같은 단어들을 스스로의 편의대로 뽑아 내어 분절시키듯 '해석'한 것임**

### ■ 심문회보 2호

- **요리치 보고서의 왜곡을 입증할 수 있는 비교가능한 문서**
- 알렉스 요리치가 심문한 조선인 '위안부' 20명에 대한 심문 내용뿐 아니라 영국 합동군 사정보심문센터(CSDIC)에서 이루어진 **일본인 업자 기타무라에 대한 심문이 포함**
- 업자 기타무라는 위안부들에게 의류, 생필품, 사치품을 과도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추가 이윤을 챙겼고, 위안부는 선불금 및 이자와 물품 구입 빚으로 이를 갚고 귀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음. 설령 이 빚을 갚더라도 전쟁 상황으로 인해 조선인 '위안부' 누구도 떠나는 것을 허락 받지 못했음. 기타무라는 "1943년 6월 제15군 사령부가 빚을 갚은 위안부들의 귀향을 허락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위안부 한 명이 귀향하고자 했으나 남이라는 설득에 쉽사리 굴복했다"고 분명하게 답했음
- 기타무라는 '위안부' 모집과 관련해 조선군사령부가 재조선 일본인 업자들에게 하달한 것이었고, '위안부'의 수송, 배급, 의료 등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서한을 업자에게 제공했음을 밝혔음
- 위안소는 군(제114연대 마루야마부대)이 통제했고, 연대사령부의 장교(대위)가 책임연락을 맡았으며, 연대에서 두 명이 파견 임무를 맡았다고 말함
- 업자와 '위안부'가 **'전문적 중군민간인'(professional camp follower)이 아니라 군이 모집을 의뢰했고 위안소를 직접 관할했음을 증언**



CONFIDENTIAL

THE AMERICAN JAPANESE PRISONERS OF WAR IN KOREA  
28 April, 1945

1. General. The Forward Headquarters of the Chinese Army is now holding at the Yunnan Sun Hua Middle School compound, 25 Koreans (23 women and 2 men), 1 Portuguese (man), and 61 Japanese (4 women and 57 men) as prisoners of war.

The brief descriptions which follow are prepared for the use of all interested G-3 branches, as an index to the character of intelligence obtainable from these prisoners.

The content of the data obtained on the Koreans differs in some respects from that covering the Japanese because of the varying composition and attitudes of the two groups. The following items are, however, given for each individual regardless of nationality: name, unit, place and date of capture. The rank of each man is also stated.

2. The 25 Koreans. None of the Koreans was captured; all of them escaped from Japanese units and gave themselves up to Chinese forces.

Their Korean nationalism is spontaneous and unadulterated, and their willingness to supply information is wholehearted.

With the exception of Mrs. Hwang Nam-suk, all of the 23 women become "comfort girls", apparently under compulsion and under duress. The fifteen who look Korean in July, 1945, for example, were recruited through advertisements in Korean newspapers offering employment for girls in Japanese factories in Singapore. The contingents with which they were sent southeast included at least 300 girls who were similarly misled.

Mrs. Ho Pyong-chil was a civilian interpreter and liaison representative, with the simulated grade of captain.

Hwang Pyong-in, the son of Mrs. Hwang Nam-suk, was with his mother and was not a member of the Japanese Army; he is only 11 years of age by the calendar.

All of these Koreans escaped to Chinese units in September, 1944. At the time of their surrender, thirteen of the women and the boy were attached to the 140th Regiment, 80th Division, at T'ung-ch'ung (140-20 S. 23-02 N). Others and the remaining ten women were with the 140th Regiment of the same division at a nearby point connected to Sang-shan (140-21 S.). Ho Pyong-chil was a member of the 140th Regiment, 10th Division, at T'ung-ch'ung.

The list which follows identifies each of the Koreans.

CONFIDENTIAL

Korean and Japanese prisoners of war in Kunming (1945. 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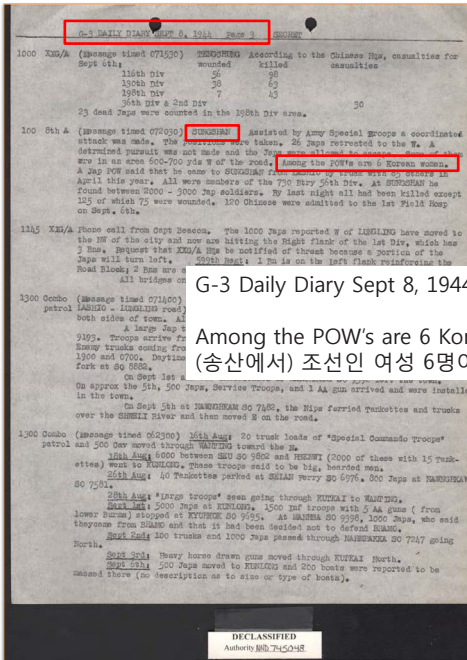
포로수용소에는 조선인 25명(여성 23명, 남성 2명), 타이완인 남성 1명, 일본인 81명(여성 4명, 일본병사 77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조선인 가운데 10명은 송산 지역의 위안소에서 체포된 '위안부'들이었으며, 13명은 등충(騰衝)의 위안소에 있었던 '위안부'들이었다. 박영심 등이 체포된 후 송산에서 조선인 '위안부' 6명이 추가로 잡힌 것으로 보인다.

"23명의 여성들은 분명히 강제적으로 그리고 속아서 '위안부'가 되었다."

Age	1000	Pyongyang Hondo	✓ Pak Yōng-sin	23	Pyongyang
	1050	Pyongyang Hondo	✓ Kim Ch'ol-su	21	Pyongyang
<b>Ho Pyong-chil</b>					
	Nov. 1041	Pyongyang Hondo	✓ Hwang Pyōng-in	16	Pyongyang
	e. 1030	Pyongyang Do	Ho Pyōng-chil	31	South

CONFIDENT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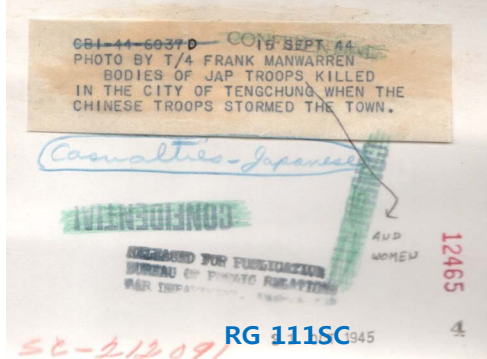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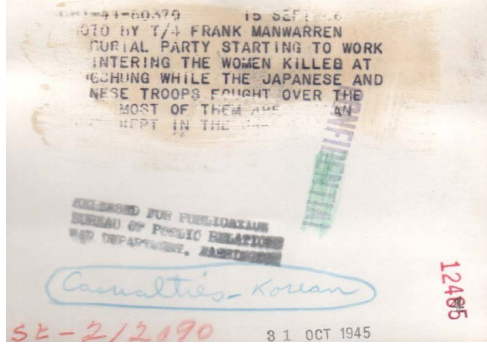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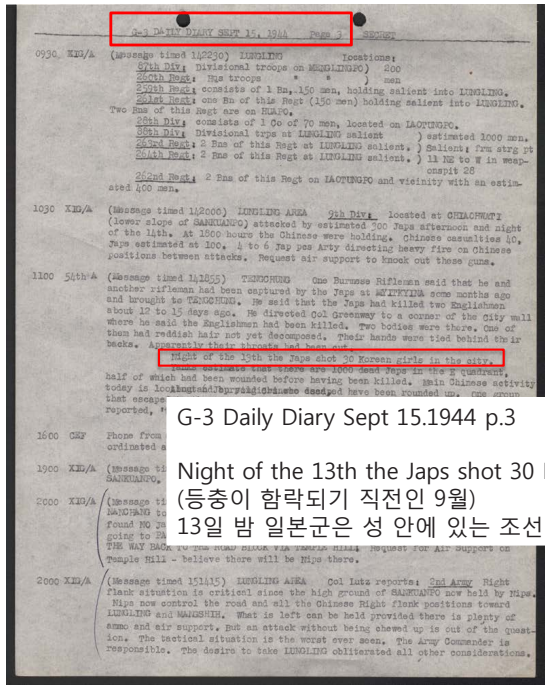
CONFIDENT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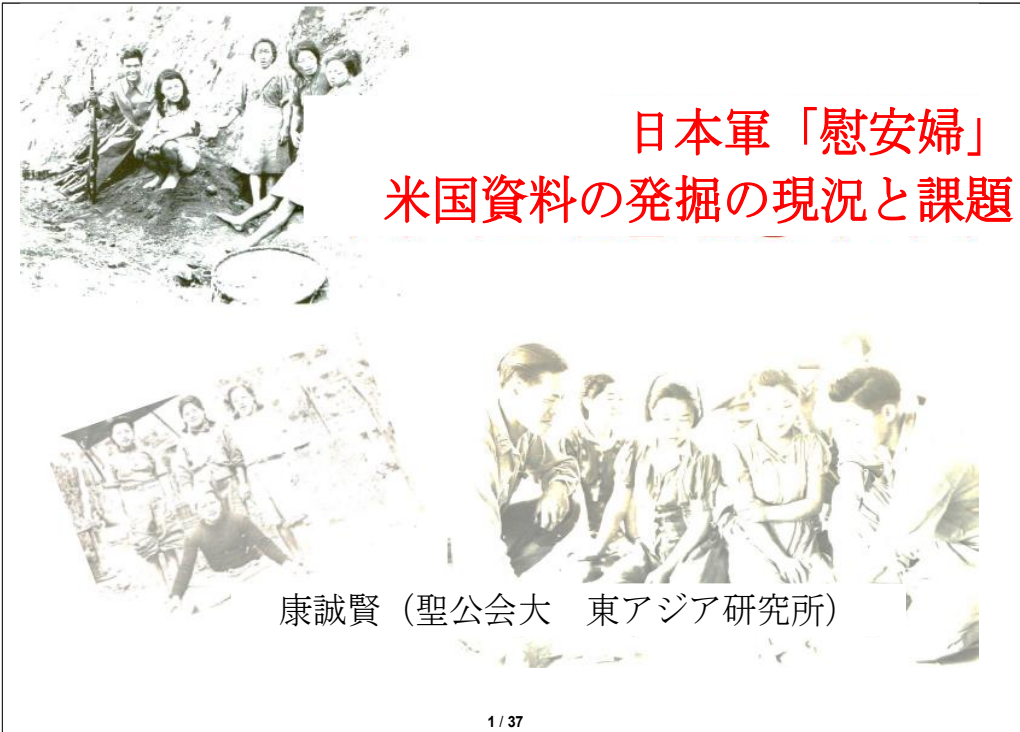
G-3 Daily Diary Sept 8, 1944 p.3

Among the POW's are 6 Korean women (송산에서) 조선인 여성 6명이 포로로 잡혔다.

NARA RG 493 CBI



**감사합니다**



## 日本軍「慰安婦」 米国資料の発掘の現況と課題

康誠賢（聖公会大 東アジア研究所）

1 / 37

### 1. 米国資料の必要性

#### ■ 米国資料調査の必要性

- 日本にある資料に対する依存度が極めて高い中、日本所蔵資料へのアクセスに制約がある。
- **連合国による作成資料及び連合国によって押収・接収された日本資料**の重要性が浮き彫りになっている。
- 米国資料など、連合国資料の調査・収集を通じた日本軍「慰安婦」アーカイブの構築が求められている。
- 「慰安婦」アーカイブ基盤を活用した研究及びコンテンツの生産、外交力の強化が求められている。

#### ■ 米国資料

- 米資料所蔵機関（NARA、MacArthur Memorial Archive、Naval Operational Archives of D N、LOC、Hoover Institution Archivesなど）が所蔵している資料である。
- 米資料所蔵機関には、アメリカなど連合軍が作成した資料だけではなく、日本（政府・軍）から接収・押収した資料などが保存されている。
- 2000年代初頭、Interagency Working Group (IWG) は調査結果として、日本の戦争犯罪に関する文書約10万頁分を機密解除し、公開した。

2 / 37

## 1. 米国資料の必要性

### ■ 連合軍作成の報告書及びその他の資料

- 日本軍捕虜及び民間人を対象にした尋問報告 (Interrogation Report)
- 情報 (G-2)、作戦 (G-3) 報告: 日誌、週間、月間報告書
- 調査報告書 (Research Report)
- 写真部隊が撮影したスチル写真と映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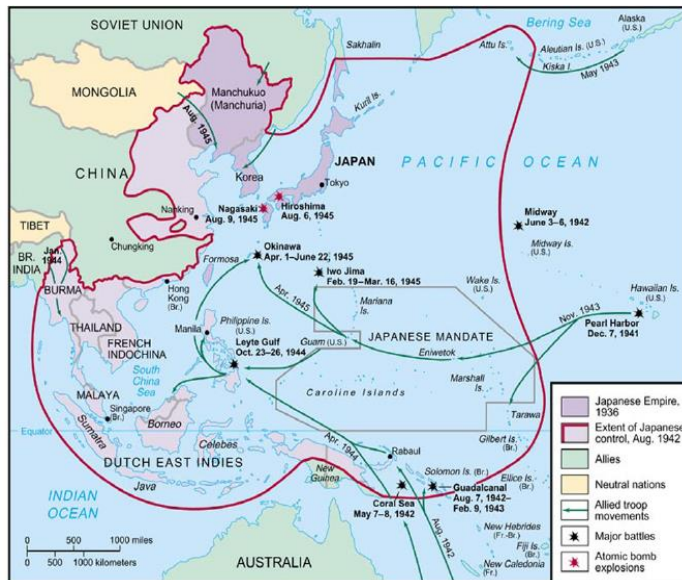
### ■ 日本軍から接收、押収した資料

- 戦中・戦後に日本占領地 (南洋諸島、南方、フィリピン、中国、台湾、朝鮮半島、日本) を占領する過程で接收、押収した資料。
- 資料の一部は、終戦直前に組織的に焼却・廃棄されたが、残存資料が多く押収された。
- 戦争 (戦闘) 情報の把握、戦犯資料収集などという目的で接收、押収した日本語文書を翻訳 (専門翻訳、選別翻訳)、暗号文書 (MAGIC)

### ■ 日本資料の返還

- 1950年代半ばより、日本への返還が始まる。資料の所蔵元である日本防衛庁防衛研修所戦史室、外務省外交史料館、国立公文書館、国会図書館などに搬入された。
- 1990年代以降、吉見義明教授と日本政府の調査により、「慰安婦」資料の一部が発見された。

3 / 37



WORLD WAR II IN THE PACIFIC

4 / 37



- アメリカ国立公文書記録管理局〔NARA〕Ⅱ館〔<http://www.archives.gov/>〕
- 所在地：8601 Adelphi Road, College Park, MD 20740

5 / 37

## 1. 米国資料の必要性

### ■ (デジタル時代) 資料の「原本」と「写本」の境界

- NARA所蔵のものでも、資料の所蔵元からの移管にあたり、オリジナルの原本だけではなく、写本も移管される。また、原本の作成過程で複数作成され、それぞれ違うRGとして分散されている可能性がある（資料の作成時における「distribution line」問題）
- MA所蔵資料の大半は、NARA所蔵のマッカーサー関係資料の写しである。それにもかかわらず、MAが収集した資料については、所蔵先をMAと表記し、原本扱いをしている。

### ■ 資料の「新発掘」と「既発掘」の境界

- 過去に報道機関と学界などに対し「公式報告」を行った資料は通常「既発掘」と認識
- しかし大半の場合、発掘された資料の一部が報道機関に公開されたとしても、本や論文中に資料として引用・紹介されたとしても、その他の方法で要約・解題が付されたとしても、**現在、その資料（写し）を保有していない**、または写しを保有していても**所蔵元における所蔵位置（MLR）が把握できずまたアクセスできない**と、厳密には、発掘とみなされない。

6 / 37

## 2. 米国資料の調査・収集の現況

### 1) 日本

#### ■『政府調査「従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 5巻』（アジア女性基金資料集）

- GHQ (SWPA/USAFFE/SCAP) ATIS 関係資料 26点、アメリカ陸軍インド・ビルマ戦域軍のSEATIC 関係文書 5点、米OWI 関係資料 1点、写真資料 4点
- 影印本。全体資料ではなく、「慰安婦」について触れられている一部だけが原本コピー（影印）で収録されている。研究解題はない。
- 資料作成の脈絡からは「慰安婦」情報の意味は解釈できない。さらに、ある資料の場合、慰安婦に関する選別された内容と漏れた内容がある。なぜ？どんな基準で？

#### ■『季刊・戦争責任と研究』とWAM

- 2000年代に入り、日本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が研究解題の形で系統的に資料を紹介
- 収集資料の発刊事業は本格化していないが、研究者が個別に多数の資料を保有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
- 慰安婦関係資料の解題は1990年代に1編しかなかったが、2000年以降に14編に増加。
- アメリカ、オーストラリアでWAMが調査・収集したNEFIS尋問報告

#### ■林博史

- 戦犯裁判、沖縄及び南洋と南方に配置された兵隊と「慰安婦」関係資料に関する調査・研究において相当な水準を有する。アメリカ、イギリス、オーストラリアなどの資料所蔵機関で多年にわたり調査・収集を行う。

7 / 37

## 2. 米国資料の調査・収集の現況

### 2) 韓国

#### ■女性家族部

- 2002-2003年にかけて日本軍「慰安婦」問題に関する国外資料調査研究事業を展開（研究責任者：鄭鎮星）
- ATIS尋問報告、調査報告書（120号）、OSS中国支部による昆明報告書（初発見）
- グラム戦犯裁判における篠原武熊ケース資料の一部（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の林博史が収集した資料の写し）
- 文書の真ん中に女性家族部のマークがある。

#### ■国史編纂委員会

- 2016年から日本軍「慰安婦」及び戦争犯罪に関する資料集の刊行事業に乗り出す。
- ATIS関係の文書をすべて入手。慰安婦関係文書の翻訳を進める。

#### ■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共同登録のための国際連帯委員会

- アジア女性基金資料集5巻収録資料+アルファ（文書及び写真）を中心にしたリストを作成

8 / 37

## 2. 米国資料の調査・収集の現況

### 3) ソウル大人権センター

#### ■2014-2015における第1段階事業（ソウル大人権センタ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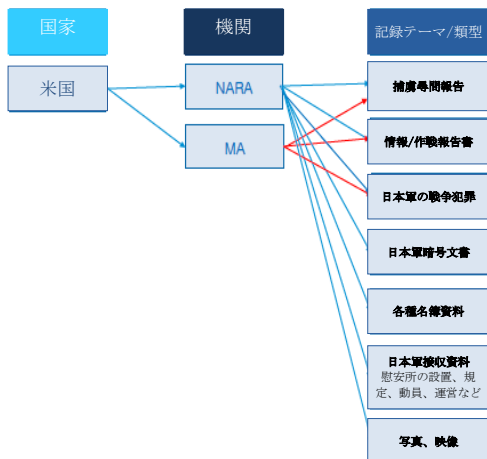
- 米NARAとMAで3週間にわたる現地調査・収集を行う（6名）。
- 「慰安婦」関係資料計120点を収集。資料機関別にみると、NARA 95点、MA 25点。資料作成機関別にみると、ATIS 32点、SEATIC 21点、NEFIS 33点、その他 26点。資料タイプは、日本軍捕虜（軍人、軍属、民間人）に対する尋問報告、日本軍からの接收資料の翻訳本、戦犯裁判資料、調査報告書、巣鴨プリズン関係の囚人資料など
- 新発見の文書でありながら、資料としての価値が非常に高い文書約10点。その中の2点についてKBSがニュースで報じた。KBS解放70周年ドキュメンタリー『連れていかれた少女たち、ビルマ戦線から消え去る』でも一部が紹介されている。

#### ■2016年における第2段階事業（ソウル大人権センター+ソウル市）

- 米NARAで4週間にわたる現地調査・収集を行う（7名）。
- 「慰安婦」関係資料計130点を収集。資料作成機関別にみると、MIS CPMB 20点、OWI 9点、Y-Fos 16点、その他 58点。資料タイプは、日本軍捕虜（軍人、軍属、民間人）に対する尋問報告、日本軍からの接收資料の翻訳本、陸軍・海軍情報及び作戦報告書、捕虜収容所名簿及び乗船名簿の資料など。
- 慰安婦虐殺研究のための米軍公文書、慰安婦に対する米軍の認識と心理戦の活用を示す文書、慰安婦の帰還に関する研究に大きく役立つ収容所名簿及び乗船名簿など資料としての価値の高い資料を多数収集

9 / 37

## 2. 米国資料の調査・収集の現況



#### ■Documentation Strategy

- NARAウェブサイトの検索ツール、日本の戦争犯罪に関する手引き (finding aids)、主要レファレンス、本研究チームが多年にわたり収集して完成した手引き (finding aids) の活用。
- 韓国国内で数ヶ月間、Targeting Listを作成。
- 米NARA、MAにおける現地調査、収集、目録の作成 (Cataloging)、翻訳と研究の解題

10 / 37

## 2. 米国資料の調査・収集の現況

2015年

RG	作成機関	類型	点数
3(MA)	ATIS, SWPA	T	25
111	164 Sig Photo Co, unid, US SC	SP	8
125	Guam Island HQ	T	8
153	CINCPAC	T	1
165	ATIS, SWPA, SOPAC, SEATIC, MIS, CSDIC, CBI	T	28
226	SEATIC	T	4
319	NEFIS	T	33
493	SINTIC	T	1
496	USAFFE, SEATIC	T	10
554	Sugamo	T	2
総計			120

11 / 37

## 2. 米国資料の調査・収集の現況

2015年

RG	作成機関	類型	点数
38	Navy OP-16-G, OP-16-Z	T	8
111	164 Sig Photo Co, unid, US SC	SP	18
125	the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Navy)	T	7
153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T	1
165	MIS CPMB	T	20
208	OWI	T	19
226	OSS, ATIS, NEFIS	T	22
319	JICA(Joint Intelligence Collection Agency) China	T	1
331	Okinawa COMMAND BASE	T	1
457	National Security Agency	T	4
493	Y Fos	T	16
496	OWI, NEFIS	T	8
554	CSDIC	T	5
総計			130

12 / 37

### 3. 資料紹介

#### 1) 収集対象のRG-Seriesの概括

RG	Seriesの概要
38	慰安婦関係の海軍暗号文書。米海軍軍政（沖縄など）関係文書。ONIに集積された朝鮮人捕虜尋問及び心理戦関係資料
59	En A1 5697A (ZZ1005) に1990年代前後における慰安婦問題関係の米国務省資料。この問題に対するアメリカ、日本、韓国などの立場、姿勢を示す資料
125	太平洋地域の複数の諸島で行われた海軍戦犯裁判資料の中の慰安婦関係資料（サミュエル・T・シノハラ、中村しげよし中尉資料など）
153	日本軍の将軍、将校個人別の戦争犯罪ファイル、戦争犯罪の統計など、MIS、OS S、ATISなどが作成した資料
165	米陸軍情報部（MIS）の捕虜及び接収資料課が作成、接収した資料が重要
208	インド・ビルマ戦域の米戦争情報局（OWI）の前哨部隊と心理戦班が作成した慰安婦関係資料
226	R&A組織とX-2組織が作成した資料も重要。いわゆるRegularシリーズとXLシリーズの文書には日本軍の戦争犯罪記録が多数含まれており、慰安婦資料も多数。

13 / 37

### 3. 資料紹介

RG	Seriesの概要
319	いわゆる「IDファイル」は日本軍慰安婦資料として重要。ATIS、SEATIC、SINTICなど通訳翻訳機関による作成資料が多数存在している。
331	GHQ/SCAPの法務部の資料も重要。日本戦犯に対する訴追資料だけではなく、捜査資料の中の女性に対する強制売春、強姦、殺害、虐待資料も重要。
457	膨大な暗号解読資料のうち、約2万頁分のSummaries of Japanese Messages(SIM)が重要。
493	中国・ビルマ戦域における情報（G-2）及び作戦（G-3）報告書、SINTIC作成資料が注目される。
496	太平洋戦争時期における太平洋の島々での情報、作戦報告書の報告。特にSWPA（マッカーサー）の心理作戦部が作成、接収した資料が重要。
554	SACP、FEC、UNC（マッカーサー）の情報、作戦、戦犯裁判関係資料の報告。ATIS、SEATIC、WDCの報告書の中の慰安婦関係資料が注目される。巢鴨プリーズン資料中に戦犯及び慰安婦資料がある。

**13個のRGから多様な類型の日本軍「慰安婦」関係資料を発掘・収集**

14 / 37

3. 資料紹介  
2) 資料の内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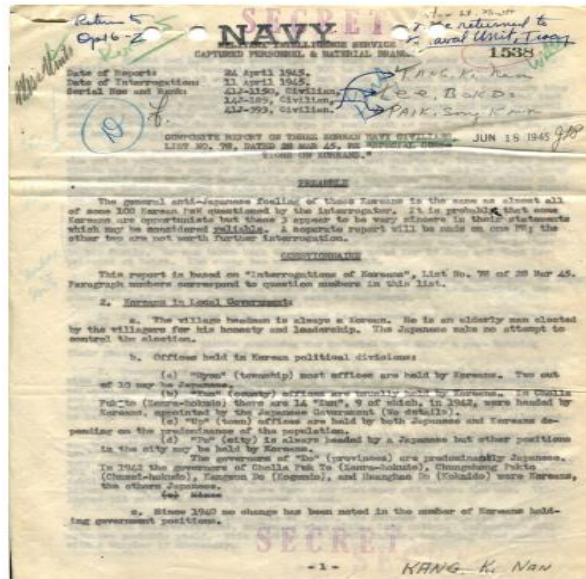
NARA RG 165 米陸軍情報部一般/特殊参謀本部

15 / 37



NARA RG 165 米陸軍情報部一般/特殊参謀本部

16 / 37



NARA RG 38 米海軍作戦部長室

17 / 37

8 - JUL 1944

From: Manila  
To: Tokyo (GEA) #40  
Reference my message #38\*  
8 July 1944  
JBB

Since I last communicated with you, I have made an investigation of those persons not interned. The following facts have become known:

\*KATSUKAWA MARU disaster victims - 3, all of whom have been granted relief.

\*TSURUSHIMA MARU disaster victims - 114. Of these, the whereabouts of 41 (21 men and 20 women) are unknown, and 3 (women) have died.

Those who have not been interned are to be sent home on the earliest available boat. However, it has been decided that 19 prostitutes and 2 (overseers ?) will remain behind in accordance with the wishes of military personnel here.

I believe that the 4 (boats ?) mentioned at the end of my caption wire were undamaged.

\* Jap Dip. #118601.  
\* JAP DIP. #131082 - DI (CARDED ONLY/mv)

NARA RG 38 米海軍作戦部長室

18 / 37

CONFIDENTIAL

BASIC PERSONNEL RECORD F. P. C.

(Asian Enemy & Prisoner of War)

51J-20625-CI

CHO Kin Guoku  
Female

Height 4 ft 11 in  
Weight 124  
Eyes BROWN  
Skin Yellow  
Hair Black  
Age 24  
Distinguishing marks or characteristics: None

Inventory of Personal Effects Taken From Internee  
1. None

Classified by Authority  
Date AUG 12 1945

23 July 1945, Luzon POW Camp #1, Luzon, P. I.

RIGHT HAND				
1. Thumb	2. Index Finger	3. Middle Finger	4. Ring Finger	5. Little Finger
LEFT HAND				
6. Thumb	7. Index Finger	8. Middle Finger	9. Ring Finger	10. Little Finger

Note: Amputation in Proper Space

CONFIDENTIAL

NARA RG 389 憲兵監室

19 / 37

SECRET

評価  
この捕虜から得られた最も貴重な情報は、日本人による朝鮮人差別についてのものである。捕虜は、連合国が日本軍より自分たちを待遇してくれるとわかっていたため、連合国の捕虜になったことを喜んでいる。

.....

戦闘状況  
ある時、とてつもなく頭にきて彼らに捕虜になってやると言った。医師は勝手にしろと言うなり、もし彼らがおまえを捕まえれば、おまえは強姦され、殺されるだけだと言った。捕まった時、私が恐れたのはそのため、実際には何も起きなかったところか、よい待遇を受けている。.....彼らは私が朝鮮人であるというだけの理由で差別した。

一般的考え  
.....  
朝鮮人の警官は、日本人の警官よりもっと始末に負えない。彼らは日本人と同じか、もっとひどいことを見せることで、日本に忠誠を尽くしていることを見せつけようとする。人々を大事に扱ったらいいのに、その逆だ。日本のために働く人々は日本人と同じか、もっとひどいのだ。

.....

RG 208 米戦争情報局 (OWI)

20 / 37

FORM 37  
 POW INTERROGATION  
 Interrogator -- 7/4 Esaji Tsuda April 18, 1944.  
 NAME Il-wah1 Ego AGE 20 RANK Corporal  
 SQUAD Squad leader of a Heavy Machine Gun Squad (10 men in squad)  
 UNIT 1st Heavy Machine Gun Company  
 2nd Battalion  
 1st Regiment  
 10th Division  
 When captured his squad was attached to the 1st Rifle Company.  
 POW'S BACKGROUND:  
 POW was born and raised in Burma. He has had 2 years of schooling. He had a farm and worked part time in a salt factory. Burma 211.  
 POW is married. His wife is 20. His two daughters are 8 and 4 years old. Both of his parents are living but says that since they are old will not live very long. His parents and family live at Burma 211. POW's two sisters are married, and his brother has married into another family (2001).  
 POW had no military training in school, and has not attended

「日本軍のための慰安婦は全員朝鮮人です」と捕虜は陳述した。慰安婦は、軍駐屯地周辺の都市に定住した。部隊には、彼女たちを訪問する特定日が割り当てられた。慰安婦は、戦闘地帯へ派遣されなかった。もしそうしたとすれば「彼女たちは性に飢えた軍人に殺されただろう」と捕虜は述べた。

**NARA RG 208 米戦争情報局 (OWI)**

DECLASSIFIED Authority 2025 722 HQ

CONFIDENTIAL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WASHINGTON, D. C.

DATE 17 November 1944  
 COUNTRY Burma  
 SUBJECT Interrogation - General Conditions

SOURCE 2  
 SUB SOURCE 3 Burmese rice farmers and traders

RECOMMENDATION Prior to September 1944  
 TYPE OF ORIGIN Easy

CLASSIFICATION 1-2007  
 ORIGINAL REPORT NO. E-207 (suppl'd)  
 DATE OF REPORT 10 October 1944  
 EVALUATOR P-2

CONFIRMATION SUPPLEMENT CONNECTION

NUMBER OF PAGES 6  
 ATTACHMENTS  
 THEATRE SEAC

The following intelligence was derived from an interrogation at which other agencies were represented. Recipients are cautioned that the same information may appear in other forms in other reports.

**GENERAL**  
 Ethnological Information

1. The Talangs live on the western slope of the Yonasserie hills. Most of the people in their villages are Talangs, although a few Burmese are also found there. There are no Karen living in these villages, but they frequently come from the Karen States of the Malay Peninsula.

9. The Japanese soldiers use special Japanese brothels, and claim the women are Japanese. However, they do not speak Japanese, and the informants believe they are from Korea or Manchuria. There are some Burmese women in the brothels, mostly brought from other areas, but the Talang informants state there are no Talang women so employed.

CONFIDENTIAL

CLASSIFIED BY [ ]

**NARA RG 208 米戦略諜報局 (OSS)**



XIII. GENERAL.

Forced Abduction of young girls: On the order of the Assistant Wedana of Ngargojoso, Solo (Mid-Java) a number of young girls were assembled, of whom five were selected and forcibly taken to Solo by the Japanese. Informant did not actually witness this, but knows for certain of the incident, which took place in the first half of '43. He knows of one girl, aged 14, named Waginem from Kampeeng Plawan (Mid-Java) who was taken. This girl was sent back to the village shortly after, infected with venereal dis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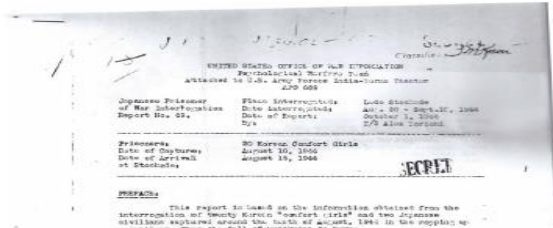
NARA RG 319 陸軍参謀部



NARA RG 319 陸軍参謀部



#### 4. 資料研究の解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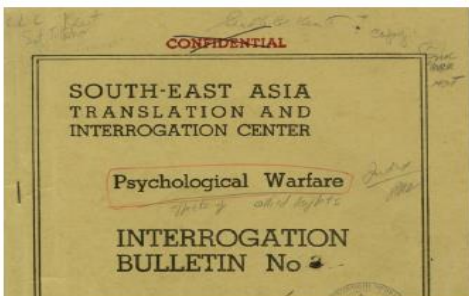


#### 募集

1942年5月初旬、日本の周旋業者たちが、日本軍によって新たに征服された東南アジア諸地域における「慰安接客」に就く朝鮮人女性を徴集 (enlisting) するため、朝鮮に到着した。この「接客」の性格は明示されなかったが、それは病院にいる負傷兵を見舞い、包帯を巻いてやるなど、おもに将兵を喜ばせることにかかわる仕事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た。これらの周旋業者が用いる誘いのことばは、多額の金銭と、家族の負債を返済する好機、楽な仕事、それに新天地—シンガポール—における新生活という将来性であった。このような偽りに騙され、多くの女性が海外勤務のために徴募され、数百円の前渡金を受け取った。

これらの女性のうちには、「地上で最も古い職業」に以前からかかわっていた者もいたが、大部分は無知、無教育であった。彼女たちが結んだ契約は、前渡された借金に応じて6ヵ月から1年にわたり、彼女たちを軍の規則と「楼主」のための役務に隷属させた。

27 / 37



捕虜 M.739 は、妻と義妹と一緒に朝鮮の京城で料理店を経営してかなりのお金を稼いでいたが、商売が不振に陥ったため、より多くの金を儲ける機会を求めて、朝鮮からビルマへ「慰安婦」を動員する許可を京城に駐屯していた朝鮮軍司令部に申請した。この捕虜の話によればその提案は、朝鮮軍司令部から出たもので、朝鮮に在住する捕虜と同じような多くの日本人「業者たち」に下達された。

捕虜は、女性の性格、容貌、年齢に応じて 300 円から 1000 円までの前渡金を彼女たちの家族に支払い、朝鮮人未婚女性 22 人を買収した。これら 22 人の女性の年齢は、19 歳から 31 歳であった。彼女たちは、この捕虜の排他的な財産となつたのであり、軍は彼女たちから何らの金銭的な利益も得なかった。朝鮮軍司令部は、日本軍司令部のあらゆる司令部宛ての書簡を、捕虜に渡した。それは、輸送、食料の支給、医療など、捕虜が要請するすべての援助を差しのべるように要請するものだった。

28 / 37

## ■ 尋問報告第49号 (いわゆるヨリチ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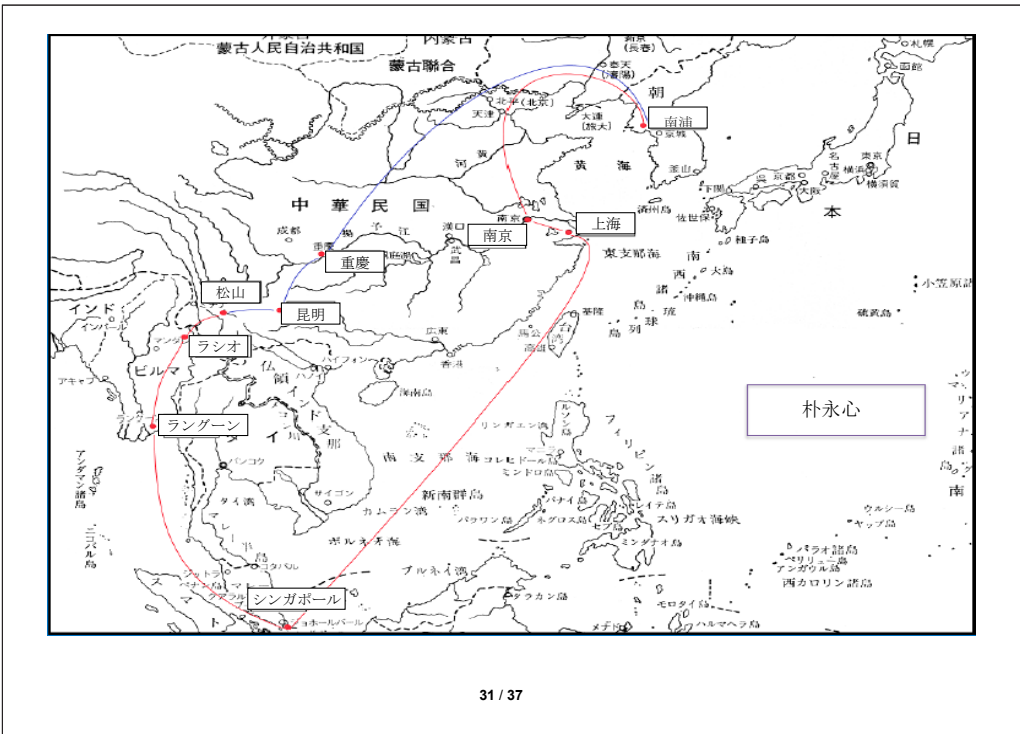
- 調査報告書(第120号)とともに、資料としての価値が非常に高いものと評価される。日本軍の関与の下に、業者による朝鮮人「慰安婦」の募集方法、ビルマへの輸送過程、「慰安婦」の生活状況、慰安所の運営と利用実態、日本軍により取り残され、連合軍の捕虜となるまでの全過程が詳しく報告されている。
- 限界も明白である。アレックス・ヨリチは米軍情報部の兵士だったが、日系であったため自分を敵国日本のスパイと疑う視線にさらされていた。そのため、アメリカ市民として愛国心を証明すべき「男性」兵士だった。
- 彼のアイデンティティ及び位置は、朝鮮人慰安婦の性格、慰安所での生活と処遇に関する報告書の内容に反映され、偏向と歪曲をもたらした。
- 例えば、朝鮮人「慰安婦」を「軍隊に随行する」「地上で最も古い職業」の女性として認識している。これを前提に、朝鮮人「慰安婦」たちが「幼稚で、気まぐれで、利己的」であり、「自己中心的な傾向があり」、「見知らぬ人の前ではおとなしく、控えめに振る舞うが、おんなの手管を心得ている」と述べている。自分の前で朝鮮人女性が自分の状況を否定的に話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彼は、慰安婦が「自分の職業を嫌いだ」と主張し、職業や自分の家族について語りたがらない」と断定的に述べている。
- 「他のところと比べれば」という端緒、ビルマでの慰安婦の生活は、「贅沢であるといえるほど」であり、「スポーツに参加して楽しく過ごし、ピクニック、娯楽、社交夕食会にも参加」した。さらに、「蓄音機を持っており、街へ買い物に出かけていた」と述べている。この記述そのものは、事実ではなく、日系アメリカ人男性であり、情報局所属の兵士だったアレックス・ヨリチが尋問者の立場から尋問対象者の朝鮮人女性の口から出た証言の一端を自分の都合によいものだけを抽出して分節するように「解釈」したものである。

29 /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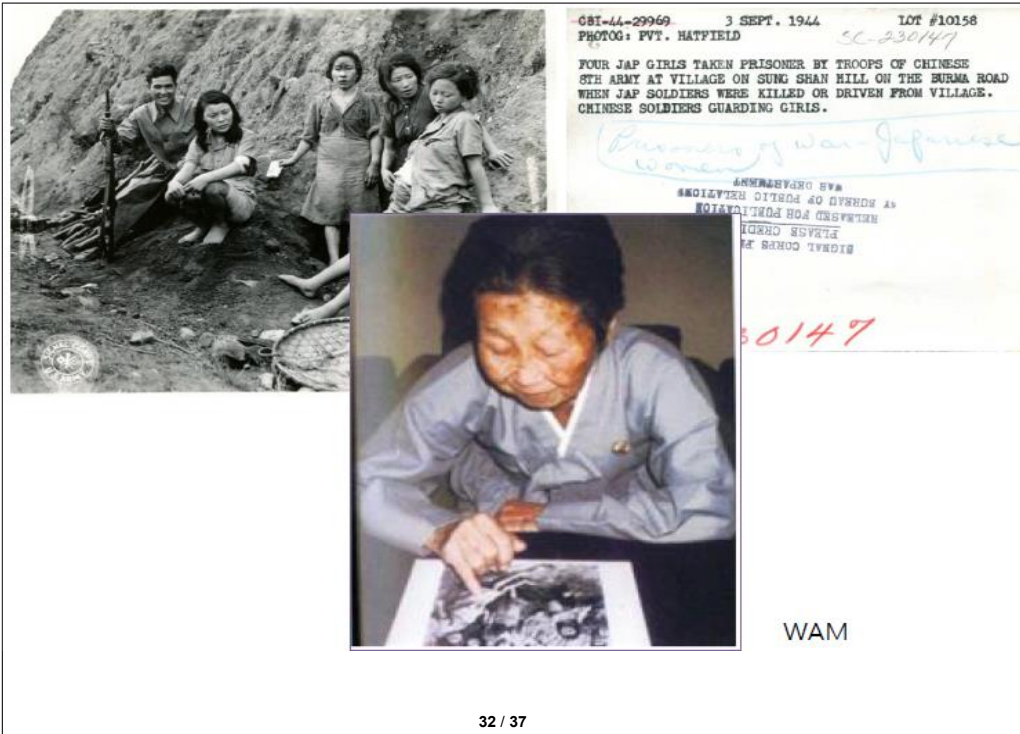
## ■ 尋問報告第2号

- ヨリチ報告の歪曲を証明することのできる比較可能な文書
- アレックス・ヨリチが尋問した朝鮮人「慰安婦」20人に対する尋問内容のみならず、イギリスの合同軍事情報尋問センター(Combined Services Detailed Interrogation Centre ; CSDIC)が行った日本人業者の北村に対する尋問も含まれている。
- 業者の北村は、衣類、日常必需品、さらにはぜいたく品を法外な値段で慰安婦たちに売りつけ、利益をあげており、慰安婦は前渡金及び利子、物品購入費を全部返済して帰国することは事実上有り得なかった。たとえ、借金の返済を終えても戦況のために、朝鮮人「慰安婦」は誰も帰国を許されなかった。北村は、「1943年6月に第15軍司令部が、返済の終わった慰安婦の帰国を許可する命令を下し、この条件を満たした慰安婦一人が帰国しようとしたが、留まってほしいという説得にすぐに屈服された」とはっきりと答えている。
- 北村は、「慰安婦」の募集に関連して朝鮮軍司令部が朝鮮に在住する日本人業者たちに下達しており、「慰安婦」の輸送、食料の支給、医療などあらゆる援助を提供する書簡を業者に提供したと明かしている。
- 慰安所は軍(第114連隊丸山部隊)が統制し、連隊司令部の将校(大尉)が連絡の責任を担い、連隊から二人の兵士が派遣され任務にあたったと話している。
- 業者と「慰安婦」が「プロのキャンプ・フォロワー」(professional camp follower)ではなく、軍が募集を依頼し、慰安所を直接管轄したと証言した。

30 / 37



31 / 37



32 / 37

CONFIDENTIAL

ENGLISH AND JAPANESE PRISONERS OF WAR IN KUNMING  
28 April, 1946

1. General. The Punning Headquarters of the Chinese Army is now holding at the Punning Yuan Hua Middle School compound, 23 Koreans (22 women and 1 man), 1 Korean (man), and 81 Japanese (4 women and 77 men) as prisoners of war.

The brief descriptions which follow are prepared for the use of all interested GIs branches, as an index to the character of intelligence obtainable from these prisoners.

The content of the data obtained on the Koreans differs in some respects from that covering the Japanese because of the varying composition and attitudes of the two groups. The following items are, however, given for each individual regardless of nationality: name, unit, place and date of capture. The rank of each man is also stated.

2. The 23 Koreans. None of the Koreans was captured; all of them escaped from Japanese units and gave themselves up to Chinese forces.

Their Korean nationalism is spontaneous and unadulterated, and their willingness to supply information is wholehearted.

With the exception of Mrs. Hwang Nam-suk, all of the 23 women became "comfort girls", apparently under compulsion and misrepresentation. The fifteen who left Korea in July, 1943, for example, were recruited through advertisements in Korean newspapers offering employment for girls in Japanese factories in Singapore. The contingents with which they were sent outward included at least 300 girls who were similarly misled.

Mr. Ho Pyong-chil was a civilian interpreter and liaison representative, with a simulated grade of captain.

Hwang Pyong-ki, the son of Mrs. Hwang Nam-suk, was with his mother and was not a member of the Japanese Army; he is only 11 years of age by the calendar.

All of these Koreans escaped to Chinese units in September, 1944. At the time of their surrender, thirteen of the women and the boy were attached to the 14th Regiment, 86th Division, at T'ung-ch'ung (20-25 N. 105-01 E), Kunming, and the remaining ten women were with the 14th Regiment of the same division at a nearby point reported to be Sang-shan (松山). Ho Pyong-chil was a member of the 11th Regiment, 18th Division, at T'ung-ch'ung.

The list which follows identifies each of the Koreans.

CONFIDENTIAL

CONFIDENT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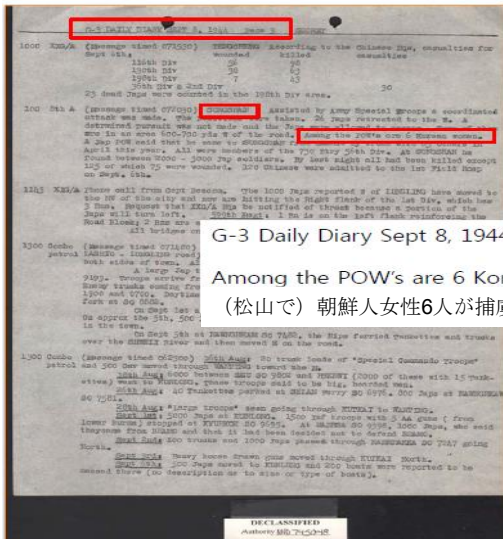
### Korean and Japanese prisoners of war in Kunming (1945. 4. 28.)

捕虜収容所には朝鮮人25人(女性23人、男性2人)、台湾人男性1人、日本人81人(女性4人、日本兵77人)が抑留されていたという。朝鮮人の中の10人は、松山地域の慰安所で捕まった「慰安婦」たちであり、13人は騰衝の慰安所にいた「慰安婦」たちだった。朴永心(パク・ヨンシン)などが捕虜となった後、松山で朝鮮人「慰安婦」6人がさらに捕まったものとみられる。

『23人の女性たちは、確かに強制的、かつ騙されて「慰安婦」となった。』

Aug. 1949	Pyongan Hwado	✓ Pak Yong-sin	23	Pyongyang
1950	Pyongan Hwado	✓ Kim Ok-chai	21	Pyongyang
Nov. 1941 c. 1930	Pyongan Hwado Pyongyang Do	✓ Hwang Pyong-ki Ho Pyong-chil	16 31	Pyongyang South

CONFIDENTIAL



G-3 Daily Diary Sept 8, 1944 p.3

Among the POW's are 6 Korean women (松山で) 朝鮮人女性6人が捕虜として捕ま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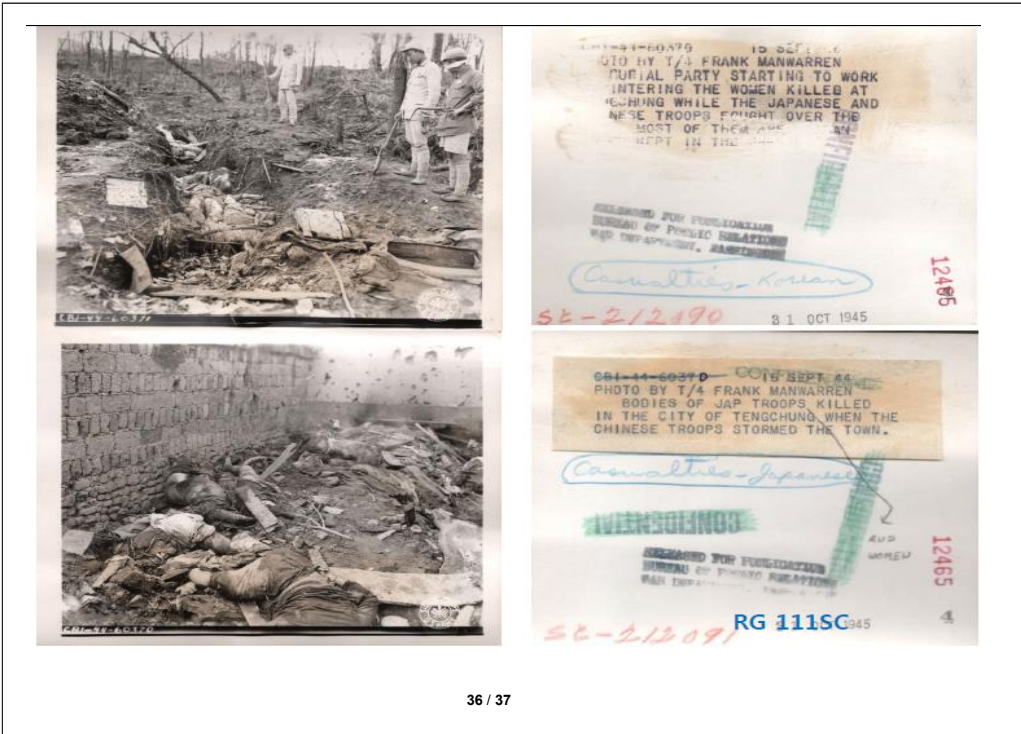
NARA RG 493 CBI

0930 KIA/A (Message time 1200) ...  
 1030 KIA/A (Message time 1200) ...  
 1100 5th/A (Message time 1100) ...  
 1200 KIA/A (Message time 1200) ...  
 1300 KIA/A (Message time 1300) ...

G-3 Daily Diary Sept 15.1944 p.3

Night of the 13th the Japs shot 30 Korean girls in the city.  
 (騰衝陥落直前の9月) 13日夜、日本軍が城内にいた朝鮮人女性30人を銃殺した。

NARA RG 493 CBI



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37 / 37



# 日军“慰安妇” 美国资料发掘情况与课题



Kang SungHyun(圣公会大学东亚研究所)



## 1. 美国资料的必要性

### ■ 调查美国资料的必要性

- 慰安妇资料对日本的依存度很高的情况下，接触日本收藏档案受到限制
- 联合国相关资料以及联合国没收、缴获的日本资料重要性日益突出
- 要求通过收集美国资料及联合国资料，构筑日军“慰安妇”档案
- 要求基于“慰安妇”档案的研究、生产相关内容、加强外交力量

### ■ 美国资料

- 美国档案机构(NARA、MacArthur Archives、Naval Operational Archives of DN、LOC、Hoover Institution Archives)收藏的资料
- 美国档案机构收藏美国、联合国的资料与从日本(政府/军队)缴获或没收的资料
- 2000年初期，InterAgency Working Group (IWG)进行活动，其结果关于日本战争犯罪约10万页的档案被解密而公开

## 1. 美国资料的必要性

### ■ 联合国的报告书以及其他资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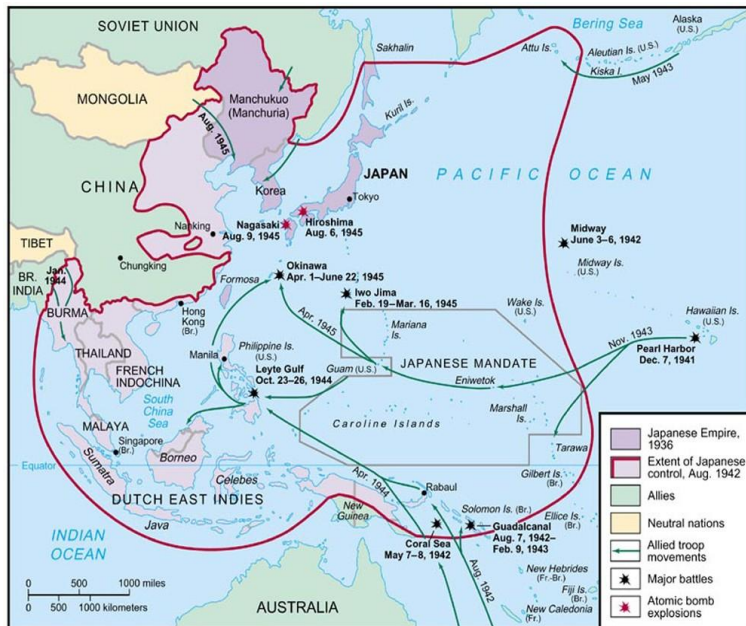
- 以日军俘虏和民间业者为对象的审讯报告书 (Interrogation Report)
- 信息 (G-2), 作战 (G-3) 报告: 日志、周报、月报
- 研究报告书
- 军队士兵拍摄的写真 (照片) 与影像

### ■ 从日军缴获、没收的档案

- 联合国征服战时、战后日本所占领土 (南洋群岛、南方、菲律宾、中国、台湾、朝鲜、日本) 的过程中缴获与没收的资料
- 尽管在日本的主导策划下有组织的烧毁与废弃部分资料, 但是缴获很多资料
- 为掌握战争 (战斗) 信息、收集战犯资料, 将缴获、没收的日文档案进行翻译 (专业翻译、选择翻译), 密码文件 (MAGIC)

### ■ 返还日本资料

- 上世纪50年代开始, 该档案开始向日本返还。将相关文档放在日本防卫省防卫研究所战史图书馆、外务省外交史料馆、国立公文书馆、国会图书馆等原来收藏地方。
- 上世纪90年代以后, 吉见义明教授与日本政府进行调查, 发掘“慰安妇”相关档案。



WORLD WAR II IN THE PACIFIC



- 美国国家档案和纪录管理局(NARA) 第二号楼 (<http://www.archives.gov/>)
- 地址: 8601 Adelphi Road College Park, MD 20740

## 1. 美国资料的必要性

### ■ (数字时代) 资料的“原本”与“副本”的界线

- 即使是NARA收藏的资料，但将该资料移交给原来的收藏地方时必须提供原本与副本。并且会生产数个原本档案，并各原本档案分配于不同RG（生产资料的时候“distribution line”问题）
- MA收藏资料大部分都是NARA收藏的麦克阿森相关档案副本，但是从MA收集的档案之收藏地方以MA标示，将它视为原本。

### ■ 资料的“新发掘”与“已发掘”的界线

- 已经向舆论与学术界“正式报告”的资料被视为“已发掘”的资料
- 但是，不被列为正式发掘资料如下：发掘的资料有一部分内容被舆论公开；在论文或书籍援引；通过其他方式进行简要或解题；**现在没有收藏相关档案(副本)**或拥有副本，**但不知道原来的收藏地点(MLR)而不能再次接触。**

## 2. 美国资料调查与收集情况

### 1) 日本

#### ■ [政府调查“从军慰安妇”关系资料集成 5卷] (亚洲妇女基金会资料集)

- GHQ(SWPA/USAFFE/SCAP) ATIS 资料26件、印度-缅甸战区司令部 SEATIC资料5件、美国 OWI资料1件、照片4件
- 影印本资料集，不是资料全部而是“慰安妇”相关部分的影印，没有研究解题
- 根据生产资料的脉络，难以解释“慰安妇”信息的意思。部分资料包括被选别的慰安妇信息与被遗漏的部分。何谓发生？有什么标准？

#### ■ 季刊[战争责任研究]与WAM

- 2000年以来，日本战争责任资料中心通过研究解题形式有系统的介绍资料
- 没有关于全面进行发掘收集资料的项目，但是估计研究员个人收藏多数资料
- 有关慰安妇的资料解题在1990年为1篇，2000年以后增加为14篇
- 在美国、澳大利亚进行调查与收集的WAM的NEFIS 审讯报告

#### ■ 林博史

- 对战犯审判、在冲绳以及南洋与南方部署的军队与“慰安妇”之间的关系资料的研究达到相当高的水平。在美国、英国、澳大利亚等档案机构多年进行调查与收集。

## 2. 美国资料调查与收集情况

### 2) 韩国

#### ■ 女性家族部

- 2002-2003年日军“慰安妇”问题的国外资料调查研究事业（研究负责人 郑镇星）
- ATIS审讯报告，研究报告（120号），OSS中国分部昆明报告（最早发掘）
- 关岛战犯审判原案件的部分档案（战争责任资料中心，吉见义明收集资料的副本）
- 文件中央有“女性家族部”的标示

#### ■ 国史编撰委员会

- 从2016年开始进行日军“慰安妇”以及战争犯罪资料集出版事业
- 确保ATIS全体文件，对慰安妇相关档案进行翻译

#### ■ 向联合国教科文组织申请，为“慰安妇”申报《世界记忆名录》成立国际连带推进委员会

- 亚洲妇女基金会资料集5卷收录资料+其他（文件以及照片）为中心编写目录

## 2. 美国资料调查与收集情况

### 3) 首尔大学人权中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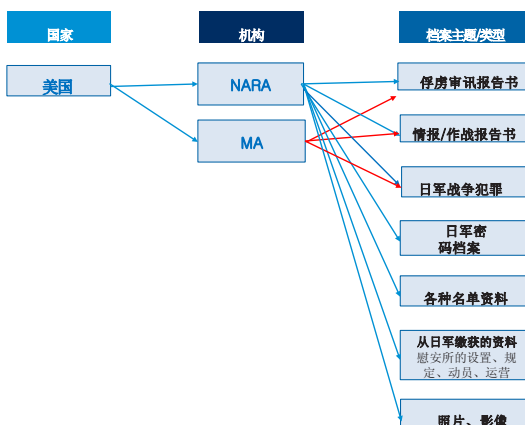
#### ■ 2014-2015年第一阶段事业 (首尔大学人权中心)

- 到美国NARA与MA进行现场调查并收集资料3个星期 (6名)
- 收集“慰安妇”有关资料120件: 机构- NARA 95件, MA 25件; 资料生产机构-ATIA 32件、SEATIC 21件、NEFIS 33件、其他26件; 资料类型-日军俘虏 (军人、军属、老百姓) 审讯报告、日军缴获资料的翻译文件、战犯审判资料、政府报告书、巢鸭监狱有关囚犯资料
- 新发掘的档案, 资料价值高的档案10件, 其中两件通过KBS (2015年3月2日) 报道, KBS “解放70周年《被强征的少女, 在关岛战线消失》” 纪录片中介绍

#### ■ 2016年第二阶段事业 (首尔大学人权中心与首尔市)

- 到美国NARA与MA进行现场调查并收集资料4个星期 (7名)
- 收集“慰安妇”有关资料130件: 机构- MS CPMB 20件、OWI 19件、Y-Fos 16件、其他58件; 资料类型-日军俘虏 (军人、军属、老百姓) 审讯报告、从日军缴获资料的翻译版本、战犯审判资料、陆军/海军信息及作战报告、俘虏收容所名单以及乘船名单资料等
- 收集慰安妇屠杀研究所需的美军公文、美军对慰安妇的认识与利用心理战的档案、有助于慰安妇返回研究的收容所名单以及乘船名单等价值高的资料

## 2. 美国资料调查与收集情况



#### ■ Documentation Strategy

- 利用NARA网站搜索工具、日本战争犯罪关系 Finding Aids、主要参考信息、本研究组多年收集并完成的 Finding Aids
- 在国内花数个月的时间编写 Targeting List
- 美国NARA、MA 现场调查中调查、收集、列表(Cataloging)、翻译与研究解題

## 2. 美国资料调查与收集情况

2015年

RG	生产机构	类型	件数
3(MA)	ATIS, SWPA	T	25
111	164 Sig Photo Co, unid, US SC	SP	8
125	Guam Island HQ	T	8
153	CINCPAC	T	1
165	ATIS, SWPA, SOPAC, SEATIC, MIS, CSDIC, CBI	T	28
226	SEATIC	T	4
319	NEFIS	T	33
493	SINTIC	T	1
496	USAFFE, SEATIC	T	10
554	Sugamo	T	2
총계			120

## 2. 美国资料调查与收集情况

2015年

RG	生产机构	类型	件数
38	Navy OP-16-G, OP-16-Z	T	8
111	164 Sig Photo Co, unid, US SC	SP	18
125	the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Navy)	T	7
153	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T	1
165	MIS CPMB	T	20
208	OWI	T	19
226	OSS, ATIS, NEFIS	T	22
319	JICA(Joint Intelligence Collection Agency) China	T	1
331	Okinawa COMMAND BASE	T	1
457	National Security Agency	T	4
493	Y Fos	T	16
496	OWI, NEFIS	T	8
554	CSDIC	T	5
총계			130

### 3. 介绍资料

#### 1) 收集对象 RG-Series 的概况

RG	Series 概况
38	有关慰安妇的海军密码档案，美海军军艇（冲绳）相关档案。ONI的朝鲜人俘虏审讯以及心理战相关资料
59	EN A15697（ZZ1005）上世纪90年代前后关于慰安妇的国务部资料，显示美国、日本、韩国在该问题上的立场
125	太平洋诸岛的海军战犯档案中慰安妇相关资料（篠原、中村中尉资料）
153	日军军官、军官个人战争犯罪档案、战争犯罪统计等MIS、OSS、ATIS等资料
165	美国战争部MIS的俘虏以及缴获的资料科所生产并缴获的资料非常重要
208	美国战争情报局（OWI）属下的印度-缅甸-中国战区的Outpost和心理战组生产的慰安妇相关资料
226	R&A组织与X-2组织的资料非常重要，Regular系列与XL系列档案包括日军战争犯罪纪录与多数慰安妇相关资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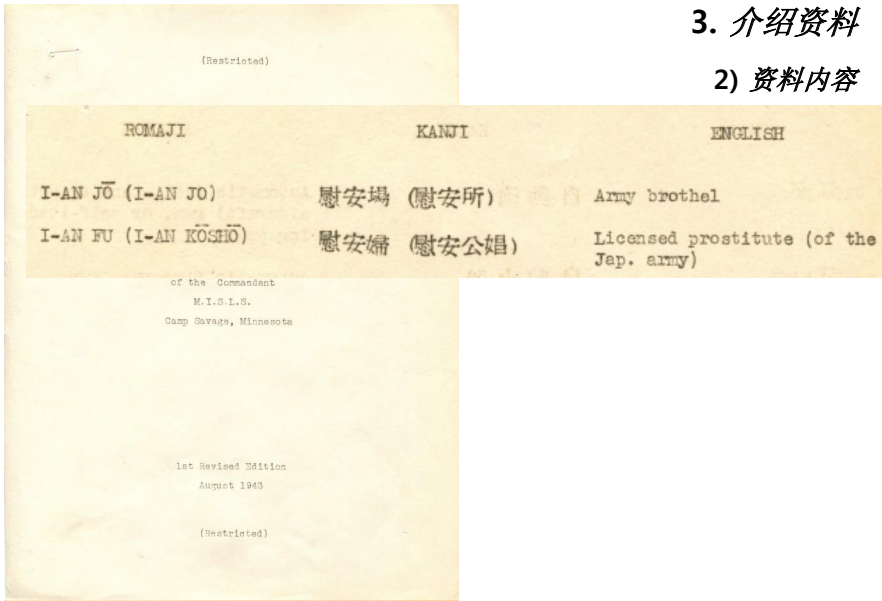
### 3. 介绍资料

RG	系列概况
319	“ID档案”与日军慰安妇有很大关系，包括很多ATIS、SEATIC、SINTIC等翻译机构的资料
331	SCAP的法务局资料非常重要，包括日本战犯起诉资料、强制妇女卖淫、强奸、杀害、虐待等资料
457	庞大规模的解密资料中有2万页的Summaries of Japanese Messages (SJM) 非常重要
493	关注缅甸与中国战区信息（G-2）以及作战（G-3）报告书，SINTIC生产资料
496	太平洋战争时太平洋诸岛的信息与作战报告书，尤其是SWOA（麦格阿瑟）的心理战与生产、缴获的资料非常重要
554	关注SCAP、FEC、UNC（麦克阿瑟）的信息、作战、战犯审判资料的报告，ATIS、SEATIC、WDC报告书中有关慰安妇资料，巢鸭监狱资料包括战犯与慰安妇资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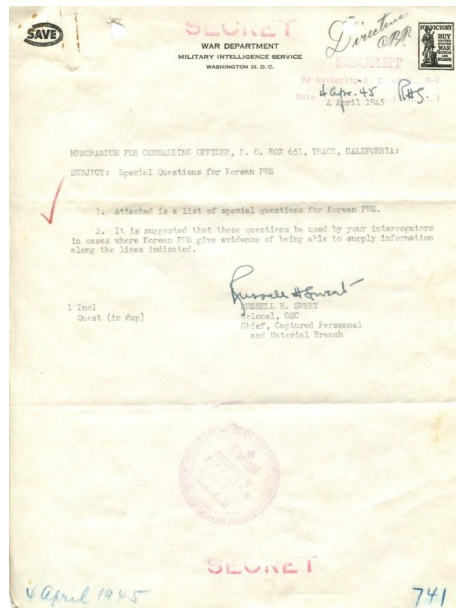
**从13个RG发掘与收集不同类型的日军“慰安妇”相关档案与资料**

### 3. 介绍资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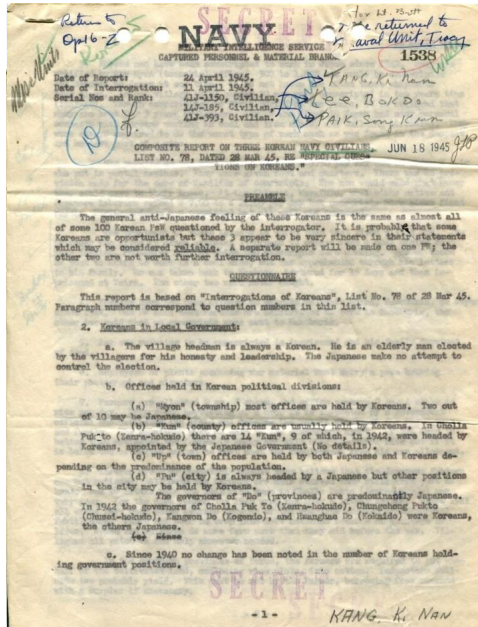
#### 2) 资料内容



NARA RG 165 战争部普通/特殊参谋本部



NARA RG 165 战争部普通/特殊参谋本部



NARA RG 38 海军作战部长室

8 - JUL 1944  
 #40  
 8 July 1944  
 JBB  
 From: Manila  
 To : Tokyo (GEA)  
 Reference my message #38\*.  
 Since I last communicated with you, I have made an investigation of those persons not interned. The following facts have become known:  
 \*MATSUKAWA MARU disaster victims - 3, all of whom have been granted relief.  
 \*TSURUSHIMA MARU disaster victims - 114. Of these, the whereabouts of 21 (21 men and 20 women) are unknown, and 3 (women) have died.  
 Those who have not been interned are to be sent home on the earliest available boat. However, it has been decided that 19 prostitutes and 2 (overseers ?) will remain behind in accordance with the wishes of military personnel here.  
 I believe that the 4 (boats ?) mentioned at the end of my caption wire were undamaged.  
 \* Jap Dip. #118901.  
 ✓ (JAP DIP. #151082 - DI) (GARDED ONLY/nw)

NARA RG 38 海军作战部长室

CONFIDENTIAL

**BASIC PERSONNEL RECORD** F. P. C.\*  
(Alien Enemy ~~XXXXXXXXXX~~)

517-20625-CI (Department serial number)

**CHO Kin Guioku** (Name of internee)  
**Female** (Sex)

Height **4** ft. **11** in. Reference\*

Weight **124** INVENTORY OF PERSONAL EFFECTS TAKEN FROM INTERNEE

Eyes **Brown** 1. **NONE**

Skin **Yellow** 2. \_\_\_\_\_

Hair **Black** 3. \_\_\_\_\_

Age **24** 4. \_\_\_\_\_

Distinguishing marks or characteristics: **None** 5. \_\_\_\_\_

6. \_\_\_\_\_

7. **Called by Authority Date: Aug 12 1945**

8. **Class: 101 TPO**

9. **23 July 1945, Luzon POW Camp #1, Luzon, P. I.** (Date and place where processed (Army catchers, naval station, or other place))

10. **167-2** (Department of Internment)

RIGHT HAND				
1. Thumb	2. Index finger	3. Middle finger	4. Ring finger	5. Little finger
LEFT HAND				
6. Thumb	7. Index finger	8. Middle finger	9. Ring finger	10. Little finger

W.D. A.S.D. Form No. 10-2 (104 W.D. A.S.D. Form No. 2)

Not to be written in Proper Space

NARA RG 389 宪兵监室

SECRET

评价  
通过这个俘虏可以得到的最珍贵的信息就是日本人对朝鲜人的差别对待。俘虏们知道联合国比日本军对自己更好，所以很高兴成为联合国的俘虏。

...

战斗情况  
有一次特别生气，所以我说要去投降他们当俘虏。医生说“你去吧”，又说“他们抓到你肯定会强奸你然后杀了你”。这也正是我被抓的时候害怕的部分，但实际上什么事也没发生，我受到了很好的待遇。... 他们因为我是朝鲜人所以对我差别对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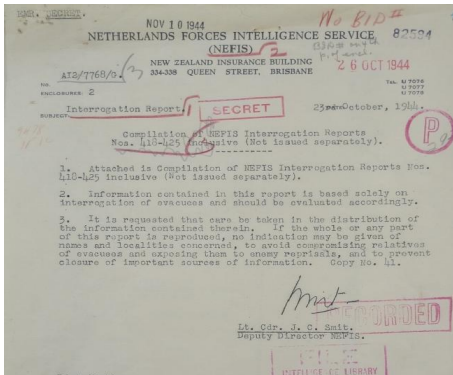
...

一般的见解  
...  
朝鲜人警察比日本人警察还要恶劣。他们只有通过表现出自己和日本人一样，或者比日本人还厉害，才能证明自己对自己的忠诚。应该与人为善，却恰恰相反。为日本做事的人，和日本人一样或者比日本人还恶劣。

...

**RG 208 战争情报局(OW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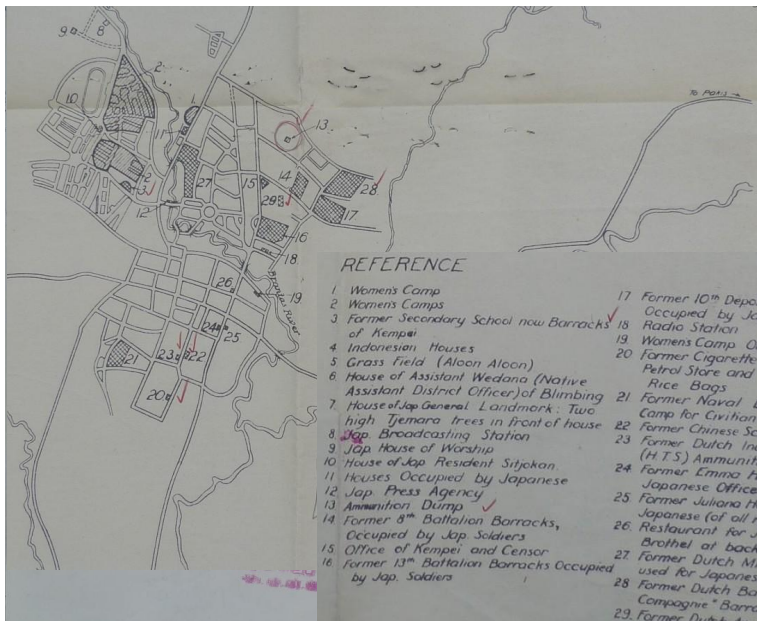




XIII. GENERAL.

Forced Abduction of young girls: On the order of the Assistant Wedana of Ngargojoso, Solo (Mid-Java) a number of young girls were assembled, of whom five were selected and forcibly taken to Solo by the Japanese. Informant did not actually witness this, but knows for certain of the incident, which took place in the first half of '43. He knows of one girl, aged 14, named Waginem from Kampoeng Plawan (Mid-Java) who was taken. This girl was sent back to the village shortly after, infected with venereal disease.

NARA RG 319 陆军参谋部



REFERENCE

- 1 Womens Camp
- 2 Womens Camps
- 3 Former Secondary School now Barracks of Kempai
- 4 Indonesian Houses
- 5 Grass Field (Aloon Aloon)
- 6 House of Assistant Wedana (Native Assistant District Officer) of Blimbing
- 7 House of Jap General. Landmark: Two high Temara trees in front of house
- 8 Jap Broadcasting Station
- 9 Jap House of Worship
- 10 House of Jap Resident Sitjokan
- 11 Houses Occupied by Japanese
- 12 Jap Press Agency
- 13 Ammunition Dump
- 14 Former 8th Battalion Barracks, Occupied by Jap Soldiers
- 15 Office of Kempai and Censor
- 16 Former 13th Battalion Barracks Occupied by Jap. Soldiers
- 17 Former 10th Depot of N.E.I. Army Occupied by Jap. Soldiers
- 18 Radio Station
- 19 Womens Camp Only a few Houses
- 20 Former Cigarette Factory "Taroka" Petrol Store and also Factory making Rice Bags
- 21 Former Naval Barracks Internment Camp for Civilian Men
- 22 Former Chinese School/Ammunition Store
- 23 Former Dutch Indonesian School (M.T.S.) Ammunition Store
- 24 Former Emma Hotel. Brothel for Japanese Officers
- 25 Former Juliana Hotel. Brothel for Japanese (of all ranks)
- 26 Restaurant for Japanese Army with Brothel at back
- 27 Former Dutch Military Hospital. Now used for Japanese and Indonesians
- 28 Former Dutch Barracks of Automobile Compagnie "Barracks for Jap Army
- 29 Former Dutch Army Stores Jap Army Stores

NARA RG 319 陆军参谋部

WAR DEPARTMENT  
**TOP SECRET ULTRA**

WAR DEPARTMENT  
 TOP SECRET ULTRA  
**TOP SECRET ULTRA**  
 S-Series  
 SJM  
 17 AUGUST 1945

S-14807  
 KEIJO - KALGAN JAH WS 19167 6 AUGUST 1945 x  
 065 13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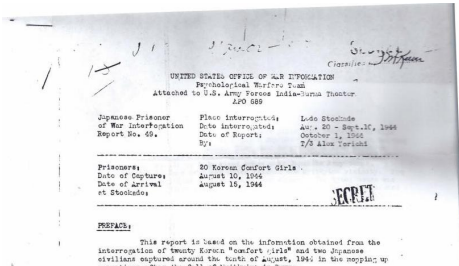
Re your 50.<sup>a</sup> Re funds for the importation of prostitutes for the exclusive use of the local army (private or licensed by the army, who are not used by the non-military personnel). KOREA has also received these funds in JAPAN, and, at the local army's urging, it is intended to release local deposits amounting to ten times the amount of the remittance. (CT)  
 a. Not available.

NARA RG 457 国家安全局/中央安全署(NSA/CSS)

(Print Type) SURNAME		GIVEN NAME		MIDDLE NAME		LEAVE THIS SPACE BLANK		Class.	
CHANG, Seifai.								Ref.	
CODE NO. (Write name of department or agency) FINGERPRINT CHART									
RIGHT HAND					LEFT HAND				
1. THUMB	2. INDEX FINGER	3. MIDDLE FINGER	4. RING FINGER	5. LITTLE FINGER	6. THUMB	7. INDEX FINGER	8. MIDDLE FINGER	9. RING FINGER	10. LITTLE FINGER
DATE OF BIRTH	PLACE OF BIRTH	SIGNATURE OF OFFICIAL TAKING PRINTS		NOTE AMPUTATIONS	EMPLOYEE'S SIGNATURE		HEIGHT	WEIGHT	SEX NO.
							<input type="checkbox"/> MALE		
							<input type="checkbox"/> FEMALE	HAIR	
							EYES		
FOUR FINGERS TAKEN SIMULTANEOUSLY LEFT HAND			LEFT THUMB		RIGHT THUMB		FOUR FINGERS TAKEN SIMULTANEOUSLY RIGHT HAND		
STANDARD FORM 58. Prescribed August 4, 1917, by Civil Service Commission. DO NOT FOLD									

NARA RG 554 FEC, SCAP, U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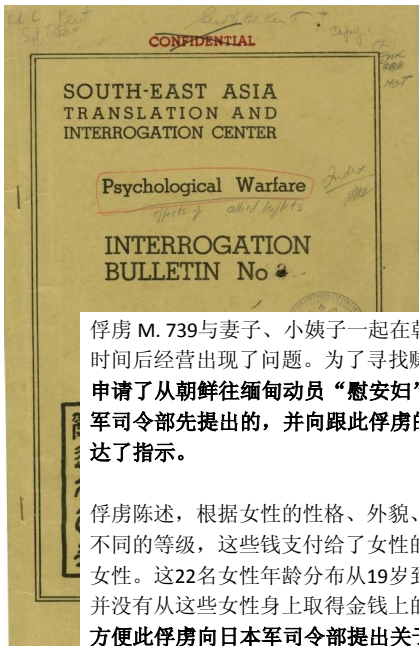
#### 4. 资料研究解题



#### 征集

1942年5月初，日本人业者们来到朝鲜，目的是征集（enlisting）为在日本军新征服的东南亚领土上提供“慰安待客”服务的朝鲜女性。虽然“待客”的性质并没有明确的公开，但是带给人的感觉是**从事探望负伤住院的军人，帮他们缠绷带等让他们愉悦的事情。这些业者用的引诱方法是可观的收入、偿还债务的机会、难度低的工作、可以到新天地般的新加坡开始全新的人生。**被这些业者**欺骗**的女性们为了去海外工作，仅仅以几百日元的订金就被征集了。

一部分女性虽然从事过“历史最长的职业”，但大多数都是既无知又没有接受过教育的女性。他们签订的合同，都按照他们接受的订金金额，根据军队规定隶属于“老鸨”，并在六个月或者一年期间付出劳动。



俘虏 M. 739 与妻子、小姨子一起在朝鲜京城经营餐厅，虽然赚了钱，但是一段时间后经营出现了问题。为了寻找赚钱的机会，**他向驻屯在京城**的**朝鲜军司令部**申请了**从朝鲜往缅甸动员“慰安妇”**的许可权。根据俘虏的陈述，此提案是朝鲜军司令部先提出的，并向跟此俘虏的情况相似的众多在朝鲜日本人“业者们”下达了指示。

俘虏陈述，根据女性的性格、外貌、年龄不同，订金也从300日元到1000日元分不同的等级，这些钱支付给了女性的家人，以这样的方法一共购买了22名朝鲜女性。这22名女性年龄分布从19岁到31岁。她们作为俘虏的排他性财产，军队并没有从这些女性身上取得金钱上的利益。**朝鲜军司令部**给此俘虏提供了**书函**，方便此俘虏向日本军司令部提出关于**输送、供给、医疗**等所有支援时所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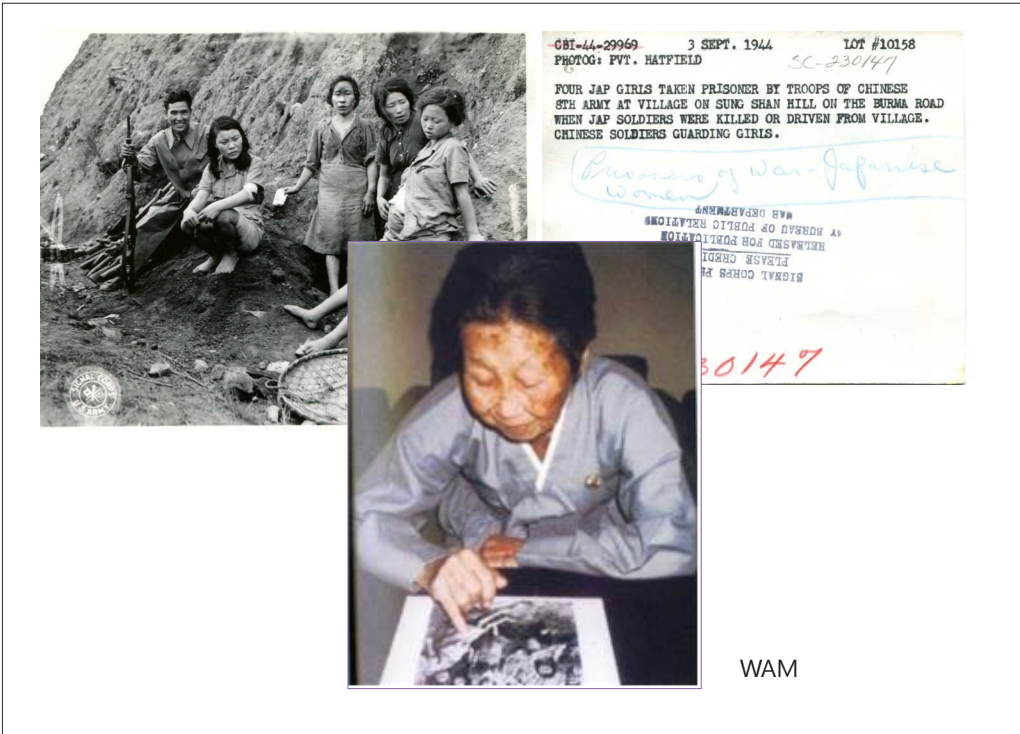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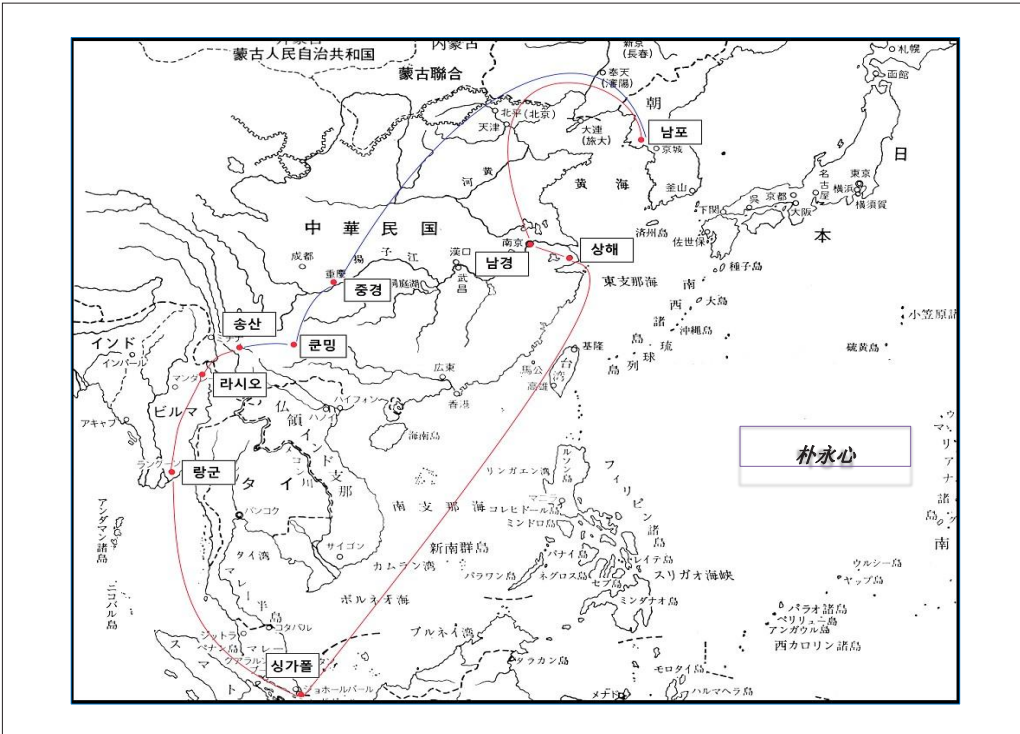
### ■ 审讯报告 49号(舛添要一报告书)

- 与研究报告书(120号)一样被评价为**极其有价值的资料**。在日本军的干涉下，业者征集朝鲜人“慰安妇”的方法、向缅甸运送的过程、“慰安妇”的生活、慰安所的运营与使用情况，被日本军抛弃后成为联合国俘虏的整个过程的详细报告。
- 其局限也很明显。**舛添要一虽是美军情报士兵，但因为自己是日本裔，怕有些人把自己视为敌国日本的间谍，所以他是一个必须证明自己作为美国市民之爱国心的“男性”军人。**
- 他的本质及位置，**让他对朝鲜人慰安妇的性格、慰安所的生活与待遇的报告书陈述，带来发生偏向和歪曲的可能性。**
- 例如，认为朝鲜人“慰安妇”是“跟着军队一起转移(随军)”的从事“历史最长职业”的女性。并以此为前提，认为朝鲜人“慰安妇”们十分“幼稚、荒唐、自私”、“具有以自我为中心的倾向”、“在陌生人面前很文静，可是深谙女人的技术”。虽然朝鲜女性在他面前总是很消极地对待自己的处境，他还是断定慰安妇“主张讨厌自己的职业，不想提及自己的工作和家人”。
- 所谓“比其他地方”，他的陈述中提到在缅甸，慰安妇的生活“可以称得上是奢侈”，“她们参加运动会，玩的很尽兴，她们还参加郊游、娱乐和社交晚宴”，“她们家里有留声机，还可以去市场买东西”。这些陈述本身并不能看为是事实，**日本裔的美国男性情报军人舛添要一站在审问者的地位在被审问的朝鲜人女性的言语中寻找只字片语，按照自己的意图去修改并分解来“解释”的。**

### ■ 审讯汇报 2号

#### • 证明舛添要一报告书被歪曲的比较档案

- 舛添要一以朝鲜人“慰安妇”20名为对象进行审讯的内容与英国联合审讯中心(CSDIC)对日本民间业者北村的审讯。
- 北村以昂贵的价格卖给慰安妇衣服、生活用品、奢侈品，获得暴利，慰安妇因定金、利息以及购物债务而难以偿还后回家，即使偿还，因战场情况，任何朝鲜人“慰安妇”没有被允许离开。北村明确表示“1943年6月第15军司令部下令偿还的慰安妇可以回家，符合该条件的慰安妇一名愿意回家，但是马上被说服留住”。
- 北村表示朝鲜军司令部下达驻朝鲜的日本业者募集“慰安妇”，并交给此业者提供了书函，方便此“慰安妇”关于输送、供给、医疗等所有支援。
- 慰安所由军队(第114联队丸山部队)管理，联队司令部的军官(大尉)负责联络，联队有两名负责派遣任务。
- 民间业者与“慰安妇”指证“慰安妇”不是“专业的随军百姓(professional camp follower)”，而是由军队委托业者募集慰安妇并军队直接策划管理慰安所。



CONFIDENTIAL

CHINESE AND JAPANESE PRISONERS OF WAR IN KUNMING  
28 April, 1945

1. General. The Training Headquarters of the Chinese Army is now holding at the Yunnan Sun Hua Middle School compound, 25 Koreans (23 women and 2 men), 1 Portuguese (man), and 61 Japanese (4 women and 57 men) as prisoners of war.

The brief descriptions which follow are prepared for the use of all interested G-1 branches, as an index to the character of intelligence obtainable from these prisoners.

The content of the data obtained on the Koreans differs in some respects from that covering the Japanese because of the varying composition and attitudes of the two groups. The following items are, however, given for each individual regardless of nationality: name, unit, place and date of capture. The rank of each man is also stated.

2. The 25 Koreans. None of the Koreans was captured; all of them escaped from Japanese units and gave themselves up to Chinese forces.

Their Korean nationalism is spontaneous and unadulterated, and their willingness to supply information is wholehearted.

With the exception of Mrs. Hwang Nam-suk, all of the 23 women became "comfort girls", apparently under compulsion and misrepresentation. The fifteen who were in July, 1943, for example, were recruited through advertisements in Korean newspapers offering employment for girls in Japanese factories in Singapore. The contingents with which they were sent southeast included at least 300 girls who were similarly misled.

Mr. Ho Pyong-chil was a civilian interpreter and liaison representative, with the simulated grade of captain.

Hwang Pyong-in, the son of Mrs. Hwang Nam-suk, was with his mother and was not a member of the Japanese Army; he is only 11 years of age by the calendar.

All of these Koreans escaped from Chinese units in September, 1944. At the time of their surrender, thirteen of the women and the boy were attached to the 140th Regiment, 80th Division, at T'ung-chiang (100-20 E, 23-02 N), Chungking, and the remaining ten women were with the 140th Regiment of the same division at a nearby point reported to be Sang-shan (K 24 ). Ho Pyong-chil was a member of the 140th Regiment, 10th Division, at T'ung-chiang.

The list which follows identifies each of the Koreans.

CONFIDENTIAL

Korean and Japanese prisoners of war in Kunming (1945. 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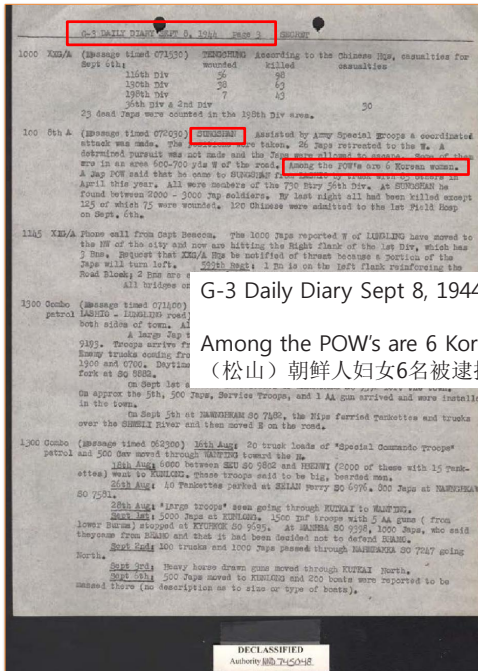
俘虜收容所有朝鮮人25名(婦女23名, 男性2名)、台灣人男性1名、日本人81名(婦女4名, 日本士兵77名)被拘捕。朝鮮人中有10名為在松山地區慰安所被逮捕的“慰安婦”, 13名為騰衝慰安所的“慰安婦”。朴永心等被逮捕後, 在松山地區還逮捕朝鮮人“慰安婦”6名。

“23名慰安婦以強征、誘騙的方式充當‘慰安婦’”。

Aug. 1939	Pyongyang Hondo	✓ Pak Yōng-sin	23	Pyongyang
1939	Pyongyang Hondo	✓ Kim Chae-ju	21	Pyongyang
<hr/>				
Nov. 1941	Pyongyang Hondo	✓ Hwang Pyōng-in	16	Pyongyang
e. 1939	Pyongyang Do	Ho Pyōng-chil	31	Souul

CONFIDENTIAL

CONFIDENTIAL



G-3 Daily Diary Sept 8, 1944 p.3

Among the POW's are 6 Korean women (松山) 朝鮮人婦女6名被逮捕

NARA RG 493 CBI



谢谢



##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Current Status of the Discovery of U.S. Data and Challenges



Kang Sung Hyun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at SungKongHoe University)

### 1. *Need for U.S. Data*

#### ■ *Need for Examination of U.S. Data*

- This research area highly depends on Japanese data, but we have limited access to data owned by Japan.
- *Data produced by the Allied Powers and Japanese data they confiscated or plundered* have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 There is a call for establishment of archives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rough examination and collection of data from the Allied Powers, including the U.S.
- There is a call for research and content generation, and strengthened diplomatic capacity, utilizing “comfort women” archives.

#### ■ *U.S. Data*

- Data owned by U.S. archives (e.g. NARA, MacArthur Archives, Naval Operational Archives of DN, LOC, and Hoover Institution Archives)
- U.S. archives have not only data produced by the U.S. and other Allies but also those the U.S. plundered or confiscated from Japan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 In the early 2000s, efforts by the InterAgency Working Group (IWG) have led to declassification of a record on Japan’s war crimes (about 100,000 pages) and its public disclosure.

## 1. Need for U.S. Data

### ■ Reports and Other Data Produced by the Allied Pow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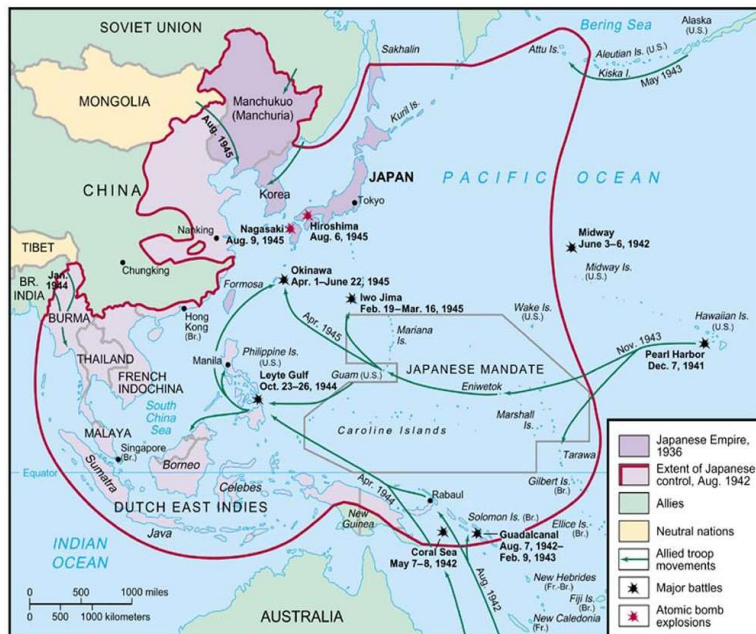
- Reports on interrogation of Japanese soldiers held captive and Japanese civilians
- Intelligence (G-2) and army operations (G-3) reports: daily, weekly, and monthly reports
- Research reports
- Still pictures and videos shot by military photographers

### ■ Data Plundered or Confiscated from the Japanese Military

- Data plundered or confiscated from Japan and the territories occupied by Japan during and after the war (the South Sea Islands, Southeast Asia, the Philippines, China, Taiwan, Korea, and Japan)
- Some data was incinerated or discarded systematically right before the end of the war, but a large part of the data left was confiscated later.
- Japanese documents plundered or confiscated to understand war (battle) intelligence and collect data on war criminals were translated later. (professional translation and selective translation), decoded documents (MAGIC)

### ■ Data Returned to Japan

- Since the mid-1950s, the confiscated data have been returned to their original places in Japan, such as Ministry of Defense Military Archival Library of the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iplomatic Archives, National Archives of Japan, and National Diet Library.
- Research conducted since the 1990s by Professor Yoshiaki Yoshimi and the Japanese government has helped discover some data on “comfort women”.



WORLD WAR II IN THE PACIFIC



-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2<sup>nd</sup> Building (<http://www.archives.gov/>)
- Address: 8601 Adelphi Road College Park, MD 20740

## 1. Need for U.S. Data

### ■ ***(Digital Age) Boundary between the “Original” and “Duplicates”***

- When data are transferred from its original place to NARA, not only the original but also its duplicates are transferred; and in some cases, there could be multiple originals produced from the first place, which could have been scattered in different RGs. (This can cause the “distribution line” issue in the process of producing data.)
- Most data kept by MA are the duplicates of NARA’s data. However, any data collected by MA are labelled “MA” as the holder and considered the original.

### ■ ***Boundary between “Newly Discovered” and “Already Discovered”***

- Data “reported officially” to the media and academia used to be considered “already discovered”.
- In most cases, however, even when part of the discovered data has been exposed to the media, cited in theses or books, or summarized in other ways, *if you do not have the data (duplicate) right now*, or if you have a duplicate *but cannot access it again because you do not know the location of the original holder (MLR)*, the data is technically considered not discovered.

## 2. Current Status of Examination and Collection of U.S. Data

### 1) Japan

#### ■ [Compilation of Data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Examined by the Government, 5 Books] (Asian Women's Fund data compilation)

- 26 GHQ (SWPA/USAFPE/SCAP) ATIS materials, five SEATIC materials on India and Burma Theaters, one U.S. OWI material, and four pictures
- Photoprint data: a photoprint not of the full data but of the parts where "comfort women" are mentioned. No research has been done.
-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at data on "comfort women" that have been discovered means in the context of data production. Furthermore, some data have selected and omitted parts related to comfort women. Why? By which criteria?

#### ■ Quarterly Publications [war responsibility research] and WAM

- Since the 2000s, the Center for Research and Documentation on Japan's War Responsibility (JWRC) has systematically released data in the form of research results.
- There has been no project to publish collected materials, but individual researchers are deemed to own a number of materials.
- In the 1990s, only one material on comfort women was examined, but the number of materials examined increased to 14 in the 2000s.
- WAM's NEFIS interrogation reports collected from the U.S. and Australia

#### ■ Hirofumi Hayashi

- Hayashi has conducted extensive examination and research on data on war crimes trials, armed forces in Okinawa, the South Sea Islands and Southeast Asia, and "comfort women", and spent years studying and collecting data from archives in the U.S., the U.K. and Australia.

## 2. Current Status of Examination and Collection of U.S. Data

### 2) Korea

####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Implemented a project to examine and study foreign data on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from 2002 to 2003 (led by Jinseong Jung)
- ATIS interrogation reports, a research report (No. 120), and OSS China's Kunming Report (discovered for the first time)
- Some data on war criminal Shinohara's war crimes trial held in Guam (a duplicate of data collected by Hirofumi Hayashi at the JWRC)
- Put the emblem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t the center of the documents

####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 Started the project to publish a data compilation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war crimes in 2016
- Obtained the whole documents of the Allied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ction (ATIS) and translated parts on comfort women in those documents

#### ■ International Committee for Joint Nomination to UNESCO International Memory of the World

- Created a list that includes data contained in the five books of Asian Women's Fund data compilation and others (other documents and pictures)

## 2. Current Status of U.S. Data Examination and Collection

### 3) SNU Human Rights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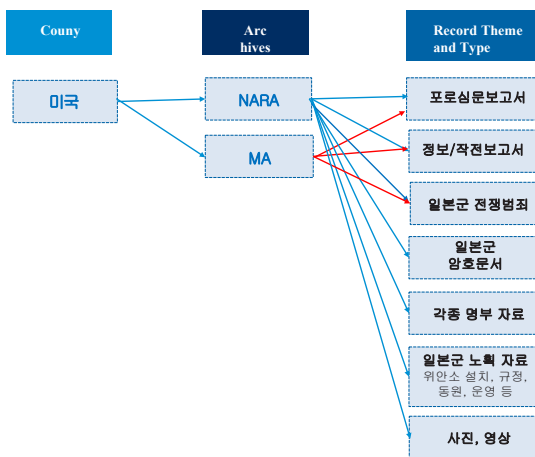
#### ■ 2014-2015: Project Stage 1 (SNU Human Rights Center)

- Conducted fieldwork, collecting data, at NARA and MA in the U.S. for three weeks (6 people)
- Collected a total of 120 materials on “comfort women”: by archive, 95 from NARA and 25 from MA; by data-producing agency, 32 from ATIS, 21 from SEATIC, 33 from NEFIS, and 26 from others. The materials include reports on interrogation of Japanese POWs (soldiers, civilian personnel in the army, and other civilians), translations of data plundered from the Japanese military, war crimes trial data, intelligence reports, and data on people imprisoned in Sugamo Prison.
- Newly discovered some 10 highly valuable documents, of which 2 documents were reported in 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 News (Mar. 2, 2015); and some of the documents were introduced in a KBS documentary marking the 70<sup>th</sup>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The Girls Who Disappeared on Burma Front”.

#### ■ 2016: Project Stage 2 (SNU Human Rights Center and the City of Seoul)

- Conducted fieldwork, collecting data, for four weeks at NARA in the U.S. (7 people)
- Collected a total of 130 materials on “comfort women”: by data-producing agency, 20 from MIS CPMB; 19 from OWI; 16 from Y-Fos; and 58 from others. These materials include reports on interrogation of Japanese POWs (soldiers, civilian personnel in the army, and other civilians), translations of data plundered from the Japanese military, the information of the army and the navy and their operation reports, POW camp registers and ship passenger lists, etc.
- Collected a number of highly valuable data, such as the U.S. armed forces’ official documents for research on comfort women massacre, documents showing the U.S. armed forces’ perception toward comfort women and how they utilized psychological warfare, and prison camp registers and ship passenger lists, which are likely to be very useful in research on comfort women’s return (to their home)

## 2. Current Status of Examination and Collection of U.S. Data



#### ■ Documentation Strategy

- Utilize the NARA Website search tool, finding aids for Japanese war crimes, major references, and the research team’s finding aids completed after years of collecting data
- Make a target list at home for several months
- Conduct fieldwork at NARA and MA in the U.S. to examine and collect, catalogue and translate data, and use them for research

발표 4

---

일본군'위안부' 연구 성과와 과제 국제학술회의

# 한국에서의 일본군'위안부'관련 자료발굴 및 그 활용

한혜인 (韓惠仁,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



# 한국에서의 일본군‘위안부’관련 자료발굴 및 그 활용 - 증언의 사료검증 작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혜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 1. 머리말

1990년대 이후 일본정부 발굴자료를 비롯하여 각 연구자 및 활동가가 발굴한 공문서자료는 현재 일본의 wam의 홈페이지(<http://wam-peace.org/ianfu-koubunsho/>)에서 공개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인정한 자료 521건과 일본정부의 미인정자료 446건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인정한 자료라고 하는 것은 소위 고노담화를 위해 일본정부가 주체가 되어 조사·수집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인정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발굴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자료의 진위, 가치 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wam에서 취급하는 공문서는 967건에 이른다. 본 공문서들을 생산자별로 크게 나누면 일본정부 및 군이 생산한 자료, 연합군이 생산한 자료, 식민지정부(대만총독부), 점령지 정부(천진 특별시정부)등이 있다. 그리고 현재 중국 각 당안관에서 발굴되고 있는 공문서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공문서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발굴된 자료는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가장 중요자료인 피해자 증언자료를 기존의 발굴자료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즉, 증언자료의 보편적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한다.

## 2. 한국 소장 자료의 종류

### 1) 공문서

우선, 한국의 국가기록원 및 독립기념관에서 원본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조선총독부 10진<sup>1)</sup>과 상하이부녀공제회 명부가 현재까지 발굴한 자료의 전부이다. 조선인의 피해가 일본인 다음으로 많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양의 자료가 남아있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의 발굴 가능성도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사실 상, 한국에서 일본군‘위안부’관련 자료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은 공문서 뿐 아니라, 1990년대부터 꾸준히 해온 일본군‘위안부’증언채록 및 조사 자료라고 생각된다. 현재 국가기록원에는 238명의 일본군‘위안부’피해신고서 및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신고서 관련 자료는 개별적으로 모두 같지는 않지만, 피해신고서, 피해조사서, 피해심의자료 등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

### 2) 명부류

두 번째로는 한국정부 수집자료가 있다. 이 수집자료는 일본정부에서 온 것이지만, 일본에서는 볼 수 없어 연구가 불가능한 자료이다. 1990년대 노태우 정권하에서 입수된 명부류가 있다. 물론 이 명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부가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안에 일본군‘위안부’관련 명부가 포함되어 있다. 이 명부를 넘겨 줄 당시, 하와이 포로수용소 명부, 오키나와 수용소 명부 등 일본군‘위안부’가능성이 있는 명부 등이 발견되어, 일본국회에서는 한국정부에 넘겨주는 자료 중, 일본군‘위안부’관련 자료가 섞여 있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일본정부에 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1993년 10월 명부를 넘겨주면서 「부로명표에 관한 조사결과 개요」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 “comfort girl”로 분류되어 있는 조선인 여성이 10명의 명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상세연구는 아직 없다.<sup>2)</sup>

명부류 중, 일본정부가 ‘위안부’명부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김복동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유수명부」자료가 있다. 이 「유수명부」는 현재 114권으로 등재인원수가 160,643명이

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에서 했던 연구구역에서 11건을 발굴했으나, 1건은 복사본이다.

2) 「俘虜名票」に関する調査結果概要, 平成5年10月8日, 厚生省社会援護局. WAM

다. 이 중에서 일본군‘위안부’관련으로 특히 주목된 것은 『남방군제7방면군 우수명부 2』이다. 그 중에서 여성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것은 남방제5육군병원, 남방제9육군병원 그리고 남방제10육군병원의 우수명부였다.

이외의 다른 병원부대 명부로는 중국지나 북지방면군 직할부대의 10개, 중국지나북지방면군 7개, 중국 지나 북지방면군 제13군 예하부대, 7개 부대, 중국지나 파견군 제13군 직할부대(중지)의 2개 등 대부분의 병원부대를 살펴봐도 한 병원에 많아야 한 병원부대에 전체 60명 정도고 그 안에 여성은 매우 적은 수였다.<sup>3)</sup> 따라서 남방제5육군병원 82명, 남방제9육군병원부 10310부대 77명, 남방제10육군병원 부10311부대 144명과 같이 여성만 집중적으로 있었던 병원부대는 매우 특이한 존재이다.

이 명부에 관한 연구는 강정숙이 다른 유사명부와의 대조를 통해 2009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위의 명부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동원 여성명부에 관한 진상조사』를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 본인이 「조선인 위안부 명부 분석」(『일본군‘위안부’명부 분석』)을 통해 연구했다. 결과적으로 이 우수명부에 적혀 있는 여성이 모두 위안부라고는 확정할 수 없지만, 위안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

### 3) 증언관련 자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정신대문제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증언채록 작업을 해 왔다. 그 증언을 바탕으로 현재 증언집이 6권 발간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일제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간한 1권으로 총 7권의 증언집이 있다. 이 증언집은 증언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별 편집한 것이다. 한국정신대문제연구소는 여성가족부의 용역으로 초기의 증언테이프를 그대로 채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증언은 사실 상,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한국인 피해자 중, 최초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증언을 한 것

3) 국가기록원 소장 「유수명부」. 제196병참병원을 1836부대에 5명 중 여성은 0명, 제168병참병원인1834부대 6명, 1402부대 19명, 1413부대 9명 중에 여성이름이 없다. 중국지나북지방면군 제43군예하부대의 청도제165병참병원 북지수령제 1840부대 9명 중에는 여자로 보이는 4명이 보인다. 중국지나파견군제13군 직할부대(중지)의 제186병참병원 등제1845부대 29명 중에는 12명, 중국니자지나파견군(중지) 제 13군 예하부대 제 161사단제2야전병원진천 23155부대, 14명 23156부대 4명 중 나남육군명남양비도제14방면군직할제 19사단 제1야전병원호 8518부대(28명)에는 2명정도에 불과하다.

은 노수복이다. 이후 1984년 배옥수,<sup>4)</sup> 이남님<sup>5)</sup>등이 차례로 피해증언을 했지만, 더 이상 이 문제가 크게 되지는 못했다. 노수복의 경우, 이후 한국정부 피해자 신고에 신고했지만, 배옥수 및 이남님의 경우는 피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런 증언자료 이외에도 목격담을 쓴 소설도 존재한다. 박용구의 『안개는 아직도』(수도문화사, 1953년)가 있다. 이 안의 단편소설 「陷落直前- 푸름시 연대기」가 바로 일본군'위안부'를 소재로 한 소설이다. 소설가 박용구는 중군작가로 유명하다. 박용구가 일제시기 지원병으로 남양전선에 참전했던 경험을 기술한 것이 바로 「함락직전」이다. 위안소의 정경, 위안부의 생활, 위안부의 사망처리 등의 묘사가 매우 세밀하다는 점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는 다양한 증언자료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료적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증언 그 자체의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역사적 사건과의 대조를 통해 보편적 사실로 검증해 가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3. 증언과 사료 검증

#### 1) 피해자 배복남과 「남방제9육군병원 부10310부대 우수명부」<sup>6)</sup>

피해자 배복남은 남방제9육군병원 부10310부대 우수명부에 기록되어 있다. 「우수명부」에서 본인의 구체적 증언이 나와 있거나 생존자인 사람이 3명 있다. 배복남과 양○○, 그리고 북한 피해자 리현숙이 있다.<sup>7)</sup> 그 중 배복남에 대하여 상세히 보기로 하자. 배복남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배복남은 남방제9육군병원이 이동하는 경로와 거의 같은 경로로 이동했다. 남방제9육군병원 부제10310부대는 1941년 6월 제68병참병원 편성을 명령받았다. 1941년 8월 4일 도쿄에서 편성완결을 보고, 8월 22일 오사카항 출발하여 8월 25일 조선 마산항 상륙한다. 8월 29일 선만 국경을 통과하고 8월 30일 만주 목단강성 수양(綏陽)에

4) 완전대특종! 정신대 할머니가 서울에 살고 있다. 『레이디 경향』, 1984. 4. 8.

5) 독점수기 『나는 일본군의 전신대였다. 일본군은 내 젊음을 이렇게 짓밟았다.』

6) 여성정책연구원 용역 「일본군'위안부'명부연구」 중 일부.

7) 북한 피해자 리현숙의 증언은 『짓밟힌 인생의 웨침』(중군위안부 및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에 있다. 본 보고서 초고 제출 후 발견하였기 때문에 리현숙에 관해서는 다음기회에 상세 기술하기로 하겠다.

도착하여 제8사단의 지휘 하에 들어간다. 그 후 이 지역 부근의 경비를 맡았다. 약 3개월을 목단강성 수양에 머물다가 11월 26일 수양을 출발한다. 11월 29일 신경특별시 맹가둔(孟家屯)에 도착, 12월 13일 맹가둔을 출발하여 12월 14일 관동주계를 통과하여 대련에 도착, 12월 15일 대련항을 출항한다. 1943년 1월 11일 태국 싱고라(Singola) 상륙하여, 제25군의 예하에 들어간다. 1월 24일 싱고라에서 출발하여 태국 말레이 국경을 통과한다. 1월 31일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에 도착하여 거기에서 병참병원업무를 개설한다. 3월 4일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하여 3월 5일에 싱가포르(召南市)도착한다. 3월 22일 싱가포르항을 출발하여 3월 24일 스마트라섬 베라만항 상륙하여 3월 25일 메탄시 도착한다. 3월 27일 싱가포르 상륙병원 업무개시 한다. 10월 1일 군령육갑제 54호로 남방제9육군병원 편성을 명령받고 또 제68병참병원복원을 명령받는다. 1943년 10월 15일 남방제9육군병원편성을 완결하고, 제25군사령관 예하의 병원에서 제업무를 수행한다. 11월 2일에 싱가포르항을 출발한다.<sup>8)</sup> 남방제9육군병원에 관한 기록은 여기까지인데, 남방제9육군병원이 제25군사령부의 예하에서 움직였으므로, 제25군사령부가 1944년 5월부터 스마트라 즈키친야로 전진해서 스마트라 방위 작전 준비 중에 종전되어, 종전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따라왔을 것으로 예측된다.<sup>9)</sup>

〈표〉 남방제9육군병원과 배복남 피해자의 이동경로 비교표

남방제9육군병원	이동날짜	이동날짜	배복남 증언
조선 마산항 상륙	1941.8.25	1941	부산에서 동원. 그 이후 대구 포항인가 어디루 가서 여자들과 같이 목단강으로
만주 목단강성 수양도착	1941.8.30	1941	만주 목단강(여자 여남은 명) 1년 6개월 정도 지냄 다 같이 기차타고 다시 부산으로 옴
신경 맹가둔	1941.11.29		
관동주 통과 대련도착	1941.12.15		
태국 싱고라	1943.1.11	1943	싱가폴로 떠남. 어디를 들렀다 갔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도착은 싱가포르이었다고 대답(1941년이라고 증언했는데, 그게 처음 동원된 시기로 잘못 말함. 싱가포르에서 해방될 때까지 3년 조금 덜 있었다고 대답함. 따라서 싱가포르로 떠난 것은 1943년 경으로
쿠알라룸푸르	1943.1.31		
싱가포르	1943.3.5		
스마트라	1943.3.24		스마트라 팔렘방, 캠프생활때도 팔렘방
복원완료	1946.11.8	1946.5.6	같은 배를 타고 온 같은 위안소에 있었던 여자가 삼.사십명

자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 법정 한국위원회증언팀 · 한국정신대연구소

8) 厚生省援護局, 「2.スマトラ方面部隊, 南方, 朝鮮(南鮮)方面 陸上部隊略歴(航空, 船舶部隊を除く) 第5回追録, 1968.3.,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2122499700

9) 厚生省援護局, 「2.スマトラ方面部隊, 中央一部隊歴史全般-99(所藏館: 防衛省防衛研究所),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2001)의 이후남 “다시 태어나면 나 여자되기 싫어요”와 古屋五郎(1989), 厚生省援護局(1961)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배복남은 동원부터 복원까지 남방제9육군병원에 딸려 있는 위안소에서 ‘위안부’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언을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수명부」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 사실이 많이 발견된다. 해방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배복남은 8월 22일이라고 대답한다. 구술진행자가 8월 15일이라고 다시 환기했지만, “십오일이지요? 몰라요.(중략) 이십이일 날인가 삼일 날 그때 알았어요”(한국정신대연구소, 2001: 238)라고 대답했다. 배복남이 남방제9육군병원에 편입된 날이 8월22일이라는 것을 상기해 보면 그때 신변의 변화와 분위기를 파악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8월22일 이후에는 “캠프생활 때는 여자들과 일본 군인들이 있었지요, 여자들 한 30명, 옷은 군인바지 입었어요. 간호원같이 십자완장 찾구요. 간호원으로 위장한 거죠”라고 기억했다. 남방제9육군병원으로 임시간호부로 편입된 이후의 광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배복남은 빛이 제일 많았지만, 야전우편저금통장을 만들어 저금도 했었고, 한국으로 가져와 찾아 썼다고 대답했다. 부산에 귀국했을 때, 부산에서 통과할 때, 모든 물건을 압수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는 부산에서 미군정이 실시한 공탁요구에 응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유수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하단 공탁기록(共20837)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같은 배를 타고 온 같은 위안소에 있었던 여자가 삼,사십명된다고 구술하고 있다. 이 구술과 앞의 표 <표>의 귀환시기를 맞추어 보면, 5월3일 귀환자 인원이 32명이니까 배복남은 5월 3일 귀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배복남의 해용이 5월 24일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복원명부」에서 배복남과 같이 5월 24일 해용된 인원을 보면 23명이다. 해용이 같은 날인 경우, 귀환도 같은 날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해용 날짜가 같은 23명은 적어도 배복남이 증언한 같은 날에 배를 탄 같은 위안소에서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23명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947년 2월 5일 작성한 「남방제9육군병원복원상황조서」도 남기고 있다.<sup>10)</sup> 이 부대의 복원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0) 佐世保上陸地支局, 「昭和22年2月5日 佐世保上陸支局 南方第9陸軍病院復員狀況調書」,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5010481800

〈표〉 남방제9육군병원 복원 일정

현지출발연월일	기사	귀환인원	적요
1946년 1월 31일	팔렘방출발 가라무섬 離島	25	
1946년 2월 7일	동	99	
1946년 2월 21일	동	53	
1946년 5월 3일	환자호송원 및 환자로 팔렘방 출발	32	
1946년 5월 22일	동	16	
1946년 7월 16일	부대 일부 복원으로 팔렘방 출발	201	여자군속 주력
1946년 7월 28일	환자호송원 및 환자로서 팔렘방 출발	32	
1946년 8월 24일	부대 일부 복원으로 팔렘방 출발	114	
1946년 9월 8일	환자호송원으로 팔렘방 출발	10	
1946년 10월 8일	부대 일부 복원 및 환자호송으로서 팔렘방 출발	41	
1946년 11월 8일	부대주력 복원으로서 팔렘방 출발	72	싱가폴 출발 1947년 1월 7일 본 복원자로함

자료 : 佐世保上陸地支局, 「昭和22年2月5日 佐世保上陸支局 南方第9陸軍病院復員狀況調書」

남방제9육군병원의 「복원명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가 발굴한 자료로, 이 부대가 무사하게 복원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 복원명부의 작성일이 1946년 11월 8일에 작성되었다.<sup>11)</sup> 따라서 위의 마지막 복원일인 11월 8일에 “부대주력 복원으로 팔렘방을 출발”한 것 같다.

이 부대에 속해있던 일본군 ‘피해자’ 배복남도 구술에서 귀환시 상황을 물어보니, “싱가포르에서 출발했어”, “아파드러 누워 있었지, 앉으면서 왔어요. 그랑게 한 유월달에 왔는가, 오월달에 왔는가 요정도 될꺼라예.”라고 구술하고 있다. 배복남의 경우, 환자호송을 했던 5월3일, 5월22일에 귀환했을 가능성이 있다. 복원명부에 배복남의 해용시기가 1946년 5월 24일인 것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피해자 노청자와 太原작전

피해자 노청자의 구술조사는 4번 이루어졌다. 노청자는 김학순의 공개증언 이후 제소된

11) 「南方第9陸軍病院復員名簿」昭和21年11月8~昭和22年2月

1991년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소송><sup>12)</sup>의 제2차 원고로 참가해, 1992년 4월 제출한 ①「소장」에 자신의 일본군‘위안부’경험을 남겼다. 두 번째 구술기록은 1992년 일본의 사진기자 이토 다카시가 조사한 ②『(증언) 종군위안부, 여성근로정신대』(1992년 8월 간행)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sup>13)</sup> 세 번째 구술기록은 1992년 8월21일 한국정신대연구소의 ③이상화와 오쿠야마 요코가 조사한 녹취록이 있다.<sup>14)</sup> 네 번째 구술기록으로는 2002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의 연구원 김은경 박정애가 새롭게 조사한 연구보고 2002-16『그 말을 어디다 다 할꼬-일본군‘위안부’증언자료집』에 실려 있다. 이를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앞의 연구팀이 편찬한『역사를 만드는 이야기』(2004. 여성과인권)를 만들었다.

노청자가 73세 때인 1992년 구술한 ①②③의 내용은 1992년 노청자가 72세 때 이루어진 것이고, ④는 10년 후인 82세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④를 조사한 조사자는 당시 노청자가 치매초기 상태에 있었다고 기술했다. ①②③의 내용과 ④의 내용 중 가장 다른 것은 앞의 ①②③의 구술내용에는 지명, 당시 주변상황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구술되어 있고, ④의 내용은 위안부의 생활 쪽의 구술이 상세하다.

위의 4개의 구술기록은 중 해제대상 구술기록은 세 번째 구술인『“그 말을 어디다 다 할꼬”-일본군‘위안부’증언자료집』에 실려있는 「과거지살랑 묻지 맙시다, 가슴 아퍼요」이다. 본 구술을 기본으로 하여 ‘위안부’피해내용을 요약하고 ①②③의 구술내용을 보충하도록 하겠다.

노청자의 구술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초기 ‘위안부’를 어떻게 동원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조선주둔군이 전장에 참전하면서 가는 길에 군인과 헌병이 직접 트럭에 조선인 여성을 강제로 싣고 끌고 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증언이다.

노청자의 구술자료 ④는 82세 때의 구술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지명을 잘 기억해 내지 못했던 것에 비해 앞의 ①②③의 구술은 구체적 사실, 지명 등이 잘 기억되어 있다.

노청자가 ④에서는 ‘일본놈들 땅’이라고 구술하고 있지만, ①에서는 타이친카, ②에서는

12) 김학순을 비롯한 피해자 9명과 군인 군속 피해자와 함께 한 소송. 1991년 12월 6일 동경지방법관소에 제소하여 2001년 3월 26일에 동경재판에서 청구기각. 2003년 7월 22일 동경고등재판소에 청구기각되었고, 2004년 11월 29일 최고재판소에 상고 기각 판결. 지방재판소 판결은 사실인정을 했지만 법적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고등재판소에서는 강제노동조약 위반 추업조약 위반등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고 일본정부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국가무담책의 범리에 관해서도 “현행법법하에서는 정당성,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고등재판소에서는 처음으로 부정했지만, 청구는 기각되었다.

13) 盧清子, 「結婚式の直前, 「慰安婦」に」(伊藤孝司, 「<証言>從軍慰安婦・女性勤勞挺身隊」, 風媒社, 91-98)

14) 이 조사의 녹취록은 2015년 여성가족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료 및 체계적 분류관리 사업”의 결과물 『Ⅲ. 2015년 일본군위안부 증언녹취록 피해자 9인 증언자료 (2)』에 실려있으나, 아직 비공개 상태이다.

타이카친, ③에서는 한국어로는 태원(太原), 일본어로 타이카친으로 구술하고 있다. 타이겐은 중국 산시성(山西省)의 도시로 성곽도시이다. 노청자는 모든 구술에서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갔다고 구술하고 있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갔는데 부대는 저마작 있고 위안부는 여가 있단 말이여 (중략) 들우다 보니까 말, 마방간”, “말덜 매났어”라고 말이 함께 있다는 것을 구술했다. 실제로 타이겐작전에 파병된 조선군 제20사단의 작전일지를 보면, 제20사단 기밀작전일지를 보면 1937년 7월 기병(騎兵)을 출전하고<sup>15)</sup>, 1938년에는 400마리의 말을 수송할 계획도 하고 있다.<sup>16)</sup>

〈사진 1〉은 1937년 타이겐성으로 들어가는 기마병의 모습이다.

노청자가 타이겐까지는 군인들과 함께 ‘뚜껑없는 열차’를 타고 갔다. 거기에서 내리니 트럭이 와 있어서 트럭을 타고 3,4시간 가면 오태산(五台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들어갔다고 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현재도 타이겐에서 오태산까지는 차로 3,4시간 걸리는 거리라고 나와있다.

타이겐은 1937년 9월부터 11월까지 일본의 북지방면군과 관동군부대가 타이겐작전을 펼친 지역이다. 노청자의 ③의 구술내용을 보면, 타이겐으로 이동 중에 전투를 만나 기차 바퀴 밑으로 피신했다고 실감나게 이야기하고 있다. 타이겐 작전에는 조선주둔군 중 제20사단이 참전했다.<sup>17)</sup>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제20사단이 이 시기에 맞추어 타이겐 지역으로 진군했다. 제20사단 사령부는 경성에 있고, 제20보병단 사령부, 보병제 78연대, 79연대는 경성에 주둔하고 있었다. 보병제80연대의 경우 본대는 대구에 있지만, 제3대대는 대전에 주둔하고 있었다.<sup>18)</sup> 구체적인 주둔지역은 현재 서대전역 근처로 부대 앞 바로 철도가 있다.

제3대대는 1937년 7월부터 시작된 타이겐 작전에 출정하기 위해서 서대전역을 1937년 출발한다. 노청자는 이 시기 대전에서 같은 마을에 있던 한 여자와 함께 군인들이 타고 있는 트럭에 같이 타고 38명이 같이 타이겐으로 끌려가게 된다.

보병 제3대대주둔지 (1928년 대전시 전도)

노청자가 끌려갈 때의 시기 및 상황에 대한 구술이 구체적인 것은 ③이다. 열일곱살 늦은 3월 씨앗을 심을 시기였다. 밭일을 하던 어머니가 집에 밥을 가질러 갔다가 ③“군인들이

15) 「第20師團機密作戰日誌 昭和12年7月12日~12年12月31日 1/2部中」C11111040000, 第20師團機密作戰日誌 昭和12年7月(1)C11111040200

16) 運輸通信長官 渡邊右文, 「第20師團整備支那馬輸送に關する件」, 昭和13年8月10日(1938/08/10), C04120494300

17) 戸部良一, 「朝鮮駐屯日本軍の實像」, 「日本の植民地支配と朝鮮社會」

18) 「大田歩兵第80連隊第3大隊に文庫設置の件」, 大正7年(1918/01/01 1918/12/31), C03011032200, 「陸軍常備兵力Ⅱ」  
<http://kitabatake.world.coocan.jp/rikukaigun52.html>.

색시를 잡아간다”고 하면서 산 중의 고모네 집으로 피신하라고 하면서 혈레벌떡 왔다. 노청자는 고모네 집으로 넘어가다가 군인 10명, 헌병 1명에게 붙들려 한 5리 정도 오니까 포장이 처진 트럭이 3대가 있었다. 추력 안에는 우는 소리가 나고, 추력 두 대는 누렇게 군인들이 헤이타이상 들이 거기 모두 있단 말이야. 헌병도 있고. (중략) 같은 마을에서 온 다른 하나하고 둘을 타게 해서 보니 세어 보니 38명이 붙잡혀 있었다고 구술했다. 앞 뒤의 정황을 맞추어 보면 노청자의 경우처럼 조선주둔군이 전투지를 향해 갈 때, 소개업자나 행정체제를 이용하지 않고, 군이 직접적으로 납치 동원했다는 것이 사실일 듯 하다.

위안소에 대해서도 잘 구술하고 있다. 노청자가 끌려간 타이젠성 밖 오태산 군부대 안에는 “마구간처럼 편목떼기 판자 하나씩 붙이고, 방문은 시커먼 포장을 치고 하나씩 방을 만들어” 40개의 위안소를 만들었다. 노청자는 27번 방이었다. 다다미 방도 아니고 마루방 같은 것에 담요를 깔고 군인을 받았다. 콘돔과 휴지를 나누어 주었고, 군인을 받을 때마다 씻



타이젠성 안으로 들어가는 일본군 기마병

출전 : <http://www.wxrw123.com/ljlm/20160714/1704434.html>  
以守城聞名的將軍傅作義，在1937年，爲什麼沒能守住太原城

었다. 군인이 줄을 서서오기 때문에 옷을 벗은 채로 있었다. 독립훈성제4여단의 병사도 타이젠에는 위안소가 있었는데, 장교용 위안소에는 일본인 여성, 하급병 사용으로는 조선인, 중국인이 있는 위안소가 2개 있었다고 했다.<sup>19)</sup>

### 3) 김분이와 해군 징용선 아사마마루

피해자 김분이는 현재 구술기록이 2가지 있다. 하나는 1999년 10월13일에 정신대연구소 연구원인 이정선이 조사한 구술기록, 또 하나는 2002년 여성부의 연구용역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이 수주하여 조사한 연구보고 2002-16 『“그 말을 어디다 다 할꼬” -일본군‘위안부’증언자료집』이다. 그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앞의 연구팀이 편찬한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2004. 여성과인권)를 만들었다. 연구용역 구술기록과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의 구술기록은 거의 같지만, 후자의 기록이 조금더 보충되고 다듬어져 있다. 1999년 이정선이 조사한 구술기록은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한 조사이기 때문에 좀 소략하고

피해자 김분이는 현재 구술기록이 2가지 있다. 하나는 1999년 10월13일에 정신대연구소 연구원인 이정선이 조사한

19) ) 『特集「慰安婦」100人の口言』DAYS JAPAN 2007年6月号,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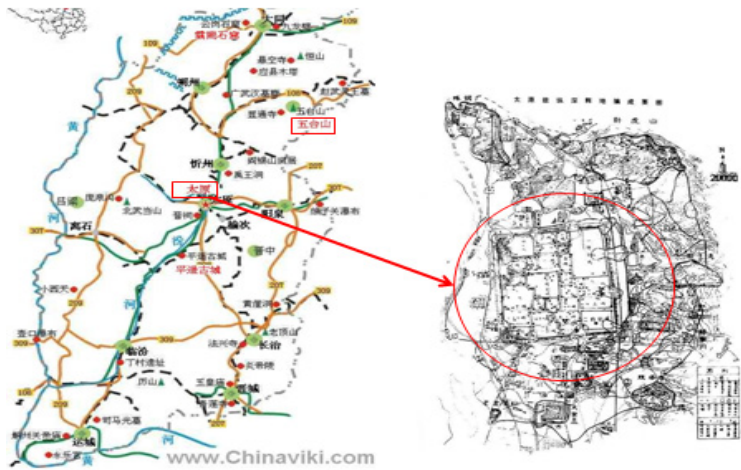


있지만, 2002년의 구술내용과 사실 관계에 큰 차이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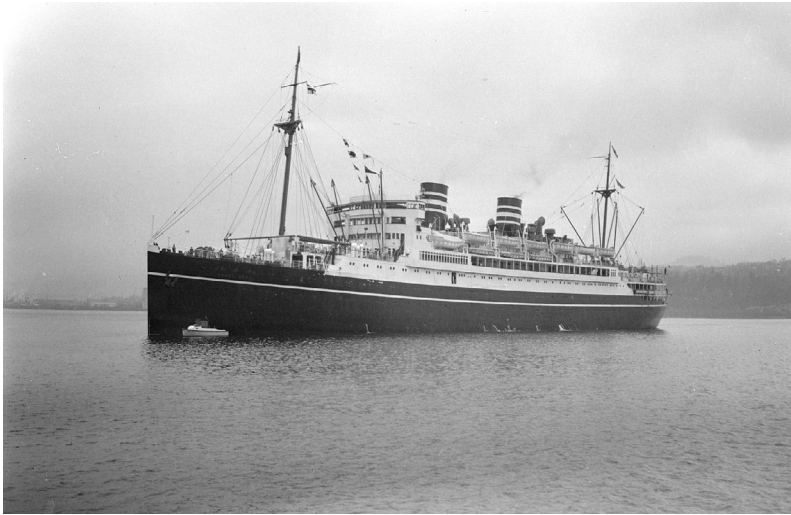
조사자(이정선, 차혜영)가 기술하듯이 구술할 당시의 김분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기억력이 좋은 분으로, 어린시절 가족 관계부터 ‘위안부’로 끌려가 위안소 생활을 하게 된 경위, 해방 후 귀국하기까지의 일은 시간의 뒤섞임이 없다. 또 중요한 지명, 위안소 생활의 중요 사항 등을 아주 상세하고 정확하게 구술하고 있다. 본 해제의 구술기록은 여성부 2002-16 『“그 말을 어디다 다 할꼬”-일본군‘위안부’증언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김분이의 구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김분이는 동네에서 유명한 조선인 소개업자로 보이는 김씨와 순사가 집으로 찾아와 함께 안강의 지서 옆 사무소에 가서 취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본 구술 기록에는 없지만, 첫 번째 구술에서는 김씨가 이 집에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는 걸 알고 와서 딸을 보내야 한다고 하니, 아버지가 공장에 가면 더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 생각하고 김씨에게 보냈다고 했다. 즉, 소개업자는 동네의 사정을 잘 알아 딸을 가진 집을 사전에 알고, 취업사기이지만,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 동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귀환을 하고 나니, 공장으로 가



타이겐성과 오태산



淺間丸

지 않고 ‘위안부’로 갔다는 것을 가족은 떠나고 알았다고 한다.

김분이는 사무실에서 취업설명을 듣고 나름 납득을 한다. 집에서 하루 이틀 준비를 하게 하고 다시 소개업자 김씨가 집으로 와서 데리고 집결지까지 간다. 집결지에는 본인 외에도 동네 친구가 있었다.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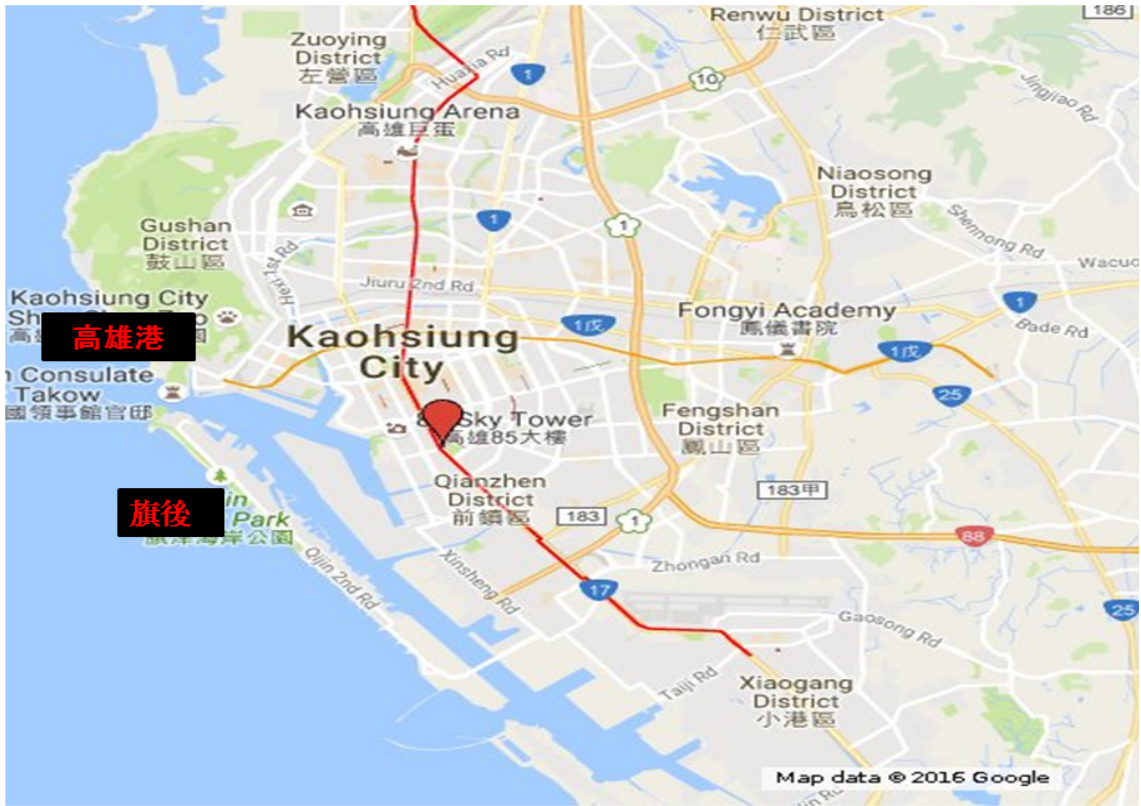
고 그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순사가 배석한다. 김씨는 그들을 인솔하여 부산까지 간다. 부산의 한 여관에서 여러 지역에서 모인 여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다른 인솔자에게 이끌려 타이완으로 가게 된다. 이런 방식, 즉 소개업자의 방문, 취업사기, 이동에 경찰력 협력, 국내 인솔자와 국외 인솔자가 분담을 하여 이동시키는 방식은 1939년 이후 조선에서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노무동원의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

김분이는 부산에서 아사마마루(淺間丸)를 타고 타이완으로 갔다고 했다. 별단 군인, 징병군이 가득타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이는 아사마마루가 당시 해군징용선이었기 때문이다. 아사마마루는 당시 미즈비시조선 나가사키조선소(三菱造船長崎造船所)에서 건조한 것으로 원래는 화객선(貨客船)이었다. 그러나 1941년 11월부터 해군의 운송선으로 징용되었다.<sup>20)</sup> 운항로는 일본 점령하 동남아시아가 중심이 되었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발해서 부산 경유, 타이완 등 남방지역의 해군기지로 물자 및 군인, 군 관계자 관료 등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다.

김분이가 간 지역은 타이완의 다카오주 기고(旗後)지역이다. 기고는 다카오주에 속해 있지만, 다카오 앞의 작은 섬 지역이다. 따라서 김분이가 다카오에 도착해서 작은 배를 타고 기고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기고는 행정구역으로는 기신구 기고초(旗津區 旗後町)이다. 1917년 대남청((臺南廳)은 대남(臺南)의 전통유곽지역이었던 다구(打狗)시가가 발전해 감에 따라 풍속위생 상의 문

20) 「大東亞戰爭時日本郵船(株)船舶台帳(寫)(1), 昭和16年11月30日~昭和20年1月6日」,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8050011600.



다카오항과 기고지역지도

제로 아직 미개발지역인 기고지역으로 유곽을 이전하는 정책을 폈다. 그에 따라 다구지역에 있던 가시자시키(貸座敷) 10건을 기고로 이전시켜 유곽지역을 만들었다.<sup>21)</sup> 다카오항은 1938년 10월 광둥(廣東) 공략 이후 가이난도 공략 등 해군에 의한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중요 군사항이 된다. 따라서 다카오항과 가까이 있는 기고의 유곽지역의 일부가 전시기에 해군위안소로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1) 9.V2647/B06 「打狗遊廓移轉に關する件」1917.2.5., 10.V2647/B06 「請書」, 주덕란 편집, 해설, 『대만위안부관계자료 제1집』, 불이출판, 32-36.

# 韩国日军“慰安妇”相关资料的发掘与利用 - 对证言需要进行史料验证

韩惠仁 (成均馆大学东亚历史研究所)

## 1. 前沿

上世纪90年代以后，在日本wam网站(<http://wam-peace.org/ianfu-koubunsho/>)公开日本政府发掘的档案与研究员及相关人士发掘的公文档案，该档案包括日本政府承认的档案521件与日本政府尚未承认的档案446件，日本政府承认的档案是指为发表河野谈话，由日本政府主导调查与收集的资料；日本政府尚未承认的档案是指河野谈话发表之后被发掘的档案，不用提到资料真伪与否与价值等问题。目前，wam主要提供的公共档案达到967件。根据生产者类型，将公共档案大分为日本政府及军队的资料、联合国资料、殖民地政府（台湾总督府）、占领地政府（天津特别市政府）资料，但是它不包括现在中国各家档案馆发掘的公共档案。

本报告主要讨论与报告上述的公共档案以及韩国发掘的档案有哪些、如何利用等。尤其是，韩国最重要的资料——受害者作证资料与已发掘的档案如何相连接，如何证明证言资料的事实与否。

## 2. 韩国收藏资料种类

### 1) 公共档案

首先，韩国国家记录院以及独立纪念馆收藏的原本资料只有朝鲜总督府10件<sup>1)</sup>与上海妇女共济会名簿（到现在被发觉的资料）。要证明朝鲜人受害者继日本人之后最多，但相关档案很少，并且今后发掘的可能性不大。

但是，实际上，在韩国日军“慰安妇”相关档案中，除了公共档案以外，上世纪90年代坚持采集与调查的日军“慰安妇”证言资料也非常重要。现在，国家记录院收藏日军“慰安妇”238名的受害申请书及相关档案。各申请书相关资料及附件不是一模一样，但是其主要内容都包括受害申请书、受害调查书、受害审议资料等。

### 2) 名簿类

第二，韩国政府收集资料，该收集资料来源是日本政府，但是在日本不能接触而难以进行研究的档案，除此之外，也有上世纪90年代卢泰愚政府收集的名簿，这以被强制动员的受害者名簿为中心，也包括日军“慰安妇”相关名簿。日本政府交给韩国相关名簿时，发现夏威夷俘虏收容所名簿、冲绳收容所名簿等日军“慰安妇”相关名簿，而日本国会向日本政府确认交给韩国政府的档案中有没有日军“慰安妇”相关档案，因此日本政府于1993年10月将相关名簿交给韩国时，发表「关于俘虏名簿的调查结果概况」，据调查结果发现被列为“comfort girl”类型的朝鲜人妇女10名的名表，但是对此尚未进行详细的研究。<sup>2)</sup>

名簿类还包括尽管日本政府不把它视为“慰安妇”名簿，但包括受害者金福童的「留守名簿」档案，「留守名簿」总共为114卷，记载16万643名。《南方军第7方面军留守名簿2》被视为日军“慰安妇”相关档案而受到高度关注，其中集中记录妇女内容的有南方第5陆军医院、南方第9陆军医院与南方第10陆军医院的留守名簿。

1) 成均馆大学东亚历史研究所的研究中发觉11件档案，其中一件为副本

2) 《「俘虏名票」に関する调查结果概要》平成5年10月8日，厚生省社会援护局，WAM

除此之外，其他医院部队名簿有中国支那北支那方面军直辖部队10个、中国支那北支那方面军7个、中国支那北支那方面军第13军隶下部队、7个部队、中国支那派遣军第13军直辖部队（中支那）2个等，检查大部分医院部队情况，一家医院或一个医院部队总人数最多也不超过60名，妇女很少。<sup>3)</sup> 由此可见，南方第5陆军医院有妇女82名、南方第9陆军医院附10310部队有妇女77名、南方第10陆军医院附10311部队有妇女144名等，人员结构以妇女为主的医院部队是比较独特的。

姜正叔对该名簿与其他名簿进行比较，于2009年日帝抢占下强制动员受害真相查明委员会发表《对印度尼西亚被动员的女性名簿查明真相》，最近笔者也通过《朝鲜人慰安妇名簿分析》（《日军‘慰安妇’名簿分析》）进行研究。其结果，我们发现虽然难以确定留守名簿上的妇女都是慰安妇，但是它对研究慰安妇很有帮助。

### 3) 证言相关资料

众所周知，从上世纪90年代开始，韩国以韩国挺身队问题研究所为中心开始采集证言资料，并出版证言集6卷，除此之外，‘日帝抢占下强制动员受害真相查明委员会’出版的有一卷，总共7卷。该本证言集不是如实地记录作证的内容，而是选别编撰的。韩国挺身队问题研究所在女性家族部的委托下，正在对原始证言磁带进行采录。

在韩国，日军“慰安妇”受害者证言不是最近才出现的，但是不受到高度关注。韩国人慰安妇受害者中首次指证“我是日军‘慰安妇’受害者”的就是卢秀福（音译）奶奶，继卢奶奶之后，裴玉洙<sup>4)</sup>（音译）、李南恁<sup>5)</sup>（音译）奶奶纷纷指证慰安妇事实，但是也没有成为热门话题。卢奶奶向韩国政府申请受害情况，但是裴玉洙（音译）、李南恁（音译）奶奶没有注册慰安妇受害者。

---

3) 国家记录院收藏「留守名簿」，第196兵站医院1836部队5名中妇女为零、第168兵站医院1834部队6名、1402部队19名、1413部队9名中也没有妇女名单。中国支那北支那方面军第43军队隶下部队青岛第165兵站医院北支那首领第1840部队9名中有推测妇女的4413名。中国支那派遣军第13军之下部队（中支那）第186兵站医院等第1845部队29名中妇女有12名、中国NIZA支那派遣军（中支那）第13军隶下部队第161师团第二野战医院天津23155部队14名，23156部队4名中罗南路军南洋诸岛（音译）第14方面军直辖第19师团第一野战医院号8518部队（28名）只有两名妇女。

4) 独家新闻！挺身队奶奶在首尔生活，‘LADY 倾向’ 1984. 4. 8

5) 独家手记，《我是日军的挺身队。日军残忍地蹂躏我的青春》

除了证言资料以外，有人以亲眼目睹的内容为题材写小说，如朴容九《灰蒙蒙的大雾沉凝不散》（首都文化社，1953年），其中有一个短篇小说《陷落直前-普伦市连带记（音译）》就是以日军“慰安妇”为题材的小说。朴容久以随军作家闻名于世，他在日帝抢占时期当支援士兵参加南洋战线，《陷落直前》是叙述自己参战经验的，详细地描述慰安所情景、慰安妇生活、慰安妇死亡后的处理过程等，有很好的参考资料。

韩国有很多证言资料，但是尚未对此全面进行史料研究。证言本身拥有史料价值，但是需要与历史事件进行对照，通过事实进行验证。

### 3. 证言与史料验证

#### 1) 受害者裴福男与「南方第9陆军医院 附10310部队留守名簿」<sup>6)</sup>

慰安妇受害者裴福男记录在南方第9陆军医院附10310部队留守名簿上。「留守名簿」有具体证言或生存者三名记录，即裴福男、羊00、朝鲜受害者李贤叔<sup>7)</sup>。先详细分析裴福男相关内容。

据裴福男的证言，裴副南跟着南方第9陆军医院的移动路线而移动，南方第9陆军医院附10310部队于1941年6月接受命令建立第68兵站医院，1941年8月4日在东京报告完成建立的内容，8月22日离开大阪港，8月25日登陆朝鲜马山港，8月29日通过鲜满国境，8月30日到达满洲牡丹江绥阳后被编为第8帅团，之后它在这里负责警备，大概三个月呆在牡丹江省绥阳后，11月26日从绥阳出发。11月29日，南方第9陆军医院附10310部队到达新京特别市孟家屯，12月13日离开孟家屯，12月14日经过关东州到达大连，12月15日在大连港出航。1943年1月11日，它登陆泰国Singola，被编为第25军队，于1月24日离开 Singola，通过泰国马来国境，1月31日到达吉隆坡，开设兵站医院业务，3月4日从吉隆坡出发，3月5日到达新加坡(召南市)，3月22日离开新加坡港，3月24日苏门答腊

6) 女性政策研究员获得受委托进行的研究《日军“慰安妇”名簿研究》中

7) 北韩受害者李贤叔的证言《被蹂躏的人生之呐喊》（随军慰安妇以及太平洋战争受害者赔偿对策委员会）。提交本报告书初稿后发现，因此李贤叔的部分下次再次进行详细解释。

岛Vera湾，3月25日到达Metan市。3月27日，开始新加坡医院业务。10月1日在军令六甲第54号，接受命令部属南方第9陆军医院和第68兵站医院复员。1943年10月15日，完成编制南方第9陆军医院，在第25军司令官隶下医院履行业务，11月2日新加坡港出航<sup>8)</sup>。南方第9陆军医院相关记录只有这些，通过该记录可以推测南方第9陆军医院在第25军司令部的领导下履行业务，第25军司令部于1944年5月进军苏门答腊Zkiqinya，在准备苏门答腊防卫作战的过程中战争结束，因此南方第9陆军医院有可能跟着第25军司令部移动。<sup>9)</sup>

南方第9陆军医院	移动年月日	移动年月日	裴福男证言
登陆朝鲜马山港	1941.8.25	1941	在釜山招集，此后到大丘浦项与妇女去牡丹江
到达满洲牡丹江省绥阳	1941.8.30	1941	满洲牡丹江（妇女几个人） 滞留1年6个月 一起坐火车回釜山
新京孟家屯	1941.11.29		
通过关东洲到达大连	1941.12.15		
泰国Singola	1943.1.11	1943	回答向新加坡出发，不知道中途经过路线，但是最终到达新加坡（她说1941年，但是说错了这是首次被动员的时期，回答逗留在新加坡3年，于1943年离开新加坡。
吉隆坡	1943.1.31		
新加坡	1943.3.5		
苏门答腊	1943.3.24		苏门答腊居港，在帐篷生活的地方也是居港
完成复原	1946.11.8	1946.5.6	一起乘船来的慰安所妇女有三四十名

资料：研究员以韩国挺身队问题对策协议会2000年日军性奴隶战犯女性国际法庭韩国委员会作证组、韩国挺身队研究所（2001），李后男（音译）“不想作为女性转世投胎”与古屋五郎（1989），厚生省援护局（1961）为基础编写

裴福男可能从被强制动员到复员，在南方第9陆军医院的慰安所遭到‘慰安妇’伤害，更加详细察看证言内容，不难发现她的证言与“留守名簿”记录内容一致的部分很多。问她什么时候知道解放，她回答“8月22日”，口述主持人提醒她“解放日为8月15日”，她说“十五日？我不知道（中略），我在22日或者23日才知道”（韩国挺

8) 厚生省援护局, 「2. スマトラ方面部队, 南方・朝鮮(南鮮)方面 陆上部队略歴(航空・船舶部队を除く) 第5回追録, 1968. 3.,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2122499700

9) 厚生省援护局, 「2. スマトラ方面部队」, 中央-部队歴史全般-99(所蔵館: 防卫省防卫研究所),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身队研究所，2001：238）。裴福男于8月22日编入南方第9陆军医院，她可能感受到身边有一些变化。她说“8月22日以后，在帐篷，我与其他妇女、日军一起生活，妇女大概有30名左右，穿着军人裤子，护士戴十字袖章，假装护士”，该陈述说明她被编入南方第9陆军医院的临时护士部以后的情况。裴福男债务严重，但是开设野战邮编存单存款，并且把存款带回韩国。她记得回釜山、经过釜山，把携带物品都被没收。这显示日本接受美军政实施的供托要求，可能与《留守名簿》的供托相关记录（共20837）有一定关系。

她陈述一起乘船的慰安所妇女有三四十名，该陈述与前《表》的归还时期进行比较，于5月3日归还的人数为32名，裴福男有可能于5月3日归还。那么，5月24日裴福男解佣，考虑到这一点，《复员名簿》的5月24日与裴福男一起解佣的人数有23名，解佣日子一样就意味着在同一天一起归还。因此，解佣日子一样的23名是同一天与裴福男一起乘船的同一个慰安所的人，因此我们需要对23名进行调查。

1947年2月5日的《南方第9陆军医院复原情况诏书》内容如下，该部队的复员日程如下。<sup>10)</sup>

《表》南方第9陆军医院复员日程

当地出发年月日	新闻	归还人员	摘要
1946年 1月31日	離島从居港出发, Karamu岛离岛	25	
1946年 2月7日	相同	99	
1946年 2月21日	相同	53	
1946年 5月3日	作为患者护送人及患者从居港出发	32	
1946年 5月22日	相同	16	
1946年 7月16日	作为部队的复员从居港出发	201	以女军属为主
1946年 7月28日	作为患者护送人及患者从居港出发	32	
1946年 8月24日	作为部队的复员从居港出发	114	
1946年 9月8日	作为患者护送人从居港出发	10	
1946年 10月8日	作为部队的复员以及患者护送员从居港出发	41	
1946年 11月8日	作为部队的主要复员从居港出发	72	从新加坡出发, 于1947年1月7日成为复员者

资料：佐世保上陆地支局, 「昭和22年2月5日佐世保上陆支局南方第9陆军病院复员状况调书」.

10) 佐世保上六地支局, 「昭和22年2月5日 佐世保上六支局 南方第9六軍病院復員狀況調書」,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15010481800

南方第9陆军医院的「复员名簿」是日帝抢占下强制动员真相查明委员会所发掘的档案，是证明该部队安全复员的非常重要的资料。在1946年11月8日编写该复原名簿<?>，因此可以推测最后复原日11月8日“作为部队主要复原从居港出发”

该部队的日军“受害者”裴福男陈述时，问她归还的情况，她回答“从新加坡出发”、“我不太舒服，病得哎哟哎哟地叫，可能是6月还是5月，记不清楚”，裴福男可能护送患者的5月3日或22日归还，这在一定程度上与裴福男解聘时期1946年5月24日有关系。

## 2) 受害者卢清子与太原作战

受害者卢清子的口述调查共有4次。卢清子在金学顺奶奶的公开指证后作为第二次原告身分参加1991年‘亚洲太平洋战争韩国牺牲者赔偿请求诉讼’<?>，于1992年4月提交的① 诉状填写日军‘慰安妇’经验；第二口述记录收录于1992年日本记者伊藤考司调查的②《证言’随军慰安妇、女性勤劳挺身队》（1992年8月出版）<?>；第三口述记录为1992年8月21日韩国挺身队研究所③李相花（音译）与奥山洋子调查的录音<?>；第四口述记录收录于2002年《韩国挺身队问题对策协议会附设战争与女性人权中心研究组》的研究员金恩庆（音译）、朴正爱重新调查的研究报告2002-16 《我给谁诉说 - 日军‘慰安妇’证言资料集》。以这些口述陈述为基础研究组编写《创造历史的故事》（2004，女性与人权）

卢清子在1992年（当时73岁）陈述①②③内容是1992年她72岁时进行的，④为她82岁的时候（10年以后）陈述的，调查④的负责人说当时卢清子处于痴呆初期状态。①②③与④内容的最大不同点是①②③的陈述内容详细介绍地名、当时周边环境等，④详细陈述慰安妇生活。

4个口述记录中列为解题对象的是第四个口述在《我给谁诉说 - 日军‘慰安妇’证言资料集》收录的《别问我过去，我很心疼》。笔者以该口述为基础摘要“慰安妇”受害内容，对①②③口述内容进行补充。

通过卢清子的口述可以了解1937年中日战争爆发时如何动员“慰安妇”的过程，就是驻朝鲜军队参加战场时，军人与宪兵顺便抓朝鲜妇女，强制她们上卡车，被抓走当‘慰安妇’。

卢清子的口述资料④为她82岁时陈述的，想不起来具体的事实或地名，但是①②③口述的具体事实、地名很清楚。

卢清子在④ 陈述“日本家伙之土地”，但是①②③上分别陈述taiqinka、taikaqin、韩语太原（日语为taikaqin），太原是中国山西省的城郭城市，卢清子陈述“我去以城墙围绕的地方”，“进城时，这里是部队，那里有慰安妇（中略），还听到马、马厩、‘系马’”等。查看向太原作战派遣的朝鲜军第20帅团的作战日志与机密作战日志，于1937年7月骑兵出战<?>，1938年有运输400匹马的计划。<?>



《照片一》1937年走向太原城的骑兵/ 来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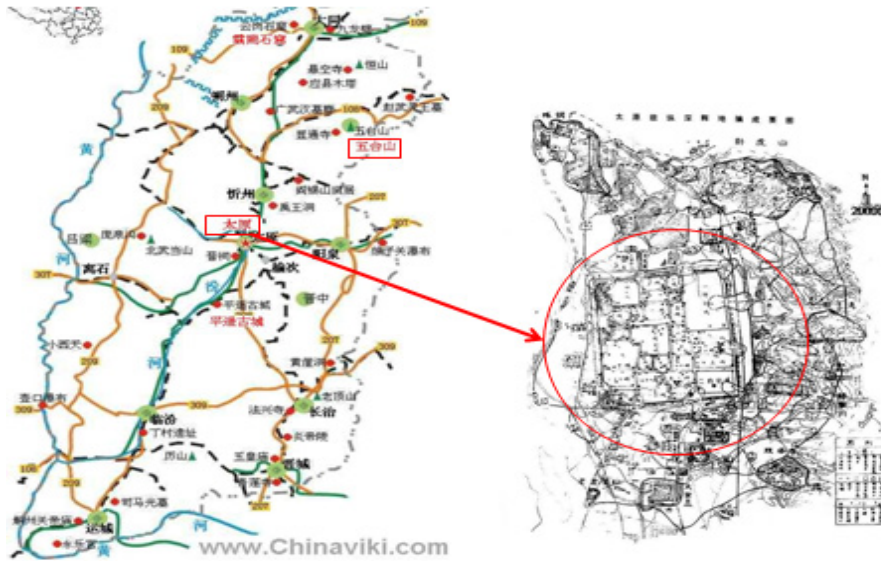
출전 : <http://www.wxrw123.com/ljlm/20160714/1704434.html>  
以守城闻名的将军傅作义，在1937年，为什么没能守住太原城

卢清子到达太原之前，与军队一起坐“无盖的火车”，到了以后她坐卡车3、4个小时，去五台山，如下图所示，现在从太原到五台山坐车3、4个小时。

太原是从1937年9月到11月日本北支那方面军与关东部队联合进行太原作战的地方。根据卢清子口述③，活生生地描述向太原移动时，出现战斗，她到火车轮子下逃身。

## 《照片二》太原城与五台山

朝鲜驻屯军第20帅团参加太原作战<?>。驻朝鲜的20帅团向太原地区进军。第20帅团的司令部位于京城，第20步兵团司令部、步兵第78联队、79联队在京城驻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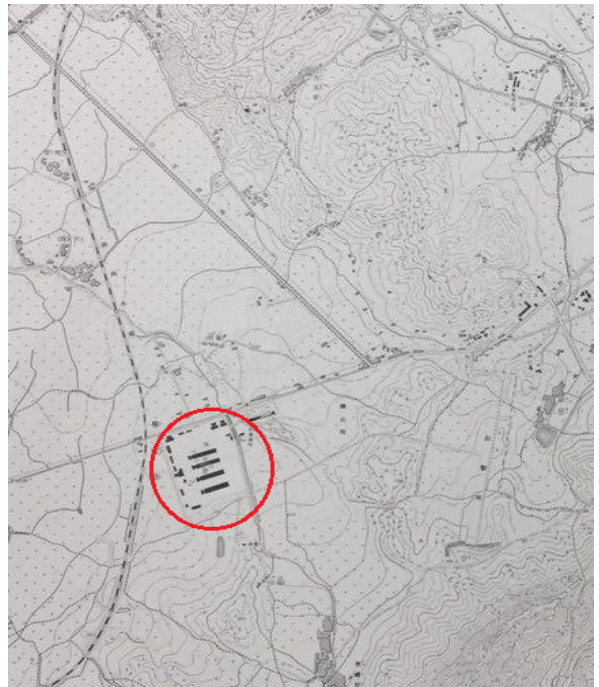


《照片三》步兵第三大队驻屯地（1928年大田市全图）

步兵第80联队的本队位于大丘，但是第3大队驻屯大田<?>，具体驻屯地区是现在西大田站附近，部队前面有铁路。

第3大队为参加从1937年7月开始的太原作战，于1937年从西大田站出发。卢清子与邻居妇女一名上军人卡车，然后与其它38名一起被强制送到太原。

③是卢清子具体陈述被强制送往的情况，“我在17岁的3月播种的时候，农活的妈妈回家把饭菜拿回，但是妈妈气喘吁吁地回来说‘军人抓妇女’，你赶快到姑母家逃身。我去姑母家逃身时，被军人10名与宪兵一名抓，走了五里地，看到垂帘帐篷的卡车3台，我听到卡车里的哭声，卡车两台有军人、黑台商、宪兵（中略），他们让我们（我的



邻居一名)上车,我计算车上的人数,总共38名,38名被抓。”分析前后情况,朝鲜驻屯军去战场之前,除了介绍业者或行政体制以外,军队也被动员绑架妇女。

她具体解释慰安所情况,太原城外五台山部队有“像马厩一样,用木条、木板隔成一个个小房间,房门将黑色帐篷低垂,条件极为简陋,房间共有40个,我的房间号码为27号,不是榻榻米房,而是地板,铺摊子后接受军人,他们给我安全套与卫生纸,每次接待军人都洗澡,我不穿衣服,以裸体接受军人,因为在房间外军人排着长队。”独立混成第4师团的士兵也说太原有慰安所,军官慰安所有日本妇女慰安妇、一般士兵有韩国人与中国人慰安所2个。〈?〉

### 3) 金粉伊与海军征用船浅间丸

受害者金粉伊(音译)有两个口述记录,一个是1999年10月13日挺身队研究所研究员李真善调查的口述记录,另外一个为2002年女性部委托韩国挺身队问题对策协议体附设战争与女性人权中心研究组进行调查的研究报告《我给谁诉说 - 日军‘慰安妇’证言资料集》。以这些口述陈述为基础研究组编写《创造历史的故事》(2004,女性与人权)。李真善研究的口述记录与《创造历史的故事》口述记录基本上差不多,但是后者的记录进一步补充与修改。1999年李真善调查的口述记录简单介绍,因为其目的是填写申请书,但是与2002年口述内容在事实关系上没有很大的差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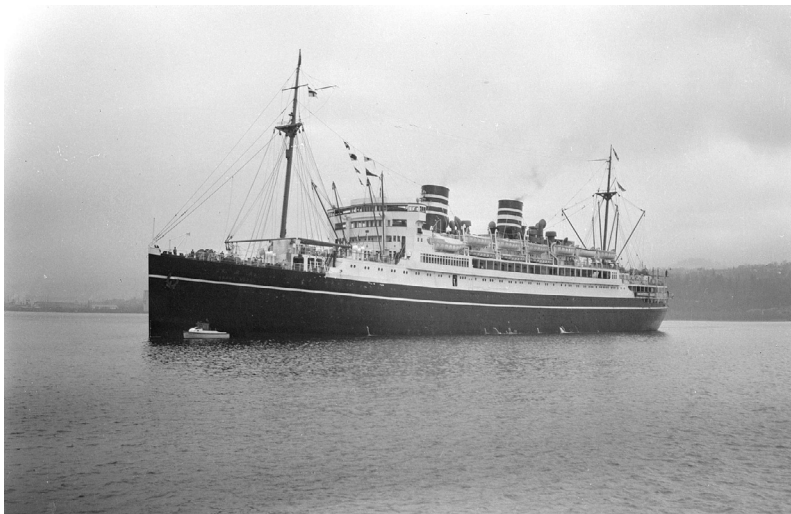
调查员(李真善、车惠英(音译)表示,“金粉伊奶奶口述时已经年老,但是记忆力很好,她按照时间的顺序陈述家人关系、被强制动员‘慰安妇’、‘慰安所’生活的过程、解放以后到回国的情况,陈述一目了然。并且详细的、准确的陈述重要地名、慰安所生活的重要内容”,该解题口述记录收录于2002-16《我给谁诉说 - 日军‘慰安妇’证言资料集》

金粉伊的陈述非常详细。

金粉伊说“我家乡的有名的朝鲜人介绍业者姓金与巡查一起来我家,我到安康分署(音译)旁边的办公室听到有关就业说明”,第一口述时说(本口述记录没有提到)“姓金说‘听说,你们家里有未婚的妇女,应该送她就业,爸爸听完了后,决定我在工厂就业,会解决吃饱问题,而承诺我的就业’。通过该陈述明确了解介绍业者掌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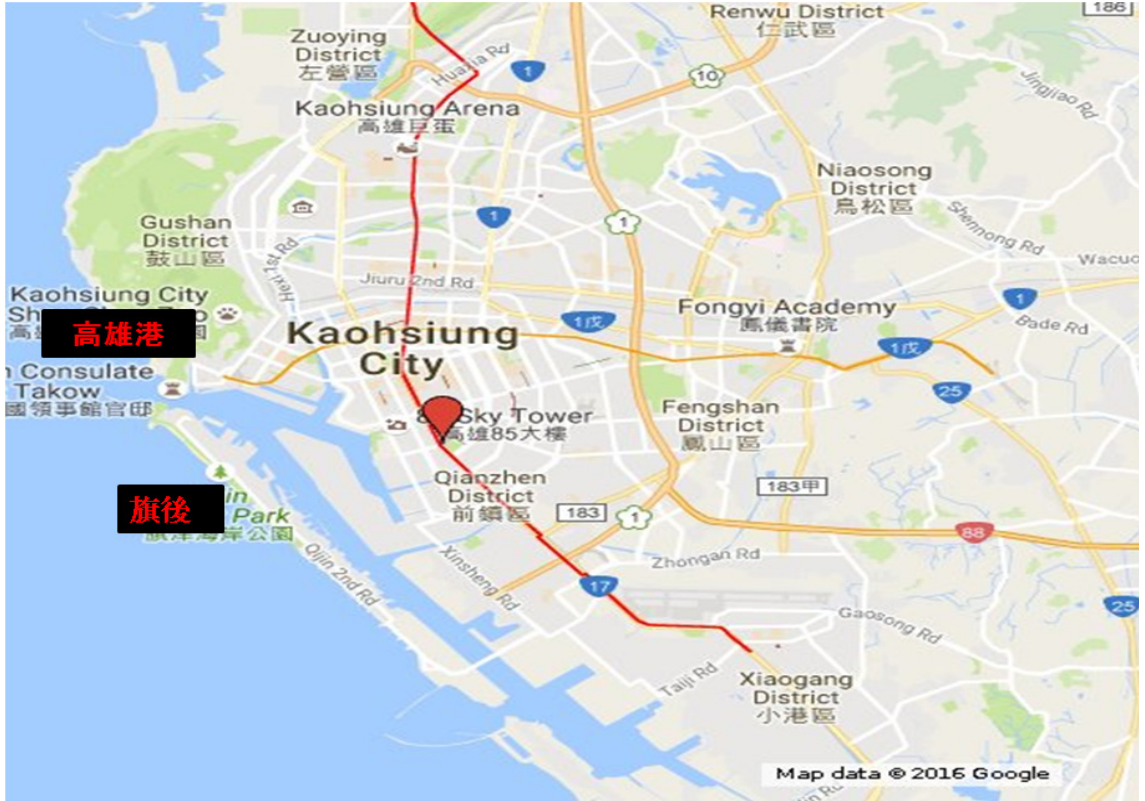
村里的情况，他已经掌握有女儿的家，说服父母而获得允许，这虽然是拐骗就业，但是实际上获得父母的同意动员妇女。但是，她离开之后，父母才得知女儿不是到工厂就业，而是充当“慰安妇”。

金粉伊在办公室得知就业说明后被说服。“业者给我一两天的时间回家准备，过了两天后介绍业者姓金来接我，把我带到集聚的地方。在集聚的地方，我发现我的朋友。巡查跟我们一起坐车移动，姓金带我们去釜山，在釜山的一家旅馆，我与来自不同地区的妇女一起逗留，以后跟着另外的领队业者送到台湾。”介绍业者的访问、拐骗就业、警察配合、妇女移动由国内业者与国外业者分工的一系列环节与1939年以后日本在朝鲜强制动员人员送到日本的劳务动员方式很相似。



《照片四》浅间丸

金粉伊说“在釜山乘坐浅间丸去台湾。船上有很多佩戴将星的军官与征兵军”，浅间丸是海军征用船。浅间丸是当时三菱造船长崎造船所建造的，原来是货客串。但是从1941年11月开始成为海军运输船舶<?>，运行航路以日本占领的南亚地区为主。浅间丸从日本横滨出发，经过釜山，到达台湾等南方地区的海军基地，主要负责输送东西、军人、军官、军属等。



《照片五》打狗港与旗后地区地图

金粉伊到达的地方是台湾高雄旗后地区，旗后属于高雄州，是高雄的小岛屿，因此金粉伊到达高雄后，又乘小船移动到旗后地区。

旗后的行政区域为旗津区旗后町。随着台南的传统妓院打狗市区逐步发展，台南厅担忧性风俗业的卫生管理问题，而在1917年将妓院搬迁到尚未开发的旗后地区，而将打狗地区的贷座敷10所搬迁到旗后地区，形成妓院地区<?>。打狗港在1938年10月攻克广东后，海南岛也被攻克，随之海军战争全面开始，成为重要的军事港口，因此在战时，打狗港附近的旗后妓院中有部分妓院充当海军慰安所，这是很有说服力的。



일본군‘위안부’ 연구 성과와 과제 국제학술회의

---

제3부  
〈종 합 토 론〉

---



토론

---

일본군'위안부' 연구 성과와 과제 국제학술회의

지린(吉林) 성 문서보관소 소장  
관동헌병대 문서 발굴, 정리, 연구 현황 및  
일본군'위안부' 문서

풍효충 (馮曉忠, 지린성당안관)

---



# 지린(吉林) 성 문서보관소 소장 관동헌병대 문서 발굴, 정리, 연구 현황 및 일본군‘위안부’ 문서

풍효충 (馮曉忠, 지린성당안관)

## 1. 지린 성 문서보관소 소장 관동헌병대 문서 소개 및 발굴, 소장 과정

1905년 조직된 일본 관동헌병대는 관동총독부 소속으로 본부를 뤼순(旅順)에 두었다. 1931년 ‘9·18’ 만주사변 이후 관동헌병대가 관동헌병대사령부로 승격되면서, 관동군사령부가 직접 지휘하게 되었다. 1934년 괴뢰만주국 수립 이후 관동헌병대사령부는 뤼순에서 신경(新京, 지금의 長春)으로 이전했다. 중국침략 당시 일본 관동헌병대는 만주국에 맞서는 항일활동 탄압, 항일무장부대원 체포, 동북 지역 정치·경제·군사 등 각종 정보 수집, 치안 유지, 괴뢰만주국 군정요인 감시 등 임무를 맡았다. 지린 성 문서보관소 소장 일본 관동헌병대사령부 문서는 바로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작성되었다.

1945년 8월, 관동헌병대는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항복을 전후해 문서를 대규모로 소각하면서, 완전히 파기하지 못한 문서 일부를 땅에 파묻었다. 1953년 11월 지린 성이 건설 공사 과정에서 이 문서를 우연히 발견했다. 1954년 6월 푸순(撫順) 전범관리소에 수감된 괴뢰 신경헌병대(新京憲兵隊) 경계과 조장(曹長) 히로타 도시미쓰(弘田利光)는 “1945년 8월 중순 헌병대장 히라바야시 시게키(平林茂樹)의 명령으로 신경헌병대 본부와 헌병대사령부의 공문서를 본부 건물 보일러에 넣어 태우고, 미처 태우지 못한 문서는 뒤쪽 땅에 파묻었다.”고 진술했다. 이들 문서가 당시 관동헌병대가 미처 소각하지 못한 문서임을 증명한 것이다. 1982년 이 문서들은 보관 및 연구를 위해 지린 성 문서보관소로 이관되었다. 문서 발견 당시의 상황에 대해, 문서 정리에 직접 참여했던 전(前) 문서보관소 역사처(歷史處) 부처장 자오쑤쥘안(趙素娟)은 이렇게 설명했다. “1953년 11월, 해방군 모 부대의 창춘(長

) 부처장 자오쑤쥘안(趙素娟)은 이렇게 설명했다. “1953년 11월, 해방군 모 부대의 창춘(長春) 주둔군이 지하 매설 전선을 수리하기 위해 부설 관로를 찾다가 괴뢰만주국 일본 관동헌 병대사령부 유적지에서 땅 밑에 묻힌 문서를 우연히 발견했다. 창춘 시 공안국(公安局)을 통해 인력을 조직해 한 트럭 분량의 일본 관동헌병대 문서를 파냈다. 오랫동안 묻혀 있었기 때문에 출토된 문서가 대부분 서로 달라붙어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다.”

## 2. 소장 관동헌병대사령부 문서의 정리, 번역, 연구 개발 현황

### 1) 정리 상황

관동헌병대사령부 문서는 모두 10목(目) 3464권(卷) 49518건(件)으로, 현재 모두 정리되어 스캔까지 완료되었다.

### 2) 번역 현황

2013년 3월 14일 번역이 시작되어, 2016년 10월 기준, 1~6목이 모두 번역 완료되었는데, 그 분량은 중국어 기준 4100만 자이다. 2020년 말까지 전부 번역 완료 예정이다.

### 3) 연구 개발 현황

#### 1) 국내외 기사가 참석한 연구성과

발표 기자회견[철증여산(鐵證如山)-지린 성 신 발굴 일본 중국침략 문서 연구, 철증여산-신 발굴 일본 중국침략 죄행]을 2회 개최했다.

#### 2) 《자오뎨팡탄(焦點訪談, Focus Report)》, 《신원론편보(新聞聯播, News Broadcast)》, 《차오원톈샤(朝聞天下, Morning News)》 등 프로그램을 통해 소장 문서(난징대학살, 위안부, 폭행, 노역, 전쟁포로 등) 관련 특집 보도가 진행됐다.

#### 3) 2014~2016년 대외 전시 2회: 각각 지린 성 신 발굴 일본 중국침략 문서 연구와 신

발굴 일본 중국침략 죄행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다. 지린대학, 지린 성 인민대표대회, 지린 성 지진국(地震局), 창춘 시 실험중고교, 지린성 당교(黨校, 행정대학) 등 여러 기관과 학교에서 전시와 해설이 진행되었다. 첫 해에는 지린 성 문서보관소 내부에서 전시했다.

- 4) 《철증여산》시리즈 총서는 국가 사회과학기금(社會科學基金)의 특별위탁 중요 프로젝트로, 지금까지 《철증여산》 1~6권이 출간되었다. 기타 우정검열 시리즈도 속속 출간되고 있다.

### 3. 일본군 ‘위안부’ 문서 소개

지린 성 문서보관소 소장 일본군 ‘위안부’ 문서는 모두 25건으로, 괴뢰만주국중앙은행 전종(全宗) 및 관동헌병대사령부 전종에 포함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1. 괴뢰만주국 중앙은행 전종, 2건. 이 2건의 문서는 전화 기록으로, 일본군이 군용公款 과목(科目)에서 일본군 부대의 ‘위안부’ 구매 자금을 할당하는 내용을 기록했다. 1944년 11월~1945년 3월 모두 4차례 ‘위안부’ 구매에 쓴 자금은 53만 2천 엔이었다. →《철증여산》18·19건 참고.  
구체적인 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괴뢰만주국 중앙은행 자금부 외자과(外資課)의 ‘위안부’ 구매 자금 문제 관련 전화 기록

시간: 강덕(康德) 12년 3월 30일 오전 10시 40분  
내방자 성명: 안산(鞍山) 지점 후카미(不可三) 지점장 대리  
제목: ‘위안부’ 구매 자금의 건  
본문:  
발송금액: 252000엔  
발송지: 쉬저우(徐州)  
송금인: 화이하이(淮海) 성 연락부(7990부대)  
수령인: 안산 성리(聖理) 사령부

상술 금액이 표면적으로는 공금 형식이지만, 실제 수령인은 안산의 요네이 츠루(米井鶴)였으며, 게다가 아래와 같이 거액의 송금 형식으로 지점에 저축해야 하는 정기 계좌였다. 이러한 저금 형태의 제약이 있었지만, 이러한 제약을 면제하여 군용 공금 과목 처리를 허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작년 11월 17일 50000엔

12월 16일 150000엔

금년 1월 24일 80000엔

본 건은 관동군 제4과 증명을 소지해야만 처리한다.

2) 괴뢰만주국 중앙은행 자금부 외자과의 부대 명의 '위안부' 구입 자금 20여 만 엔 허가 권한 안산 지점 전보 처리 의견에 관한 기록

전보 발송자: 안산 후카미(不可三) 대리

부대 명의의 '위안부' 구매 자금 20여 만 엔은, 수령허가증이 없어 경제부의 알선이 필요하므로, 먼저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본 건의 난이도는 경제부의 결재로 이미 인정받음)

2. 관동헌병대사령부 전중, 화중파견헌병대(華中派遣憲兵隊) 사령관 오키 시게루(大木繁) 보고 2건. 난징(南京) 및 주변 사관(下關), 쥐룽(句容), 전장(鎮江), 진탄(金壇), 창저우(常州), 단양(丹陽), 우후(蕪湖), 닝궈(寧國) 등 8개 시와 현의 일본군 병사수와 '위안부' 배치 비율 및 일본군이 10일 동안 '위안부'를 이용한 인원수 통계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철증여산》7·8건 참고.

구체적인 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 화중파견헌병대(華中派遣憲兵隊)의 《난징 헌병대 관할구역 치안 회복 상황 조사에 관한 보고서(통첩)》 쇼와(昭和) 13년(1938년) 2월 19일

(비고: \*는 결손, 이하 동일)

\*\*위안소의 시설 상황

\*\*구와나(桑名) 여단 후저우(湖州) 이동시 주둔군 감소, \*\*특수 위안소 증설

\*\*위안소는 기존 인원에서 40명(중국인 11명, 조선인 29명) 늘림. 위안소는 병참 지부의 알선을 통해 설치된 것으로, 첫번째는 조선인 6명(각자 1명 통솔), 두번째는 중국인 11명(평균 6,7명), 세번째는 조선인 15명(평균 14,5명), 네번째는 조선인 8명(평균 7,8명)임.

〈각 지 위안시설 상황〉

	우후	단양	창저우	진탄	진장	쥐룽	샤관	난징	지명
		1700	6440	1200			1200	25000	대략적인 주둔병사 규모
	25		46	9	109		6	141	위안부 수
			140	133			200	178	'위안부' 1명이 응대하는 병사 수
불명					10일 동안 위안소를 이용한 병사 수는 5734명	위안소 없음			요점

〈군대 내 위안시설 상황〉

각 군대주둔지역에 기본적으로 모두 위안시설을 설치했으며, 열흘 안에 새로운 위안시설 증설 예정.

총계	후시	룽추이전	창수	우시	장소
7	2	2	1	2	신설 수
60	불명	28	10	22	창기 수
	불명	불명	불명	10일 전과 동일	병사
	0.35%	불명	불명	0.8%	비율
		중국여성 8명 일본여성 20명	일본여성	곧 20명 증가 예상	요점

2) 일본군 화중파견헌병대의 《난징 헌병대 관할지역 치안 회복 상황 조사에 관한 보고서(통첩)》 쇼와 13년(1938년) 2월 28일

2월 11일~2월20일 난징 헌병대 지역 치안 회복 상황(10일 보고)

〈군대의 위안시설 상황〉

닝귀	우후	단양	창저우	진탄	진장	취릉	샤관	난징	지명
		**	**	**	****		1200	25000	대략적인 주둔 병사 규모
	109	6	46	9	109		17	141	‘위안부’ 인원수
		267	140	133	137		71	178	‘위안부’ 1명이 응대하는 병사 수
교통이 끊겨 상황을 알 수 없음	내지인 (일본인) 48, 조선인 36, 중국인 25	인원 부족으로, 현지 ‘위안부’ 모집		10일 동안 위안소를 이용한 자 338명	10일 동안 위안소를 이용한 장병 8929명	위안소를 설치하지 않음	예전에는 6명, 2월 20일 11명 증가	이상의 기록 외, 17명의 예술인 있음	요점

3. 관동헌병대사령부 전종, 《일본군 군인 범죄 조사표(日軍軍人犯罪調査表)》, 《헌병월보(憲兵月報)》 등 14건. 일본군이 ‘위안부’를 유린하고 노역시킨 죄행과 일본군이 여러 지역에 ‘위안소’를 설치했음을 기록하여, 일본군이 시행한 ‘위안부’ 제도의 보편성을 증명하였다. →《철증여산》11~17&20~26 건 참고.  
구체적인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헌병조사 군인범죄 정황표》 쇼와 20년(1945년) 1월 23일

동녕(東寧) 28(城子溝402) 부대 육군 상사 이나가키 아키오(稻垣秋男), 육군 일등병 구리바야시 요네조(栗林米藏), 야스노부 마사토시(安信正利) 처분: 이나가키는 오랫동안 외출이 금지되자 담을 넘어 나가 ‘놀이’로 계획하고, 같은 반(班)의 구리바야시와 야스노부를 설득해 함께 소속 부대를 이탈해 군대위안소로 가서 ‘즐김’. 다음날 즉 24일 2시에 부대로 복귀.

처분 이유: 주색잡기

처분: [통]고

2) 《현역 군인·군속 범죄 조사표》

(2월 25일)바멘통(八面通)548(新京800) 육군 상사 사토 도메지(佐藤登米兒)와 육군

일등병 후지이 히사오(藤井久雄) 처분: 파견대 복무 중 원 소속 부대와 연락 명령을 받아 귀대하는 도중 자신이 공문서를 휴대하고 있음에도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해 사청쯔(下城子) 군대위안소에 가서 ‘즐김’.

처분: 통보

3) 《일본군인 범죄 조사표》

(2월 19일)핑양(平陽)2608예비육군 상사 모리모토 나오이치(森本直市) 처분: 외출 후 취기를 빌어 핑양 제2군위안소에서 ‘위안부’와 다툼을 벌이고 해당 ‘위안부’를 구타함.

처분: 통보

4) 《일본군인 범죄 조사표》

(2월 25일)바멘통(八面通)8392(新京800) 예비육군 스즈키 기요에이(鈴木清榮) 처분: 공무 출장에서 돌아오는 도중, 자신이 비밀 자료를 휴대했음에도 사청쯔(下城子) 역에서 하차하여 군대위안소에 가서 ‘즐김’.

처분: 통보

5) 《일본군인 범죄 조사표》

(2월 22일)다두촨(大肚川)763(城子溝402) 예비육군 히사다 순이츠(久田俊逸)와 다시로 가즈시게(田代一重) 처분: 공무 외출 시에 준사관(准士官)의 외출시간 연장 허가를 받아 군대위안소에 가서 ‘즐김’.

처분: 통보

6) 《일본군인 범죄 조사표》

(2월 27일)라오헤이산(老黑山)7003(牡丹江11) 예비육군 중위 미야자키 유타카(宮崎豊) 처분: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군대위안소에 가서 칼을 뽑아 들고 ‘위안부’를 폭행함.

처분: 통보

7) 《일본군인 범죄 조사표》

(2월 17일)멘두허(免渡河)481(海拉尔840) 육군군인 쓰루오카 요시노리(鶴岡義徳) 처분: 하이랄(海拉尔) 시 군대위안소에서 놀다가, 안면이 있는 ‘위안부’를 상대로 놀던 중 그 손목시계를 훔침.

처분: 통보

8) 일본군 자바헌병대 본부의 《현역 육군 군인 · 군속 범죄 조사표》 쇼와 18년 12월

자카르타조선소 일본군 고용인이 12월 3일 음주 후 원주민 기녀를 원주민의 집으로

강제로 데려가다가 거절당하자 칼을 뽑아 벽을 훼손함.

처분: 헌병에 의한 혼계 및 검토서 제출

- 9) 일본군 자바헌병대 군사경찰관계의 《군인·군속 범죄표(1월)》 쇼와 19년(1944년) 3월 5일

(1월 25일)소속부대와 전선을 전전하다가 부두에서 승선 대기 중, 외출 금지명령이 있었고 ‘내일 아침 출항, 외출 금지’라고 적어 놓았음에도, 먹고 놀기 위해 무단으로 하선하여 시내 군대위안소, 영화관, 사창굴 등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면서 출선 시간에 늦음.

처분: 헌병견부대(憲兵堅部隊) 군법회의 장관(長官)에게 조사 및 보고

- 10) 일본군 자바헌병대 본부의 《헌병월보(1월)》 쇼와 19년(1944년) 3월 5일 제3선박사(船舶司) 군속이 허가 없이 군대위안소에서 ‘즐김’.

처분: 설득 교육

- 11) 일본군 자바헌병대 본부의 《헌병월보(1월)》 쇼와 19년(1944년) 3월 5일

(1월 13일)욕야카르타(Yogyakarta) 철도공장 일본군 고용인이 1월 13일 음주 후 군대위안소에 가서 ‘위안부’를 구타하고 기물을 훼손함.

처분: 통보

- 12) 일본군 자바헌병대 본부의 《헌병월보(1월)》 쇼와 19년(1944년) 3월 5일

(1월 22일)육군남방연료본부(陸軍南方燃料本部) 자바 공장의 일본군 고용인이 공무 출장 중에 군대위안소에 가서 ‘즐김’.

처분: 통보

- 13) 일본군 자바헌병대 본부의 《헌병월보(1월)》 쇼와 19년(1944년) 3월 5일

(1월 27일)자바 주둔 27비행연대의 일본 육군 한 명이 음주 후 군대위안소에 가서 ‘위안부’를 구타하는 등 폭행을 가함.

처분: 통보

- 14) 일본군 자바헌병대 본부의 《헌병월보(1월)》 쇼와 19년(1944년) 3월 5일

(1월 5일)돛보(獨步)1576본부 육군 일등병이 무단 외출하여 군대위안소에서 ‘즐김’.

처분: 통보 및 구두교육

4. 관동헌병대사령부 전종, 《통신검열월보(通信檢閱月報)》 4건. ‘위안부’의 기형적인 생존 상황을 기록하는 동시에, 조선 ‘위안부’가 ‘국가총동원법’ 때문에 군대 ‘위안소’에 왔다는 사실도 드러냈다. (일본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일본 정부가 통과시킨 법안으

로, 전시 국방 목표 달성을 위해 인력과 물자를 통제하고 동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는 전시 국가총동원에 필요시 합법적으로 제국 신민을 징용한다는 내용이 있다)→《철증여산》9~10건 및 27~28건 참고.

문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일본군 중국주둔헌병대 《통신검열월보(2월)》 쇼와 16년(1941년) 4월 1일

발신인: 제84야전국 와타나베(渡邊) 부대 전담 도무라 히데오(戸村英雄)

수신인: 도쿄(東京) 시 혼조(本所) 구 마사고초(眞砂町) 36 기요유키료(清如寮) 요시다 다모츠(吉田保)

내용: 군대 관리 하의 P가옥(매음장소)에는 약 50칸의 방이 있고, 이 곳에 거주하는 여성들 가운데 좋아하는 이들도 있는 작은 세상이다. 일부 장교 군관과 이들 ‘전시 처자’ 사이에 책임과 의무가 없는 임시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다. 부대의 이동에 따라, 만약 꼭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여성들이 자신의 집을 간단히 챙겨 연인을 따라 함께 옮긴다. 도착하면 다시 그러한 장소에 머물고 남자도 자주 방문해, 특수한 동거 생활을 형성한다. 이렇게 한 전선에서 다른 전선으로 따라 옮기는 여성이 상당히 많다.

처분: 삭제

2) 일본군 중국주둔헌병대 《통신검열월보(2월)》 쇼와 16년(1941년) 4월 1일

발신인: 하라다(原田) 부대 겐조(見城) 부대 오기와라(荻原) 부대 본부 기타호리 고지(北堀考治)

수신인: 사이타마(埼玉) 현 히키(比企) 군 미야마에(宮前) 마을 오아자하츠오(大字初尾) 고바야시 기쿠노(小林キクノ)

내용: 고향의 편지를 받지 못해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다. 모르는 사이 성정(性情)이 바뀌었다. 출정하고 2년 동안 술 한 방울 마시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0.5~1리터를 마신다. 게다가 자포자기한 나머지 조선여인이 있는 전쟁터의 P가옥(매춘하는 곳)에 간다. 기원절(紀元節)부터 갔는데, 당시 심정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원래 동정을 지켜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한 번의 놀음으로 병에 걸렸다. 의무실의 치료로 금방 완치되었다. 지금 내지의 신문이나 잡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게 통제하지만, 이는 도쿄 일부 지역에 국한될 뿐 사이타마 현 일대 사람들은 비교적 자유롭지 않는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성격이 일본인의 결점이다. 아직 3,4년을 더 견뎌야 하다니, 내가 흡소한다고 해도 방법이 없다. 다시

는 조선여인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누차 말하고 다녔는데, 나는 조선여인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서 잤다. 지금 편지를 쓰면서도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진다.

처분: 절취(오려 냄)

3) 관동헌병대의 《우검월보(郵檢月報)》

발신자: 협화회(協和會) 안동성(東安省) 본부 \*\*오젠(應善)

수신자: 삼강성(三江省) 쉰이빈(綏濱) 가 만주제국협화청년단(滿洲帝國協和靑年團) 쉰이빈(綏濱) 현 통감부(統監部) 선위타이(申玉泰)

내용: (7월 22일)부디 이 서신은 타인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니 읽고 나서 소각해주시시오. (전략)나도 최근 당신과 같은 심리 상태에 빠졌으니, 직설적으로 말해도 양해해 주십시오.

① 특별 ‘위안부’가 많아 매우 우려된다. (현재 이상현상 나타나지 않음)

② 둘째는 바로 사람의 문제. 본 성의 사무장이 앞의 이유로 인한 모종의 사건으로 사직했다. 현직 결원\*\*\*이다. \*\*에 참사 1명(일본인)\*\*\*\*가 있다.

처분: 삭제 후 발송

4) 헤이허(黑河) 지방 검열부의 《우검월보(郵檢月報)》 쇼와 16년(1941년)

발신인: 헤이허(黑河) 다케다 부지로(武田武二郎)

수신인: 아키타(秋田) 시 오마치(大町) 4 무라카미 히데오(村上英子雄)

내용: 북만주 헤이허 시가지 북쪽 4리의 산신푸(山神府) 병영 가와무라(川村), 이노우에(井上), 와타비키(綿引) 등은 예비역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는 아득한 광야로, 국위를 과시하는 각 병과의 병영만 있고, 보이는 것은 육군 관사 구석에 설치된 동서 방향의 위안소뿐이다. 소위 위안소는 협소한 극장 같기도 하고 작은 창고방 같기도 한데, 구체적인 모양은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 곳은 병영에서 생활하는 병사에게 기분전환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소다. 위안소의 병력은 20명에 불과하며, 모두 국가총동원법의 제약을 받는 조선인이다. 요시코(芳子), 하나코(花子) 등에게 분홍색 배급권을 나누어 준다. 군대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할인 이후의 정가이므로, (현역이 아닌) 임금노동자는 대상이 아니다. 배급권은 일종의 직권 남용의 방식으로 장교에게 전문적으로 공급된다.

처분: 구금

5. 관동헌병대 사령부 전종, 《사상대책월보(思想對策月報)》3건. ‘위안부’가 일본군인과 군대복무요원만을 상대하여 조선인의 불만을 샀으며, 다툼으로 인해 일본 여성에게

구타당하는 등 비참한 생존 현황을 기록함. →《철증여산》29~31권 참고.

구체적인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지닝(鷄寧) 임시헌병대 《사상대책월보》

(5월 21일)동안성(東安省) 보리(勃利) 가에서 4명의 조선인이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만경(滿警) 파출소에 가 일본인이 안 보이자 만주인에게 “이 곳의 일본인은 너무 오만방자하다!”고 외친 후에 의자를 부수었다. 이 가운데 2명은 이어 군대위안소에 가 “이 곳은 군인과 군대복무인원만 싸게 놀게 한다. 우리는 들어오는 것조차 안 되니, 정말 화가 난다.”고 군대를 비방하는 말을 했다.

2) 지닝(鷄寧) 임시헌병대 《사상대책월보》

(5월 2일)무단장(牡丹江) 쑤이양(綏陽) 가 특수위안소 부근 전신주에 하얀 종이에 쓴 것(군인의 행동으로 추측)이 나붙음.

국경 여성에게 고하니, 여러분이 이용하도록 다음과 같이 위안소를 설치한다.

보수 미혼——무료

기혼——10전

자녀가 있는 경우——1원

(처녀 우대, 빵과 커피 따로 배급)

위안소 소장 P군사령관

3) 동녕(東寧) 헌병대 《사상반월보(思想半月報, 10월 전반기)》 쇼와17년(1942년) 10월 18일

쇼와 17년 10월 18일

東憲高 제807호

보고 및 통보 기관: 관동헌병대사령부, 55, 70, 지닝(鷄寧) 헌병대, 무단장(牡丹江)

헌병, 자무쓰(佳木斯) 헌병대

필사: 다이 시타헤이(隊下丙)

사상반월보(10월 전반기)

요지

- 一. 절도 사건 때문에 일본 여성이 특수위안부(조선인)와 맞서 싸움 발생.
- 二. 일부 조선인이 만주계 학교 자금 할당 시 조선학교를 고려하지 않아 불만을 가졌을 뿐, 이 밖에는 이상 없음.
- 三. 만주계는 여전히 경제 통제 강화 때문에 점점 더 불안해하며, 줄곧 계속된 노동자 집단도망과 아편금지에 대한 불만까지 있지만, 시국에 대한 인식은 결여됨.

四. 백러시아인은 기본적으로 조용하며, 이상 없음.

본문

一. 각 민족 동향

(一)일본인

1. (생략)

2. 일본 여성과 군 특수위안부의 분쟁

10월 8일 미산(密山) 현 싱카이(興凱) 군대 특수위안소에서, 일본 여성이 조선계 '위안부'의 손목시계를 절취하여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6명의 '위안부'가 일본 여성의 집으로 몰려가 모욕적인 말을 했고, 일본 여성이 화가 나 그 가운데 1명의 '위안부'를 구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힘.

#### 4. 새로 발견된 '위안부' 관련 문서, 관동헌병대 사령부 전종, 1건.

《현역 군인, 군대 복무인원 주요 불법행위 조사표》

소속: 라오헤이산(老黑山) 844부대

관등 및 인원수: 육군 1명

날짜: 4월 6일

내용: 외출 중 불법 '보드카'를 강제로 구매해 인사불성으로 취한 후 군 위안소에 가서 여러 명의 기녀를 구타하고, 이후 다시 만주인 잡화점의 창을 깨고 판매 물품을 뒤엎으면서 고용한 잡역부를 구타했다.

소속: 라오헤이산 844부대

관등 및 인원수: 군대 복무인원 1인

날짜: 4월 6일

내용: 외출 중 불법 '보드카'를 강제로 구매해 인사불성으로 취한 후, 군 '위안부' 침실에 불법 침입해 거울, 유리, 전등 등 약 13엔 가치의 물품을 훼손하고, 여러 명의 '위안부'를 구타했다.

(역자주: 이상 두 건은 같은 페이지의 내용임에도 '기녀'와 '위안부'라는 다른 어휘가 나타남)

# 吉林省档案馆馆藏 关东宪兵队档案挖掘、整理、研究情况介绍及日军 “慰安妇”档案综述

冯晓忠 (吉林省档案馆副研究馆员)

## 一、吉林省档案馆馆藏关东宪兵队档案介绍及挖掘、进馆过程

日本关东宪兵队组建于1905年，隶属于关东总督府，本部设在旅顺。1931年“九一八”事变后，关东宪兵队升格为关东宪兵队司令部，改由关东军司令部直接领导。1934年伪满洲国成立后，关东宪兵队司令部从旅顺迁往新京（长春）。侵华时期，日本关东宪兵队担负着镇压反满抗日活动、搜捕抗日武装部队人员、搜集东北政治、经济、军事等各类情报，维持治安，监视伪满军政要人等任务。吉林省档案馆馆藏日本关东宪兵队司令部档案就是在这些活动中形成的。

1945年8月，关东宪兵队为掩盖罪行，在投降前后大规模焚烧销毁档案，同时将一些未及彻底销毁的档案埋入地下。1953年11月，吉林省在进行建筑施工时，偶然发现了这批档案。1954年6月，关押在抚顺战犯管理所的伪新京宪兵队警戒系曹长弘田利光供述：“1945年8月中旬奉宪兵队长平林茂树之命，将新京宪兵队本部及宪兵队司令部的公文档案于本部楼下锅炉内焚毁，未来得及烧的就埋在后边地下。”证实这些档案正是当年关东宪兵队来不及销毁的档案。1982年这批档案被移交给吉林省档案馆保管、研究。关于发现档案时的场景，档案整理亲历者、原档案馆历史处副处长赵素娟这样讲到：“1953年11月，解放军某部驻长部队为修理地下电线，寻找铺设管路，在伪满日本关东宪兵队司令部旧址偶然发现埋藏在地下的档案。经长春市公安局组织人员，挖出一大卡车日本关东宪兵队档案。由于长期埋藏，出土后档案大部分粘在一起，甚至烂成一团。”还原了档案出土时的情景。”

## 二、馆藏关东宪兵队司令部档案的整理、翻译、研究开发情况

### （一）整理情况

关东宪兵队司令部档案共10目3464卷49518件，目前均已整理成件，且扫描完成。

### （二）翻译情况

2013年3月14日开始翻译，截止2016年10月份，1-6目已经全部翻译完成，共计翻译成汉字4100万字，预计2020年底全部翻译完成。

### （三）研究开发情况

1. 召开两次研究成果媒体发布会（铁证如山——吉林省新发掘日本侵华档案研究、铁证如山——新发掘日本侵华罪行），国内外记者参会。
2. 在《焦点访谈》、《新闻联播》、《朝闻天下》等节目对馆藏档案（南京大屠杀、慰安妇、暴行、劳工、战俘等）进行过专题报道。
3. 在2014 -2016年对外展出2次，一次是吉林省新发掘日本侵华档案研究，一次是新发掘日本侵华罪行。先后去往吉林大学、省人大、省地震局、长春市实验中学、吉林省委党校等多个机关单位、学校进行展板讲解，并在我单位首年设展。
4. 《铁证如山》系列丛书为国家社会科学基金特别委托重大项目。截止目前已出版《铁证如山》的1-6卷。其他邮政检阅系列在陆续出版中。

## 三、日军“慰安妇”档案介绍

吉林省档案馆馆藏日军“慰安妇”档案共计25件，来自伪满中央银行全宗以及关东宪兵队司令部全宗，内容分为以下五个部分：

（一）伪满中央银行全宗，共2件。该2件档案为电话记录，记载了日军以军用公款科目转账划拨给日军部队购买“慰安妇”专项资金内容。从1944年11月到1945年3月共4次用于采购“慰安妇”的资金为53.2万日元。→见《铁证如山》18、19件  
具体档案内容如下：

1. 伪满中央银行资金部外资课关于“慰安妇”采购资金问题的电话记录  
时间：康德12年3月30日上午10点40分

来访者名：鞍山支店 不可三 支店长代理

题名：采购“慰安妇”资金之事

正文：

发送金额：252000日元

发送地：徐州

送金人：淮海省联络部（7990部队）

受领人：鞍山圣理司令部

上述金额表面是公款形式，实际受领人是在鞍山的米井鹤，并且已经如下所示，需要用多额汇款的形式存入支店的定期户头。虽然有这种存款限制，但推测可以免除其限制，允许其以军用公款的科目处理。

去年 11月17日 50000日元

12月16日 150000日元

今年 1月24日 80000日元

本件需持关东军第四课证明办理。

2. 伪满中央银行资金部外资课关于鞍山支店来电办理部队名义的“慰安妇”购入资金二十数万元许可权限意见的记录

来电者：鞍山 不可三 代理

以部队名义购入“慰安妇”的资金，二十数万日元没有领取许可证，需要经济部的斡旋，因此需要先得到对方的承诺。（本件内容的困难性已经得到经济部裁决的认可）

（二）关东宪兵队司令部全宗，华中派遣宪兵队司令官大木繁的报告，共2件。记载了南京及周边地区下关、句容、镇江、金坛、常州、丹阳、芜湖、宁国等8个市县日军兵员数及“慰安妇”配置比例，日军在10日内利用“慰安所”的人数统计等内容。→ 见《铁证如山》7、8件

具体档案内容如下：

1. 日军华中派遣宪兵队《关于南京宪兵队辖区治安恢复状况调查报告（通牒）》

昭和13年（1938年）2月19日

（注：\*为残损，以下同）

\*\*慰安所的设施状况

\*\*桑名旅团转到湖州时，驻兵有所减少，\*\*增设了一处特种慰安所。

\*\*慰安所所在之前的基础上增加四十名(中国人十一名, 朝鲜人二十九名)。慰安所是通过兵站支部的斡旋设置的, 第一为朝鲜人六人(各率一人), 第二为中国人十一人(平均为六、七人), 第三为朝鲜人十五名(平均为十四、五人), 第四为朝鲜人八名(平均为七、八人)。

### 各地慰安设施状况

	芜湖	丹阳	常州	金坛	镇江	句容	下关	南京	地名
		1700	6440	1200			1200	25000	驻屯兵员概数
	25		46	9	109		6	141	慰安妇数
			140	133			200	178	“慰安妇”一人应对的士兵数
不明					本句中利用慰安所的士兵人数为5734名	无慰安所			摘要

### 军队内的慰安设施状况

在各驻军屯地内基本上都配置了慰安设施, 本句中内将增设新的慰安设施。

总计	沪西	龙萃镇	常熟	无锡	场所
7	2	2	1	2	新设数
60	不明	28	10	22	娼妓数
	不明	不明	不明	和上句一样	兵员
	0.35%	不明	不明	0.8%	比率
		中国女八名 日本女二十名	日本女人	预计近期要增加二十名	摘要

### 2. 日军华中派遣宪兵队《关于南京宪兵队辖区治安恢复状况调查报告(通牒)》

昭和13年(1938年)2月28日

自2月11日至2月20日南京宪兵队地区治安恢复状况(旬报)

#### 十一、军队的慰安设施状况

宁国	芜湖	丹阳	常州	金坛	镇江	句容	下关	南京	地名
		**	**	**	****		1200	25000	驻屯兵员概数
	109	6	46	9	109		17	141	“慰安妇”人数
		267	140	133	137		71	178	“慰安妇”一人所应对的士兵数
因交通中断, 情况不明	内地人(日本人) 48, 朝鲜人 36, 中国人 25	因人员不够, 在当地招募“慰安妇”		本旬利用慰安所的有338名	本旬利用慰安所的将兵有8929名	未设慰安所	以前是6名, 2月20日增加了11名	上记之外, 另有17名艺者	摘要

(三) 关东宪兵队司令部全宗, 《日军军人犯罪调查表》、《宪兵月报》等, 共14件。记录了日军蹂躏、奴役“慰安妇”的罪行, 同时也记录了日军在多地建有“慰安所”, 证实了日军实施“慰安妇”制度的普遍性。→见《铁证如山》11-17件、20-26件具体档案如下:

1. 《宪兵调查军人犯罪情况表》昭和20年(1945年)1月23日

处置东宁二八(城子沟四〇二)部队陆军上士稻垣秋男、陆军一等兵栗林米藏、安信正利: 稻垣因为禁止长期外出, 计划翻墙出去“游玩”, 并劝诱同班的栗林和安信, 同谋之后离开所属部队, 到军队慰安所“游玩”。于第二天即24日2点回队。

处置原因: 因好酒色

处置: [通]告

2. 《现役军人军属犯罪调查表》

(2月25日) 处置八面通五四八(新京八〇〇) 陆军上士佐藤登米儿、陆军一等兵藤井久雄: 在派遣队服务中, 被命令与原部队联系而归队途中, 尽管自己携带公文书, 利用等列车时间去下城子军队慰安所“游玩”。

处置: 通报

3. 《日本军人犯罪调查表》

(2月19日) 处置平阳二六〇八预备陆军上士森本直市：外出后借酒势在平阳第二军慰安所，同“慰安妇”发生争执并殴打该“慰安妇”。

处置：通报

4. 《日本军人犯罪调查表》

(2月25日) 处置八面通八三九二(新京八〇〇)预备陆军铃木清荣：公出返回途中，不顾自己携带秘密资料，公然在下城子车站下车，到军队慰安所“游玩”。

处置：通报

5. 《日本军人犯罪调查表》

(2月22日) 处置大肚川七六三(城子沟四〇二)预备陆军久田俊逸、田代一重：在公用外出之际，获取准士官准许延长外出时间的许可，到军队慰安所“游玩”。

处置：通报

6. 《日本军人犯罪调查表》

(2月27日) 处置老黑山七〇〇三(牡丹江一一)预备陆军中尉宫崎丰：饮酒大醉后到军队慰安所，拔刀对“慰安妇”施以暴行。

处置：通报

7. 《日本军人犯罪调查表》

(2月17日) 处置免渡河四八一(海拉尔八四〇)陆军军人鹤冈义德：在海拉尔市军队慰安所登楼游玩，把熟悉的“慰安妇”当做敌娼，游玩中盗取其手表一只。

处置：通报

8. 日军爪哇宪兵队本部《现役陆军军人军属犯罪调查表》昭和18年12月

雅加达造船所日军雇员于12月3日酒后把原住民妓女强行带往原住民宅，被拒绝后拔刀毁墙。

处置：被宪兵训诫并上交检讨书

9. 日军爪哇宪兵队军事警察关系《军人军属犯罪表(一月)》昭和19年(1944年)3月5日

(1月25日) 与所属部队转战前线，在码头乘船等待中，虽然命令禁止外出，并已写明“明早出船，不得外出”，还为了饮食游玩，无故下船，并到市内军队慰安所、电影院、私娼窑等饮酒游玩，以致耽误了出船时间。

处置：搜查、报告给宪兵队本部军法会议长官

10. 日军爪哇宪兵队本部《宪兵月报(一月)》昭和19年(1944年)3月5日

第三船舶司军属未经允许在军队慰安所“游玩”。

处置：说服教育

11. 日军爪哇宪兵队本部《宪兵月报（一月）》昭和19年（1944年）3月5日  
（1月13日）日惹铁道工厂日军雇员1月13日酒后到军队慰安所殴打“慰安妇”、损坏器物。

处置：通报

12. 日军爪哇宪兵队本部《宪兵月报（一月）》昭和19年（1944年）3月5日  
（1月22日）南燃爪支厂一名日军雇员利用公出到军队慰安所“游玩”。

处置：通报

13. 日军爪哇宪兵队本部《宪兵月报（一月）》昭和19年（1944年）3月5日  
（1月27日）驻爪哇二七飞联的一名日本陆军酒后到军队慰安所殴打“慰安妇”施以暴行。

处置：通报

14. 日军爪哇宪兵队本部《宪兵月报（一月）》昭和19年（1944年）3月5日  
（1月5日）独步一五七六本部陆军一等兵补擅自外出到军队慰安所“游玩”。

处置：通报、口头教育

（四）关东宪兵队司令部全宗，《通信检阅月报》，共4件。记载了“慰安妇”的畸形生存现状，同时还表明朝鲜“慰安妇”是因“国家总动员法”而来到军队“慰安所”的。（日本“国家总动员法”是1938年日本政府通过的法案，是在战时为达成国防之目的，统制运用人力及物力资源目的的法律，其中有日本政府于战时在国家总动员上，遇有必要时依法征用帝国臣民的内容。）→见《铁证如山》9-10件、27-28件

具体档案如下：

1. 日军中国驻屯宪兵队《通信检阅月报（二月）》昭和16年（1941年）4月1日

发信人：第八四野战局转交渡边队 户村英雄

收信人：东京市本所区真砂町三六清如寮 吉田保

内 容：军队管理下的P屋（淫卖屋）大约有五十间左右的房屋，此处居住的女人们也有喜欢的小天地。对象大都是将校和下士官。也有些将校军官和这些“战时妻子”保持着临时的无责任义务的关系。随着部队的移动，假如必须向○○方向转移的时候，女人们就会简单收拾自己的行李，跟随恋人一起转移。到地点后

还到那种地方，男人也会常常来，就形成了特别的同居生活。这样从一个战线追到另一个战线的女人相当多。

处 置：削除

2. 日军中国驻屯宪兵队《通信检阅月报（二月）》昭和16年（1941年）4月1日

发信人：原田部队见城部队获原部队本部 北堀考治

收信人：埼玉县比企郡宫前村大字初尾 小林キクノ

内 容：没有收到故乡的信，我的心无处安放。不知何时开始，性情发生变化。出征以来的两年间一滴酒没喝，今年开始喝了一两斤。并且自暴自弃，去了朝鲜女人在战地的P屋（ピーヤ）。我是纪元节开始去的，当时的心情我不知道如何诉说。我心里是想保守童贞，不要染病。但是这一次游玩，就染上了病。经过医务室的治疗很快痊愈了。现在内地的报纸、杂志对这方面控制比较严格，但这只限于东京的一部分地区，埼玉县一带的人比较轻松自在吧。这种忽冷忽热的性格是日本人的缺点。还要再熬三、四年，我现在即使哭诉也没有办法。我已经到处说再也不找朝鲜女人了，可是又去朝鲜女人那睡觉。现在写着信都觉得自己是傻瓜。

处 置：切除（抠掉）

3. 关东宪兵队《邮检月报》

发信者：协和会东安省本部 \*\*应善

收信者：三江省绥滨街满洲帝国协和青年团绥滨县统监部 申玉泰

内 容：（7月22日）拜托了，这封信绝不能让他人看见，读完后请烧掉。（前略）我最近也陷入了和您同样的心理状态，请允许我直言其说。

1) 我很忧虑特殊“慰安妇”之多。（目前没有异常事项出现）

2) 其次就是人的问题。本省的事务长以前因为某件事辞职。现任缺员\*\*\*。\*\*理有参事一人（日本人）\*\*\*\*。

处 置：删除后发送

4. 黑河地方检阅部的《邮检月报》昭和16年（1941年）

发信人：黑河 武田武二郎

收信人：秋田市大町四 村上英子雄

内 容：北满黑河市街北方四里的山神府兵舍的川村、井上、绵引诸氏，诉说着成为预备役一员的日子。这里是一望无垠的旷野，只有显示国威的各兵科的兵舍，仅能看到的是利用陆军官舍的一角开设的东西方向的慰安所。所谓的慰安所既像一寸见方的小剧场，也像储物的小屋，很难想象出具体的模样。但这里却是生活在此兵舍的士兵非常重要的消遣解闷

的地方。慰安所的兵力只有20名，都是朝鲜人，均受国家总动员法的制约，分发芳子、花子等粉红色配给券。不是军队的话，无法看到此情此景。因为是打折后的公定价格，所以不面向（非现役的）工薪人员。配给券作为一种职权滥用的方式，专门供给将校。

处 置：扣押

（五）关东宪兵队司令部全宗，《思想对策月报》，共3件。记载了“慰安妇”仅对日本军人、军队服务人员服务引发朝鲜人不满以及因纠纷被日本妇女殴打等悲惨生存现状。→见《铁证如山》29-31件

具体档案如下：

1. 鸡宁临时宪兵队《思想对策月报》

（5月21日）东安省勃利街四名朝鲜人饮酒大醉后到满警派出所，看日本人不在，便对满人口出狂言：“这里的日本人太狂妄自大了！”之后将椅子砸坏。其中两名又继续到军队慰安所，说出反军的话：“这里只让军人、军队服务人员便宜游玩，我们连进都进不来，太让人气愤了。”

2. 鸡宁临时宪兵队《思想对策月报》

（5月2日）贴于牡丹江绥阳街特殊慰安所附近的电线杆上，用白纸写的（推测为军人所为）。

国境女性敬请周知，此次在当地开设如下慰安所供利用

酬金 未婚——免费

已婚——五十钱

有子女——一元

（处女优待，另分给面包和咖啡）

慰安所所长P军司令官

3. 东宁宪兵队《思想半月报（十月前期）》昭和17年（1942年）10月18日

昭和17年10月18日

东宪高第八〇七号

报告、通报单位：关宪司、55、70、鸡宁宪兵队、牡丹江宪兵、佳木斯宪兵队

抄写：队下丙

思想半月报（十月前期）

要旨

- 一、由于盗窃事件，日本妇人与特殊慰安妇（鲜人）发生对立纷争。
- 二、部分鲜人因为满系学校资金划拨没有考虑鲜系学校而产生不满，除此之外没有异常。
- 三、满系依然由于统制经济强化而愈发不安，而且还对一直持续的劳工集体逃跑以及禁止鸦片感到不满，但缺乏对时局的认识。

## 四、白俄罗斯人基本平静，没有异常发生。

本文

### 一、各民族的动向

#### （一）日本人

##### 1.（略）

##### 2. 日本妇人与军特殊慰安妇的纷争

10月8日在密山县兴凯军队特殊慰安所，因为日本妇人窃取了鲜系“慰安妇”的手表，两者发生纷争。6名“慰安妇”涌到日本妇人家中，对其施以侮辱性的言辞，日本妇人怒火中烧，殴打了其中的一名“慰安妇”，给她造成伤害，治疗两周。

四、新发现有关“慰安妇”的档案，关东宪兵队司令部全宗，共1件。

《现役军人、军队服务人员主要非法行为调查表》

所属：老黑山八四四部队

官等级、人数：陆军1人

时间：4月6日

内容：外出中，强行购买禁止出售的“伏特加”，酩酊大醉后到军慰安所殴打数名妓女，之后又打碎了满人杂货店的窗户，推倒了出售的货品，殴打了雇佣的杂役。

所属：老黑山八四四部队

官等级、人数：军队服务人员1人

时间：4月6日

内容：外出中，强行购买了禁止出售的“伏特加”，酩酊大醉后，私闯军慰安妇寝室，损坏了镜子、玻璃、电灯等物品，价值约13日元，还殴打了数名慰安妇。

（译者注：以上两件为同一页内容，却出现了妓女和慰安妇两个字眼。）